東亞大學校 孔子學院·大韓中國學會·東北師範大學 東亞細亞研究院

2018年度 春季 國際學術大會

斯文在兹 同坐问道

— 大数据时代东亚文明共同体之探索

동아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일 시】2018年 4月 27日 (09:00~18:00)

【장 소】東亞大學校 (부민캠퍼스 B05 국제관 다우홀)

【주 최】東亞大學校 孔子學院·大韓中國學會·
東北師範大學 東亞細亞研究院·昌原大學校 中國研究中心

【주 관】東亞大學校 孔子學院·東北師範大學 東亞細亞研究院

【협 력】駐釜山中國領事館·東亞大學校國際交流處·東亞大學校對外協力處·
東亞大學校 國際專門大學院 BK21+國際通商分爭調整專門家養成事業團

목 차

• 식순안내 ····· 3

• 오시는길 ····· 9

【기조발표】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 발전 방향 탐색을 위한 연구

• 多識과 博物 :『試經』의 魚類와 동아시아 魚類博物學 / **김문기** ····· (현장배부)

• 东亚的礼争 / **韩东育** ····· 13

• 近代日本"社会主义"概念的接受及其展开 / **大田英昭** ····· 19

【중국문학 분과】

• 心灵创伤与灵魂治疗 : 解读张翎的『余震』、『唐山大地震』 / **毕文秀** ····· 31

• 치유, 회복, 성장의 공간
— 쑤웨이전(蘇偉貞)의 『침묵의 섬(沈默之島)』 연구 / **전남윤** ····· (현장배부)

• 江户日本的"孔子形象"探析 / **董灏智** ····· 41

• 저층문학의 새로운 가능성 — 판위수 현상을 중심으로 / **김정수** ····· 45

• 寒山詩의 儒·道家적 양상 고찰 / **정원호** ····· 51

• 시경 중의 "악(乐)" 사상의 연구 / **송진열** ····· 67

• 중국 드라마의 생산메커니즘과 주선률 드라마 / **고윤실** ····· 81

•『鏡花緣』속 유토피아와 혁신사상 / **박명진** ····· 87

• "楚瓌"与"鲁瓌" : 朱舜水的家国之思 / **刘晓东** ····· 93

• 모옌 소설 특징과 중국 국내외 문학과의 관계
— 모옌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 **유소희** ····· 101

【중국어학 분과】

• An Error Analysis on Summary Writing of Chinese English Learners / **여정화 · 김주현** ···· 107

• 近代日本的语言政策研究述评 — 以保科孝一为中心 / **洪仁善** ····· 111

- "X+爲"类副词的词汇化现象及"爲"的语义功能研究
  — 以"极为"、"最为"、"大为"为例 / **주기하** ····· 117
- 중국어 '把'와 한국어 '를'의 의미기능 대조와 습득 순서 / **양소열 • 김영실** ····· 129
- '道'와 '教'의 인지의미론적 분석 / **김정필** ····· 141
- 『漢籍國字解全書』의 고찰을 통해 본 漢籍飜譯과 日本漢學의 성격 / **최정섭** ····· 145
- 論"有益"的詞性、釋義及相關問題 / **김종찬** ····· 147
- 4차 산업혁명과 중국어 교육의 미래
  — 한국 거점 국립대 중국 관련 학과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 **이근희 • 김현태** ····· 155

【중국사회과학 분과】

- 朝鲜使臣所见晚明辽东社会的民生与情势 / **刁书仁** ····· 163
- 모바일로 떠나는 중국남방여행 : 화동지역 / **이중희** ····· 171
- 东亚都城研究相关问题 — 中国学界对日本都城的研究 / **韩宾娜** ····· 187
- 特郎普VS习近平 — 如何过招 / **李丹** ····· 191
- 한중 新경제통상관계 변화와 전망 : 선택적 갈등 vs 협력? / **서창배** ····· 199
- 중국 지방정부의 사회조직관리 방침 / **김성민** ····· (현장배부)
- 대전광역시와 중국 지방정부 교류를 통해 본 지방 관계의 한계 / **구성철** ····· 203
- 시진핑 2기 중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고찰 / **최준환** ····· 211
- 한중금융산업의 파급효과 비교연구
  — 2014년 한국투입산출표와 2012년 중국투입산출표를 중심으로 / **최정석** ····· 221

식 순 안 내

제1부 개회 및 기조발표
(09:00~12:30)

▶ 개회식 (국제관 다우홀) 09:00~10:00

■ 사회 : 전주환 (동아대 대외협력처)

▢ 등 록 09:00~09:30

▢ 동북사범대학교 방문단 동아대학교 총장 접견 09:15~09:30

▢ 개회식 09:30~10:00

- 개회사 : 문철주 (동아대 공자학원 원장)
- 축 사 : 한석정 (동아대 총장)
- 축 사 : 武 艺 (주부산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
- 한중 동아시아 연구원 MOU 체결식

▶ 기조발표 (국제관 다우홀) 10:00~12:30

■ 좌장 : 김창경 (대한중국학회 회장)

▢ 동아시아 3개국 교수 기조발표 (한국, 중국, 일본) 10:00~11:40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 발전 방향 탐색을 위한 연구"

- 한국 : 김문기 (부경대 사학과 교수)
  多識과 博物 :『試經』의 魚類와 동아시아 魚類博物學
- 중국 : 韩东育 (동북사범대 부총장)
  东亚的礼争
- 일본 : 大田英昭 (동북사범대 역사문화대학)
  近代日本"社会主义"概念的接受及其展开

【중간휴식】 11:40~12:00

▢ 토 론 12:00~12:30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 발전 방향 탐색을 위한 연구"

- 한국 : 김형열 (동의대 사학과 교수)
- 중국 : 강경구 (동의대 동의지천교양대학 학장)
- 일본 : 김재현 (동아대 학생·취업지원처장)

제2부 중식 및 대한중국학회 개회식 (12:30~14:00)

▶ 중식 (교직원 식당) 12:30~13:30

▶ 대한중국학회 개회식 (국제관 세미나실7 B05-0406) 13:20~14:00

- 사회 : 김현태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 등 록 13:20~13:40

▢ 개회식 13:40~14:00

- 개회사 : 김창경 (대한중국학회 회장)

제3부 분과별 발표 및 토론
(14:00~18:00)

▶ 중국문학 분과 (국제관 세미나실5 B05-0406) 14:00~18:00

【Part 1】 14:00~16:00 ■ **좌장 : 김창경 (부경대)**

▢ 1. 心灵创伤与灵魂治疗:张翎小说《余震》、《唐山大地震》解读
- 발표 : 필문수 (동원과학기술대)
- 토론 : 강경구 (동의대)

▢ 2. 치유, 회복, 성장의 공간 — 쑤웨이전(蘇偉貞)의『침묵의 섬(沈默之島)』연구
- 발표 : 전남윤 (부산대)
- 토론 : 유미경 (부산대)

▢ 3. 江户日本的"孔子形象"探析
- 발표 : 董灝智 (동북사범대)
- 토론 : 김창경 (부경대)

▢ 4. 저층문학의 새로운 가능성 – 판위수 현상을 중심으로
- 발표 : 김정수 (숭실대)
- 토론 : 이보고 (부경대)

▢ 5. 寒山詩의 儒·道家적 양상 고찰
- 발표 : 정원호 (동의과학대)
- 토론 : 최낙민 (해양대)

【중간휴식】 16:00~16:15

【Part 2】 16:15~18:00 ■ **좌장 : 정원호 (동의과학대)**

▢ 6. 시경 중의 "악(乐)" 사상의 연구
- 발표 : 송진열 (동서대)
- 토론 : 유미경 (부산대)

▢ 7. 중국 드라마 생산 메커니즘과 주선률 드라마
- 발표 : 고윤실 (숙명여대)
- 토론 : 안승웅 (부산대)

▢ 8.「鏡花緣」속 유토피아와 혁신 사상
- 발표 : 박명진 (영남대)
- 토론 : 김창경 (부경대)

▢ 9. 楚瑭"与"鲁瑭" — 朱舜水的家国之思
- 발표 : 刘晓东 (동북사범대)
- 토론 : 송진열 (동서대)

▢ 10. 모옌 소설 특징과 중국 국내외 문학과의 관계 — 모옌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 발표 : 유소희 (이화여대)
- 토론 : 박노종 (동의대)

▶ 중국어학 분과 (국제관 세미나실6 B05-0407) 14:00~18:00

【Part 1】 14:00~16:00 ■ **좌장 : 김정필 (경상대)**

▢ 1. An Error Analysis on Summary Writing of Chinese English Learners
- 발표 : 여정화 (경성대), 김주현(부산대)
- 토론 : 劉 麗 (경성대)

▢ 2. 近代日本的语言政策研究述评—以保科孝一为中心
- 발표 : 洪仁善 (동북사범대)
- 토론 : 楊素悅 (상해외국어대)

▢ 3. "X+为"类副词的词汇化现象及"为"的语义功能研究
- 발표 : 주기하 (충북대)
- 토론 : 박 성 (창신대)

▢ 4. 중국어 '把'와 한국어 '를'의 의미기능 대조와 습득 순서
- 발표 : 楊素悅 (상해외국어대)
- 토론 : 이길연 (창신대)

【중간휴식】 16:00~16:15

【Part 2】 16:15~18:00 ■ **좌장 : 이길연 (창신대)**

▢ 5. "道"와 "敎"의 인지의미론적 분석
- 발표 : 김정필 (경상대)
- 토론 : 주기하 (충북대)

▢ 6.『漢籍國字解全書』의 고찰을 통해 본 漢籍飜譯과 日本漢學의 성격
- 발표 : 최정섭 (연세대)
- 토론 : 서광덕 (부경대)

▢ 7. 論"有益"詞性、釋義及相關問題
- 발표 : 김종찬 (안동대)
- 토론 : 김정훈 (경남대)

▢ 8. 4차 산업혁명과 중국어 교육의 미래
— 한국 거점 국립대 중국 관련 학과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 발표 : 이근희·김현태 (부경대)
- 토론 : 곽현숙 (경남대)

▶ 중국사회과학 분과 (국제관 세미나실7 B05-0408) 14:00~18:00

【Part 1】 14:00~16:00 ■ **좌장 : 손상범 (영남대)**

▢ 1. 朝鲜使臣所见晚明辽东社会的民生与情势
- 발표 : 刁书仁 (동북사범대)
- 토론 : 리 단 (부경대)

▢ 2. 모바일로 떠나는 중국 남방 여행 : 화동지역
- 발표 : 이중희 (부경대)
- 토론 : 김현태 (부경대)

▢ 3. 东亚都城研究的相关问题 — 中国学界对日本都城的研究
- 발표 : 韩宾娜 (동북사범대)
- 토론 : 서창배 (부경대)

▢ 4. 特郎普VS习近平 — 如何过招
- 발표 : 李 丹 (부경대)
- 토론 : 권예경 (동서대)

▢ 5. 한중 新경제통상관계 변화와 전망 : 선택적 갈등 VS 협력?
- 발표 : 서창배 (부경대)
- 토론 : 김효진 (부산대)

【중간휴식】 16:00~16:15

【Part 2】 16:15~18:00 ■ **좌장 : 리 단 (부경대)**

▢ 6. 중국 지방정부의 사회조직관리 방침
- 발표 : 김성민(동서대)
- 토론 : 이홍규(동서대)

▢ 7. 대전광역시와 중국 지방정부 교류를 통해 본 지방관계의 한계
- 발표 : 구성철 (동서대)
- 토론 : 이주형 (창원대)

▢ 8. 시진핑 2기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고찰
- 발표 : 최준환 (강릉원주대)
- 토론 : 김선진 (고신대)

▢ 9. 한중 금융 산업의 파급효과 비교 연구
- 발표 : 최정석 (선문대)
- 토론 : 김형근 (신라대)

제4부 폐회 및 리셉션
(18:00~)

▶ 폐회 및 리셉션 (국제관 세미나실5 B05-0406) 18:00~

• 사회 : 김현태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 폐 회 18:00~18:30

■ 폐회사 : 김창경 (대한중국학회 회장)

▢ 리 셉 션 1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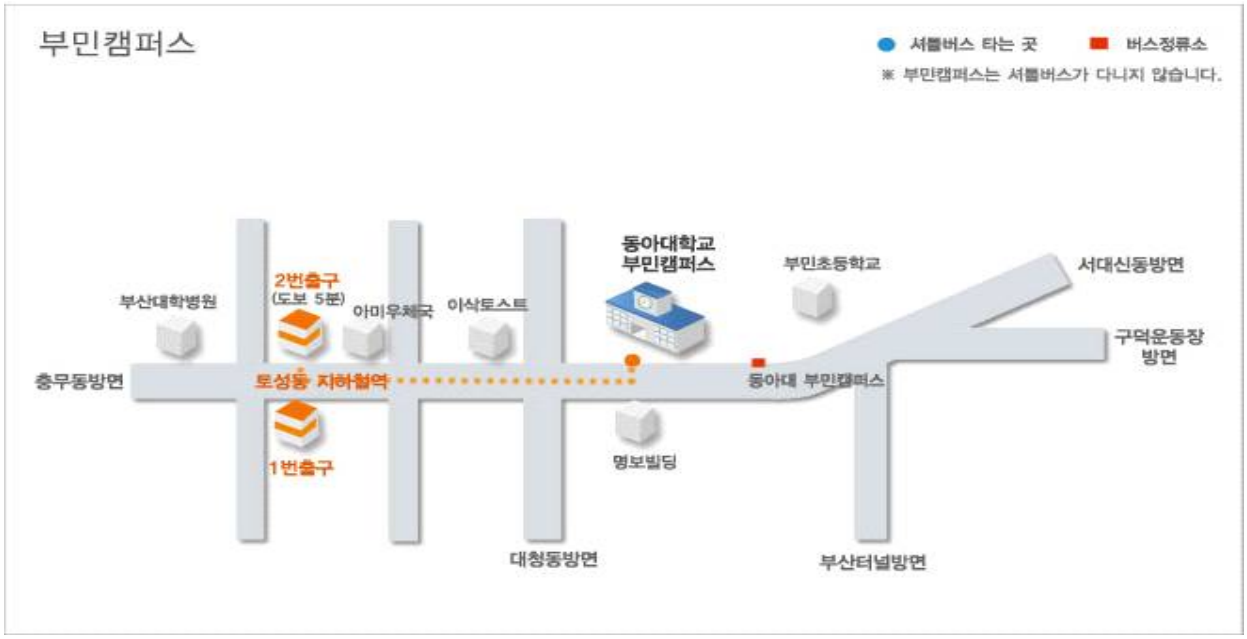
■ 누리마을감자탕 부민동아대점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4 부민동 1가 6-1 스카이파크 빌딩. ☏ 051-253-1555

오 시 는 길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지하철 1호선 토성역 2번 출구에서 '아미우체국' 방향으로 도보 5분)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관 (B05) 행사장

☞ 리셉션 장소 : 누리마을감자탕 부민동아대점

- 연락처 : 051-253-1555
- 주 소 :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4 부민동 1가 6-1 스카이파크 빌딩

【메 모】

【메 모】

【기조발표】 발표 ②

东亚的礼争

韩东育*

仿佛今日各国群起竞赛谁更「文明」和谁更「法制」一样，前近代东亚内部的价值攀比，是谁更「中华」和谁更「礼制」。历史学家指出，新航路开辟前，地球曾天然形成过欧洲世界、地中海世界、阿拉伯世界、南亚世界和东亚世界这五个不同的文明圈域；而以中国文明为核心辐射而成的区域网络，便是后人所谓前近代东亚世界（西嶋定生：《中国古代国家と東アジア世界》）。由于每个圈域自有每个圈域的内部标准和交往规则，于是，「华-夷」、「宗-藩」和「赐-贡」能成为东亚内部的连接纽带，便容易得到理解；而对于日本、朝鲜和越南竞相标榜的「中华」称号和「礼义」风范，后人也只能在史实的意义上还原其有和无，而难以在价值层面上计较其对与错。

朱云影先生曾对中华风物有过一段骄人的陈述：「中国是东亚首屈一指的文明古国。当东亚各民族还在过着野蛮的部落生活，中国便已成为文物制度粲然大备的国家。周朝曾否实施如《周礼》所载整齐的官制，虽不敢断定，但当时已有相当完备的礼制，实无可疑。秦朝创大一统的规模，汉朝承其统绪，置三公九卿，定州郡制，订律令，创年号，建太学，铸五铢钱，充满了开国气象。后来唐朝作进一步的调整，设置三省、六部、九寺、五监和御史台，编纂六典，定班田制，租庸调法，立六学，实施科举制度，于是中国的国家性格大体确定。日韩越创立国家，都远比中国为晚。日本到隋唐时，才正式建国，韩越则一向被置于中国郡县统治之下，前者至南北朝时始告独立，后者更迟至五代才成立自主政权。各国立国既晚，故其各种制度大抵模仿中国。」（朱云影：《中国文化对日韩越的影响》第二八七页）如果了解了东亚各国的来历，我们还可以这样说：日韩越与中国之间，因有圈域外诸国无法比拟的地缘血缘关系，所以文明的互渗和共享，应该是一个自然播化的过程，也是一个有先后顺序的过程。我本人倾向于箕子朝鲜为信史，于是，晚于朝鲜者，便是秦「象郡」和汉「三郡」设置后的越南了。若撇开假说不谈，则三国之中，最迟与中国接触者，应该是日本。按照朱先生的说法，朝鲜和越南像中国，是因为它们与中国原本曾是一个国家。而日本从未被中原政权建制于本土且与中国接触时间偏晚等事实意味着，其对中国文化的理解深度和仿真程度，当不及朝鲜和越南。日本思想史家丸山真男曾就地理因素形象地譬况朝鲜与日本在面对外来文化时的迥异表现：朝鲜是易于被滔天巨浪卷入核心文明圈的「洪水型」文化，而日本则是既不能被中心文明所吞并、又不可谓与之无缘的「滴水型」文化。正惟如此，日本才可以对应自身的自主性，并拥有调整改造外来文化的充分余地（丸山真男：《原型・古層・執拗低音》）。「洪水型」和「滴水型」的比喻不无道理，因为与中国有特殊文化关系的朝鲜，在中华价值的理解和把握上似乎没有把德川之前的日本放在眼里。而且就事实而言，丸山庆幸于大海阻隔的自主性意义强调，显然不是当时日本人的想法，而是从近现代立场倒看历史者的武断。它解释不了史上日本人为什么要不遗余力地与朝鲜在「中华」水准上一争高下，以及日本式「中华」为什么一定要与中国式「中华」取得比肩对等地位并为此必须把朝鲜变成「一等下」（下一等）的原因。

最近，日本水户德川博物馆陆续公布的、沉睡数百年之久的相关资料，开始引人关注。写本《右武卫殿朝鲜渡海杂稿》，记录了天正年间（一五七三-一五九二）天荆作为渡海僧，与朝鲜各方人士交往的部分过程。其中的《杂稿》，多为与朝鲜文人政客之间的诗文唱和，间或有关于日韩人员往来和漂流民处理等个案交涉问题。在前近代以中国为核心的「华夷秩序」中，日本与朝鲜围绕着谁更像「中华」等价值问题，曾进行过为时不短的高下比试甚至明争暗斗。天荆所在的天正年间，日本在朝鲜人心目中的文化地位，还十分低下。它有助于理解，何以天荆一定要通过各种途径，在所接触的朝鲜人面前舞文弄墨，且故意表现出挥洒自如和嬉笑揶揄的姿态：「天正六年十一月……到忠州」，「十日」，有人「出高丽新扇求诗，余即走笔戏题曰：‘迎秋怜婿女，题句笑苏公。扇是三翰（疑为「三韩」——引者注）扇，风应日本风。’傍有朝鲜人又出扇求诗，余亦即书」。而有些诗句，看似匪夷所

* 东北师范大学副校长

思，实则深藏安排：「十一日宿安富，在大厅古凉次，题一诗于厘云：‘杜鹃声里夕阳残，飒飒松风夏亦寒。万叠青山客杯底，一时吞却尽三韩。’」《杂稿》中还随处可见壬辰战乱前日韩间的龃龉和不睦。这更多体现在礼数之争上。日本不愿以朝鲜之礼为礼，尤其在进退揖让方面，彼此间多生计较。天正七年（一五七九）二月廿日记曰：「右武卫大将军差来上官释天荆谨上书：礼曹三大人阁下。……仆奉命，万里鲸波无痛恙以得入朝，不亦说乎！……昨有客来谓仆曰：近日谒阁下，谒则必有拜，是旧规也。仆以为使介之拜，胡为用旧规乎！以一介之使讲聘问，则纵虽百拜，岂为重贵国乎？以百乘之君讲聘问，则纵虽一揖，岂为轻贵国乎？使小人讲礼，礼之轻也；使大人讲礼，礼之重也。故使有大小也，礼有轻重也。仆生于穷巷之中，居于山林之间，内无玲珑机智，外无华藻文章，诚有至愚极陋之累。虽然，吾王任仆于堂上，可谓钝榜之状元矣。是故，在吾陋邦，则非天子未尝拜之，虽将军亦不拜而已矣。阁下若齐使之大小，同礼之轻重，则遥方人闻阁下贼使如此，阁下薄于邻交如此，虽国王大臣以小人讲礼，阁下欲辨使之小大，分礼之轻重……未之有也。」「状元」云者，标准来自中国；而「大礼不辞小让」思想，则始于《荀子》而成于《史记》。

德川博物馆的另一藏本——《征韩伟略》，是一部记录「壬辰战争」（一五九二-一五九七）之史事经纬的著作。因事关兵燹，其所录《日本国关白秀吉奉书朝鲜国王阁下》及其「阁下」、「方物」、「入朝」字样，已开始故意触及日本与朝鲜和中国之间的礼仪摩擦和地位纠葛问题。朝鲜来使黄允吉、金诚一等认为，如此表述，降低了朝鲜国王的区域地位，也有辱其国格，遂坚拒不允，与日僧玄苏据理力争：「请改阁下、方物、入朝六字」。争执的结果，玄苏同意改「阁下、方物四字，入朝二字则不许」，理由是：「此朝字，非特贵国也，乃指明也。」黄允吉以其言为信，「惟诚一不以为然，与玄苏往复论难，改定书四，然后行。还泊釜山，允吉驰启情形，以为必有兵祸」（参见德川真木监修、徐兴庆主编：《日本德川博物馆藏品录》III《水户藩内外关系释解》，上海古籍出版社·日本德川博物馆2015年）。这一看似简单的称谓修辞之争，所含意蕴却十分深远。日、朝关系自足利义满以来，一直是交邻＝对等关系。但是，日本却从未尝放弃如何将朝鲜变为「一等下」（即「下一等」）的努力，丰臣秀吉的朝鲜入侵及后来的日韩讲和经过，又进一步强化了这一效果。与此相对，朝鲜也把日本作为「羁縻」的对象，措置于「一等下」地位。然而，无论是日本还是朝鲜，双方不遗余力地将对方抑诸「一等下」的言行，所准照的均是中国政权与它们之间的关系规则。原本，中国位居东亚中心，俗称「天朝」，日本和朝鲜则均为天朝册封下的「王国」。朝鲜与日本在中国规定的礼序下，亦位当同等。可是，朝鲜国王的对等目标，是日本天皇。这意味着，作为天皇下属的幕府或武士政权，是没有资格与朝鲜国王平起平坐的。日本则不然。长期习惯于祭政分离的武家政权似乎早已认定自己才是日本的实际代表，既然是实际代表，那么，朝鲜国王与日本的行政长官便理当同格。当行政长官代表上位于自己的天皇对外表态时，在他看来应与自己对等的朝鲜国王，在天皇日本面前就自然变成了「一等下」的存在。又，因为明朝早年册封的日本国王实际是幕府将军足利义满（源道义）而不是日本天皇，于是，义满上方的天皇便与中国明朝的天子取得了同等的格位。这既是日本在称谓、礼数、聘享等诸多方面俾朝鲜屈居己下的原因，也是试图用「入朝」或「来朝」来表达与明朝比肩并立地位的心理根据。僧玄苏所谓「此朝字，非特贵国也，乃指明也」一语，传递的正是这一类信息，也应该是秀吉听罢明廷「敕诰」后激烈跳骂反应之由来：「至曰封尔为日本国王，秀吉变色，立脱冕服抛之地，取册书扯裂之，骂曰：‘吾掌握日本，欲王则王，何待髯虏之封哉！且吾而为王，如天朝何！’……逐明韩使者，赐资粮遣归，使谓之曰：‘若亟去，告尔君：我将再遣兵屠尔国也！’遂下令西南四道，发兵十四万人，以明年二月，悉会故行台。」（赖山阳：《日本外史》）明清鼎革后，幕府决定在对马藩递给朝鲜的外交文书上，废止以往的明朝年号使用，改用日本年号；同时要求朝鲜国王在给德川将军的国书上，要换掉以往的「日本国王」，采用「日本国大君」称号（将军在致朝鲜国王国书时的自署，则按惯例仍写作「日本国源某」）。可一旦朝鲜国王和德川将军成为对等关系，将军上方天皇的存在，就自然使幕藩国家整体置身于朝鲜之上了。后来，朝鲜通信使在京都的住所多被移诸天皇不易见到的地方，这些行为的背后，无疑暗示了日韩区域地位的非对等指向。

不过，对日本来说，这无疑是一个漫长而艰辛的过程。德川博物馆公布的相关材料，为后人提供了日韩间礼义争执和高下论辩的细节。写本《桃源遗事》（乾），为德川光圀逸事集之一。因光圀致仕后栖息于西山庄桃源居，故称。《乾》本的记录显示，天和二年（一六八二）壬戌八月廿一日，朝鲜人通信使尹趾完、李彦刚、朴庆后三人来江户。时有西山公（光圀）、林春常及今井小四郎等与之交流，见朝鲜人所献礼品清单落款处直书以「叔鳞」之「字」而非「名」，以为不合中华古礼，遂不解焉。「问：昨日三使所赠我相公之土宜惟录品数不具姓名，

楮尾押一印称。三使所赠，见印文二字，疑是尹公之字乎？古人于交际，自称名不字，以为通式，右三件窃有所疑。盖贵国之法乎？愿闻之」。按，《仪礼·士冠礼》云：「冠而字之，敬其名也。君父之前称名，他人则称字也。」表明朝鲜通信使有与西山公诸位平等相待之意；而日方之疑问，或确有不解，或有意不解，其真实用意，已不言自明。手本《桃源遗事》（智），则从另一个侧面记载了德川光圀与朝鲜通信使之间的礼仪纠葛。朝鲜上述三使到江户后，「奉呈水户公阁下」者如下：鹰子一连、人参一斤、虎皮贰张、白照布五匹、芙蓉香二十本、黄毛笔二十本、真墨二十笏。落款为「壬戌九月日，通信使叔鳞（印鉴）」。三使所持礼品，品味高雅，质地贵重，或许正因为如此，光圀所返礼物，当尤其贵重才行。于是，光圀乃遣家士携厚礼与《奉朝鲜国通政大夫吏曹参议知制教东山尹君使台书》答谢曰：「尝闻，锡畴叙伦垂之洪范，继好亲仁谓之礼经。贵国密迩本朝，振古抵今，讲信修睦而不渝盟信倍约，其檀君之辟基千古荒昧，箕子之遗风，百世广覃。方今使台，当持节之任受，专对计之命。山水之遥，备尝险艰；堠亭之长，不为无劳。曩者始睹懿范，极增愉快。然朝堂初筵未饱，玄论唯憾，萍水一遇，艰于继见。兹辱嘉贶多仪，感佩有余，愧冈琼琚之报然敢无交际之差。乃具不腆如别幅，伏冀亮照。不宣。九月六日，常山源光国顿首。」不仅如此，光圀还在致李彦纲信中复称：「兼惠土宜若干，无任良荷之至。谨裁尺一，宣寄衷素，并致菲仪，聊答来意，岂无愧琼瑶，永靡相忘也。」又，在与朴庆后书中谓：「壹下奉命，不遑宁处」，「向辱贶贵国土宜，实喜荷交并，爰陈芹仪如状，回轸不日，把袂无由，参商之别，不堪瞻望之至。万祈亮鉴」。从以上书状中不难看出，光圀为朝鲜通信使的一路风尘和所赠土宜而感动不已，加之「敢无交际之差」云者意味着回赠之礼不当少于来使之土宜，遂「陈芹仪」与「三使」，看上去不过是投桃报李而已。然不知与「叔鳞」字案有关联否，当「三使」收到光圀所赠「银三百两」时，乃纷纷复函，或婉言谢绝，或直陈不宜，致使光圀美意，屡遭「误解」。尹趾完见光圀复礼，虽称「辞表圭复，再三感荷」，但又言：「弟有所一段不安于心者。顾此仪状所附白金三百两，明虽馈赆，实系货宝。古之人未有以金为币者，盖由受之者不免货取之嫌，而与之者亦非使人安心之道故也」，「窃观阁下，以礼自将，至于简续仪式之微，无不一出于礼，真好礼之君子。今遇好礼之君子，答不以礼相勉，则焉在乎？贵相知心之道哉！兹遗舌官谨送惠白金，全封还呈，惟阁下谅此区区之意，收纳而不为之嗔怪。则阁下所以礼待不佞者，岂世俗厚币相赠之比也！回辕之后，嗣音无阶，临书怅然，不知所云。」副使李彦纲所复，则颇为直率：「货而取之，君子之深所耻也。不但受之者为伤廉，抑恐有伤于爱人以德之义。故所馈白金三百两，兹不敢领留，谨全封奉还。窃想高明亦必有以谅此心而恕其罪也。使事既竣，旋辖有日。山川曼阔，后会无期。临纸不任怅惘，伏希崇照。」另一位副使朴庆后所复者，亦大致如上。不料光圀见此，竟十分「错愕」，速复函解释说：「前者所赠，是交际之仪，而木李之报也。……窃惑焉。三使台阁下清廉高洁，过于胡质，逾于陆续，不腆微物，岂容高明伤廉之疑乎哉！况我赠，非南越之装，使台亦非游说之徒乎！古人有以黄金为中币者，有其辞则受之，不以为伤义。然则于无与无取之道，彼此何伤乎？……交际之报，则讲信修睦之礼成，相爱相好之情通。千万幸孔勿疑。」在光圀的真诚劝说下，「三使」最后以「终始固辞则恐不免为不恭之归」为台阶，还是接受了馈赠，事情遂告一段落。从整个过程看，光圀以如簧之舌虽最终说服了「三使」，但「三使」内心之焦虑，恐未必释然，尽管正使尹趾完在嗣后的回复中不再落款“叔麟”而悉用“趾完”（参见德川真木监修、徐兴庆主编：《日本德川博物馆藏品录》II《德川光圀文献释解》，上海古籍出版社·日本德川博物馆2014年）。对此，有三点掩蔽于事情背后的原因，或可提供某种解释线索。首先，中华规则事关日本与朝鲜的国际地位问题。就相互馈赠之质量而言，日方的回馈无疑远胜韩方。依东亚古礼，「厚往薄来」和「予多取少」，本是「华夷秩序」下宗主国对朝贡国之礼数。倘「三使」接受白银三百两，则朝鲜与日本一直以来的对等关系，就会在感官上引起误会；而如此低人一等的做法，不惟使臣，纵朝鲜国王亦断难接受。历史上，朝鲜一直视日本为野蛮之国，文化与制度均不及直承中国的半岛，而且，即便有所进化，亦不过是由朝鲜转达的中华文化使然。此番「三使」之所以最终接受了光圀的礼物，恐怕是因为朝鲜在更加「中华」的意义上要回了「文化」上的体面与尊严。这一点，人们可以从光圀在复函中反复强调「不佞之文才操斧于班门，实不能无耻，何当大方之观乎」等自谦态度上，读出某种弦外之音。其次，光圀能将硬通货白银大方出手，表明日本的经济状况已优于朝鲜。当时，白银在中日间商贸关系中，占据有重要的地位（新井白石：《折焚く柴の記》；浜下武志：《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而朝鲜个别官商在中日贸易之间，亦隐蔽地扮演着白银倒卖角色。从这个意义上讲，朝鲜使臣以「义」克「利」、以「清廉」拒斥「白金」的态度，恐怕还潜藏着更加复杂的心态亦未可知。其三，朝鲜优越于日本的中华文明地位开始动摇使然。从「三使」写给光圀复函中惊异其文采高妙等誉美之词可知，水户藩的汉文化教养及其表达能力，已不输给曾经高于日本的朝鲜。朝鲜

通信使在这方面的日本体验所在多有，不胜枚举。其中，日本朱子学派、古学派尤其是水户学派的许多名宿大儒，均给他们留下过极深的印象，以至尹趾完等人感慨：「未入扶桑界，先闻水户名。」（事见《桃源遗事》〔仁〕）然而，随着日本国势的上扬和朝鲜王朝的衰落，上述林林种种的礼争积累，最终也只能导致日式「华夷秩序」下日韩地位的逆转。由于这种逆转直接连带着日本与中国之间关系性质的变化，所以，新井白石（一六五七-一七二五）的「敌礼」序列——「将军=朝鲜国王」与「天皇=中国皇帝」的对等图式，后来还被明治政府继承下来并在现实当中实现了当初的设计。有学者指出：「明治以来，尤其是中日修好条规缔结后，日本自比天皇为皇帝，幕府为国王，遂视朝鲜为下位之国。J=C，C>K，∴J>K（C=中国，J=日本，K=朝鲜）的观念日盛；又以满清出身北狄，遂视清为夷，以己为华，取清而代之的观念，日益强盛。于是起兵‘进出’中华世界。不过，结果失败了。」（张启雄：《「中华世界帝国」与近代中日纷争：中华世界秩序原理之一》）

在东南亚各国中，真正进入中华文化圈的，只有越南一地。从汉到唐，越南向为中国郡县。直到五代，越南人才有过短暂的自主政权。自李天祚被宋孝宗封为安南国王起，中原王朝算首次正式承认安南为「国」；宋理宗时，乃有所谓陈朝。对中原政权，越南一直甘为夷狄，所以直到15世纪中叶，越南人还通过给明朝皇帝「万物并育，心天地以为心；四海蒙恩，治夷狄以不治」的谢表以明示自身之文化定位（[明]李文凤《越峤书》卷15《表书》，台北：台湾历史语言研究所图书馆手抄本）。然而，当该定位遇到非汉世界的政治力量时，竟会在一瞬间发生变身为「华」的转型。这种清晰的中华意识和礼争行动，曾在蒙古人飙风来袭时爆发般地显现。一三〇〇年，陈英宗传檄怒骂不思抗元的众将道：「汝等坐视主辱，曾不为忧；身尝国耻，曾不为愧；为中国之将，侍立夷酋，而无忿心！」（《大越史记本纪》卷六《陈纪》）朱云影说：「这是越人以‘中国’自尊其国见于正史之始。」（同前揭书第二一一页）。当地人每每自称为「华民」、「汉人」，并称自国为「小中国」（Smaller Draguo）。当「明清鼎革」后华夷礼序一时紊乱时，越南人依然充满自信地认为是他们完整地保存了中国古来的传统，并成为决不亚于中国程度的华夷思想的捍卫者（山本達郎編：《ベトナム中国関係史》）。与「交趾」内属于明朝不同，被清廷恢复了「安南」国号后来又被命名为「越南」的阮朝（一五五八-一九四五），事实上已变成外藩。虽然巨大的地政压力迫使越南不得不向北京朝贡，但那种与非汉政权抗礼的传统心态，使它对来自清廷的「外夷」称谓，十分不快。艾尔曼（Benjamin Elman）的研究显示，一八二四年，道光皇帝在致越南国王敕令中称越南为外夷，引起了越南使团的不满。他们建议用「外藩」取代「外夷」。由于发生了礼争，清廷乃责令礼部官员和经学者刘逢禄处理此事。刘逢禄根据《周礼》有关夷服与藩服的区别，作出两点解释：1，夷服较之藩服距离京畿近两千里，即夷服在七千里之外，藩服在九千里之外；2，《说文解字》中「夷」字不像「物」部首那样具有轻蔑含义。他还援引了乾隆帝《满洲源流考》和《孟子》中舜为东夷、文王为西夷的说法，说服了越南使团（参见汪晖：《现代中国思想的兴起》之《帝国与国家》，第六九四页）。无论刘逢禄的解释是否已掺入欺瞒，但中华礼序标准在中越间具有弭讼功能，却是不争的事实。

华夷礼序，原本是中原人的发明。它之所以能被周边国接受，是因为华夷圈域内的各政权均不乏追赶和超越先进文明的欲念；而之所以又能引发争执，则是由于在效法礼序的过程中彼此均形成了以自己为中心的缩微型华夷体系。由于每个小华夷圈之间就像今日邻国的「防空识别区」一样彼此叠合交叉，因此，同一标准下的礼序之争也就极易转化为地政纠纷。中国唐朝后期，日本已不时以「中国」自称，并形成了范围广大、尽管亦不乏想象的日式「宗藩」体系——「夫太宰府者，西极之大壤，中国之领袖也……大唐、高丽、新罗、百济、任那等，悉托此境，乃得入朝，或缘贡献之事，或怀归化之心，可谓诸藩之辐辏，中外之关门者也」（新订增补《国史大系》第一部《日本文德天皇実録》卷四）；朝鲜在以它为核心的「华夷秩序」中，则把日本、对马宗氏、北方义州、会宁和庆源等地称为「夷」（韩国珍书刊行会编：《通文馆志》）；而越南在阮朝时期，亦形成了以它为核心的小型「宗藩」圈。潘叔直（Phan Thuc-Truc）在所辑《国史遗编》中称：「缅甸附边则却之，万象有难则救之，多汉、南掌、火舍，慕爱义来臣，勉之以保境安民。」这意味着，前近代东亚地区，事实上并存着二重「华夷」构造，即囊括整个东亚的中国式「封贡体系」和以各个「朝贡国」为核心的小型翻版。然而，「中华」所能代表的中心价值和优越感一旦为周缘地区所接受，并且接受者亦不遗余力地依此原理来设计和建设其各自政权时，中华礼序就不单单为原理发出者所独有，而是演变成了圈域内所有人共同遵奉的价值和高自标置的尺度。朝鲜、日本和越南之所以每每自称「小中华」，甚至与中原政权抢夺「中国」的名号，与前近代东亚世界的形成原理——「文野之争」所内含的价值超越性，密不可分。体此，则「礼失而求诸野」、「夷狄而中国，则中国之；中国而夷狄，则夷狄之」以及

「中国夷狄之称，初无一定」等说法，在流变不居的「文野」意义上，便不难理解。然而，当周边国业已完成「中华化」过程甚至在某种程度上比中华本土还要坚守「中华」价值的时候，来自中国的「夷狄」贬斥，就容易被它们视为「成见」上的差别，而不再是「事实」上的差别。大概只有到了这一阶段，早期民族主义才不可避免地被激发，「去中心化」的浪潮才会在「华夷」圈内开始涌动。这一点，在后来的越南、朝鲜和日本均有所表现，只不过在中国控制能力相对薄弱的日本，表现得更加决绝而已。朱云影称：「越南之脱离中国而独立」和「民族意识的觉醒」，乃「由于此种思想的启发（指华夷思想下的文野之别）」；而「日本之所以得以建立并巩固天皇中心的统一国家，可说完全由于中国正统思想的影响」。他甚至认为，此类局面的出现，是发起于中国的「启蒙运动的结果」（同前揭书，四页、一七九页）。可如果说，从「文野之争」到「民族主义」的变化最终乃根源于中国综合国力的衰竭，并且这种变化还被学者们赋予了某种逻辑上的必然，那么，当业已复兴的中国重新回到世界舞台中心时，近现代「民族主义」的破坏性竞争似乎就应该自动让位给前近代「文野之争」的建设性砥砺，可事实好像并不附和推理。近年来的舆论显示，「中华」和「礼制」这些数百年前竞相攀比于东亚各国间的至高价值，不但早已构不成标准，而且随着中国的复兴，曾经的华夷观念，反而被当年的圈域内各国所警惕，所防范。有日本学者甚至借岛争问题发挥，说那不过是「居高临下的中华思想」使然（岡本隆司：《中国はなぜ尖閣にこだわるのか――中華思想あるいは‘上から目線’の研究》，《文藝春秋》二〇一四年季刊夏号）；而在今年二月日本电视台制作的节目当中，日本民众好像也普遍希望中国应放弃「中华思想」这一老旧思维。拿钓鱼岛比附中华思想者可能真的不知在华夷秩序时代，如此弹丸之地从来就没有构成过问题；但指望数百年来习惯于近现代「平面化」国际关系的东亚各国会掉过头去对「层级化」的华夷秩序「发思古之幽情」，也实在不切实际。大概，一个新的价值矿脉在等待着东亚各国去共同采掘、提取和精炼；而中西合璧、古今融通的「第三种文明」，或许能成为往度众生的真经，亦未可知。

【메 모】

【기조발표】 발표 ③

近代日本における「社会主義」概念の受容と展開
（《近代日本“社会主义”概念的接受及其展开》）

大田英昭*

はじめに

今年二〇一八年は、十九・二十世紀の「社会主義」socialismの思想と運動に決定的な影響を与えたカール・マルクスの生誕二百周年に当たる。ロシア十月革命の百周年だった昨年に続き、「社会主義」の歴史を振り返るのにふさわしい節目の年といえよう。本稿は、socialism という言葉が東アジアにはじめて出現した十九世紀後期に遡り、以後現在に至るまで、近現代の日本で「社会主義」という概念がどのように受容され、その意味の変化がどのように展開していったかを、追跡するものである。

日本の近現代史において、「社会主義」という言葉には、毀誉褒貶を伴うさまざまなイメージがまとわりついてきた。そこには、この語が指し示す思想・運動および体制に対する日本社会一般の価値判断が色濃く反映されている。注目すべきは、そうした価値判断が時代の推移の中できわめて大きな振幅を示していることである。社会主義運動を担った人びとによる「社会主義」理解も決して一様なものではなく、その中で主流となる思想は時代とともに大きく変化してきた。それに加えて、「社会主義」に関する論壇での議論や新聞報道、アカデミックな学術的研究、さらには社会主義思想・運動の撲滅を目指す官憲の見解など、さまざまな主体が時代の変動とともに織りなす諸言説が、日本の近現代史における「社会主義」概念を複雑に展開させていったのである。

本稿は、十九世紀後期（社会主義概念の受容と形成）、十九・二十世紀転換期（社会主義の運動化）、両大戦間期（国際社会主義運動の分裂と日本）、第二次大戦後（冷戦構造の中の社会主義）、二十世紀末から現在（冷戦終結以後における「社会主義」の行方）という五つの時期を区分し、近代日本における「社会主義」概念の展開を以下の行論で追跡してゆきたい。

一. 社会主義概念の受容と形成（十九世紀後期）

日本の知識人がsocialism・socialist にあたる西洋語に接した文献記録は幕末期に遡る。文久二年（一八六二年）、福沢諭吉が幕府の遣欧使節団に随行した際に記した覚書「西航手帳」には、「Lous 16. 1793. / 同年此王を廃し合衆政治 / となる Socialists の / 合衆治と云ふ Roode Republiek / の意なり」[1]という記述がみえる。ここで福沢がSocialistsという語をどのように解釈していたのかは判然としないが、少なくとも彼がこの言葉を「合衆政治」「合衆治」すなわち共和政治との関連で捉えようとしていたことは推測できよう。

一八六六年から六九年にかけて香港で出版されたW. Lobscheid の『英華字典』（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には “communism” および “socialism” の項目が載せられている。communism のほうは “community of property among all the citizens of a state” という説明とともに「大公之道」「通用百物之道」「均用百物之道」という漢訳語が与えられ、socialism の項目には「公用之理」ならびに「公用」という訳語が付さ

** 東北師範大学歴史文化学院

1）慶應義塾編『福沢諭吉全集』第十九巻（岩波書店、一九七一年）。

れている[2]。これらの訳語がどのような経緯でつくられたのかはともかく、翻訳に用いられている「公」「通」「均」「道」「理」などの文字には、日本で「漢学」と総称されていた儒学を中心とする中国ないし東アジアの学問的伝統に基づく思惟方法と、ヨーロッパの社会主義思想との最初の出会いのあり方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この字典は明治初年から日本でも普及し、1883年に東京で出版された井上哲次郎による増訂版[3]においても、“communism” および“socialism” の漢訳語は香港版のものがそのまま踏襲されている。だがこれらの漢訳語が日本で定着することはなかった。

明治初期にsocialismないしcommunismの思想内容を最も早く紹介したのが、当時官界と民間とを跨いで活躍していた加藤弘之と西周であったことは、周知のとおりである。加藤は欧米の立憲制度を論じた著書『真政大意』（一八七〇年）の中で、「コムミュニスメ」あるいは「ソシアリスメ」という「二派の経済学」が近年欧州に出現したことに触れ、その内容について、「衣食住を始め、其外私有の地面器物及び産業等に至る迄、都(すべ)て人々に任せることを止め、各人の私有といふものを相合して、悉(ことごと)く政府で世話をやいて、…（中略）…貧富のない様にしやうと云ふ、所謂救時の一法」であると解説している[4]。同じ頃、西周も一八七〇年の講義録『百学連環』における「制産学」（political economy）の説明のなかで、socialism およびcommunism に触れている。西はsocialism を「会社之説」と訳して、「政府たるものを廃止し、農工商悉く各々(おのおの)会社を結びて以て之を世界中に及ぼし国を立(たて)むと欲」するものだと説明し、またcommunism を「通有の説」と訳して「ソシアリシム(ママ)の一種」とし、「万民各所有となす田地及び家財等を合して平均し、相共に生活をなし、以来誕生せる人に随ふて悉く相分て平均し、国を立むと欲」するものであるとした[5]。なおこれらの思想について、加藤が「治安の上に於て、尤も害ある制度」と述べ、西も「エコノミーに於て最も悪(にく)み退けて、採り用ゆべからざる所」であると断言するなど、ともに害毒視していることに注意したい。以後の日本の論壇や官憲における社会主義イメージの一つの原型がここに現れているといってよい。

自由民権運動が高揚しはじめる一八七〇年代末、新聞などの論壇ではヨーロッパのsocialistについての紹介や議論がはじまった。この頃から、socialistを「社会党」とする訳語がほぼ定着するが、socialismを指す訳語については「社会党論」「社会党の主義」「社会党主義」「社会の主義」「社会主義」等々、いまだ一定していない。当時の論者の関心は、socialismという政治思想の理論体系よりもむしろ、二度にわたるドイツ皇帝暗殺未遂事件（一八七八年）の主犯とみなされた「社会党」の「悪(にく)むべき所業」に向けられており[6]、その危険性はしばしばロシアの「虚無党」（nihilist）のテロリズムになぞらえられた[7]。そして「社会党の主義」対しては、これを「惨烈なる禍毒を含有する」「邪説」とし、「未発に予防」することを説く論調が、民権派の新聞でも主流だった[8]。だが他方で、一見「粗暴過激」な「社会党」の主張も「真理正義の種子」を含み、その趣旨は「国民権理」と「幸福」を「同等」にすることにある、といった好意的な評価[9]も現れていたことに注意したい。

---

2) W. Lobscheid,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英華字典〕, Hong Kong: Daily Press, 1866-69.
3) 羅布存徳原著・井上哲次郎訂増『訂増英華字典』（藤本氏蔵版、1883年）。
4) 加藤弘之『真政大意』（谷山楼、一八七〇年）［『明治文化全集（第二巻）自由民権篇』（日本評論新社、一九五五年）所収、一〇二頁］。
5) 西周『百学連環』第二編下［大久保利謙編『西周全集』第４巻（宗高書房、1981年）所収、250頁］。
6) たとえば『東京日日新聞』（一八七八年六月六日）は、横浜の英字新聞The Japan Daily Herald を引用する形でこの事件と「社会党」との関係を詳報し、同日の社説で「社会党」の「僻説の害」を論じている。
7) 「残忍卑怯なる暗殺は頻に日耳曼(ジャーマン)、魯西亜(ロシア)の諸国に行われ、人心恟恟(きょうきょう)、太(はなはだ)だその所を安んぜず、これ即ち社会党虚無党の所為に出で…」（「明治十一年中の重要紀事（五）」『東京日日新聞』（一八七九年一月九日）［『新聞集成明治編年史』第四巻（本邦書籍、一九八二年）九頁］。
8) たとえば、「闢邪論・第一～六」『朝野新聞』（一八七九年八月一〇日～九月一六日）［明治文化研究会編『明治文化全集第十五巻・社会篇（続）』（日本評論新社、一九五七年）所収、一一～二〇頁］。
9) 「社会党ノ原因及来勢・第四篇」『東京曙新聞』（一八七九年八月七日）、「読朝野新聞闢邪論」同上紙（一八七九年八月二三日）［前掲『明治文化全集第十五巻・社会篇（続）』所収、七～一〇・二〇～二三頁］。

こうした中、長崎県で樽井藤吉を中心に一八八二年四月、「東洋社会党」が結成された。樽井によれば、この党名は「東洋に興りたる社会党と云う義」[10]であるという。党の綱領草案に「我党は平等を主義となす」「我党は社会公衆の最大福利を以て目的となす」[11]とあるところに、彼らの積極的な「社会党」イメージが表れているといえよう。この「社会党」という党名に官憲は苛烈に反応し、結党まもなく「治安に妨害あり」として内務卿による結社禁止命令が発せられ、樽井は集会条例違反で一年の軽禁錮に処された。政府寄りの『東京日日新聞』も、「財産公平の制を主義とする社会党」の「邪説」は「国家の安寧を破る」ものだとして、その「撲滅」を主張している[12]。

一方で、こうした「社会党の名を聞いてその景象に驚き、その実を考究せず直ちに之を撲滅せんと試むるが如き」風潮を批判し、「欧洲社会党」の歴史と理論について体系的な紹介を試みたのが、『朝野新聞』の城多虎雄だった。彼は同紙に長大な論説「論欧洲社会党」を連載し、その中で英独仏各国の「社会党」の歴史的発展を概観しつつ、ドイツ「職人社会党」（社会主義労働者党）のゴータ綱領を訳出しながら、「社会党」は「財産共有の説」を主張するものではなく、「殖産の資本を挙げてこれを社会の共有に帰し、殖産配分の如きはこれを社会の公吏に委任しこれを管理せしむ」ることで、「民に貧富の別無く」「万民各々苦楽禍福を倶に共にするの美域に至る」ことを目指すものだと説明している[13]。この論説は、「社会党の主義」＝社会主義の理論と運動について、日本で初めて体系的に紹介したものといってよい。

資本制企業の勃興を経て産業革命が軌道に乗りはじめた一八九〇年頃になると、資本主義の発展に伴う貧富の格差や労資関係の矛盾など、欧米諸国で深刻化する「社会問題」に学界や論壇の注目が集まった。それとともに、ヨーロッパの「社会党」「虚無党」の動向をめぐる恐怖と好奇の入り混じった紹介にとどまらず、社会問題の解決を目指す理論の一つとしてsocialismについての具体的な検討が開始される。「社会党の主義」ならぬ「社会主義」という用語が論壇に定着するのはこの頃である。

たとえば、新聞『日本』を主宰する陸羯南は「国民論派」の立場から、自由経済論者の主張する「自由競争」の徹底が「富人専横」をもたらして国民的統一を危うくすることを批判し、「国家の権威」が「平等の原則」の立場から「社会主義の味方」として干渉する必要のあることを説いている[14]。「国粋保存」を唱える政教社の内藤湖南も、近年の「利己拝金の風」に対して、「社会主義」は「人類共存の理想」として孟子の「王者の道」にも通じるものであり、政府が率先してこの「社会主義を採り、以て相済うの道を立」てるべきことを主張した[15]。また、東京専門学校や慶応義塾で法学を講じていた家永豊吉は、社会主義を「現時社会の組織を改革して経済上物品分配の方法を正し、以て人間の進歩を計る」ものと定義し、サン・シモンからマルクス、ドイツの社会民主党に至る近代社会主義の歴史を概説する中で、ビスマルクの社会政策も「社会主義」の枠の中に含めている[16]。このように「社会主義」を、「自由競争」主義の対概念として、国家が経済活動に介入し再分配を行う社会政策をも含めて捉える考え方は、当時の論壇に広くみられるものであった[17]。

---

10) 田中惣五郎『東洋社会党考』（一元社、一九三〇年）［復刻版（新泉社、一九七〇年）二三頁］。
11) 同上書、二一〜二二頁。
12)「東洋社会党」『東京日日新聞』（一八八二年五月十八日）［同上書、所収、一〇二〜一〇七頁］。
13)「論欧洲社会党」『朝野新聞』（一八八二年六月二三日〜八月二日）［前掲『明治文化全集第十五巻・社会篇（続）』所収、三一〜五一頁］。
14)「自由主義如何」（一八九〇年一月）［西田長寿・植手通有編『陸羯南全集』第一巻（みすず書房、一九六八年）所収、六四〜六八頁］。
15)「社会主義を執れ」『亜細亜』（一八九二年五月二日）［『政教社文学集（明治文学全集三七）』〔筑摩書房、一九八〇年〕所収、三七四〜三七五頁］。
16) 家永豊吉「近代独仏に於ける社会論の沿革」『六合雑誌』（一八九三年一月一五日・二月一五日・四月一五日・五月一五日）。
17) たとえば、滞欧中に一八九〇年の第一回国際メーデーや一八九一年の第二インターナショナル・ブリュッセル大会を取材した酒井雄三郎は、社会主義を「民主社会主義」と「国家社会主義」とに分けて、後者に当時のドイツの社会政策を含め

二. 社会主義の運動化（十九・二十世紀転換期）

日清戦後の急速な産業発展の中で労働者のストライキが激増した一八九〇年代末、社会問題を解決する理論として「社会主義」に関心を持ち始めた知識人も少なくない。哲学者の大西祝は、「社会主義」とは「政治上に得たる所の自主独立の思想を以て、経済上に被れる圧制に抵抗し、以て真正の自由と幸福を得んと欲するもの」、言い換えれば「仏国の革命が政治上に企てたる事業を、今の社会主義はこれを経済上に為し遂げんと欲するもの」であるという理解を示した[18]。

一八九八年に結成された「社会主義研究会」の創立メンバーの全員がクリスチャンないしユニテリアンであった事実に、当時の社会主義観の特徴をみることができる。同会会長の村井知至は、「社会主義は私有資本制度を廃して共有或は国有資本制度となし、現今産業社会の峻刻なる法則たる競争に代ゆるに各人の協働を以てし、公平なる富の分配を行いて社会全体の福祉を経画せんとする社会改良策」であると定義する。彼によれば、社会主義は「私利私心に基づく個人主義に反抗し社会全体の福利を計図する公共的精神の発露」であり、その本領は「平等主義」「人類同胞主義」および「基督教的道徳の真髄たる愛」にあって、この理想の実現は「社会進化の趨勢」に基づくものとされた[19]。

こうした社会主義の倫理的・進化論的な把握と、明治国家体制内の社会改良家としての自己認識は、社会主義研究会の会員たちにおおむね共有されていた。同会メンバーの片山潜は、協同組合事業の展開や、国有鉄道の拡大、電気・ガスの市有化の動きなどをも、社会主義実現への漸進的「進化」の過程とみる一方、「決して革命的で世の中のことは進む者じやない」と断言している[20]。改良的な社会政策の積み重ねによって社会主義が漸次に実現してゆくと考えていた当時の片山が、東京帝国大学の研究者を中心とする「社会政策学会」の会員でもあったのは自然なことであった。

だが、社会政策学会の発起者である桑田熊三は、「社会主義は共和政体とその原理を同じうするもの」で、「万世一系の皇統を以て建国の基礎」とする我が国において「社会主義の害」は恐るべきものになると断じていた[21]。こうした見解に沿って、同学会は一八九九年七月に「趣意書」を公にし、「現在の経済組織を破壊」する「社会主義」は「国運の進歩に害」を及ぼすとしてこれに反対することを表明して[22]、社会主義の同情者と目された片山は同学会から絶縁された。社会主義を支持する人びとの体制内改良家としての自己認識に関わらず、「社会党」は国家にとって危険だときめつけた明治初年以来の官憲的発想は、以後も一貫して日本における社会主義観の一面を成しつづける。

一九〇一年五月一八日、日本最初の社会主義政党である「社会民主党」が、片山潜・安部磯雄・木下尚江・幸徳秋水ら六名（うち幸徳を除く五名がクリスチャン）を発起人として結成された。党の宣言書・綱領に掲げられた「社会主義」の内容は、「人種の差別政治の異同に拘わらず、人類は皆同胞たりとの主義を拡張すること」（第一条）、「生産機関として必要なる土地及び資本を悉く公有とすること」（第二条）、「鉄道、船舶、運河、橋梁の如き交通機関は悉くこれを公有とすること」（第五条）、「財富の分配を公平にすること」（第六条）などの条文に表現されている[23]。第一条に掲げられた人類同胞主義に、当時の社会主義思想におけるキリス

ている（酒井雄三郎「社会問題」『国民之友』（一八九〇年五月三・一三・二三日）［『明治文化全集第六巻・社会篇』（日本評論新社、一九五五年）所収、四〇～四二頁］。

18)「社会主義とは何ぞや」『六合雑誌』一八九六年一二月

19) 村井知至『社会主義』（労働新聞社、一八九九年）一三・七〇・八六頁。

20) 演説筆記「片山潜氏の社会主義」『労働世界』（一八九九年一〇月一五日）四頁。

21) 桑田熊三「国家ト社会問題（第二）」『国家学会雑誌』（一八九六年二月）一七九～一八四頁、同「労働問題の主義」『太陽』（一八九九年三月五日）一八～二三頁。

22)「社会政策学会趣意書」（一八九九年七月）［社会政策学会史料集成編纂委員会編『社会政策学会史料』別巻一（御茶の水書房、一九七八年）所収、三七～三八頁］。

ト教の強い影響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社会主義を経とし、民主主義を緯と」して「純然たる社会主義と民主主義に依」って理想の実現に進むことが宣言されたように、民主主義と不可分のものとして社会主義が捉えられていたことも注目すべきである。

社会民主党の結成二日後、同党は「安寧秩序に妨害あり」とされて治安警察法に基づき内務大臣によって結社禁止が命令された。さらに内務省は、党の宣言書を新聞に掲載することを禁止し、宣言書を掲載した新聞の発売頒布を停止した上、発行人・編集人らを告発するに及んだ[24]。微々たる小政党に対するこうした官憲の過剰反応ぶりには、党の主張を国家秩序にとって危険な思想として断固撲滅しようとする姿勢が現れている。

このような弾圧に対して、社会主義を支持する人びとは、自分たちを「社会主義の信者」＝「社会主義者」と自己規定し、「国家」や「資本主」のいかなる「圧制妨害」の下でも「主義の為めに尽す」という殉教者的な意識が生じてくる[25]。それに伴い、彼らの国家体制内の改良家としての自己認識は後退し、社会主義運動は「革命」を目指す事業であるという見方が共有されるようになった。たとえば幸徳は「社会主義的大革命が正々堂々として、平和的に秩序的に、資本家制度を葬り去」ることを説き、片山は社会主義に移行するために必要な「社会的革命」が労働者の政治的ゼネストによって勝ち取られるべきことを主張している[26]。彼らの「革命」概念は確かに進化論的であるが[27]、それでも彼らが社会主義への移行を「革命」として捉えるようになったことは注意せねばならない。

日露戦後の一九〇六年二月、「国法の範囲内に於て社会主義を主張」することを掲げた「日本社会党」が結成され、ここに初めて社会主義政党が持続的な活動を開始した。一方、木下尚江・安倍磯雄らクリスチャンはその前年の秋から、キリスト教の「神の王国」の建設として社会主義の実現を希求するキリスト教社会主義の結社「新紀元社」に拠って運動を始めていた。さらに同じ頃、山路愛山らは「国体」を重視する立場から、ベルンシュタインの修正主義に共感しつつ「日本流の社会主義を建設」することを目標として「国家社会党」を旗揚げしている。また北輝次郎（後の一輝）が国家有機体論の立場から、国家主権の発動による社会主義の実現を目指す「純正社会主義」の理論を打ち出したのもこの頃である。このように日露戦後、「社会主義」を標榜する多様な運動や理論が並び立つようになった[28]。

こうした複数の社会主義思想・運動の間には、やがて相互の反目が起こってくる。とりわけ、普通選挙を手段とする政治運動と労働組合運動とを通じて「合法的」な社会主義革命を目指す議会政策派と、普選の政治運動を無意味としゼネスト等労働者の「直接行動」による社会主義革命を一挙に目指す直接行動派との対立は、しだいに深刻なものとなった。

議会政策派の片山と田添鉄二は「万国社会党」（国際社会主義運動、とくに第二インターナショナル）の正系を自任する一方、直接行動派を「無政府主義者」と断定し、国際社会主義運動の主流が「社会民主々義」へと発展しつつあるなか、「無政府主義」はもはや「社会主義」のカテゴリーに入らないと主張した[29]。他方、直接行動派の幸徳や山川均は、議会政策派の主張を「社会改良論」「国家社会主義」とみなし、自分たちこそ真の「革命的社会党」であると明言した[30]。また、中間的立場にあった堺利彦は、議会政策派と直接行動派を、それ

23)「社会民主党の宣言」『労働世界』（一九〇一年五月二〇日）［「社会民主党百年」資料刊行会編『社会主義の誕生ー社会民主党一〇〇年』（論創社、二〇〇一年）所収、二六八～二八三頁］。
24) 荻野富士夫「治安警察法と初期社会主義運動」（同上書、所収）参照。
25)「圧制に明間あり」『労働世界』（一九〇二年一〇月一三日）一頁。
26) 幸徳秋水『社会主義神髄』（朝報社、一九〇三年）［『幸徳秋水全集』第四巻（明治文献、一九六八年）所収、五一六頁］、片山潜『我社会主義』（社会主義図書部、一九〇三年）［岸本英太郎編『片山潜・田添鉄二集（資料日本社会運動思想史・明治後期第六集）』（青木書店、一九五五年）所収、一二一頁］。
27) 大田英昭『日本社会民主主義の形成ー片山潜とその時代』（日本評論社、二〇一三年）第八章、参照。
28) 木下尚江「日本国民の使命」『新紀元』（一九〇五年一一月）、山路愛山「国家社会主義梗概」『独立評論』（一九〇五年一二月）、北輝次郎『国体論及び純正社会主義』一九〇六年［『国体論及び純正社会主義（北一輝著作集Ⅰ）』（みすず書房、一九五九年）所収］。
29) 片山潜『万国社会党』（渡米協会・出版協会、一九〇七年）［片山潜生誕百年記念会編『片山潜著作集』第一巻（河出書房新社、一九五九年）所収、二六四頁］、田添鉄二『近世社会主義史』（相愛社、一九〇八年）［岸本英太郎編『片山潜・田添鉄二集（資料日本社会運動思想史・明治後期第６集）』（青木書店、一九五五年）所収、二五二～二五四頁］。
30) 幸徳秋水「東京の社会運動・第二信」『大阪平民新聞』（一九〇七年九月二〇日）二頁、山川均「正直なる採決」『日本

ぞれ国際社会主義運動内の「軟派」（修正主義者）と「直接派」（反議会主義者）に擬す一方、自分の立場こそ「硬派」の「マルクス派」であるとアピールした[31]。このように、誰が正統な「社会主義者」であるかをめぐって、理論・運動上の争いが激しく繰り広げられたのである。

他方、社会主義を取り締まる側の官憲には、上記のような論争とは全く無関係に、誰が「社会主義者」であるかを弁別する基準があった。「その主義は国家の存立と相容れず、到底これが存在を認むべきにあらざる」[32]ものだという、国家の治安的観点からの弁別である。内務省警保局の文書『社会主義者沿革・第一』が、「国家社会党」を「社会主義に何等関係を有せざる」ものとして警察の監視対象から外している[33]のも、社会主義理論の上からの検討ではなくて、同党は「国家の存立」にとって無害だという治安上の判断であろう。なお同文書は一九〇八年七月現在の「社会主義者」の人員を四六〇名とし、「片山派」「木下派」「堺派」など人間関係で派閥を分ける一方、思想上の区分を行っていない[34]。

一九一〇年の「大逆事件」は、官憲における「社会主義」認識の一つの転換点となった。事件の被告は「社会主義者」とも「無政府主義者」とも報道されたが、大審院の判決理由では、社会主義者のうち「無政府共産主義をその信条と為す者、若（もし）くはこれを信条と為すに至らざるもその臭味を帯ぶる者」が起こした事件と断定されている[35]。大逆事件後にまとめられた『社会主義者沿革・第三』において、「従来社会主義者と称せるものの内には無政府主義者、共産主義者、社会主義者、土地復権を唱うる者及びその他国家の存在を否認する者の総てを包含し居り、これに対して単に社会主義者なる名称を用うるは誤解を生ずるの虞（おそれ）ある」[36]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が、それは、「社会主義者」というカテゴリー内部の思想上の区分に応じて異なる方針・方法をもって取り締まることの必要性が、官憲にも痛感されたからだろう。こうして、従来広義の「社会主義者」として一括されていた人びとには新たに「特別要視察人」の名称が与えられ、「急進的に無政府主義の実現を期する者」「漸進的に無政府主義の実現を期する者」「選挙権を拡張し議会政策に依り社会主義の貫徹を期せんとせるもの」等に区分されて[37]、それぞれのいわば危険度に応じた取り締まりが実施されてゆくのである。

三. 国際社会主義運動の分裂と日本（両大戦間期）

大逆事件以後逼塞していた日本の社会主義運動が再び高揚してくるのは、第一次大戦後のことである。大戦末期にロシアで勃発した革命と、続いて起きた国際社会主義運動の「共産主義」（第三インターナショナル＝コミンテルン）と「社会民主主義」（旧第二インターナショナル）への大分裂は、一九二〇年代以降の日本の社会運動にきわめて大きな影響を与えたのと同時に、「社会主義」概念にも変容をもたらしてゆく。

穏健な労使協調のもとで社会主義思想を排除してきた労働団体「友愛会」の機関誌『労働及産業』でも、「社会主義の理想」について紹介されるようになった[38]。「労働運動の根本的目的」は「不合理なる現在の社会組織を改造して真に合理的なる社会組織をこの世に現出する事」にあると主張し、その方向として「社会主義」「無政府主義」「サンジカリズム」「ギルドソシアリズム」等を並べて説明する論文が、同誌の巻頭に載せられた[39]。

平民新聞』（一九〇七年一一月五日）六～七頁。

31）「社会主義研究会」『社会新聞』（四号、一九〇七年六月二三日）三頁

32）内務省警保局『社会主義者沿革』第一（一九〇八年）［松尾尊兊編『社会主義沿革１（続・現代史資料１）』（みすず書房、一九八四年）所収、四頁］。

33）同上書、四頁。

34）同上書、六～九頁。

35）同上書、二四一頁。

36）同上書、一〇七頁。

37）『特別要視察人情勢一班・第六』一九一六年［同上書、四四九頁］。

38）「社会主義とはどんなものか」『労働及産業』（一九一九年五月）五～六頁。

39）麻生久「労働運動の新意義」同上誌（一九一九年七月）二～一〇頁。

ロシアに突如「社会主義国家」が出現し、世界への革命の伝播を目指すコミンテルンの活動が始まったことは、日本の社会主義者の意識を変えてゆく。一九二〇年、堺利彦は「社会主義思想」の歴史的発展を論じ、現代における諸潮流として「正統マルクス派」「修正派」「無政府主義」「サンジカリズム」「ギルド社会主義」に加えて、「『労働階級の独裁政治』を標語」とする「ボリシェヴィキという社会主義の一新形式が発生」し、「国際共産党と称し、第三インタナショナルの運動を起し」たことを指摘している[40]。おりから社会「改造」の機運が高まっていた同年末に結成された「日本社会主義同盟」は、一個人にも種々の社会主義思想が同居するような渾沌とした状況を反映し、「広義の社会主義思想を中心とする最も広汎な共同戦線」として出現した[41]。この団体は翌年五月官憲によって解散を命令されたが、それは種々の「社会主義」がロシア革命後の新しい情勢に応じて分化してゆく時代の幕開けを意味していた。

こうした変化は、社会主義運動を取り締まる側の官憲資料からも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一九二一年一月の『特別要視察人ノ近状及其ノ取締ノ概況』は、「最近各種の新思想流入し著しく混乱しその〔特別要視察人の一引用者注〕系統主張を明にするは至難」としつつ、「社会主義」「無政府主義」など従来の区別をおおむね維持していたが[42]、翌二二年一月の『最近ニ於ケル特別要視察人ノ概況』になると、「要視察人の系統」の筆頭に「過激派的傾向を有する共産主義者」なる新しいカテゴリーを作り、これについて「従来要視察人等は露国過激派の主張に対しては多少の同情を表するに過ぎずして、理論としてはこれを排斥するの状況に在りしが、主義実現の過程として一時無産階級独裁の方式に拠るは止むを得ざる所なりとするの論議漸次行わるるに至り、現在に於ては我大多数社会主義者は「ボルシェヴィズム」を目標とするに至」った、と指摘しているのである[43]。

第一次大戦後「サンジカリズム」から「ボルシェヴィズム」へと移行した山川均は、自分の新たな「社会主義」観を次のように披瀝する。「空想の社会主義は科学の社会主義〔マルクス主義ー引用者注〕となった。そして科学の社会主義は実際上の社会主義となった。この実際上の社会主義を、便宜上ボリシェヴィズムまたはコミュニズム（共産主義）と名づけて居る」、そしてこの「ボリシェヴィズムにはマルクス以後における五〇年間の、新しい経験が加わって居る」、と[44]。ここには、空想的社会主義→科学的社会主義（マルクス主義）→ボリシェヴィズムないし共産主義（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という、社会主義思想のいわば〈正しい〉発展の経路が想定さ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が示されている。こうした見方を共有する人びとによって、コミンテルン日本支部として日本共産党（第一次）が結成される一方、国際社会主義運動におけるボリシェヴィキ国家の正統性を認めない無政府主義者[45]との間で激しい論争が行われた（アナ・ボル論争）。

大正デモクラシーの機運が高まり普選の実現が近づいた二〇年代半ば、無産政党の準備と結成の過程で、政治運動における社会主義思想の具体化をめぐり新たな対立が生じてくる。日本労働総同盟の麻生久は、「無産階級政治運動」の目的として「資本家的経済組織の必然的な崩壊を容易ならしめ」るために「政治的権力を無産階級の手中に攫取する」ことを挙げたうえで、議会の「デモクラシイ」を通じて目的の実現を図る「社会民主党」と、「無産階級の独裁」を奉じる「共産党」との政策の違いを説き、日本の無産政党は「社会民主党の右翼、すなわち社会政策的綱領を主として革命的綱領を副としたもの」を採るのがふさわしいという見解を示している[46]。とりわけ「共産主義者」の排除をめぐる見解の違いから、新しく生まれ出た無産政党は左派（労働農民党）・中間派（日本労農党）・右派（社会民衆党）に分裂することになった。

40）堺利彦「社会主義思想の淵源及び其発達」『恐怖 闘争 歓喜』（聚英閣、一九二〇年）五一〜七二頁。
41）赤松克麿「友愛会の創立からサンヂカリズムの凋落まで」『日本社会主義運動史（社会科学）』（改造社、一九二八年二月）一五八〜一五九頁。
42）松尾尊兊編『社会主義沿革２（続・社会主義史料２）』（みすず書房、一九八六年）四〇〜四二頁。
43）同上書、一〇二頁。
44）山川均「無産階級の独裁か共産党の独裁か」『社会主義』（一九二一年九月）［山川菊栄・山川振作編『山川均全集』第三巻（勁草書房、一九六七年）所収、四〇一頁］。
45）大杉栄はレーニンの新経済政策を「国家資本主義」とみなし、「労働組合は国家の附属物となり、その主なる機能は労働に関する政府の命令の伝達となった」ボリシェヴィキ国家の状況を激しく批判した（「労農ロシアの最近労働事情」「労農ロシアの労働組合破壊」『労働運動（三次）』一九二二年九・一〇月［飛鳥井雅道編『大杉栄評論集』（岩波書店、一九九六年）］）。
46）麻生久『無産政党の理論と実際』（科学思想普及会、一九二五年）一八〜二二、二八〜二九、九四〜九六頁。

ただし当時の日本の社会主義者の多くは、ヨーロッパのように「共産主義」か「社会民主主義」かという二者択一的な旗幟を鮮明にしていたわけではない。たとえば、第一次共産党の指導者だった山川・堺らは、二六年に再建された共産党には参加せず、コミンテルンの指導を拒絶したものの、必ずしも「ボリシェヴィズム」を放棄したわけではなかった。「労農派」と呼ばれた彼らは、運動の上では中間派に接近しながら、思想の上では「社会民主主義」に対して終始批判的であった[47]。社会民衆党の赤松克麿は、こうした労農派ないし中間派の態度を「共産主義と社会民主主義との混合酒」として批判し、「自ら社会民主主義と堂々と名乗ることに一種の引け目を感ずることは、我国社会運動に流行する左翼的虚栄心である」と述べている[48]。他方、コミンテルンおよび日本共産党は、その指導下にない無産政党各派をまとめて「社会民主主義者」とみなして打撃を与える対象とし、なかでも「労農派」＝「「左翼」社会民主主義者」の「裏切的役割を暴露」することに力を入れた[49]。ここでの「社会民主主義者」とは、コミンテルンが社会主義運動内部の敵と認めた者を名指す記号であった。

無産政党はいずれも「社会主義」の文字を明文上の主張として綱領等に掲げることを慎重に避けていた。ただし内務省・特高警察は、「無産政党運動は社会主義的指導に支配」されていると断定し、その右派は「社会民主々義を信条とし」、左派は「共産主義的色彩」を帯び、中間派は「左翼社会民主々義的色彩」を帯びるものとして、いずれも官憲の監視下に置いた[50]。とりわけ「共産主義者」には治安維持法を適用して苛酷な弾圧を行い、二八・二九年に合わせて二千名以上を検挙して労働農民党を結社禁止とした。地下の日本共産党中央も三十年代前半に壊滅に追いやられた。官憲にとって「共産主義者」というカテゴリーは、思想内容を表す概念というより、むしろ「国体」に対する敵として治安維持法を適用するための記号であって、戦時体制の強化につれてその範囲は次第に拡大していった。

こうした官憲による弾圧の激化とともに、社会主義者が日本ナショナリズムに傾斜し国家統制経済の主張へ転じる例が目立ってくる。「一君万民」という「日本独自」の「愛国精神に立脚した社会主義運動」として「日本と満洲とを綜合した単一統制経済機構」の実現を提唱[51]するようになった赤松克麿が社会民衆党を離脱して「国家社会党」を設立するなど、「国家社会主義」を標榜する政治運動が満洲事変後に簇生した。同じ頃、日本共産党中央委員佐野学・鍋山貞親は、「日本民族の強固な統一性」に基づく「社会主義」への転向を獄中から声明している[52]。「国家社会主義」者の離脱後に無産政党各派が合同して結成された社会大衆党も、盧溝橋事件直後の三七年一一月、従来の「資本主義を打破し無産階級の解放を期す」綱領に代えて、「国体の本義に基き」「資本主義を改革し以て産業の計画化と国民生活の安定を期す」ことを謳う新綱領を採択した。こうした社会大衆党の転向を、官憲は「我が国の歴史と民族性に沿える社会主義を断行し我が国を盟主とする東洋社会主義の実現を目的とし、今次事変を目的実現の一契機たらんと企図」するものとみなしつつ、警戒も怠らなかった[53]。四十年、社会大衆党は自発的に解散して近衛新体制運動に参加、大政翼賛会に合流していくのであった。

四. 冷戦構造の中の社会主義（第二次大戦後）

一九四五年八月の敗戦後、連合国軍の占領下に置かれた日本では、治安維持法など弾圧法規の撤廃や政治犯釈放によって、社会主義の運動と言論がたちまち息を吹き返した。戦前の無産政党各派の関係者を中心に同年一一月、日本社会党の結党大会が開かれ、「社会主義を断行」することを綱領に掲げるとともに、経済政策として

47）たとえば山川は、「社会民主主義」は「ブルジョアの政治思想であって、プロレタリアの政治思想ではない」と断じている（山川均『無産者運動』（南宋書院、一九二七年）一四三頁）。
48）赤松克麿『社会民主主義の旗の下に』（忠誠堂、一九三〇年）序文。
49）「日本問題にかんする決議（二七年テーゼ）」［『日本共産党綱領文献集』（日本共産党中央委員会出版局、一九九六年］。
50）内務省警保局編『社会運動の状況（昭和四年）無産政党運動』七四五頁。
51）赤松克麿『新国民運動の基調』（東京中央講演会、一九三二年）二六～二八・九九頁。
52）佐野学・鍋山貞親「共同被告同志に告ぐる書」『改造』（一九三三年七月）。
53）内務省警保局編『社会運動の状況（昭和十二年）無産政党運動』五四四～五四五頁。

「社会主義計画経済の実現」「重要産業の国有化」などを列挙した[54]。一方、敗戦後再建された日本共産党は、当面の目標として「ブルジョア民主主義革命」の完遂を掲げ、次の段階における「人が人を搾取することなき社会主義制度」の実現は「民主主義的人民共和政府」によって「平和的教育手段をもって」遂行されるとした[55]。

敗戦直後の経済破綻による民衆生活の窮乏は、現状の打開策を「社会主義」に求める世論を高揚させた。「社会主義に立脚して無産階級解放の実践に参加することは、今日の知識階級の義務なのである」[56]という哲学者田辺元の発言が示すとおり、リベラルな知識人にとっても「社会主義」の道義的権威は著しく高まっていた。四七年の総選挙では、重要産業の国家管理などの「社会主義政策」を掲げた社会党が一四三名の当選で第一党となり、社会党首班の片山哲内閣は発足直後の世論調査で六七・八%の高い支持を受け、支持理由は「社会主義政策に賛意」が最多であった[57]。しかし「社会主義政策」は増産を目的とする統制経済政策へと変質し、民衆の窮乏を改善できなかったために支持が急落した。

中国における共産党政権の確立（四九年）や朝鮮戦争の勃発（五〇年）など、東アジアにおける冷戦の激化に伴う東西両陣営間の国際政治的・イデオロギー的対立は、社・共両党の内部に深刻な矛盾を引き起こしてゆく。「占領下の平和革命」論を掲げていた共産党は五〇年、国際共産主義運動を束ねるコミンフォルムから批判を受けて動揺し、おりからのレッドパージを契機に党中央委員会が解体した後、ソ連および中国共産党の支持を受けて中国革命をモデルとする武装闘争方針を打ち出した主流派と、その方針を非難する反主流派との間で互いを「分派」とみなす分裂状態が続いた。こうした混乱は、武装闘争路線が撤回され党の統一が回復された五五年まで続いた[58]。

他方の社会党内では、理念とする「社会主義」の内容とその実現方法について激しい論争が行われ、路線対立が激化した[59]。そのため社会党は五一年、戦前の労農派のマルクス主義を理論的支柱とする左派と、西欧の社会民主主義政党に倣い「民主社会主義」と「反共」を掲げる右派とに分裂した。五五年に左右の社会党は再統一したが、その綱領は「共産主義を克服して、民主的に平和のうちに社会主義革命を遂行」することを党の任務とし、東西両陣営のいずれにも与さず「真の独立の達成と確保」を目指すという、冷戦構造における微妙なバランスを考慮したものになった。そして社会党の目指す「社会主義」とは、「人間による人間の搾取を廃し、私的利潤のためではなくて、公共の利益を中心として遂行される」もので、「そこでは重要産業の公有化と計画経済により、生産力の発展、生活水準の引上げ、完全なる雇傭および社会保障ならびに所得のより平等なる分配が実行される」と規定された[60]。

五〇年代後半から始まる、東側「社会主義」体制国家群の内部におけるイデオロギー対立は、東西両陣営間の対立にもまして、戦後日本の社会主義運動に影を深く落とすことになる。五六年二月のソ連共産党大会におけるスターリン批判と、同年秋のハンガリーに対するソ連の軍事介入（ハンガリー動乱）は、国際共産主義運動におけるソ連の絶対的な権威が綻びはじめるきっかけとなった。それらの事件の衝撃を受けて、五十年代末からトロツキズムを媒介に「反スターリン主義」を標榜する新左翼諸派の思想と運動が勃興してくる[61]。さらに同じ時期に始まる中ソ対立と、それに続く日本共産党とソ連共産党および中国共産党との対立によって、世界観の唯一性を主張する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ボリシェヴィズム）の内部に正統を自任する多様な思想が錯綜し、相争うことになった[62]。

54)「結党大会の綱領と政策」「結党の宣言」（一九四五年一一月二日）［日本社会党結党四十周年記念出版刊行委員会編『資料日本社会党四十年史』（日本社会党中央本部、一九八六年）七〜一〇頁。
55)「日本共産党第五回大会宣言」（一九四六年二月二十五日）［前掲『日本共産党綱領文献集』一三四〜一三八頁］。
56) 田辺元「社会党と共産党との間」『改造』（一九四六年七月）［『田辺元全集』第八巻（筑摩書房、一九六四年）三八七頁］。
57)『毎日新聞』（一九四七年七月二一日）。
58) 日本共産党中央委員会『日本共産党の七十年（上）』（新日本出版社、一九九四年）二〇二〜二四四頁。
59) たとえば、森戸辰男「マルクス主義と対決する社会民主主義」『社会思潮』（一九四九年一一月）［前掲『資料日本社会党四十年史』一七九〜一九四頁］、稲村順三「マルクス主義と社会民主主義」同上誌（一九五〇年一月）［同上書、一九五〜二〇七頁］。
60)「党綱領」（一九五五年一〇月）［前掲、『資料日本社会党四十年史』三〇六〜三一四頁］。
61) 蔵田計成『新左翼運動全史』（流動出版、一九七八年）三二〜五〇頁。
62) 小林良彰『戦後革命運動論争史』（三一書房、一九七一年）二七四〜三一九頁。

五〇年代後半から進む高度経済成長もまた、社会主義運動のあり方に再検討を促してゆく。社会党書記長の江田三郎は、「ソ連、中国型とはことなった近代社会における社会主義のイメージを明確にする」必要を説き、その基盤として「米国の平均した生活水準の高さ」「ソ連の徹底した社会保障」「英国の議会制民主主義」「日本の平和憲法」の四つを挙げた[63]。大量生産・大量消費のいわゆる「大衆社会」状況に見合うような「社会主義のビジョン」を打ち出そうとした江田の主張は、しかし、「社会主義理論に混迷をあたえる」という批判を党内から浴びせられ、社会党の理論的基調として労農派マルクス主義に基づく社会主義革命路線が堅持された[64]。

一方、戦後「革新」勢力を支えてきた多くの人びとの意識が経済成長とともに変化しつつある状況をふまえて、新しく登場してきた「市民」意識やその運動の意義を見据えながら社会主義を捉え直そうとする理論的な努力も現れた。たとえば平田清明は、「具体的な人間がひらの市民として相互に自立して対応し、その所持する物を、したがって意思を、交通しあう社会」としての「市民社会」を継承し「勤労者の個体的所有を再建」して「自由な人間の連合」へと高めてゆくところに、「社会主義」本来の意義を展望した[65]。また松下圭一は、「先進資本主義国」の社会主義運動における「市民的自発性」の喚起の重要性を説き、とくに自治体レベルでの市民の政治参加にこそ「革新運動」の新たな展開の鍵があるとした[66]。六〇・七〇年代にいわゆる「革新自治体」が各地に叢生してゆくのは、社会主義をめぐるこうした新しい思想的営為を背景としていた。

チェコスロバキアにソ連・東欧諸国が軍事介入した事件（六八年）は、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を統治イデオロギーとする「現存社会主義」国家の在り方に対して、社会主義を理想とする人々もまた根底的な疑問を抱きはじめる契機となった。それは、一九二〇年代以来日本の社会主義思想において主流の地位にあった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の相対化を促してゆく。

たとえば、ロシアのボリシェヴィキ革命における民主主義の抑圧に対するローザ・ルクセンブルクの批判に光が当てられ[67]、さらに初期マルクスに遡ってマルクスの思想自体を捉え直す試みも始まった[68]。また、エンゲルスが「空想的社会主義」と呼んだ一九世紀前半フランスの社会主義や、イギリス社会主義の独自の伝統、ならびにプルードンなどアナーキズムの再検討によって、「社会主義」の思想史におけるマルクスの相対化も進められた[69]。日本社会主義史研究においても、二〇年代以前の無政府主義や社会民主主義の意義を再評価し、とりわけ明治期の未分化な社会主義思想に多様な発展の可能性を見ようとする見解が現れ[70]、八〇年代以降に本格化する「初期社会主義」の研究へとつながってゆく[71]。それらの研究は総じて、「社会主義」を教条化した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の独占から解き放つことで、その豊かな内容と可能性を取り戻そうとする試みであったといえよう。

おわりに　冷戦終結以後おける「社会主義」の行方

以上、一八七〇年代の日本に「社会主義」が紹介されて以降、百年以上にわたるこの政治思想的概念の推移

63）江田三郎「社会主義の新しいビジョン」（一九六二年一〇月）［前掲『資料日本社会党四十年史』五六八～五七六頁］。
64）六六年の社会党大会で承認された社会主義理論委員会の報告書「日本における社会主義への道」は、「革命を通じていわゆる福祉国家の限界を突破した社会主義にむかって前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その過程で「ある種の階級的支配を行わねばならぬ」必要にも言及している［前掲『資料日本社会党四十年史』所収、七七〇～七九一頁］。
65）平田清明『市民社会と社会主義』（岩波書店、一九六九年）七三～一二五頁。
66）松下圭一「〈市民〉的人間型の現代的可能性」一九六六年六月［同『戦後政治の歴史と思想』（筑摩書房、一九九四年）一七一～二〇一頁］。
67）伊藤成彦「新しい社会主義像への模索ーローザ・ルクセンブルク研究国際会議から」『思想』（一九七三年一二月）。
68）廣松渉『マルクス主義の成立過程』（至誠堂、一九六八年）など。
69）日本政治学会編『西欧世界と社会主義（年報政治学）』（岩波書店、一九六六年）、河野健二編『プルードン研究』（岩波書店、一九七四年）、など。
70）代表的なものとして、松沢弘陽『日本社会主義の思想』（筑摩書房、一九七三年）。
71）一九一〇年代以前の日本社会主義の思想と運動に関心をもつ研究者たちの結集した団体として、「初期社会主義研究会」が一九八三年に発足した。

を追跡してきた。「社会主義」は一方の極において、近代社会の欠陥を根本的に解決するいわば希望の福音として強固な信念の対象となり、他方の極においては、社会の秩序を根底から脅かす危険な妄想として排撃の対象となった。現実政治の場で展開されたその運動や体制についての認識および価値判断のあり方に応じて、「社会主義」という概念の内容は鋭い対立のなかでさまざまに揺れ動いてきたのである。

一九八九年に起きた東欧諸国の体制崩壊から、九一年のソ連解体に至る一連の出来事は、「社会主義」をめぐる日本の言説状況を一変させ、論壇・学界を問わずこの言葉をもっぱら否定的に扱う風潮が急速に広がった。そうした言論のあり方を丸山眞男は次のように批判している。「日本というのはひどいね、極端で。二重三重のおかしさですね。第一にソ連的共産主義だけが社会主義じゃないということ、第二に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は社会主義思想のうちの一つだということ、それからたとえ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が正しいとしても、それを基準にしてソ連の現実を批判できるわけでしょ、それもしていない。ソ連や東欧の現実が崩壊したことが、即、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全部がダメになったということ、それから今度はそれとも違う社会主義まで全部ダメになったことっていう短絡ぶり、ひどいな」[72]。

とりわけ、戦後五十年間にわたり「社会主義」の理念を高く掲げ続けた日本社会党が、一九九六年に「社会民主党」へと党名を変え、党の理念から「社会主義」の文言を完全に消し去ったのは、この言葉をめぐるイメージの凋落ぶりを象徴する出来事であった。一方、日本共産党は九四年の党大会で、ソ連の体制を「社会主義の生成期」としたそれまでの規定を捨て、その体制はそもそも「社会主義」と無縁であったと断定した。「社会主義・共産主義への前進をめざす」ことは現在の同党の綱領でも謳われているものの、当面の実践的な政治課題のはるか先にある理想として、いわば棚上げされた状態にある。

冷戦終結から二十年以上経過した現在、日本における政治的対立軸として「社会主義」が再び浮上する兆しはみられない。果たして日本の「社会主義」は、すでに過去の政治思想として歴史的使命を終えつつあるのだろうか？それとも、社会を動かす生きた思想として今後再び力強く発展する可能性をもっているのだろうか？こうした問題に答えることはもとより本稿の課題を超える。少なくとも今いえるのは、「社会主義」が提起してきた近代資本主義の諸問題は、二一世紀に入って解決の目途がつくどころか、ますます混迷の度を深めているようにみえることである。

72)「同人結成のころのこぼれ話」一九九二年六月［『丸山眞男集』第一五巻（岩波書店、一九九六年）所収、一六六〜一六七頁］。

【메 모】

【문학 분과】 발표 ①

心灵创伤与灵魂治疗：解读张翎的『余震』、『唐山大地震』

毕文秀*

【목 차】

1. 引言
2. 童年心灵创伤
3. 海外生活经历与童年创伤间的关系
4. 心理治疗
5. 结语

1. 引言

加拿大籍华人作家张翎是目前华人华文文学中比较活跃的女作家之一，她1983年毕业于复旦大学外文系，后就职于煤炭部规划设计总院任英文翻译，1986年赴加拿大留学，十年后开始文学创作，长篇小说『望月』（1998）是其长篇处女作。张翎在谈及自己的文学创作时称，“书写『望月』时，我刚刚度过了在北美最初十年的艰辛求学谋生生涯，定居在多伦多，成为一名注册临床听力康复师（clinical audiologist），如英国作家弗吉尼亚·伍尔夫所言，有了‘五百英镑的年收入’和‘一个自己的房间’。积攒了几十年的阅历正渴望着一场疯狂的爆发，我从此开始了渴望已久的创作生涯。”[1]正因为张翎在赴北美十年之后，开始了创造，这使得她的创作少了几分浮躁，而多了几分对异国文化的理解，而从人性的共通处着眼，寻找东西方人性共同之处，也突破了华人华文文学写作的局限。[2]

纵观张翎的创作因阶段不同而呈现出明显不同的风格，关于这一点，张翎自己也谈到，『望月』（1998）、『交错的彼岸』（2001）和『邮购新娘』（2004）这三部小说“是十多年前的作品了，记录的也是当时对世界的观察和反思。三部小说都描述了一些共同的母题，如故土家园，还有追寻理想家园的人，如『望月』中的孙望月和宋世昌，『交错的彼岸』中的黄萱宁和彼得·汉弗雷，『邮购新娘』中的江涓涓。他们有的从东方走到西方，有的从西方走到东方，出发时都是怀着鲜明的目的的，然而由于过程过于迂回漫长，他们丢失了目的，过程就成了目的，于是他们也就成了永远行走在路上的人。他们被生活的各种境遇碰擦出各样的伤痕，他们是有故事的人，他们行走在世界上的姿势是茫然甚至是跌跌撞撞的。他们和我后期小说中试图在大灾难的废墟里站起来的人物，比如『阵痛』中的勤奋嫂，『余震』中的王小灯，『金山』中的阿法和六指，形成了一个鲜明的对比。这两队人马面对面站立着的时候，就构成了我小说创作的一个整体。”[3]

本文主要探讨的是小说『余震』以及长篇小说『唐山大地震』。『余震』完稿于2006年10月，原发于2007年1月的『人民文学』。可以说『余震』在张翎的创作中占有着举足轻重的地位，因为从『余震』开始，张翎开始了她小说叙述的转型，由通过“寻找”主题展现探讨人类共通的人性相同之处，转向了关注大历史背景下的小人物。尽管

* 동원과학기술대

1）张翎，「书海里的重生之旅-“江南三部曲”再版前言」，『望月』（杭州：浙江文艺出版社，2015），第1页。

2）关于张翎小说研究的既有研究成果参考毕文秀，「突破华人华文文学写作的局限：以华人作家张翎为例」，『中国现代文学』第81号，2017.4。

3）张翎，「书海里的重生之旅-“江南三部曲”再版前言」，『望月』（杭州：浙江文艺出版社，2015），第3页。

在张翎的创作中，从来历史都是她笔下人物的生活背景，但是在讲述经历了中国唐山大地震之后主人公后来的故事小说中，张翎开始质疑主流话语意识，张翎在『余震』后记中这样说到“那些孩子们的后来，只是被一些简单的句子所概括：‘……成为企业的技术骨干’；‘……以优异成绩考入大学’；‘……建立了幸福的家庭’。可是我偏偏不肯接受这样肤浅的安慰，我固执地认为一定还有一些东西，一些关于地震之后的‘后来’，在岁月和人们善良的愿望中被过滤了。”4)2010年中国大陆导演冯小刚据其改编成电影『唐山大地震』，『唐山大地震』这部电影可以说被冯小刚拍成了一部道德伦理片，其主题主旨同张翎的『余震』有着很大的不同，就地震这一层面来说，『余震』中张翎关注的是地震可能给当事人心理带来的创伤，读来有一种说不清道不尽的痛，而冯小刚则着重表现了地震之后人民解放军的作用，甚至女主人公王小灯被解放军夫妇收养，而小说中的女主人公王小灯却遭到了养父的性侵。小说中的主人公是地震中被母亲抛弃的小女孩王小灯，冯小刚却偷换了主人公，电影中的主人公则是王小灯的母亲和收养王小灯的养父。张翎认为“小说揭示了人被天灾逼到角落时的残酷，而电影则诠释了人性在灾难中的温馨和光辉。小说和电影互为陪衬得反映了大灾难面前人性的复杂多面。”5)然而张翎这部小说的内涵又不仅止于此。

张翎善于在小说中同时处理多个人物的人生故事，小说『余震』似乎是个例外。这篇小说在叙事时将焦点放在了唐山地震经历者王小灯身上，采用第三人称限知视角，以“复调叙述”的形式展开叙述，一条线讲述地震之后王小灯的经历，一条讲述王小灯幸存的家人她妈妈和弟弟的经历，以王小灯的故事为主，她妈妈和弟弟的故事为辅。张翎说“『余震』是一部只有四万字的中篇小说，篇幅给我设立的边界使得我在内容取舍上不得不忍痛割爱，将王小灯独立地剥离出来，给了她多于旁人的舞台聚光灯。”6)有感于中篇小说『余震』留白太多，作家张翎于2012年9月又在『余震』的基础上，创作出了『唐山大地震』这部长篇小说。张翎说“『余震』是根，『唐山大地震』是从根里长出来的新知新叶。”7)『唐山大地震』在『余震』既有的内容基础之上，增添了王小灯的母亲李元妮的人生包括婚前经历、弟弟万小达地震之后的人生经历、王小灯与其养父母间的故事、心理医生沃尔佛的人生故事、王小灯的丈夫杨阳同女画家向前间的故事、王小灯接受心理治疗之后同其丈夫和女儿间关系的改善、王小灯的少数文学写作、王小灯同其母亲相认在自己及其父亲的墓地上忏悔等。本文将以这两部小说为研究对象，考察主人公王小灯童年的地震经历造成的心灵创伤如何影响了她的一生，她的海外生活经历与童年的心灵创伤又有着怎样的关系，作者张翎又是如何让她笔下的主人公真正站起来的，从而探讨张翎写作的新突破以及从整体上来说这两部小说对华文文学写作的意义。

2. 童年的心灵创伤

小说『余震』以住在加拿大多伦多的华人移民王小灯自杀却自己打911电话求救为开始的，而且这不是第一次，而是第三次，从小说叙述中的时间可以推测出三年之内她自杀了三次。王小灯一出场其形象如此“女人脸上两个黑洞似的眼睛。洞孔大而干枯，深不见底。沃尔佛医生和女人对视了片刻，就不由自主地被女人带到了黑洞的边缘上。一股寒意从脚尖上渐渐爬行上来，沃尔佛医生觉出自己的两腿在微微颤抖，似乎随时要失足坠落到那两个万劫不复的深渊之中。”8)眼睛是心灵的窗户，女人“黑洞似的眼睛”意味着其内心一如死水，毫无生气。小说通过心理医生沃尔佛的视角，间接表达了王小灯内心的冰冷及其对人生的绝望。

小说伊始就设下了悬念，主人公为什么一而再再而三地选择自杀呢？是何种沉重消磨掉了她对人生的热情？王小灯，即万小登，本来有一个幸福的童年，7岁时经历了唐山大地震，自己和胞弟同时被压在一块大石板下面，如同挂在天平的两端，一个压在这头，一个压在另一头，母亲只能选择救出其中的一个，最后她选择了留下儿子。小灯隔着泥土石板听着母亲亲口说出救自己的弟弟。这一经历给王小灯幼小的心灵，带来了严重的创伤，影响了她一

4) 张翎，「后记」，『余震』（北京：北京十月文艺出版社，2010），227-228页。
5) 张翎，「遗憾，补缺，还有感动-代前言」，『唐山大地震』（广州：花城出版社，2013），第3页。
6) 张翎，「遗憾，补缺，还有感动-代前言」，『唐山大地震』（广州：花城出版社，2013），第3页。
7) 张翎，「遗憾，补缺，还有感动-代前言」，『唐山大地震』（广州：花城出版社，2013），第4页。
8) 张翎，「余震」，『余震』（北京：北京十月文艺出版社，2010），5页。

生。张翎说“『余震』是关于疼痛的。一种天灾带来的，却没有跟随天灾逝去的心灵疼痛。”[9]地震之后王小灯得了脑震荡。关于王小灯的头疼症，叙述者如此描述：

> 小灯的头疼由来已久。X光，脑电图，CT扫描，核磁共振，她做过世上科学所能提供的任何一项检查，却没有发现任何异常。多年来她试过中药、西药、针灸、按摩等等的止疼方法，甚至去印第安部落寻过偏方，可是一直没有效果。她曾经参加过一个有名的医学院举办的疼痛治理实验，一位研究成果斐然的医学专家让病人一一描述自己的疼痛感觉。有人说针扎。有人说虫咬。有人说锥钉。有人说刀砍。有人说绳勒。
>
> 轮到小灯时，小灯想了很久，才说是一把重磅的榔头在砸－是建筑工人或者铁匠使用的那种长柄方脸的大榔头。不是直接砸下来的，而是垫了好几层被褥之后的那种砸法。所以疼也不是尖锐的小面积的刺疼，却是一种扩散了的、沉闷的、带着巨大回声的钝疼。仿佛她的脑壳是一只松软的质地低劣的皮球，每一锤砸下去，很久才能反弹回来。砸下来时是一重疼，反弹回去时是另外一重疼，所以她的疼是双重的。专家听完了她的描述，沉默许久，才问：你是小说家吗？[10]

王小灯的头疼症非常严重，甚至影响了她正常的生活，她的生存状态只有两种：疼和不疼。可是利用科学仪器并没有检查出什么异常，因此可以说其病根不在肉体上。荣格认为“物质和精神之间的冲突仅仅表明：精神生活在最深的根源上是不可理解的‘某物’。这无疑是我们唯一的直接经验。我所经验到的一切都只是心理的东西。甚至肉体的疼痛也只是我经验到的一种心象；我的感官印象加之于我的是一个占用空间的难以把握的对象世界，而感官印象本身则不过是一些心象，并且只是这些心象才构成了我的直接经验，因为只有它们才是我的意识的直接对象。我自己的精神甚至改变和伪造实在，它把实在窜改到这样一种程度，以致我不得不依靠人为的手段来确定事物在我之外究竟是什么模样。”[11]荣格是一位非常重视心灵存在的学者，依据他的逻辑，可以说，王小灯的头疼症毋宁说是一种心理现象。王小灯对自己头疼症状的描述，与其说是在讲头疼得如何厉害，不如说她在讲述自己如何得了头疼症的这一过程。通过她的讲述，我们似乎可以看到当年地震中王小灯和弟弟同时被压在大石板下，人们如何轮着大榔头一锤一锤地把石板打碎救出她弟弟，而自己却被抛弃了。砸下去的每一锤都砸在她的心里，因此她的疼是双重的，一重是因为强烈的震荡引起的肉体上的疼痛，一重是因母亲的抛弃给她带来的心灵创伤，是精神上的疼痛。

作者张翎用尽笔墨，讲述地震带来的心灵创伤对王小灯个人生活的影响。地震引起的这一创伤是根，是震中，其后来的人生经历可以说是基于该基础上的余震。比如地震之后，王小灯被王氏夫妇领养，六年之后，养母因黑色素癌症不幸去世，从查出病情到去世仅仅一个月。葬礼上，王小灯只是冷冷地说了一句“你骗了我”。

> 只有王德清明白小灯的意思。当年把小邓领回家的时候，一路上小邓只问了一句话，不过这句话她一连问了三次，“你们会收留我多久？”这一句话问得董桂兰眼泪涟涟。董桂兰搂了小灯，反反复复地说：“一辈子，一辈子，我们一辈子都和你在一块。”
>
> 葬礼完后回了家，王德清就病倒了，高烧，一阵一阵地打着摆子。小灯端了药，喂王德清吃了，突然问：“你呢，你也会走吗？跟她去？”
>
> 王德清看见小灯的脸，仿佛一夜之间变得棱角尖利起来。那尖利是一层外壳，裹住了所有其他的情绪，而害怕却如一片雾气，在外壳薄弱之处冒出丝丝缕缕的马脚。王德清抱住小灯，抚摸着小灯马鬃一样硬挺的头发，忍不住号啕大哭，哭得一脸鼻涕。
>
> “灯啊，爸爸不会，绝对不会，离开你。这世上只有，只有咱爷俩了。”[12]

这一年王小灯十三岁，同她的养父母已经生活了六年。六年中，无论是养父还是养母都对小灯极好，尤其是养母更是视其如己出。养母并不曾料到自己会得癌症，更不曾想到会在一个月内过世。生死有命，这并不是养母的错。可是在王小灯看来，她的养母没有信守承诺，她无疑又一次面对被抛弃的局面。尽管她外表坚韧冰冷，而内心却无比脆弱。她的害怕即刻被王德清觉察到了，他心疼小灯，安慰小灯，可是大概连他自己都料想不到自己竟然对王小灯进行了性侵犯。王小灯上大学时，选择去了上海复旦大学的外文系，毕业之后也留在了上海，不曾再跟其养

9）张翎，「后记」，『余震』（北京：北京十月文艺出版社，2010），228页。
10）张翎，「余震」，『余震』（北京：北京十月文艺出版社，2010），21页。
11）（瑞士）荣格（Jung,C.G.）著，冯川、苏克译，『心理学与文学』（南京：译林出版社，2011），16页。
12）张翎，「余震」，『余震』（北京：北京十月文艺出版社，2010），52到53页。

父联系。后来王小灯又选择了留下幼女，独自留学北美。小说『余震』中没有交代王小灯为什么作出如此选择，导致叙述出现断裂。在小说『唐山大地震』中，作者张翎则交代得很清楚。因为她的养父王德清在其女儿苏西三岁时，突然出现，且在王小灯不知情的情况下，到王小灯女儿所在的幼儿园将其接走。王小灯被养父性侵之后，第一次正式见到其养父竟然是养父在给女儿洗澡的场面。

到了宿舍门口，小灯发觉门是虚掩着的。她喊了一声杨阳，没人回应。推门进去，就听见了厨房里哗哗的水声。往前走了几步，就看见厨房的地上白了一只大铝盆，苏西赤身裸体地坐在一盆水中，舞手舞脚地唱着歌。有个男人正背对着她，拿了一条毛巾给苏西揩洗身子。

突然间苏西停了歌，欢天喜地地喊了一声妈。男人回过头来，看见了小灯。四道目光在空中相遇，时间成为定格。

“是杨阳给我开的门。他去食堂买菜了，让我给苏西，先洗个澡-她皮了一天，流了一天汗了。”男人嚅嚅地说。

按照常理，外公给三岁的外孙女洗澡并没有什么大问题，问题在于这一场面直接刺激了王小灯唤醒了自己曾经被养父性侵犯的记忆。当初王小灯被养父性侵犯时，她想挣脱，想反抗，可是身子却软软的，没有力气，只是在养父把手指伸到她下体时，她才把养父踢下了床。可是这一次，作者张翎采用儿童视角的叙述手法，将王小灯的愤怒表达得淋漓尽致。

接下来发生的事，在苏西眼中简直就是儿童卡通片里的慢镜头动作。妈妈的眼眶撕裂了，流出一丝猩红的血。她像一只母豹，从地上腾空而起，一把将苏西从水中抢出来，还没站定的时候，就飞出了一条横腿，将那个男人一腿踢翻在地上。男人猝不及防，一路溜出很远，脊背在门框上狠狠地撞了一下，一只花瓶砰地一声落到了地上，砸成了无数个碎片。13)

王小灯十三岁时，没有足够的力量和能力去反抗养父的性侵，她需要经济上的资助，但是成年之后，她已经不再需要养父的经济资助，少女时代养父的性侵记忆长期因压抑而沉寂为潜意识，但是看到养父给女儿洗澡，王小灯长期压抑的那种屈辱与愤怒终于爆发。通过儿童视角来描述，更是强调了这一愤怒的强度与真实。“砸成了无数个碎片的花瓶”更具有象征意义，王小灯一直以来，都在有意或无意地忘记自己曾经的经历，童年时地震中被母亲抛弃的经历，曾经被养父性侵的经历，一直希望一家三口能够过上幸福的生活，可是养父的出现，唤醒了曾经所有的记忆，特别是养父跟她说“唐山市政府有人来过，做地震孤儿的跟踪调查，问你是不是记起从前的事了。他们会直接找你联系的。”14)听到这个消息后，“小灯不吭声，只是定定地盯着自己的鞋尖，仿佛那上面歇着一只大马蜂。”15)这里，张翎采用了比喻的修辞手法，养父带来的消息对王小灯来说，确实如同蜇人的大马蜂，而且对王小灯来说，有着致命的危险。从那天开始，王小灯的精神状态就出现了问题。

这天半夜，杨阳被一泡尿憋醒，正想起身小解，突然发现床头闪着两点光亮，绿莹莹的，像鬼火。仔细一看，原来是小灯披头散发地坐在床头，两眼直直地瞪着前方发愣。

杨阳吓了一大跳，声音撕成了破布条：“怎，怎么啦，你？”

小灯幽幽地叹了一口气，说杨阳，我想出国留学。

杨阳把一颗悬在半空的心放回了肚子里。他拍了拍妻子的肩膀，说你给我好好睡下，那事明天醒了再讨论。16)

此时，小灯和杨阳结婚已经四年了，从丈夫杨阳的反应中可以看出，之前小灯的睡眠是正常的。虽然小灯一直有头疼症，但是并不曾影响到她正常的生活。可是，养父的出现以及他带来的关于唐山政府要做地震孤儿的跟踪调查，甚至唐山政府会直接跟小灯联系等等消息，使得王小灯的内心陷入了严重的不安状态。曾经的经历给她带来的创伤是致命的，她不愿意想起过去的那一段，甚至有意识地在忘记十八岁之前的一切经历。她在考上大学到学校报到，安顿好住处之后，曾喃喃地对自己说“好了，那一页，终于翻过去了。”17)她通过自己的努力，建立了一个美

13) 张翎，『唐山大地震』（广州：花城出版社，2013），84页。
14) 张翎，『唐山大地震』（广州：花城出版社，2013），85页。
15) 张翎，『唐山大地震』（广州：花城出版社，2013），85页。
16) 张翎，『唐山大地震』（广州：花城出版社，2013），86页。
17) 张翎，「余震」，『余震』（北京：北京十月文艺出版社，2010），42页。

好的家庭，幸福美满的生活已经开始了，可是养父的出现打破了王小灯自己营造的内心的平衡，正如那个碎成无数碎片的花瓶，这里已经用象征的手法为她美好生活的美梦的破碎埋下了伏笔。在她看来，只要不暴露自己曾经被抛弃的经历，她幸福美满的生活还是可以维持下去的。而能够避免和唐山政府联系的最好的方法，就是离开生她养她的祖国，于是王小灯毅然选择了出国留学，并且在六个月后不声不响地办妥了去加拿大留学的签证。可以说是童年经历的心灵创伤让王小灯忍心舍下可爱的幼女，独自一人来到加拿大。为了逃避童年的心灵创伤，选择来到加拿大，可不曾想到，加拿大的生活却让她陷入了另一种困境。

3. 海外生活经历与童年创伤间的关系

尽管加拿大是一个提倡多元文化共生的开放型的国家，但毕竟是一个以白人为主流社会的国家。“威尔·金里卡认为所有的自由主义民主国家都试图在自己的疆域内扩展一种社会主流文化。这种民族文化建构并不排除在宗教、个人价值、生活方式等方面的差异性，但它却具有种族性的基础，在诸如官方语言、教育的核心课程和获取公民资格条件等方面都有硬性规定。个体可以自由地选择眼前的价值观念。不过，价值观念的选择范围本身却是不可选择的。”[18]这就决定了移居者必须面对来自主流社会的压力。语言和居住时间大概是移民们被问得最频繁的两个问题，看似平常的背后隐藏着强烈的主流话语意识，它时刻提醒移民（移居者）的边缘地位。小说『余震』中，在小说开始之初，心理一生问王小灯的第一个问题是“雪梨，你来加拿大多久了？”[19]并且在他同王小灯进行简短的对话之后，叙述者就王小灯的英语水平进行评论，“女人的英文大致通顺，疑难的发音有些轻微的怪异，却依旧很容易听懂。”[20]王小灯大学读的是外文系，后来担任外文翻译工作，就是在加拿大生活的时间也已经十年了，学的还是英美文学，她接触英语的时间可以说不算短，但即使这样，她的语言在主流社会成员心理医生沃尔佛看来，依然有些“怪异”。哪怕是轻微的“怪异”，也是一种以主流社会成员的发音标准来判断的，吊诡的是，主流社会成员其发音也会因人而异，也会有地方口音问题，但是他们却不会用”怪异“来形容。

史书美教授提出“反离散”，主张华人华裔应以所在地的语言发声，强调他们同所在地主流社会的交流与互动，以为这样就可以完全融入所在地的主流社会[21]，这不过是史书美的一厢情愿而已。王小灯是以所在地主流社会的语言发声的，是一个用主流社会语言英语写作的少数族裔作家，她的创作属于德勒兹所谓的“少数文学”。德勒兹和瓜塔里认为“少数文学并非产生于少数族裔的语言。它是少数族裔在多数（major）语言内部建构的东西。”[22]他们为“少数文学”总结了三个特点，其中之一是“文学中的一切都是政治的。”[23]多元文化共生应该建立在平等的、互相尊重的基础之上。王小灯的第一篇英文小说写的是中国的过年，『神州梦』讲的也是有关中国的故事。王小灯用英文讲有关中国的故事，不排除她有想让主流社会了解中国文化，继而认同中国文化这样的心理。似乎主流社会也是认同她的写作的，因为她讲过年的小说发表在『纽约客』这样的在主流社会有着很大影响力的杂志上，『神州梦』更被提名总督文学奖。加拿大总督文学奖堪称是加拿大最大的国家级文学奖，每年评选一次，由评审从上千件的英语、法语作品中评选出入围作品与得主。[24]作者张翎在小说中如此评论王小灯的英文写作，“支撑她英文写作的，是她的中文思维。思维是骨头，文字是皮，可是骨头和皮中间，还隔着厚厚的一层肉。多年来小灯一直在努力地缝合骨头和皮中间的那层疏隔，用那几本不离身的词典和参考书。”[25]哪怕王小灯的英文说得再好，她的小说写得再棒，那也是用中文思维来支撑的，可这又不是单纯的中文思维，而是有了加拿大生活经验的中文思维，因此具有一种混种性，对白人主流社会来说，并不是纯正的英文文学，而王小灯的华人身份、讲述中国故事主题本

18) 赵稀方，『后殖民理论』（北京：北京大学出版社，2009），193页。
19) 张翎，『余震』（北京：北京十月文艺出版社，2010），5页。
20) 张翎，『余震』（北京：北京十月文艺出版社，2010），6页。
21) 参考史书美著，杨华庆译，蔡建鑫校，『视觉与认同：跨太平洋华语语系表述·呈现』（台北：联经出版事业股份有限公司，2013年）导论部分。
22) 陈永国编，『游牧思想－吉尔·德勒兹、费利克斯·瓜塔里读本』（长春：吉林人民出版社，2003），111页。
23) 陈永国编，『游牧思想－吉尔·德勒兹、费利克斯·瓜塔里读本』（长春：吉林人民出版社，2003），112页。
24) 参考加拿大总督文学奖。https://www.douban.com/group/topic/33205605/（2017.8.22检索）
25) 张翎，『唐山大地震』（广州：花城出版社，2013），78页。

身就已经满足了他们对异国风情的想象。可以说，王小灯的写作，并没有真正进入主流，而是徘徊在主流的边缘。少数话语提倡者简·穆罕默德和大卫·劳埃德认为“多元共生是从主流文化角度出发的，巩固了一种中心/边缘的格局。对于多元文化主义来说，种族文化只是一种异国情调，是一种装饰。”[26]王小灯的少数文学也没有逃脱这一宿命。

对王小灯来说，来自加拿大主流社会无形的巨大的压力，如同一种看不见的、捅不破的无边黑暗。它唤醒了一直被王小灯压抑在潜意识中的童年不幸的经历。年幼的王小灯在地震中曾经历过一种黑暗，“不是夜里关灯之后的那种黑暗，因为夜里的黑暗是有洞眼的。窗帘缝、门缝、墙缝，任何一条缝隙都可以将黑暗撕出隐约的破绽。可是那天小登遭遇的黑暗是没有任何破绽的，如同一条完全没有接缝的厚棉被，将她劈头盖脸地蒙住了。刚开始时，黑暗对她来说只是一种颜色和一些泥土的气味，后来黑暗渐渐地有了重量，她觉出黑暗将她的两个额角挤得扁扁的，眼睛仿佛要从额上爆裂而出。”[27]“黑”、“黑暗”是『余震』中尤为值得注意的一个意象，它对王小灯来说，意味着恐惧与无助，而母亲李元妮却选择了救弟弟万小达，黑暗因此而吞噬了王小灯。可是王小灯实在是命大，竟然奇迹般地活下来了。地震之后，她选择了忘记过去。这一点，小说然而她心灵受到了创伤却她一生都希冀从这种充满着黑暗的恐惧之中逃脱出来。她本期待母亲可以帮自己从黑暗中逃脱出来，可是母亲没有。此次的经历大概让小灯觉得命运应该掌握在自己手中，给自己改名为“灯”，大概是为了驱走人生路上的黑暗，给以光明。从王小灯的一生来看，她不断地向前行，其生活轨迹离自己的故乡唐山，第二故乡石家庄越来越远。似乎她在有意远离那些曾经给自己心灵带来创伤的地方。或许在她看来，她离故乡越远，就会离那段痛苦记忆越远，甚至可以忘记它们，重新开始生活，最后她选择了出国留学，来到加拿大。

地震中她被家人抛弃、地震中感受到的黑暗以及绝望尽管被她遗忘了，但这并不代表曾经的经历就凭空消失了，而是转换成为潜意识，间接地发生作用。然而一旦这类记忆成为了被压抑的内容，或者说成为潜隐记忆（cryptomnesia），当遇到相似的情景，这种被隐藏在潜意识里的潜隐记忆就会被唤醒，对当事者起作用，从而导致当事者的意识产生混乱，以致出现神经症。[28]

王小灯的神经症起初是以头疼的形式开始的，前面分析过她的头疼与其说是肉体上的，不如说是心灵上的或者说精神上的头疼。每一次的头疼，都唤醒了被她压抑在潜意识中被抛弃的经历。她倾向于反复思考自己过去被抛弃的经验和现在的失望（无法融入主流社会），以至于其神经症越来越厉害，武断多疑。从小说的叙述中可以看出，王小灯的言行思维是以自我为中心的，这种以自我为中心的挑衅的、消极的人生态度，使得同家人间的矛盾越来越尖锐，最终女儿因为她偷看自己和同学间的聊天记录，被当场逮着后，非但没有向女儿道歉，反而说风凉话刺激女儿，导致女儿离家出走。丈夫好心劝她用不着管女儿那么紧，反而被无理抢白，说是嫌她管自己太紧，且无端猜忌自己同别的女人有染。面对王小灯的不可理喻，丈夫也离家走了。

> 门咣地一声带上了，窗玻璃在嘤嗡地颤动。小灯很想抓住一样东西狠狠地摔到墙上，摸来摸去，身边竟没有一样可抓的，只好把指头紧紧地捏在手心，听凭指甲钉子似的扎进肉里，身子却格格地发起抖来。
>
> 靠不住啊，这世上没有一样狗东西是靠得住的。小灯恨恨地想。
>
> 她知道，这个圣诞节她只能是一个人过了。[29]

而这发生在圣诞节前一天的平安夜，本该是一家人欢喜共聚一堂互相庆祝的日子。可是女儿离家出走，丈夫也负气离家。王小灯本是出于气愤，“想抓住一样东西狠狠地摔到墙上”，可她“身子却格格地发起抖来”，这并不是因为生气，而是出于恐惧，她应该是再次想起了童年被母亲和弟弟抛弃的经历，她害怕自己的丈夫和女儿也会像她妈妈和弟弟那样抛弃自己，再加上救世军的圣诞唱诗班在她门前唱的歌词中的一句“沦落异邦，寂寞伤心”，这一句歌词可以说是一剂催化剂，外在的主流社会的压力加上内在的童年被抛弃的经历，两下夹击，王小灯内心的孤独、无助、挫折感、空虚感、失败感等一起涌上来，她难以负荷，选择了自杀。这是一场令人揪心的悲剧。

---

26) 赵稀方，『后殖民理论』（北京：北京大学出版社，2009），215页。
27) 张翎，「余震」，『余震』（北京：北京十月文艺出版社，2010），15页。
28) 荣格（C.G.Jung）等著；张月译，『潜意识与心灵成长』（上海：上海三联书店，2009），14-20页。
29) 张翎，『唐山大地震』（广州：花城出版社，2013），28页。

4.心理治疗

庄伟杰评论说，“读张翎的作品，能获得一种难以言喻的享受。这不仅是她富有出色的语言表现功力，也不是仅为‘跨文化’写作带给她的宽广度，而且在于她对某种情绪的深刻体验和对某种状态的精确描摹，更在于初读时扑面而来的略带隐痛、伤感的气息，然而渐渐地就有一股温润的潜流缓缓地注入心田，依次浸染弥漫和泛滥，让那些伤感或隐痛化开，仿佛变成一种充满优雅的力度。”[30]弗洛伊德认为，无意识主要来自个人早期生活特别是童年生活中受到压抑的心理内容。而他的这种想法得到了医疗实践的检验：当他以诱导的方式让病人说出那些压抑和潜藏在内心的被遗忘了的经验时，病人的症状立刻大见减轻甚至完全好转。[31]张翎在小说中运用了弗洛伊德的理论，通过心理医生的引导，王小灯开始正视自己的内在心灵。

王小灯在接受心理治疗之前，她总是设法维持她在家中绝对的中心地位，束缚女儿、丈夫，很少做心灵上的沟通。语言是人类传达知识讯息的主要符号，是构造整个社会文明的基本媒介，但是它所传送的讯息之真实性与准确性就有待我们推敲了。[32]作者张翎在此就通过她的这两部小说表达了这一点。同样的一句话，会因为说者与听者的经历与出发点以及理解不同，而使得语言完全丧失了其传达讯息的准确性。王小灯曾经不止一次对杨阳谈过自己的经历，当然都是带过而已，没有细说，杨阳也没有细问。尽管王小灯自己在有意识地压抑着自己曾经的记忆，可是如果杨阳可以抛开一切成见，肯于倾听王小灯内在的声音，或许，王小灯会过着完全不一样的生活。王小灯第三次自杀前，同杨阳发生了一场激烈的争吵，杨阳半夜离家。

> 昨晚临出门前，他回头看了一眼小灯，说：“我的神经，断了。”
>
> 小灯蜷曲在楼梯拐弯处，抬头看了他一眼，眸子里是一种他不熟悉的眼神-是受伤了的狗仰望路人的眼神：柔弱、凄惶、无奈，甚至还有隐隐一丝的哀求。
>
> 刹那间，他几乎决定转回身去，抱住她，对她说：“灯，你有病，我们一起来治病。”
>
> 但是，还没容他开口，她就打断了他。
>
> “这算什么？我的神经，很早以前就断了。”她说。
>
> 这句话本身并不算太冷，冷的是说这句话的语气。这句话披上了这样的语气，像一颗坚硬冰冷的子弹，瞬间打飞了他所有的幻想。他暗暗嘲笑自己：哀怜这一类的情绪，即使再过一万年，也不会出现在这个叫王小灯的女人身上。
>
> 他毅然走出了家门。[33]

荣格曾经一再强调人的直觉的重要性，认为人的直觉同人的心灵有着密切关系，可以直接传达心灵的东西，是理智让人忽视甚至无视直觉。[34]杨阳的直觉是对的，如果他了解王小灯童年的经历，了解王小灯的心灵，那么他一定会知道他此时此刻感受到的确实是王小灯内在心理的真实写照，可惜他被王小灯一贯的伪装给欺骗掉了。王小灯说的话也是实话，她的神经确实早就断了，这里的神经其实暗指情感-懂得去爱人的情怀，大地震经历让她丧失了爱人的能力，而少女时代被养父的性侵，又让她丧失了对人的信任。尽管她不断地努力爬起，异国的生活又不断地唤醒她潜意识里被压抑着的那些痛苦的回忆。应该说大地震妨碍了王小灯内心的成长，虽然从年龄上看她早已是成人，但她的内心一直停留在童年。小说最后王德清弥留之际曾忏悔“她脸上的每一条细纹都有出处啊，最长最深的，可以一路追溯到三十年前那一场天塌地陷的灾难，和二十四年前那一个夺走了她童真的下午。”[35]

王小灯接受心理治疗，心理医生让她闭上眼睛时，她看到的是“一扇又一扇紧闭着的窗户”。这一扇又一扇紧闭着的窗户是一个很重要的意象。它意味着王小灯的内在心理状态是封闭着的，即缺乏内心情感交流。接受心理医生的治疗过程实质上是她在向心理医生倾诉自己人生经历和内心情感的过程。在这一过程当中，心理医生充当的是一个倾听与诱导的角色，比如“不一定非得要等别人送你一朵，你若能送给别人一朵也是不错的”[36]等，王小灯在

30)（澳大利亚）庄伟杰，「跨疆越域的边缘叙事-以新移民女性作家严歌苓、张翎为例」，『世界华文文学论坛』2008.3，6页。
31)（瑞士）荣格（Jung,C.G.）著，冯川、苏克译，「译者序」，『心理学与文学』（南京：译林出版社，2011），1-2页。
32) 米歇·付柯（Michel Foucault），王德威译，「浅论付柯」，『知识的考掘』（台北市：麦田，民82），15页。
33) 张翎，『唐山大地震』（广州：花城出版社，2013），29-30页。
34) 荣格（C.G.Jung）等著；张月译，『潜意识与心灵成长』（上海：上海三联书店，2009）。
35) 张翎，『唐山大地震』（广州：花城出版社，2013），153页。

叙述过程中，被压抑在潜意识中的情感得以释放，浮出水面变成意识，最终推开了最后的一扇窗。

> 窗开了细细一条缝，她一伸手，就推开了，看见了玻璃后面的一个女人。女人很年轻，年轻得几乎还不能被叫作一个真正的女人。她穿着一件白底绿花的衬衫，短发上别了一枚豆绿色的塑料发卡。女人对她招了招手，说登你来啊，她就化成了一股轻风，飞过窗缝，坐在了女人身边。她坐稳了，才发现原来女人也坐在一个旋转车斗里。车斗飞起来了，她怕，女人也怕；她尖叫起来，女人叫得比她更凶。可是女人紧紧地抱住了她，紧得仿佛要把她捏出水来。她贴着女人的身体，近近地闻到了女人头发上那一股像新割过的草地那样的清香。37)

这段坐旋转车的叙述很值得注意。王小灯心灵创伤的根本原因源于其地震中被母亲抛弃的童年记忆，这一记忆使得她的情感一直出于不安全状态，被自己的至亲抛弃，该是一种什么样的痛苦啊？这深深地影响了她的人生观。张翎在『余震』后记中说“天灾把生存推入了极限，在这样的极限中一个七岁的灵魂过早地看见了人生的狐狸尾巴。见识了真相之后的王小灯，再也没有能力去正常地拥有世上一切正常的感情。对她来说，在那一天里轰然倒塌的不仅仅是房屋，还有她对整个世界的信任。在那以后的全部生活，都围绕在渴望拥有和害怕失去之间的争斗之中。这种争斗如一条坚韧的线，贯穿了她和周遭所有人的关系，包括继母，包括丈夫，包括女儿。”38)可是王小灯在接受心理治疗之后，她的人生观发生了变化。她开始时刻关注自己的内在情感，不断地纠正自己，使得自己的言行变得越来越有人情味，她开始去理解自己的女儿和丈夫，正视自己童年的经历。她相信自己的妈妈是深爱着自己的。她相信地震时，她的母亲也是极为害怕的，但是地震这一灾难太大，不能随便上演。于是就换成了和妈妈一起坐旋转车，尽管妈妈更害怕，却紧紧地搂着自己，“仿佛要把她捏出水来”。而小说中也提到母亲李元妮心里真正想救的其实是女儿，只是因为儿子是家里的单传，为了万家的传宗接代，母亲才不得已选择了救弟弟。使得王小灯逐渐懂得如何面对自己的情感，她最终原谅了养父的行为，让养父可以安心地了结此生。而对于深深爱着自己的父亲，王小灯最后在他父亲的墓前忏悔。“父亲本该一直留在她的记忆中的，可是关于父亲的记忆有千百条粗细不等的血管神经，与紧追着她的那片巨大黑影紧密相连。她无法把父亲从那块黑影中剥离出来，她只好选择把父亲连同黑影一起遗忘。”39)王小灯最终宽恕了她的母亲与养父，并且重新唤醒了父亲对自己的点点滴滴的爱的记忆，从而真正从地震带来的内心伤害中走出来，拥有了一个健全的灵魂。

5. 结论

作者张翎通过主人公王小灯的经历，讲述了天灾的可怕在于它留下的阴影，会夺去一个人内心的自由。无论外在的世界多么宽广辽阔，一个人走得再远，如果他/她的内心是阴暗的、不安的，他/她就不会感受到温暖。张翎说“结尾处小灯千里寻亲的情节是我忍不住丢给自己的止疼片。真正忍不下疼痛的，其实是我自己。”40)张翎的叙述似乎有将叙述者同作者等同起来的味道。我们知道，叙述者并不等同于作者，很多时候叙述者甚至是大于作者的，“因为一部艺术作品并不是一个人，而是某种超越个人的东西。它是某种东西而不是某种人格，因此不能用人格的标准来衡量。的确，一部真正的艺术作品的特殊意义正在于：它避免了个人的局限并且超越于作者个人的考虑之外。”41)因此，张翎的这两部小说，尤其是后来的『唐山大地震』这部小说其意义更为深刻。

可以说张翎的创作是基于现实主义基础之上的，批评家李敬泽曾评论说“张翎写作方式的这种传统，中国大陆作家已经忘记了，不会了。人们总在说现实主义。而现实主义怎么做？现实主义的艺术品质和工作伦理，从张翎这里可以看到。”42)虽然唐山大地震早已经成为过去时，但是它给人的内心造成的伤害或许是那一代人内心真实的存

36) 张翎，「余震」，『余震』（北京：北京十月文艺出版社，2010），84页。
37) 张翎，『唐山大地震』（广州：花城出版社，2013），118页。
38) 张翎，「余震」，『余震』（北京：北京十月文艺出版社，2010），228页。
39) 张翎，『唐山大地震』（广州：花城出版社，2013），156页。
40) 张翎，「后记」，『余震』（北京：北京十月文艺出版社，2010），228页。
41)（瑞士）荣格（Jung,C.G.）著，冯川、苏克译，『心理学与文学』（南京：译林出版社，2011），74页。
42)「加华裔作家张翎：从国门外回看自己的家族与历史」，来源『中侨网』2009年8月3号（2017年8月22号检索）

在。2008年中国四川汶川发生了史上罕见的大地震，这一次地震给人的内心造成的伤害或许仍在继续发生。张翎采用现实主义表现手法，向我们真实地展现了地震经历者可能会有的内在心理以及这一心理给他们的人生带来的影响。

目前华人华文文学写作中，认同焦虑是众多作家表现的主题之一。张翎说“尽管谈到海外作家时的一个时髦话题是‘身份认同’，就我个人的感觉，我并没有在这个问题上过于纠结。我觉得‘海外’在今天仅仅是个地理概念，它只表明我的居住地在哪里，如此而已。我早已接受了‘无根’这个现实，痛苦挣扎的时候已经过去，现在只是考虑如何在‘无根’的状况下写好‘无根’的文字，也没有刻意在‘寻根’”。[43]“认同”是一个很复杂的概念，它所包含的因素及所涉及的层面都非常广泛，如身份认同、文化认同、种族认同、性别认同、社会地位级别认同等等。它是一种人造的文化产物，并非以某一种特定的形式出现，是看不见摸不着的，却时时刻刻感受得到它的存在并且受其影响。而一切外在的认同焦虑，都源于内心力量的脆弱，王小灯同样面临着认同这一问题，只是童年的创伤带来的影响，要远远大于表面上的身份认同、文化认同等等，王小灯面对的是自己主体性存在的认同焦虑。可以说，张翎的这一创作超越了以往的建立在表面现象之上的身份/文化认同焦虑，而直面主体性认同问题。这对华人华文文学的创作无疑具有重要意义。

【参考文献】

张　翎，『余震』（北京：北京十月文艺出版社，2010）。
张　翎，『唐山大地震』（广州：花城出版社，2013）。
傅小平，「张翎：出国对我的写作来说，破坏性远大于建设性」，来源『羊城晚报』，2016年6月12日.B2。（2017年8月22日检索）
「加华裔作家张翎：从国门外回看自己的家族与历史」，来源『中侨网』2009年8月3号（2017年8月22号检索）
王念灿，「倾诉·断裂·救赎－张翎小说印象」，『漳州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2009年第1期。
（澳大利亚）庄伟杰，「跨疆越域的边缘叙事-以新移民女性作家严歌苓、张翎为例」，『世界华文文学论坛』2008.3。
毕文秀，「突破华人华文文学写作的局限：以华人作家张翎为例」，『中国现代文学』第81号，2017.4，222页。
史书美著，杨华庆译，蔡建鑫校，『视觉与认同：跨太平洋华语语系表述·呈现』，台北：联经出版事业股份有限公司，2013年。
（法国）法农（Fanon,F.）著，万冰译，『黑皮肤，白面具』（南京：译林出版社，2005）。
（瑞士）荣格（Jung,C.G.）著，冯川、苏克译，『心理学与文学』（南京：译林出版社，2011）。
赵稀方，『后殖民理论』（北京：北京大学出版社，2009）。
米歇·付柯（Michel Foucault），王德威译，「浅论付柯」，『知识的考掘』（台北市：麦田，民82）。
荣格（C.G.Jumg）等著；张月译，『潜意识与心灵成长』（上海：上海三联书店，2009）。

43) 傅小平，「张翎：出国对我的写作来说，破坏性远大于建设性」，来源『羊城晚报』，2016年6月12日.B2。（2017年8月22日检索）

【메 모】

【문학 분과】 발표 ③

江户日本的“孔子形象”探析

董灏智*

在中国古代史上，孔子自逝世后便被后人赋予了“圣人”的形象与地位。虽然，孔子殁后，儒分为八，但孔门弟子的影响力却与日俱增。至战国末期，儒学与墨学已成为当世“显学”，据《韩非子》所载：“世之显学，儒、墨也。儒之所至，孔丘也。墨之所至，墨翟也。”在这一过程中，孔子“圣人”的身份也在孔子后学中得以确立。《孟子•万章下》载：“伯夷，圣之清者也；伊尹，圣之任者也；柳下惠，圣之和者也；孔子，圣之时者也。孔子之谓集大成。”即便是《荀子》中称孔子为“圣人之不得势者”，但也从侧面肯定了孔子的“圣人”地位。甚至法家集大成者韩非子也视“孔子为圣人”，“仲尼，天下圣人也，修行明道以游海内，海内说其仁、美其义而为服役者七十人。”重要的是，伴随着儒学“官学地位”在汉代的确立，孔子的“圣人”身份也具有了官方色彩。此后的两千年间，孔子的“圣人”形象便深入人心，不但其“圣人”地位几乎未受到动摇，而且孔子甚至在唐代开始被封为“文宣王”，并在元明清三代被不断被加封，成为“大成至圣文宣王”，位居中国圣人之首。

为什么孔子会在中国历史长期享有圣人地位？除了汉儒、宋儒、清儒对孔子思想的发挥及对其“形象塑造”之外，与孔子在思想及文化上的贡献有着密切关联。正如钱穆所言：“孔子为中国历史上第一大圣人。在孔子以前，中国历史文化已有两千五百年以上之积累，而孔子集其大成。在孔子以后，中国历史文化又复有两千五百年以上之演进，而孔子开其新统。在此五千多年，中国历史进程之指示，中国文化理想之建立，具有最深影响最大贡献者，殆无人堪与孔子相比伦。”[1]换言之，中国后世儒者对孔子推崇至极且尊称为圣人的最重要原因则是孔子承继周代礼乐思想的基础上所创建的儒家思想，也就是说，正是儒学对二千年来中国社会所产生的重要影响，才奠定了孔子的圣人地位。

然而，当中国儒学传播至日本、朝鲜、越南等国时，日本江户时代的儒者在承认孔子圣人地位的同时，却是赋予了孔子圣人形象的新解读，甚至出现了质疑孔子圣人地位的思想取向。表面上看，这仅是江户儒者对中国儒学的不同解读而已，而事实上，则折射出江户儒者重新塑造“孔子圣人形象”的过程中所凸显的“务实主义”价值，由此反映了日本文化不同于中国之处。同时，这也从一定程度上显示出中国儒学加剧了“天皇——幕府”二元体制的紧张性，由此，日本儒者质疑孔子的圣人身份。正是这一“暗流”思潮近代的发酵，福泽谕吉对孔子的认识，也就不难理解了。

一、孔子“非日本之圣人”论

在江户时代，中国儒学（主要是朱子学）盛行于日本是不争的事实。即便是古学派、阳明学派、国学派，甚至朱子学派对朱子学颇有微词，持批判态度，但他们对孔子的圣人地位是认同的。古义学派的创始人伊藤仁斋曾言道：“孔子之圣贤于尧舜远甚，而自有生民以来，未有比其盛者矣，而孟子愿学孔子，而得其宗者也。若使孔孟复生于今世，其所说所行，不可过语孟二书，则舍语孟二书，而其何以能之？诚以论语一书，其词平正，其理深稳，增一字则有剩，减一字则不足，天下之言，于是乎极矣！天下之理，于是乎尽矣！实宇宙第一书也！孟子之书。亦羽翼论语，而其词明白，其理纯粹。”[2]

* 东北师范大学

1）钱穆：《孔子传》，北京：三联书店，2002年，第1页。

2）《大学非孔氏之遗书辨》，第160—161页。

然而，由于“明清鼎革”之事的影响，江户幕府首先意识到中国大陆发生了“华夷变态”之事。《华夷变态》开篇即言道：“崇祯登天，弘光陷虏，唐鲁才保南隅，而鞑虏横行中原。是华变于夷之态也。”[3]也就是说，这不是简单的中原王朝交替，而是“（满清）夷狄入主中原，华夏（明朝）沦为夷狄”。于是，在这一逻辑脉络的演变下，江户学者认为，既然身为中国正统的明人已称“日本为中华之地”，那么，日本人称自己为“中华”、“中国”不是很正常吗？正因如此，素行《中朝事实》的出现才未显得过于突兀，反而让人觉得顺理成章。在《中朝事实》的自序中，素行言道：“愚生中华文明之土，未知其美，专嗜外朝之经典，嘐嘐慕其人物。何其放心乎？何其丧志乎？抑好奇乎？将尚异乎？夫中国之水土，卓尔于万邦，而人物精秀于八纮，故神明之洋洋，圣治之绵绵，焕乎文物，赫乎武德，以可比天壤也。”[4]其中的“中华”、“中国”皆指“日本”，外朝则指“中国大陆王朝”。由此暗示出，原本中国王朝与日本之间的“中华”与“夷狄”关系发生了根本性的逆转。同时，日本的历史悠久、国祚万世一系的特色以及优越的地理环境，使素行进一步言道：

素行言道：“本朝中天之正道，得地之中国，正南面之位，背北阴之阴，上西下东，前拥数洲而利河海，后据绝峭而望大洋，每州悉有运漕之用，故四海之广犹一家之约，万国之化育，同天地之正位，竟无长城之劳，无戎狄之膺，况鸟兽之义、林木之材、布缕之巧、金木之工无不备，圣神称美之叹岂虚哉？”[5]

这意味着，素行以《日本书纪》、日本神话等为依据，从中寻找出“日本为中华”、“日本优于中国”的合理性。随之而来的问题是，“孔子为中国的圣人”是不争的事实，那么，孔子能否为日本的圣人？既然日本文明优越中国王朝，日本以“神道”为主，是故，“孔子之教”、“孔子之道”不适合日本。素行曾言道：“孔子于宋为章甫之冠，在鲁则着逢掖之衣。然生于今之世，反古之道，如此者灾及其身者也。居其国，尚欲变其古今之风俗，灾必及之。况本朝与异国水土之差甚遥，虽圣人来此，未易其俗而立其教，此不待论也。”（山鹿素行：《谪居童问》）也就是说，孔子之教与日本国情相异，即便是其传入日本，也是不符合日本国情的。退而言之，如果非要将孔子之道融入日本，也只能是“神道”的附庸、工具而已，不能视“孔子为日本的圣人”。在《弘道馆记述》中言道：“应神、天智，资周孔之教，以黼黻皇猷。礼乐典章，粲然大备矣。夫以神明威震之道，而文之以周孔之礼乐，故我之为道，尽善尽美，无复可加。其将臣，世效其武，以勘定祸乱。其相臣，世修其职，以经纶密笏……”（藤田东湖：《弘道馆记述》）

二、荻生徂徠的“孔子圣人形象”新解

荻生徂徠为江户古学派的集之大成者，他以“古文辞学”作为“反宋学”的思想武器，因此，他以《礼记・乐记》中“作者之谓圣，述者之谓明”为依据对“圣”字从新定义为：“圣者，作者之称也……古之天子，有聪明睿智之德，通天地之道，尽人物之性，有所制作，功侔神明，利用厚生之道，于是乎立，而万世莫不被其德，所谓伏羲神农黄帝，皆圣人也。然方其时，正德之道未立，礼乐未兴，后世莫得而祖述焉。至于尧舜，制作礼乐，而正德之道始成焉。君子以成德，小人以成俗，刑措不用，天下大治，王道肇是矣……三代圣人，亦皆遵尧舜之道，制作礼乐，以立一代之极，盖岁月弗反，人亡世迁，风俗月漓，以污世衰，辟诸川流滔滔，不可得而挽也。”这意味着，在徂徠的视阈内，圣人必须有“制礼作乐”的事功——制作“礼乐政教”，简言之，即“安天下”的事功，否则不能被视为圣人。所以，尧、舜、禹、汤、文、武、周公七人可称之为“三代圣人”，重要的是，圣人之道等同于先王之道、等同于安天下之道，而“六经”则是“圣人之道”的文字载体。

然而，孔子虽无“制礼作乐”的事功，但其生于礼崩乐坏（“先王之道”废坏）之时，以整理、传播“先王之道”为己任，使先王之道存于后世，故孔子亦是圣人。对此，徂徠言道：“古圣人之道藉孔子以传焉，使无孔子，

3）林春胜、林信笃编：《华夷变态》（上），东京：东方书店，1958年，第1页。虽然，德川初期的日本处于锁国状态，但并不是完全与外界隔绝，而是保留长崎一地与荷兰、中国进行贸易往来 。因此，长崎的唐船通事会对来日商船进行问询后将所听信息记录在册，并呈报幕府，此即“唐船风说书”。其中的主要内容多涉及到中国及东南亚诸国的形势变化，后经林春胜、林信笃父子对这些“风书书”的编辑、整理而成《华夷变态》一书。

4）山鹿素行：《漢和中朝事実》，東京：大日本國民教育會，1912年，第1頁。

5）《汉和中朝事实》，第21—22页。

则道之亡久矣。千岁之下，道终不属诸先王，而属诸孔子，则我亦见其贤于尧舜也已。盖孔子之前，无孔子，孔子之后，无孔子……”（荻生徂徕：《辨名》）又言道：“孔子之道，先王之道也，先王之道，安天下之道也，孔子平生欲为东周，其教育弟子，使各成其材，将以用之也，及其终不得位，而修六经以传之，六经即先王之道也。”（荻生徂徕：《辨道》）关键的是，徂徕在其思想体系中，反复强调“先王之道，思孟而后，降为儒家者流”，言外之意，孔子之道异于儒家之道。徂徕将孔子与儒学的关系斩断，对中国儒学解构是最为致命的一击。如前所述，在中国历史上，孔子之所以被称为“圣人”与其对儒学的贡献有重要的关联。然在徂徕的视阈内，《论语》一书中，并无儒家、儒学的字样，仅有“女为君子儒，无为小人儒”一句，而儒家的出现却是“百家争衡”的结果。其中，子思、孟子等人为捍卫孔子之道而与老子之徒对抗，故作《中庸》、《孟子》等书特言：“率性之谓道”，以证明孔子之道“非伪”，最终提出“诚”说。因此，徂徕言道：“思孟而后，儒家者流立焉，乃以尊师道为务，妄意圣人可学而至矣。己为圣人，则举而措诸天下，天下自然治矣，是老庄内圣外王之说，轻外而归重于内，大非先王孔子之旧也，故儒者处焉不能教育弟子以成其材，出焉不能铸国家以成其俗，所以不能免于有体无用之诮者，亦其所为道者有差故也。”（荻生徂徕：《辨道》）也就是说，只有尧舜等七人再加孔子可称为“圣人”，是故，“圣人”是不可学而成之，自孟子至宋儒多强调“人人可学为圣人”的说法，完全是谬论，曲解了圣人之道。同时，徂徕还新解了《论语》的核心“仁”字，认为：“仁以爱之，特言其一端耳，安得尽于仁乎？且孔子所谓爱人者，谓为民父母也，苟非安民，乌足以为民父母乎？”（荻生徂徕：《辨名》）很明显，徂徕的新解暗示出孔子的“仁”说是在为执政者阐述“爱民”之道，也是从另一方面折射出孔子之道不离安天下之道，徂徕在“事功”层面赋予了孔子圣人地位的新解。因而，徂徕解“女为君子儒，无为小人儒”时也会凸显出君子儒的“治国安民”：“儒字见周礼，乃有文学者之称，子夏长于文学，孔子欲其所学施诸君子之事，而不欲施于小人之事也，君子之事者，谓出谋发虑，使其国治民安也，小人之事者，谓徒务笾豆之末，以供有司之役也，战国时百家并起，儒墨争衡，而后荀子始以尧舜禹汤文武为大儒，古所无也。”（荻生徂徕：《论语征》）

三、“汤武放伐论”对孔子圣人形象的冲击

一般认为，“汤武放伐论”出自《孟子》一书，。《孟子•梁惠王下》有言：“贼仁者谓之贼，贼义者谓之残，残贼之人谓之一夫。闻诛一夫纣矣，未闻弑君也。”其中，孟子肯定了“汤放桀”与“武王伐纣”的合理性及合法性。然而，由于日本的天皇与幕府并存的二元制格局，如果肯定了“汤武放伐”的合理性，必然引起天皇与幕府的紧张性，破坏了日本“万世一系”的皇统。正因如此，《孟子》一书在江户日本不断受到非议和批判，甚至编造出“《孟子》难以传入日本”的传说。“中华典籍、经典、史策、诗文等等无一不曾传入本朝，唯有《孟子》一书至今未传到日本。据说：凡载有此书的船只，必遭风暴而沉没海底。询问因由，乃说：本朝天照大神开天辟地以来，皇祚连绵，从未中断，若将那番诡辩之理传入本朝，后世必以篡夺天神皇位为无罪，而有利于乱臣贼子。故八百万天神震怒，屡卷神风，颠覆其船。可见，虽是他国圣贤之教，也未必都适合本朝风土国情。”[6]

然而，在孔子的思想体系内，虽未曾提及“汤武放伐论”，但因其未对“汤武放伐论”进行批判，进而被江户学者认为是其对“汤武放伐论”的默许，由此展开了对孔子的批判。伊东蓝田言道：“汤武，非放伐也。汤武者，孰谓？谓成汤周武也。何言乎非放伐？篡弑也。汤武，圣人也。曷为篡弑？篡弑也，臣杀君之谓弑，下夺上之谓篡……则虽汤武，亦心知其为篡弑矣。然则古之贤圣夷齐外，皆弗篡弑之者何？大讳也。其大讳奈何？伊尹，臣也。周公，弟也、 臣也。孔子，陪臣也。三圣者大讳其所大讳也。孔子作春秋，为周、鲁讳篡弑及大恶，然人皆知之矣。至若汤武，人皆不知其为篡弑奈何？天子之大祖也。伊周当国，定一代礼乐刑政，大讳其所大讳也。则其小人无得而知其君子知而不言，大为天子之大祖讳也。周孔为汤讳何？周孔不以汤为放，则武之为弑者，自著尔。未知孔子讳之，为周兴？为殷兴？……独我日本，虽越在海东，自剖判以迄于今，天子一姓，传之无穷，莫有革命，则可以辨汤武非放伐已矣。”（伊东蓝田：《蓝田先生汤武论》）这意味着，蓝田对“汤武放伐论”的批判已不同

6) 上田秋成：《雨夜物语》，收入（日）佚名氏著；曼熳译：《竹取物语》（日本物语文学系列），昆明：云南人民出版社，2002年3月，第235页。

于山崎闇斋、藤田东湖等人，而是越过孟子将矛头指向儒学的创始人孔子，指出，“孔子作春秋”的本意就是为“周、鲁讳篡弑”之事，所以，孔子不是圣人。同样，佐久间太华也对孔子有这样的微词，“当周之末，孔夫子者，怀不訾之才，杰出于其间，须笔诛汤武之罪，以明大义…惜矣哉！”（佐久间太华：《和汉明辨》）诚如有学者所言：“他们甘冒天下之大不韪，批评孔圣人，绝非单纯，无非旨在藉批评孔子以凸显日本神皇之论。”[7]正因如此，日本开国以来的系列举动，尤其是对孔子、对中国儒学、对中国文化、对中国的质疑、批判和否定，便容易理解。这并不完全是西方文明冲击的结果，而是与江户学者的思想走向密切相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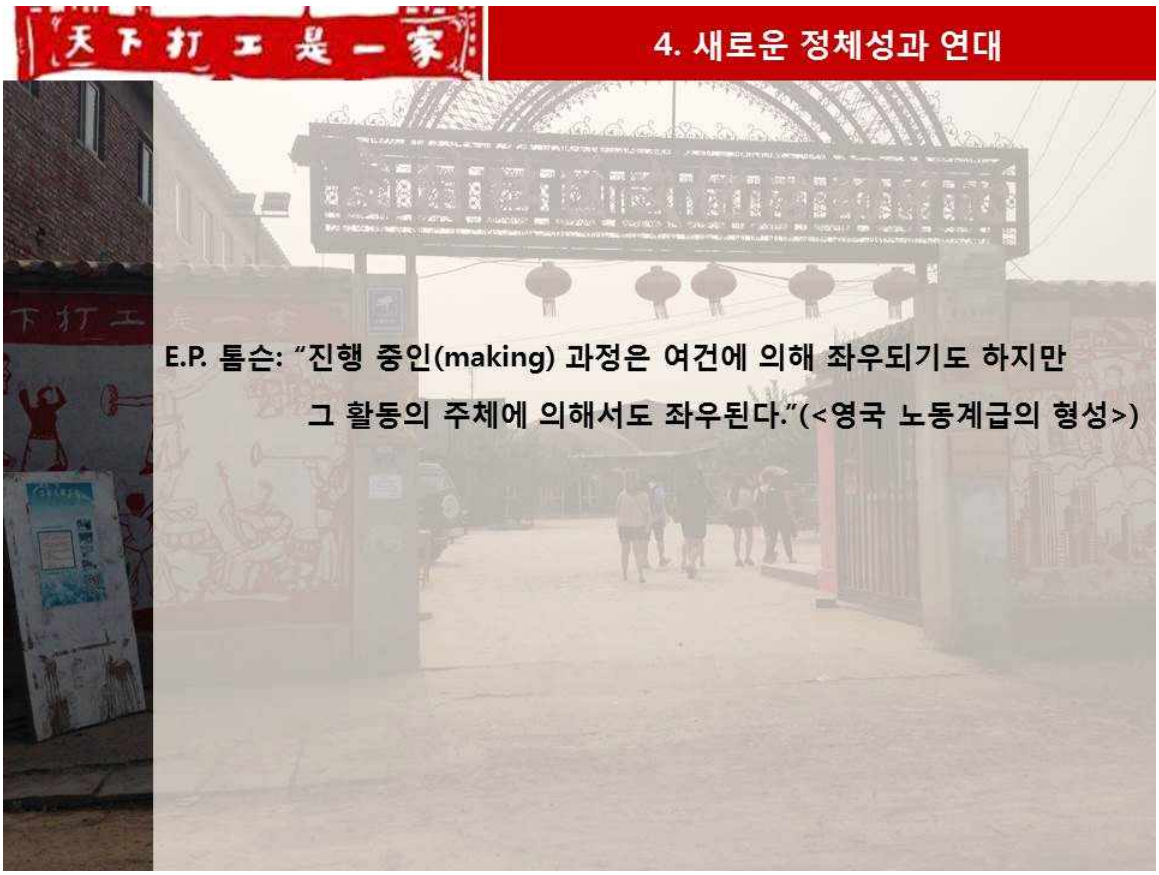
7）张崑将：《德川学者对孔子思想的异解与引申》，载黄俊杰编：《东亚视域中孔子的形象与思想》，台北：台大出版中心，2015年，第223页。

【문학 분과】 발표 ④

저층문학의 새로운 가능성
— 판위수 현상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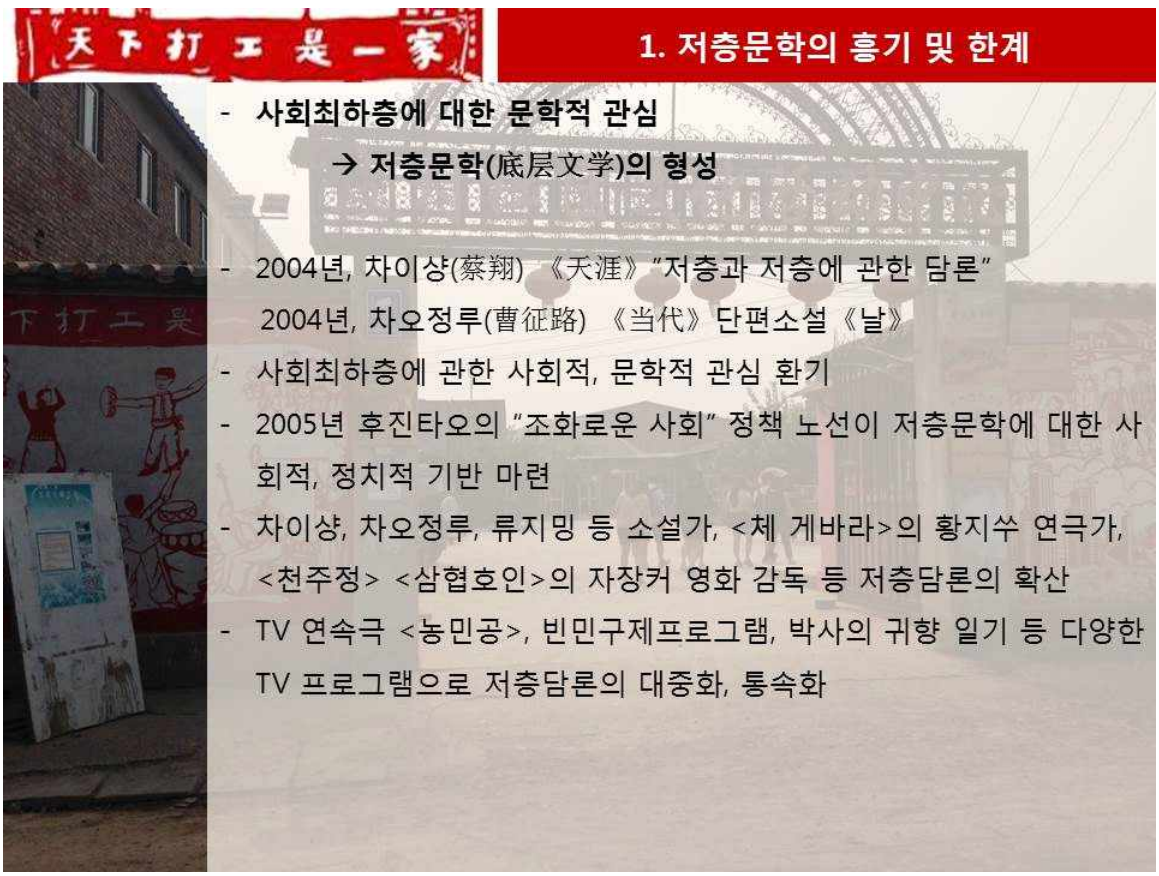
김정수*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4. 새로운 정체성과 연대

E.P. 톰슨: "진행 중인(making) 과정은 여건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 그 활동의 주체에 의해서도 좌우된다."(<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1. 저층문학의 흥기 및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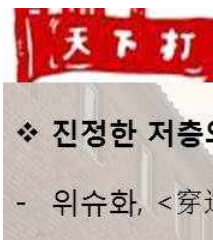
- **사회최하층에 대한 문학적 관심**
  → 저층문학(底层文学)의 형성
- 2004년, 차이샹(蔡翔) 《天涯》"저층과 저층에 관한 담론"
  2004년, 차오정루(曹征路) 《当代》단편소설《날》
- 사회최하층에 관한 사회적, 문학적 관심 환기
- 2005년 후진타오의 "조화로운 사회" 정책 노선이 저층문학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기반 마련
- 차이샹, 차오정루, 류지밍 등 소설가, <체 게바라>의 황지쑤 연극가, <천주정> <삼협호인>의 자장커 영화 감독 등 저층담론의 확산
- TV 연속극 <농민공>, 빈민구제프로그램, 박사의 귀향 일기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으로 저층담론의 대중화, 통속화

1. 저층문학의 흥기 및 한계

❖ **저층문학 및 저층담론의 한계**

- 저층문학 및 대중문화의 저층담론에서 저층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형성 → 고난받는 저층, 구원자로서의 지식인
- 뤄강(罗岗): 근본적으로 이는 계급정치의 실패 이후 '문화정치'와 '정체성 정치'에만 관심을 두는 신좌파 담론의 경향과 궤를 같이 함 / 신좌파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저층문학이 출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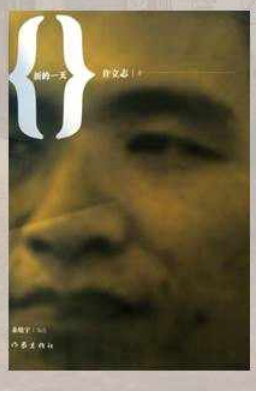
→ 진정한 저층의 목소리는 어디에?



2. 저층에 의한, 저층을 위한, 저층의 시 쓰기

❖ **진정한 저층의 목소리는 어디에?**

- 위슈화, <穿过大半个中国去睡你>(2014), 시집《摇摇晃晃的人间》(2015), 2017 동명 다큐멘터리 제작
- 농민공 시선집,《我的诗篇》(2015), 동명 다큐멘터리 2017년 출품, 상하이국제영화제 최고다큐멘터리상 수상
- 폭스콘 노동자 쉬리즈(许立志) 유고시집 《新的一天》(2015)



3. 새로운 저층문학의 가능성–판위수 현상

❖ **판위수 현상- SNS, 농민공, 문학의 결합**

- 2017.4.24. 중국 SNS 웨이신에 "나는 판위수입니다" 게시
- 하루가 지나기 전에 10만+ 조회수, 각종 채팅창 도배, 2만 여개의 평론...
- <인민일보> "나는 판위수입니다. 문학을 통해 존재의 허무에 대항하다", "나는 판위수입니다의 유행, 마음에 문학을 품은 이들에게 감사를"<장강일보> "가사도우미의 자서전 네티즌을 울리다, '나는 판위수입니다'가 채팅창을 도배하다", <향산평론> "나는 판위수입니다, 약자의 존엄을 드러내다" <봉황평론> "판위수를 발견하고 최하층에 남아 있는 시의를 보았다", <신경보평론> "판위수 채팅창 도배, 자유로운 영혼에 전율하다" 등 주류매체를 통해 더욱 확산

3. 새로운 저층문학의 가능성-판위수 현상

❖ 판위수는 누구인가?

- 1973년 허베이 상양 출생
- 중학교 졸업 이후, 도시로 나와 식당종업원, 가사도우미 등
- 피춘 노동자의 집 노동자대학 내 "문학소조" 활동
- "문학소조" 내에서 <나는 판위수입니다> 등 창작

❖ **판위수 현상: SNS/농민공/문학**

- 농촌/중졸학력/농민공/중년여성의 에세이 한편이 중국 사회(인터넷)에 '진정한 문학', '삶을 진실하게 반영한 문학' '약자의 존엄' '자유로운 영혼' 등 비판적 리얼리즘 문학의 가치를 환기

3. 새로운 저층문학의 가능성-판위수 현상

《나는 판위수입니다》의 특징

1. 동정의 대상에서 선택의 주체로

"이때 나는 나에게 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농촌은 가난했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쉽지 않았다. 가족 간의 정 역시 깊지 않았다. 나는 큰 오빠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내가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준 마을의 손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내 두 아이는 더욱 뿌리없는 부표와 같다. 이 세계에서 어머니만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베이징으로 와 보모일을 했다. 남의 일을 돌보며 일주일에 하루 쉬었다. 큰 딸은 동5환 밖 피춘의 쪽방에서 동생을 돌봤다."

→ 도시의 생존 논리를 내면화하지 않고 피해의식과 무력감을 이겨내며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힘의 원천

…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끝없는 독서

3. 새로운 저층문학의 가능성-판위수 현상

《나는 판위수입니다》의 특징

2. 노동의 존엄에 대한 각성

"여자 주인은 남자 주인보다 스물 다섯 살이 어렸다. 어떤 때 나는 한밤에 일어나 아이를 달래다가 여자 주인이 화장을 곱게 하고 소파에 앉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을 보기도 했다. 여자 주인의 몸매는 모델보다 아름다웠고, 얼굴은 영화배우 판빙빙보다 예뻤다. 하지만 그녀는 사극 속의 후궁들처럼 각별하게 주인을 받들었다. **존엄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 "존엄도 없이"
→ 바우만, 고도화된 소비자 사회에서 소비능력이 있는 소비자만이 정상성의 범주에 속하며, 소비능력이 없는 '빈민'은 '결함있는 소비자'가 되어 사회에서 배제된다.
→ 판위수가 꿈도 못 꿀 소비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부인과 아들, 하지만 존엄이 없다는 판단
→ 판위수의 존엄 → 자신의 육체노동에 대한 긍정과 확신, 그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주관한다는 의식, 도시중산층의 물질적 풍요를 헛되이 욕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포함

3. 새로운 저층문학의 가능성-판위수 현상

《나는 판위수입니다》의 특징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

"내가 성년이 되고 나서 대도시에 나와 생활을 하면서 사회 최하층의 약자가 되었다. 농촌 권력자의 딸로서 도시 사람들에게 백안시와 모욕을 받는다. 이때 나는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못살게 구는 것이 쾌락을 줄 수 있는가, 혹은 유전자 복제인가, 생각해 본다. 그때부터 나는 나와 같은 약자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향해 사랑과 존엄을 주기로 생각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능한 사람이고 나는 이처럼 가난한 사람이다. 내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베이징 거리에서 장애가 있는 거지를 안고 정신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안는다. 나는 포용으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전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갚는다."

→ 도시 배제의 논리의 내면화가 아니라, 약자에게 연민과 존중을 주기로 결정

→ 주위로 감염되는 연민의 힘

정리하며

❖ **베이징 피춘 노동자 커뮤니티 활동**

- 노동자 자신의 목소리를 다양한 채널(연극, 노래, 문학 등)을 통해 발화 – (육체) 노동의 존엄, 약자에 대한 연민, 정치적 구호 없음
- SNS를 통해 전국적인 연결
- 주류 매체(CCTV, 텐센트 등)와 지식인들의 참여, 하지만 노동자가 중심
- 다큐멘터리 <나의 시편>의 흥행, 판위수 현상 등, 중산층과 문화적 연결

【문학 분과】 발표 ⑤

寒山詩의 儒·道家적 양상 고찰

정원호*

【목 차】

1. 들어가며
2. 儒家적 양상
   1) 儒家에 대한 긍정적 性向
   2) 儒家에 대한 비판적 性向
3. 道家적 양상
   1) 道家에 대한 긍정적 性向
   2) 道家에 대한 비판적 性向
4. 나오며

【초록】

본고는 '寒山'이라고 알려진 인물의 詩作集인 『寒山詩』를 고찰한 글이다. 천태산에서 國淸寺 승려인 豐干, 拾得 등과 교유하면서 창작활동을 한 그의 시집에는 불교적 색채가 강렬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사상적 이념에는 젊은 시절 받았던 儒家적 훈도의 영향과 환경과 시대적 상황에 따른 道家적 기풍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는 『寒山詩』의 전체적 면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불가 이외에 유가와 도가의 사상이 한산의 시에 끼친 영향을 고찰한 글이다.

유가적 경향을 살펴보면, 시에서 『論語』의 글귀 인용 및 그 내용의 주제화, 유교 정치사상의 핵심인 『書經』의 민본사상, 유교 윤리의 핵심가치인 『孝經』의 '孝', 『禮記』 등을 언급하며 긍정적 성향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을 유교경전을 탐독하면서도 '백정'신세를 면치 못하는 선비, 추위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비, 유가의 경전은 박통하면서도 농기구 사용도 하지 못하여 자신 및 집안경제를 빈궁에 빠뜨리는 유가의 인물들을 내세워 허울뿐인 유가적 경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도가적 경향을 살펴보면, 『莊子』「逍遙遊」를 통한 도가적 가치관, 자연에서 '仙書' 혹은 黃帝와 老子의 글을 중얼거리는 화자의 모습, 『莊子』「應帝王」의 혼돈의 일화, 天地를 棺으로 삼고 죽어서는 곤충의 먹이가 되겠다는 莊子의 이야기, 손에 늘 老子의 『道德經』을 들고 다닌다는 화자의 모습 등을 통해 긍정적 성향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려는 환상에 빠져 심신을 망쳐버리는 인간들의 모습, 도가의 신선술을 신봉하던 漢武帝와 秦始皇의 무덤에 무성한 잡초 등의 이야기를 통해 도가적 환상에 대한 비판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불자의 모습이 강하게 각인된 한산의 시에서 과거에 걸어왔던 유가의 경향과 시대적 조류인 도가의 양상도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키워드】 寒山, 儒家, 道家, 『論語』,『莊子』, 神仙, 不老長生

* 동의과학대학교 관광중국어전공 조교수 (whjung@dit.ac.kr)

1. 들어가며

『寒山詩』의 작자는 스스로를 '寒山', 혹은 '寒山子'라고 칭하며 중국 天台山의 寒巖에 장기간 은거하며 살았다.[1]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기록과 자료집을 토대로 행한 연구에 의하면 한산의 생졸연대는 680년에서 840년 사이로 추정된다.[2]

청년 시기의 한산은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좋은 환경에서 체계적인 유가의 전통 교육을 받으며 作詩, 말타기, 활쏘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두루 배움을 거쳤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시 전통적인 벼슬길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여 조정에의 진출을 꾀하였으나 좌절당하고 말았다.[3]

30세 즈음에 한산은 天台山으로 들어와 거주하면서 國淸寺 승려인 豐干, 拾得 등과 교유하면서 시를 짓고 살았다. 그가 창작한『寒山詩』는 모두 천태산에서 지어진 것이다.[4] 이 시기는 唐나라 肅宗 무렵에서 唐 憲宗 년간으로 中唐시기에 해당된다.[5] 그가 걸어온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寒山의 사상은 儒家에서 道家로 道家에서 佛家로 넘어갔다고 여겨진다.[6] 유가와 도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당시 현실에 입각한 유가 사상에서 한계와 좌절을 느낄 때, 많은 이들은 현실을 떠나 무위자연을 추구하는 도가의 사상세계로 접근하였다. 한산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때 산 중의 깊은 곳에 은거하면서 행한 승려들과의 교류가 그에게 불교의 세계로 귀의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다.[7] 그는 자신의 시의 序詩에 해당하는 시편에서 자신의 詩를 읽는 독자들에게 "佛法에 귀의하여 眞性을 받으라. 오늘날 부처의 몸 받기를, 律令을 받드는 것처럼 신속히 하라."[8]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 스스로 자신은 佛法에 귀의한 사람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가 남긴 삼백여 수의 시를 살펴보면[9] 곳곳에서 '부처佛'를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10] 이외에도 "지옥,[11] 보살, 나찰, 죄업, 인과, 윤회, 해탈, 보리, 번뇌" 등의 佛法에 관련된 용어의 사용을 발견할 수 있다.

한산시의 강렬한 불교적 색채 때문에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득도하여 성불한 불자의 神性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불교문화에까지도 뚜렷한 영향을 끼쳤다.[12]

필자는 앞서 주석에서 밝혔듯이 일전에 한산시의 불교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산의 시가 비록 불교적 성향이 강하기는 하지만 유가와 도가의 성향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천태산으로 은거하여 불문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기 전에 거쳤던 유가와 도가에 대한 경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산시의 전체적인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1) 項楚,『寒山詩注』, 北京:中華書局, 2000, p.1. 拙稿,「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中國學』 제52집, 2015, p.123에도 관련 내용이 실려 있음.

2) 寒山의 生年은 680년에서 750년, 卒年은 780년에서 840년으로 생졸연대가 70-80년 정도 차이가 난다. : 崔小敬,『寒山及其詩研究』, 中國 復旦大學校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14. 참조. 拙稿,「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 p.123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음.

3) "처음에는 글재주와 칼솜씨 갖춘 객이 되었고, 다음에는 어진 임금 만났다네. 동으론 문필로 지켰으나 주목받지 못하고, 서론 무예로 정벌에 나섰으나 공훈을 세우지 못했네. 글을 배움에는 무예를 겸하였고, 무예를 배움에는 글을 겸하였다네.(一爲書劍客, 二遇聖明君. 東守文不賞, 西征武不勛. 學文兼學武, 學武兼學文.)"「寒山詩-007」, 何善蒙,『隱逸詩人-寒山傳』,2006, pp.1-2. 참조. 選詩 및 시번역은 필자 담당.
"글씨와 글 모두 못하지 않았지만, 이 몸을 싫어해 벼슬자리 못 얻었네.……반드시 하늘의 명과 관련 있으리니, 금년에 다시 시험 보리라.(書判全非弱, 嫌身不得官.……必也關天命, 今年更試看.)"「寒山詩-113」 이 시의 번역은 拙稿,「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 p.123에 실려 있음.

4) 陳耀東,『寒山詩集板本研究』北京:世界知識出版社, 2007, p.1.

5) 孫昌武,『禪思與詩情』, 北京:中華書局, 1997, p.239 참조. 拙稿,「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 p.123. 참조.

6) 陳耀東,『寒山詩集板本研究』, p.1.

7) 拙稿,「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 pp.123-124. 참조.

8)「寒山詩-001」

9) 한산은 자신의 시 작품에서 자신이 지은 시의 숫자를 600首라고 하였는데, 현존하는 시는 삼백여 수 이며, 판본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拙稿,「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 pp.123-124. 참조.

10) 한산의 전체 시에서 '佛'字는 모두 28회 나타남.

11) 한산의 전체 시에서 '地獄'이란 용어는 모두 9회 나타남.

12) 보다 자세한 설명은 拙稿,「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 p.124. 참조.

있는 한산시의 불가적 성향 이외에 유가와 도가에 대한 한산의 내면적 양상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서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연구단계로는 먼저 유가에 대한 긍정과 비판적 성향을 살피고 다음으로 도가에 대한 긍정과 비판적 성향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한산의 시적 세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유불도 사상에 대한 고찰이 보다 잘 파악되어 질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의 寒山詩 原文은 이전에 발표한 필자의 한산시 졸고와 마찬가지로 四庫全書 全唐詩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寒山詩 전체가 無題詩이므로 논지 전개의 편의상 四庫全書 全唐詩本 卷806에 실려있는 寒山詩 수록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서 詩를 구분지었음을 밝혀둔다.[13]

2. 儒家적 양상

儒學은 중국고대로부터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적 사상이었다. 魏晋南北朝 시기에 일시적 쇠락의 기운이 있었지만, 隋文帝의 유학 중시 풍토를 거쳐 唐代에 와서 더욱 중시되어 孔穎達의『五經正義』는 唐代 과거시험의 근거 자료가 되었다.[14]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선비들이 받는 기초교육은 대부분 유가경전의 교육이며, 앞서 언급하였듯이[15] 과거에 참여하기 위한 한산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16]

궁극적으로는 불교사상으로 기울었다고 하더라도 청년시절까지 받아들인 유가적 훈도는 그의 시에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그의 시에 드러난 유가적 성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분석은 유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의 성향과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의 성향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1) 儒家에 대한 긍정적 性向

不須攻人惡, 무릇 타인의 잘못은 책망하지 않으며,
何用伐己善. 자신의 선행은 자랑할 필요 없으리라.
行之則可行, 행할 것은 행하면 되고,
卷之則可卷. 거둘 것은 거두면 되리라.
祿厚憂責大, 녹봉이 두터우면 책무가 큼을 걱정하고,
言深慮交淺. 말이 심하면 교제가 엷어질까 근심하라.
聞玆若念玆, 이 말을 듣고 이것을 유념한다면,
小兒當自見. 어린애라도 마땅히 절로 깨우치리라.[17]

유가적 성향이 뚜렷해 보이는 시편으로 특히『論語』에서 유래한 구절이 많이 보인다. 첫 구절의 "攻人惡"은『論語·顔淵』의 "자신의 악한 면을 책하고(攻其惡)"[18]이라는 내용에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제2구는 전체 내용이『論語·公冶長』의 "자신의 잘하는 점을 자랑하지 않으며 공로를 과시하지 않는다."[19]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제3구와 4구는『論語·述而』의 "자신을 써주면 道를 행하고 써주지 않으면 은둔한다."[20]과『論語·衛靈公』

13) 이 세 줄 내용에 대한 언급은 이전 졸고인「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p.125에 언급한 내용과 같음을 밝히는 바이다.
14) 蕭華榮,『中國詩學思想史』,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 p.101. 참조.
15) 註4)에 한산이 과거에 응시한 내용이 시에 나타나 있음.
16) 歐陽慧娟,『寒山詩歌研究』, 湖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7, p.23. 참조.
17)「寒山詩-103」
18) "일을 먼저하고 이득을 뒤로 함이 덕을 높이는 것 아니겠는가? 자신의 악한 면을 책망하고 남의 악한 면을 책망하지 않는 것이 사특함을 다스리는 것 아니겠는가?(先事後得, 非崇德與? 攻其惡, 無攻人之惡, 非脩慝與?)"『論語·顔淵』
19) 顔淵과 子路가 孔子를 모시고 있었을 때, 공자가 각자 자신들의 뜻을 말해보라고 하였을 때 안연이 말한 내용이다. 顔淵曰 "자신의 잘하는 점을 자랑하지 않으며 공로를 과시함이 없고자 합니다.(願無伐善, 無施勞)"『論語·公冶長』
20) 공자가 안연에게 말한 내용이다. 子謂顔淵曰, "자신을 써주면 道를 행하고 써주지 않으면 은둔해 버리는 이러한 것을

의 “나라에 道가 있으면 벼슬살이를 하고 나라에 道가 없으면 자신을 거두어 감추어 둔다.”[21]라는 두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惡業을 제거하고 佛法에 귀의하여 부처의 몸을 받들기를 주창하는 한산의 농후한 불교적 성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22]

이는 젊은 시절 입신양명을 위한 유가의 공부를 하며 과거 시험에 도전하기도 하였으나, 세상이 본인의 뜻처럼 되지 않아 벼슬살이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23] 한산의 과거 경력이 그대로 묻어나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有樂且須樂, 즐거운 일 있으면 모름지기 즐겨야 하리.
時哉不可失.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네.
雖云一百年, 비록 일 백년을 산다고 하지만,
豈滿三萬日. 어찌 일수로 삼 만일을 채우리오.
寄世是須臾, 세상에 기대어 살기 잠깐이거늘,
論錢莫啾唧. 돈을 따져서 재잘거린들 무엇하리오.
孝經末後章,『孝經』마지막「喪親章」에,
委曲陳情畢. 인정을 자세히 펼쳐 놓았느니.[24]

길지 않은 인간의 삶을 헛된 가치에 기대어 놓치지 말라는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시편이다. 제2구는『書經』에 나오는 말이다. 周나라 武王이 殷나라 폭군인 紂王을 멸하고자 할 때 하늘이 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25] 시의 마지막 두 구에 담겨있는『孝經』「喪親章」은 유교 윤리의 핵심적 가치인 ‘孝’에 관해 부모 사후의 장례와 제사를 포함한 부모에 대한 효심을 다루는 내용이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삶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면서 유교의 경전을 시편 말미에 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점이 出家學에 전념하며 불교의 계율을 엄격히 지킬 것을 주창하던 여타 한산시와는 다른 색채를 띠고 있다.[26] 이는 한산이 불교적 가치를 중요하게 내세우면서도 유교적 성향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他賢君卽受, 타인이 어질면 그대 곧 수용하고,
不賢君莫與. 어질지 않거든 그대 함께 하지 말게.
君賢他見容, 그대가 어질면 타인은 수용할 것이며,
不賢他亦拒. 어질지 않으면 타인은 또한 거절하리라.
嘉善矜不能, 선한 이를 좋아하고 무능한 이를 가엾게 여기면,
仁徒方得所. 어진 이들 비로소 설 자리를 얻으리라.
勸逐子張言, 子張의 말 따르기를 권하노니,
拋卻卜商語. 卜商의 말은 물리쳐버리게.[27]

시적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유가적 색채가 농후하다. 길지 않은 시편 속에 전반부 네 구에 걸쳐 매번 ‘賢’자

오직 나와 너만이 가지고 있다.(用之則行, 舍之則藏, 唯我與爾有是夫!)”『論語·述而』

21) 공자가 거백옥에게 말한 내용이다. “군자로다, 거백옥이여! 나라에 道가 있으면 벼슬살이를 하고 나라에 道가 없으면 자신을 거두어 감추어 둔다.(君子哉 蘧伯玉!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論語·衛靈公』

22) “……악한 업을 몰아내어 없애고, 불법에 귀의하여 진성을 받으라. 오늘날 부처의 몸 받기를 律令을 받드는 것처럼 신속히 하라.(驅遣除惡業, 歸依受眞性. 今日得佛身, 急急如律令.)”「寒山詩-001」: 이 시와 번역은 拙稿,「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 p.124에도 소개되었음.

23)「寒山詩-005」,「寒山詩-007」,「寒山詩-113」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拙稿,「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 p.124에 소개되어 있음.

24)「寒山詩-146」

25) “하늘이 백성을 가엾게 여기시어 백성들의 바램을 하늘이 반드시 따르고자 하시니, 너희들은 나 한 사람을 보필하여 길이 사해를 맑게 하라. 때를 잃어버려서는 안되리라. (天矜于民, 民之所欲, 天必從之, 爾尙弼予一人, 永淸四海. 時哉, 弗可失.)”『書經·泰誓上』

26)「寒山詩-247」,「寒山詩-304」등에 관련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27)「寒山詩-149」

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를 '不賢' 두 글자와 대비시켜 이분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論語』에서는 특히 '賢'자와 관련된 문장이 많은데,[28] 이 시편은 그 가운데에서도 『論語·子張』편에서 子夏의 門人이 子張과 '벗과의 사귐(問交)'에 대해 주고받는 내용이 그 주제를 이루고 있다. 원문에서 子夏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사귈 것을 권하고, 子張은 훌륭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도 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子張은 자신이 어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물리칠 것이라고 하였는데,[29] 이 시의 전체 내용이 『論語』의 이 부분을 詩化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처럼 佛者로 전환한 한산이지만 불교에 입문하기 전에 수양을 쌓았던 유가의 바탕이 그의 내면에 여전히 짙게 깔려있음을 이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死生元有命, 죽고 사는 것은 원래 주어진 命이 있으며,
富貴本由天. 부귀는 본래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라네.
此是古人語, 이는 옛 사람 전하는 말이지,
吾今非謬傳. 내가 지금 잘못 전하는 것 아니라네.
聰明好短命, 총명한 자는 흔히 명이 짧으며,
癡騃却長年. 어리석은 자는 도리어 장수한다네.
鈍物豊財寶, 우둔한 자는 재물 풍부하고,
醒醒漢無錢. 깨친 이는 돈이 없다네.[30]

시편 도입부 두 구절에 『論語·顔淵』편의 "생사에는 하늘의 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내용을 끌어와 전개하고 있다.[31] 즉 이 내용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 독자에게 언어의 무게감을 실어주기 위한 도구로 『論語』라는 경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산이 불교적 가르침을 궁극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가적 자산도 함께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편의 후반부에는 총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와 깨친 자라는 대구법의 구조로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수명이나 재물보다는 '道를 깨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유가적 방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國以人爲本, 나라가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것은,
猶如樹因地. 나무가 땅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네.
地厚樹扶疎, 땅이 두터우면 나무가 우거지고,
地薄樹憔悴. 땅이 엷으면 나무가 시든다네.
不得露其根, 그 뿌리 드러내지 말게나,
枝枯子先墜. 가지가 마르면 열매 먼저 떨어진다네.
決陂以取魚, 방죽 터서 고기 잡는 것은,
是取一期利. 한 때의 이로움만 취하는 것이라네.[32]

첫 구절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유교 경전인 『書經』에 나오는 내용으로,[33] 유교 정치사상의 핵심을 이룬다. 『孟子』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34]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민본사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있다. 이어지는 시편의 내용도 '땅'과 '뿌리'를 '백성'으로, '나무'와 '열매'를 '나라'로 비유하여 근본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시상의 전개가 전편에 걸쳐서 불교적

28) 『論語』전체에 걸쳐 '賢'자가 모두 25회 등장한다.
29) 子夏之門人問交於子張. 子張曰, "子夏云何?" 對曰, "子夏曰, '可者與之, 其不可者拒之.'" 子張曰, "異乎吾所聞, 君子尊賢而容衆, 嘉善而矜不能. 我之大賢與, 於人何所不容? 我之不賢與, 人將拒我, 如之何其拒人也?" 『論語·子張』
30) 「寒山詩-224」
31) "생사에는 하늘의 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死生有命, 富貴在天)" 『論語·顔淵』
32) 「寒山詩-225」
33) "백성은 가까이 할 것이나 하대하여서는 안 된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편안하다.(民可近, 不可下. 民惟邦本, 本固邦寧.)" 『書經·五子之歌』
34) 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孟子·盡心章句下』

속성보다는 유가적 경향이 짙게 깔려있다. 한산의 여느 시편에 비해 유가적 속성이 특히 강하게 다가온다.

三五癡後生, 몇몇 어리석은 젊은이들,
作事不眞實. 하는 일이 진실되지 못하다네.
未讀十卷書, 열 권의 책도 읽지 않고서,
强把雌黃筆. 함부로 자황붓을 잡는다네.
將他儒行篇, 저 유가의 「儒行篇」을,
喚作賊盜律. 도적을 징계하는 법률이라 부른다네.
脫體似蟬蟲, 껍질을 벗고 나면 빈대좀에 불과하여,
齩破他書帙. 다른 서적들을 갉아먹는다네.[35]

학문의 깊이도 쌓지 못한 젊은이들이 많은 독서를 통해 수양을 쌓기보다 성급한 글쓰기에 몰두하여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화자는 우려스런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儒家 儒生들의 행실에 대해 기록해 놓은『禮記』의 「儒行篇」에 대해 '도적을 징계하는 법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책을 갉아먹는 '빈대좀'에 불과하다는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는 화자 스스로가 불가의 수행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여느 다른 분야의 서적도 두루 읽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禮'에 관한 학설을 모아놓은『禮記』에 대해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평소 화자의 유가 경전에 대한 심도깊은 독서량을 반영하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白雲高嵯峨, 흰 구름 험준한 산에 높이 걸려있고,
……
此處聞漁夫, 이곳으로 들려오는 어부의 소리,
時時鼓棹歌. 때때로 노 두드리며 노래를 부른다네.
聲聲不可聽, 노랫소리 차마 듣지 못하나니,
令我愁思多. 나를 깊은 시름에 잠기게 한다네.
誰謂雀無角, 누가 참새에 뿔이 없다고 하는가,
其如穿屋何. (없다면)어떻게 저 지붕을 뚫었겠는가.[36]

화자의 귓전에 들려오는 뱃사공들의 노랫소리에 수심이 실려 온다. 이는 삶의 근심이 없이 이러한 노래가락을 실어온다면, 이는 마치 참새가 머리 뿔도 없이 지붕을 뚫는 행위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 말미 두 구절은『詩經』에 나오는 구절과 거의 유사하다. 마지막 구절의 글자만 살짝 바꾸었을 뿐이다.[37] 전체적인 시상이 불교적 경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한산의 시에서 보기 힘든 내용이다. 현실적인 서민들의 삶의 고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비애를 한산 역시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이를 유가 경전 속의 구절로 그들과 고통을 공유하려고 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2) 儒家에 대한 비판적 性向

徒勞說三史, 헛되이 三史를 이야기 하고,
浪自看五經. 부질없이 五經을 읽는다네.
洎老檢黃籍, 늘그막에 호적을 살펴보아도,
依前注白丁. 여전히 백정으로 되어 있다네.
……
不及河邊樹, 강가에 나무만도 미치지 못하나니,
年年一度靑. 해마다 한 번씩은 푸르러 지는 것을.[38]

35) 「寒山詩-230」
36) 「寒山詩-030」
37) "誰謂雀無角, 何以穿我屋.……"『召南·行露』

‘三史’는 중국의 역사서를 일컫고,[39] ‘五經’은 유가의 다섯 가지 경서를 가리킨다.[40] 자신의 신분이 ‘백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면해보려고 중국의 역사서적과 유가의 대표적인 다섯 경서를 한평생 부지런히 탐독해 본다. 그러나 말년에 이르러도 자신은 여전히 평민계급을 면치 못한다. 입신양명에 따른 신분상승을 통해 현재의 불우함을 극복하려 한평생 애씀이 해마다 한 번씩은 푸르러 지는 강가의 나무만도 못하다는 비유이다. 이는 신분계급의 사회질서 속에서 이루지도 못할 꿈을 향해 나아가고 가고 있는 수많은 평민들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유가의 서적을 통해 수양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각이 잘 드러나 있는 시편이다.

蹭蹬諸貧士, 불우한 많은 가난한 선비들,
飢寒成至極. 춥고 굶주림이 극한에 다다랐네.
閑居好作詩, 한가로울 때 시 짓기 좋아하여,
札札用心力. 끙끙대며 심력을 기울였다네.
賤人言孰采, 천한 사람의 말 누가 들어주리오,
勸君休歎息. 그대 탄식하지 말기를 권하노라.
題安餬粢上, 떡에다 글씨 곱게 새겨 넣어서,
乞狗也不喫. 개에게 던져주어도 먹지 않으리라.[41]

과거 급제에 뜻을 이루지 못하여 좌절한 선비들의 실상을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다. 평소에는 선비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한가로이 作詩를 취미삼아 수작하던 이들이 과거시험에 임박하여서는 심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계속되는 낙방에 집안경제도 기울어 춥고 배고픔이 극에 다다를 정도가 된다. 화자는 그들에게 반상의 계급에 오르지 못한 이들의 말 따위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으니 탄식할 필요가 없다고 일러준다. 심지어는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개조차도 떡에도 글 새겨 던져주면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진정한 마음의 수양을 향해 애쓰지 않고 경전이나 작시에만 몰두하며 과거시험을 통해 신분계급의 상승을 꿈꾸는 유가의 많은 가난한 선비들을 향해 한산은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고상한 척 주고 받는 글귀는 개가 좋아할 떡에 새겨주면 그 떡마저도 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世有聰明士, 세상에 총명한 선비들 있어,
勤苦探幽文. 심오한 문헌 탐구하느라 몹시 애쓴다네.
三端自孤立, 三端은 스스로 특출나고,
六藝越諸君. 六藝는 모든 이들을 능가했다네.
神氣卓然異, 신비로운 기운은 우뚝 뛰어나고,
精彩超衆群. 정묘한 광채는 군중에게서 빼어났다네.
不識箇中意, 그러나 이 안의 참된 뜻 알지 못하니,
逐境亂紛紛. 바깥 경계 쫓아 어지러이 분분하다네.[42]

유가의 문사들에 대해 화자가 던지는 비판적 화두가 전편을 지배하고 있다. 세상에 나름 총명하다고 인정받는 문사들은 탐구하는 문헌도 평범하지가 않고 심오하다. ‘三端’ 즉 ‘붓끝’, ‘칼끝’, ‘혀끝’은 특출하고,[43] ‘六藝’[44] 등의 과목은 모든 이들을 능가한다. 그들에게서 배어나오는 신비로운 기운과 정묘한 광채는 뭇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 내면의 참된 진리의 세계를 모르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불법에서 일컫는

38) 「寒山詩-080」
39) 『史記』, 『漢書』, 『後漢書』를 가리킴.
40) 『詩經』, 『書經』, 『周易』, 『禮記』, 『春秋』를 가리킴.
41) 「寒山詩-099」
42) 「寒山詩-105」
43) “군자가 피해야 할 세 가지 끝이 있으니 ‘문사의 붓끝’, ‘무사의 칼끝’, ‘변사의 혀끝’이 그것이다.(君子避三端, 避文士之筆端, 避武士之鋒端, 避辯士之舌端.)” 『韓詩外傳』卷七. 項楚, 『寒山詩注』, p.283. 원문 재인용, 필자 역.
44) 禮·樂·射·御·書·數의 고대 교육의 여섯 가지 과목을 가리킴.

깨달음의 세계이다.[45] 이러한 깨달음은 뒤로 한 채 바깥 경계로만 이목이 치우쳐 있으니 그들의 심신은 늘 바쁘고 어지럽기만 하다. 화자는 유가 선비들이 지향하는 세계가 인간 내면의 참된 진리와의 추구와는 근본적인 지향점이 다르다고 엄준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

雍容美少年, 온화하고 의젓한 아름다운 소년,
博覽諸經史. 모든 경전과 역사서를 두루 읽었다네.
盡號曰先生, 다들 선생이라 부르고,
皆稱爲學士. 모두들 학자라고 일컫는다네.
未能得官職, 아직 관직을 얻지 못하고,
不解秉耒耜. 쟁기와 보습도 잡을 줄 모른다네.
冬披破布衫, 겨울에도 헤진 베적삼 걸쳤으니,
蓋是書誤己. 이는 책이 몸을 그르쳤음 일세.[46]

자태가 수려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나이 어린 소년이 유가의 경전과 역사서적을 두루 통독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모두 '선생' 혹은 '학자'라 부른다. 작품에 등장하는 소년은 어려서부터 유가의 전형적인 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이른 나이에 주위로부터 명망과 관심을 받아왔지만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또한 서책에만 몰두하느라 농사짓는 방법은 알지도 못한다. 집안에 재물도 없어서 차가운 겨울에 몸에는 베적삼 밖에는 걸칠 옷이 없다. 시편의 말미에 화자는 경고하고 있다. 농기구 하나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른 채 세상이 떠받드는 유가의 서책에만 몰두하다가 자신의 몸마저도 망치고 마는 어리석은 유가의 선비들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一人好頭肚, 훌륭한 풍채를 지닌 한 사람,
六藝盡皆通. 六藝도 모두 능통했다네.
南見驅歸北, 남에서 보이더니 내달려 북으로 돌아오고,
西逢趍向東. 서에서 만났는데 동으로 내달린다네.
長漂如汎萍, 늘 부평초처럼 떠다니고,
不息似飛蓬. 흩날리는 쑥처럼 쉼이 없네.
問是何等色, 이는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니,
姓貧名曰窮. 성은 '빈'이요, 이름은 '궁'이라네.[47]

상기 살펴보았던 두 편의 시를 합쳐 놓은 듯하다.[48] 훌륭한 풍모에 육예까지 통달한 유가의 선비가 있어 삶의 여유란 찾아볼 수가 없다. 동서남북을 늘 부평초처럼 떠돌고 바람에 흩날리는 쑥과 같다. 그 사람 누군가 궁금하여 물어보니 '貧窮' 즉 가난하여 생활이 몹시 어렵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화자는 유가의 식견에 외관까지 갖춘 한 선비가 평생을 동분서주하여 정처없는 삶을 떠돌지만 끝내 남은 것이라고는 '가난'밖에 없다는 상징적인 비유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겉모습에 치중한 유가적 성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던지고 있다.

3. 道家적 양상

한산이 청년시기 이후 현실사회에서 유가와 관련된 입신양명의 행동반경을 정리하고 은거해 간 곳은 천태산이다. 천태산은 도교의 기운이 매우 농후한 곳이다. 널리 알려진 많은 道觀과 산이 빚어내는 신비한 도교적

45) 項楚, 『寒山詩注』, p.283. 참조.
46) 「寒山詩-129」
47) 「寒山詩-148」
48) 「寒山詩-105」와 「寒山詩-129」를 가리킴.

기운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도 도교의 기운을 느끼게 만든다. 한산 또한 오랜 세월 이 곳에 은거하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49]

이러한 삶의 궤적은 그의 사상적 관념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그의 시에 드러난 도가적 성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분석은 도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의 성향과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의 성향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50]

1) 道家에 대한 긍정적 性向

琴書須自隨, 거문고와 책은 모름지기 저절로 따르는 것
祿位用何爲. 녹봉과 작위에 연연해 무엇 하리오.
投輦從賢婦, 벼슬자리 내던지며 어진 아내 따르고
巾車有孝兒. 수레에 휘장을 두르니 효성스런 아이 있다네.
……
常念鷦鷯鳥, 늘 생각건대 뱁새도,
安身在一枝. 몸을 편히 하는 것 한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네.[51]

시의 전체적인 어조가 인위를 배제한 무위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듯하다. 시와 음악과 예를 통해 도를 구축해가는 유가적 세계[52]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시의 말미 두 구절 "늘 생각건대 뱁새도, 몸을 편히 하는 것 한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네."는 『莊子』「逍遙遊」의 내용이다. 堯임금이 천하를 許由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허유가 던진 말 가운데 "뱁새가 깊은 숲에 둥지를 틀고 살아도 나무 한 가지에 불과하며,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 해도 배를 채우는데 불과하다."[53]라는 내용이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번다한 세상의 경영주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즐기며 은일자적한 삶을 살겠다는 도가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화자도 시에서 유가적 출세로 녹봉과 작위에 연연한 삶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사에서 삶의 여유로움을 즐기며 살아가는 도가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家住綠巖下, 집은 푸른 바위 아래 있고,
庭蕪更不芟. 뜰은 풀 무성하여도 베지를 않는다네.
……
山果獼猴摘, 산과실은 원숭이가 따먹고
池魚白鷺銜. 연못의 고기는 백로가 물고 가네.
仙書一兩卷, 선서 한두 권,
樹下讀喃喃. 나무 밑에서 중얼거린다네.[54]

만물을 혼돈상태에 둔 채 귀천의 구별을 하지 않고, 함께 뒤섞이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긍정하려는 도가적 속성이 느껴지는 시편이다.[55] 본인이 거처하는 집은 푸른 바위를 담장으로 하고, 집 앞 뜰의 풀은 자연의 변화에 맡겨둔다. 산의 과일은 원숭이가 취하고 연못의 고기는 새가 물고 가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면

49) 楊芬霞, 『中唐詩僧研究』,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p.50. 참조.
50) 본고에서 서술하는 '道家'라는 용어는 중국인들의 전통적 관념에서 '道敎'와 동일시하여 사용하던 틀에 근거하고자 한다. 이 둘의 용어가 개념적으로 이분법화 된 것은 20세기 초 서양철학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윤찬원, 「道家-道敎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 『道敎文化研究』 제16집, 2002, p.29. 참조.
51) 「寒山詩-005」
52) 子曰 "興於詩, 入於禮, 成於樂." 『論語·泰伯篇』
53) "鷦鷯巢於深林,不過一枝.,偃鼠飮河,不過滿腹." 『莊子·逍遙遊』
54) 「寒山詩-016」
55) "만물의 변화와 하나가 되어 혼돈은 그 자체로 두며, 귀천의 구별을 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 속에서 참된 순수함을 보전하고,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를 감싸고 있다.(爲其脗合,置其滑涽,以隸相尊.…… 參萬歲而一成純. 萬物盡然,而以是相蘊.)" 『莊子·齊物論』

서, 화자는 나무 아래에서 유유자적하게 도가의 '仙書'를 읽고 있다. 인위적인 미적추구는 배제하고 만물의 변화와 속성을 그 자체로 추구하는 도가적 경향을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산이 도가의 서적을 읽고 있는 모습은 다음의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微風吹幽松, 가는 바람 그윽한 소나무에 불어와,
近聽聲愈好. 가까이서 들으니 소리 더욱 좋다네.
下有斑白人, 아래에 반백의 노인 있어,
喃喃讀黃老. 黃老 글을 중얼거리고 있네.
十年歸不得, 십년이 되어도 돌아갈 줄 모르고,
忘却來時道. 들어올 때의 길을 잊어 버렸다네.[56]

상기 시편처럼 이 시편에서도 시적화자는 자연의 향취가 그대로 묻어나는 야외의 소나무 아래에서 바람소리 들으며 黃老의 글을 읽고 있다. '黃老'는 도가에서 시조라 일컬어지는 黃帝와 老子를 지칭한다. 그런데 글을 읽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반백이며, 그 길로 접어든지 십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전생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번 생을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음 생을 위해서 부지런히 불법을 닦을 것을 강조하는[57] 한산의 내면에는 불도에의 정진과 함께 도가에 대한 긍정적 속성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快哉混沌身, 좋았어라 혼돈의 몸이여,
不飯復不尿. 먹지도 않고 배뇨도 않았다네.
遭得誰鑽鑿, 누군가에게 파이고 뚫리고 하여,
因玆立九竅. 이에 아홉 구멍 생겨났네.
朝朝爲衣食, 날마다 입고 먹는 것 헤아리며,
歲歲愁租調. 해마다 세금 내는 것 근심하네.
千箇爭一錢, 천 명이 동전 한 닢에 다투고,
……[58]

『莊子』「應帝王」편에 나오는 우화로 詩想을 삼았다.[59] 耳目口鼻가 없을 때에는 자유롭던 존재가 하루하루 인간적인 인식을 하면서부터는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에 바치는 조세와 금전적 쟁투까지 벌여야 하는 삶의 고통이 인위적 천착의 행위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화자는 강조하고 있다. 『莊子』의 이 일곱 개의 구멍은 불가에서 일컫는 眼耳鼻舌身意 六根의 작용으로 말미암는 분별심과 유사하다. 이로 인해 참 자아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짓 자아에 의해 일생을 구속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이 어리석음이 시의 전편에 묘사되어 있다. 도가의 노장적 색채에 대한 화자의 적극적 수용이 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莊子說送終, 장자는 장사치를 때,
天地爲棺槨. 하늘과 땅을 속 널과 겉 널로 삼는다고 했네.
吾歸此有時, 나는 때가 되면 돌아가거늘,
唯須一番箔. 오직 대발 하나면 충분하리.
死將餵靑蠅, 죽어서는 금파리의 먹이가 되고,

56) 「寒山詩-020」
57) "전생에 너무 어리석어서, 오늘날 깨치지 못하였네. 오늘날 이렇게 구차한 것은, 모두 전생에 지은 것이라네. 금일 또 닦지 않으면, 내생에 다시 되돌아가리라.(生前太愚癡, 不爲今日悟. 今日如許貧, 總是前生作. 今日又不修, 來生還如故.)" 「寒山詩-041」
58) 「寒山詩-071」
59) "남해의 임금과 북해의 임금이 때마침 혼돈이라 불리는 임금이 다스리는 중앙의 바다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이들을 잘 대해주었다. 南海와 北海 두 바다의 임금은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사람에게는 있는데 혼돈에게는 없는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 일곱 구멍을 하루에 한 개씩 뚫어주었는데, 7일이 지나자 혼돈은 죽고 말았다(南海之帝爲儵,北海之帝爲忽, 中央之帝爲混沌.儵與忽時相與遇於混沌之地,混沌待之甚善.儵與忽謀報混沌之德,曰:「人皆有七竅以視聽食息,此獨無有,嘗試鑿之.」日鑿一竅,七日而混沌死.)" 『莊子·應制王』

吊不勞白鶴. 弔喪에는 백학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리.
餓著首陽山, 굶주리다 수양산에 다다르면,
生廉死亦樂. 삶은 청렴하고 죽음 또한 즐거우리.[60]

道家적 성향이 뚜렷한 시이다. 天地를 葬事지내는 棺으로 삼겠다는 莊子의 견해가 구체적으로 차용되고 있다. 莊子는 그의 장례식에 천지 이외에 해와 달은 한쌍의 옥으로, 별은 구슬로, 만물은 선물로 삼는다고 하였다.[61] 한산 역시 이에 견해를 같이하여 죽음은 때가 되면 돌아가는 자연스런 귀결로 간주하니, 그저 '대발' 하나 쓰는 것만으로 장례식은 족하다고 여긴다. 또한 먹거리가 없어도 청렴의 표상이 되면 되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곤충의 먹이가 되어준다.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고 자연의 순환구조로 받아들이는 老莊적 생사관을 한산은 보여주고 있다.[62]

從生不往來, 태어날 때부터 왕래하지 않고,
至死無仁義. 죽을 때까지 인과 의는 없다네.
言旣有枝葉, 말에 이미 가지와 잎이 생겨남은,
心懷便險詖. 마음이 음험하고 바르지 못한 때문.
若其開小道, 만약 작은 도를 펼친다면,
緣此生大僞. 이로 인해 큰 거짓이 생겨나리라.
……[63]

老子의 사상이 시편에 녹아있다. 노자가 말하는 도는 원래 어느 곳에나 있지 아니함이 없다. "도가 무너졌다고 여길 때 비로소 仁과 義가 생겨났으며",[64] "仁과 義가 사라져야 비로소 효심과 자애로움이 회복될 것"[65]이라는 노자의 견해를 한산은 시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간들의 언사에 수식이 덧붙는 것도 뿌리가 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소위 지혜라고 일컫는 것 때문에 노자가 말하는 '큰 거짓'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66] 시편의 전체적인 틀이 노자의 사상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手把兩卷書, 손에는 두 권의 책,
一道將一德. 한 권은 道經 한 권은 德經.
住不安釜竈, 거처에 솥과 부뚜막 두지 않고,
行不齎衣裓. 다님에 도포자락 갖추지 않네.
常持智慧劍, 늘 지혜의 검을 가지고,
擬破煩惱賊. 번뇌의 도적을 없애려 한다네.[67]

한산이 손에 들고 다닌다는 두 권의 책은 老子의 『道德經』을 가리킨다. 상편은 「道經」, 하편은 「德經」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스로 도가철학의 시조인 老子의 사상을 전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신의 주거지에 취사도구도 별도로 두지 않고 외출을 함에 의복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가고 오고 머무름에 속

60) 「寒山詩-008」
61) "장자가 죽으려 할 때에 제자가 그를 후히 장사지내려 하자, 장자가 '나는 천지를 널로 삼고 해와 달을 연벽으로 삼으며, 별을 구슬로 삼고 만물을 부장품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 장례식 도구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무엇을 여기에 덧붙이려 하는가.'라고 하였다.(莊子將死,弟子欲厚葬之. 莊子曰:「吾以天地爲棺槨,以日月爲連璧,星辰爲珠璣,萬物爲齎送. 吾葬具豈不備邪? 何以加此!」)" 『莊子·列禦寇』
62)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 p.124. 참조.
63) 「寒山詩-188」
64) "대도가 무너지니 인의가 생겨나고,…… 국가가 혼란하니 충신이 나타나는 것이다.(大道廢, 有仁義…… 國家昏亂, 有忠臣.)" 『道德經』18장.
65)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은 효심과 자애로움을 회복할 것이다.(絶仁棄義, 民復孝慈.)" 『道德經』19장.
66) "지혜가 생겨나니 큰 거짓이 있게 되었다.(智慧出, 有大僞.)" 『道德經』18장.
67) 「寒山詩-156」

박이 없는 자유로운 영혼을 표현하는 구절이다. 시편의 말미에 화자가 번뇌의 도적을 베어 없애버리는 도구로 표현한 '지혜의 劍'은 불교에서 생사번뇌의 굴레를 베어 없애버리는 상징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68] 이 시를 통해서 보면 도가와 불가의 두 속성이 한산의 내면에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踐草成三徑, 풀을 밟다보니 오솔길 되고
瞻雲作四隣. 구름을 바라다보니 이웃이 되네.
助歌聲有鳥, 노래가락 돋우면 새 찾아오는데
問法語無人. 법어를 물으려니 사람이 없네.
今日娑婆樹, 아! 오늘 이 사바의 나무는
幾年爲一春. 몇 년을 한 봄으로 삼으려 하나.[69]

숲 속 오솔길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하늘 위 구름이 이웃이 되는 장면에서 인위적 행위가 제거된 노장적 세계관의 일 단면을 엿볼 수 있다.[70] 주변의 자연경계가 절로 그의 이웃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노래가락에 새는 응해주는데 함께 법문을 논할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결미에서 말하는 사바의 나무에 대해『莊子』는 '大椿'이라는 나무를 등장시켜 팔천년을 봄으로 팔천년을 가을로 삼아 살아간다고 하였다.[71] 여기에서 우리는 노장사상과 불교사상을 접목시켜나가는 한산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찰나의 한 순간이 영겁으로 이어지는 불가의 색즉시공을 표현한 "空"의 사상이다. 사바의 이 나무 또한 찰나적 영상에 불과하며 자연과의 합일은 노장적 사상이다. 한산은 여기에서 '娑婆'라는 불가적 용어의 인간세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그 내면은 소요자적하며 무위의 삶을 살아가는 노장적 세계관을 함께 그려내고 있다.

2) 道家에 대한 비판적 性向

白鶴銜苦桃, 흰 학이 쓴 복숭아 입에 물고,
千里作一息. 천리를 가서야 한번 쉰다네.
欲往蓬萊山, 봉래산으로 날아가려고,
將此充糧食. 이것으로 양식을 삼았다네.
未達毛摧落, 도달하기도 전에 깃털은 꺾이고 빠지며,
離群心慘惻. 무리에서 떨어져 마음은 몹시 슬펐다.
卻歸舊來巢, 물러나 다시 옛 둥지로 되돌아오니,
妻子不相識. 아내와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한다네.[72]

'봉래산'은 전설로 전해오는 바다 가운데 신선이 거처하는 산으로 알려져 있다.[73] 흰 학이 쓴 복숭아 하나 입에 물고 천리를 날아가서야 한번 쉬어간다는 것은 신선이 되는 길은 그만큼 힘들고 요원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74] 그러나 목표로 삼던 봉래산은 도달하기도 전에 몸은 지쳐버리고, 함께 하던 벗들도 사라져버려 심신이 피폐해져 버렸다. 결국 신선의 수업도 포기한 채 옛 둥지로 되돌아 왔으나 처자식마저 알아보지 못

68) "인내의 갑옷으로 몸을 장엄하게 하고, 지혜의 검을 가지고 마귀들의 험한 길에서 나를 구제하여 온갖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소서.(忍鎧莊嚴身, 執持智慧劍, 於魔嶮惡道, 濟我免衆難.)"『華嚴經』卷45 : 項楚,『寒山詩注』, p.393. 원문 재인용, 필자 역.
69)「寒山詩-004」
70) 莊子는 길은 사람이 다님으로 해서 생겨난다고 하였다. "道行之而成."『莊子·齊物論』
71) "上古有大椿者 以八千歲爲春 以八千歲爲秋."『莊子·逍遙遊』: 여기에서 등장하는 '大椿'이라는 나무는「逍遙遊」앞 구절의 오백년을 봄으로 오백년을 가을로 살아가는 초나라의 '冥靈'이라는 거북이와 더불어 짧은 순간적 삶을 살아가는 미미한 생물들[朝菌, 蟪蛄]과 대비시켜 놓은 것이다.
72)「寒山詩-039」
73) 蓬萊山은 方丈山, 瀛洲山과 함께 三神山으로 불린다. 項楚,『寒山詩注』, p.109. 참조.
74) 項楚,『寒山詩注』, p.109. 참조.

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 시편에서 화자는 도가의 수련을 통해서 신선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욕망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실체도 없는 환상에 빠져서 심신을 망쳐버리고 궁극으로는 자신이 돌아갈 곳도 없는 극한적 단계에 다다를 수 있는 그릇된 방향으로의 수련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山客心悄悄, 산 나그네 근심걱정에 싸여,
常嗟歲序遷. 늘 해 바뀌어 감을 탄식하네.
辛勤采芝朮, 애써 영지와 백출 부지런히 캐지만,
披斥詎成仙. 애써 뒤진다고 어찌 신선이 되겠는가.
庭廓雲初卷, 구름이 막 걷히니 뜰은 넓어지고,
林明月正圓. 달이 막 둥그니 숲이 밝아지네.
……75)

'영지'와 '백출'은 도가의 약용 식물로, 이를 복용하면 수명을 연장하고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76) 산에 거처하면서 도가의 수련으로 신선수업 한다고 하지만 해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근심걱정에 탄식만 절로 나온다. 이에 '영지'와 '백출' 같은 도가의 약용 식물까지도 부지런히 캐서 복용 해 보지만 신선이 될 리 없다. 환상 속의 신선의 존재와 같은 망령에 빠져서 자신의 일생을 허비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 화자는 비판하고 있다. 구름이 걷히고 난 뒤 뜰이 환히 넓어지고, 달이 둥글게 떠오르고 나면 숲이 밝아지는 것처럼 거짓 망상을 벗어버리고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충고하고 있다.

有人畏白首, 어떤 사람 머리 희어짐 두려워하여,
不肯捨朱紱. 붉은 인끈 놓으려 하지 않는다네.
采藥空求仙, 약을 구하여 부질없이 신선되려고,
根苗亂挑掘. 뿌리와 싹까지 마구 파내어 버리네.
數年無效驗, 수년간에 효험이 나타나지 않자,
癡意瞋怫鬱. 어리석은 마음에 성나고 화만 낸다네.
獵師披袈裟, 사냥꾼이 스님의 가사를 걸치려 하니,
元非汝使物. 원래부터 너의 물건이 아니었느니라.77)

'붉은 인끈'은 벼슬자리를 의미한다.78) 물질적 富에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은 더욱 관직을 버리기 싫어한다. 그들은 늙는 것조차 두려워하여 직위와 재산을 동원하여 신선이 되어보려고 산의 약초를 뿌리마저도 다 캐어간다. 하지만 장생불로하는 신선이 될 징후가 보이지 않자 초조한 마음에 화만 치밀어 오른다. 시편의 말미에 화자는 경고하고 있다. 사냥꾼이 스님의 가사를 걸친다고 스님이 될 수가 없듯이 이는 본래 어리석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고. 출세의 욕망과 함께 도가의 신선사상에 그릇되게 빠져드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화자는 준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昨到雲霞觀, 어제 운하관에 이르러,
忽見仙尊士. 문득 도사를 보았다.
……
余問神仙術, 내가 신선이 되는 방책을 물으니,

75) 「寒山詩-068」
76) "영지는 수명을 늘이고, 신선이 먹는다.(芝草延年, 仙者所食)"『論衡·驗符篇』
"남양문씨 문중에 그 선조가 漢末에 大亂을 만나 산으로 도망가다가 기아에 굶주려 죽으려 하였다. 한 사람이 그에게 백출을 먹으라고 시켜서 마침내 굶주림에서 벗어났다.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니, 안색은 더욱 젊어지고 힘은 세어졌다.(南陽文氏, 說其先祖漢末大亂, 逃去山中, 飢困欲死. 有一人教之食朮, 遂不能飢. 數十年乃來還鄉里, 顔色更少, 氣力騰故.)"『抱朴子內篇·仙藥』: 項楚,『寒山詩注』, p.188. 원문 재인용, 필자 역.
77) 「寒山詩-157」
78) 고대에 관직이 있는 사람들은 붉은 색의 실이 달려있는 인장을 차고 다녔다. 項楚,『寒山詩注』, p.394.

……
謂言靈無上, “신령하여 그 위는 없으며,
妙藥必神秘. 묘약은 반드시 신비하다.
守死待鶴來, 죽을 때까지 학이 오기를 기다리고,
皆道乘魚去. 고기를 타고 떠난다.” 라고들 말한다.
余乃返窮之, 내가 돌아와 이를 궁구해보고,
推尋勿道理. 규명해보아도 도리에 맞지 않았다.
……
饒你得仙人, 설령 그대 신선이 된다하여도,
恰似守屍鬼. 주검을 지키는 귀신과 다름없으리.
……
莫學黃巾公, 황건공의 도술 배워서,
握愚自守擬.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지려하지 말아라.[79]

화자가 도교사원인 ‘운하관’에 가서 도사에게 신선이 되는 방법을 묻자, 들려주는 대답이 “신선들은 신령하며, 그들이 복용하는 약은 신비스럽다.”라고 한다. 또한 그들은 “학이 오기를 기다리며, 물고기를 타고 떠난다.”라고 하였다.[80] 화자는 되돌아 와서 그들이 들려준 신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궁구해보았다. 그러나 이는 실체가 없으며 도리에 맞지 않다고 여겼다. 이에 화자는 사람들에게 도가의 ‘신선’이라는 존재에 대해 궁극적인 비판을 가한다. 설령 도가의 방법을 익혀 신선이 될지라도 이는 죽은 시체 곁을 떠나지 못하는 귀신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시편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는 도사들의 도술에 미혹되어 한평생 어리석음에 빠져 사는 존재가 되지 말라고 더욱 준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常聞漢武帝, 일찍이 들으니 漢武帝부터,
爰及秦始皇. 秦始皇에 이르기까지.
俱好神仙術, 모두 신선술을 좋아하여,
延年竟不長. 수명을 늘이려 하였으나 끝내 못하였다네.
金臺旣摧折, ‘금대’는 무너졌고,
沙丘遂滅亡. ‘사구’는 마침내 사라져 버렸다.
茂陵與驪嶽, ‘무릉’과 ‘여악’에는,
今日草茫茫. 오늘날 잡초만 우거졌어라.[81]

漢武帝와 秦始皇은 모두 도교의 불로장생과 관계되는 신선술을 무척 신봉하던 사람들이다.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수명을 늘이려 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금대’는 한무제가 신선을 만나고 싶어 지은 누대이며, ‘사구’는 진시황이 숨을 거둔 곳이다. 지금 한무제 능묘인 ‘무릉’과 진시황의 능묘가 있는 ‘여악’ 그곳에는 잡초만 우거져 있다.[82] 역대 제왕 중에서도 불로장생을 꿈꾸며 도가의 신선술을 가장 신봉하던 두 임금마저도 그들의 무덤엔 잡초만 무성하다는 시편 말미의 결론을 통하여 화자는 이루지 못할 환상을 그리는 도가적 방편에 대한 꿈에서 깨어날 것을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4.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산은 시에서 자신을 佛法에 귀의한 사람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주고 있는 사상적 관념은 비교적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불교 이외에도 유가인 것 같으면서

79) 「寒山詩-248」
80) 이는 신선들이 학과 물고기를 부려서 타고 다닌다는 설화에 기인한 것이다. 項楚, 『寒山詩注』, pp.652-653. 참조.
81) 「寒山詩-274」
82) 項楚, 『寒山詩注』, p.716. 참조.

도 유가가 아닌 것 같고, 도가인 것 같으면서도 도가가 아닌 것 같은 면이 곳곳에 드러나 보인다.[83]

젊은 시절 당시의 시대적 경향에 따라 한산 역시 文武를 두루 익히며 유가적 훈도를 받아서 과거에 수차례 응시를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시편을 보면 이러한 儒學 공부에의 영향이 드러나 보인다.

가령, 「寒山詩-103」에서는 『論語』의 「顔淵」, 「公冶長」, 「述而」, 「衛靈公」의 네 편을 인용하여 경전 속의 글귀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혹은 그 내용을 시의 주제로 삼았다. 「寒山詩-146」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書經』의 교훈과, 유교 윤리의 핵심적 가치인 '孝'를 다룬 『孝經』「喪親章」을 결미의 주제로 삼았다. 「寒山詩-149」는 『論語·子張』편의 벗과의 사귐과 관련된 내용을 인용하여 시의 전체 줄거리 및 제재로 삼았다. 「寒山詩-225」는 『書經』에 나오는 유교 정치사상의 핵심인 민본사상을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라는 시 구절로 바꾸어 전체 내용을 전개하였다. 「寒山詩-230」에서는 『禮記』의 「儒行篇」에 대해 언급하고, 「寒山詩-030」에서는 『詩經』의 구절을 거의 유사하게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시편들로 보면 한산이 과연 詩僧에 가까운 행적과 내용을 남긴 사람이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유가에 대해 긍정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가에 대해 비판적 성향을 드러낸 시편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

가령, 「寒山詩-080」에서는 역사 및 유교경전을 부지런히 탐독하는 사람들이 말년에 이르러도 '백정'신세를 면치 못하는 현상을 통해 유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었다. 「寒山詩-099」에서는 과거 급제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좌절한 유가 선비들의 실상을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다. 「寒山詩-105」에서는 '三端'은 특출하고 '六藝' 등의 과목은 뭇 사람들을 압도하는 총명한 유가의 문사들이 자기 내면의 진리를 향한 추구는 외면하고 바깥 경계에만 귀 기울임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다. 「寒山詩-129」에서는 유가 경전과 역사서적을 통독하여 '선생' 혹은 '학자'라고 칭송받던 인물이 관직에도 오르지 못하고, 농기구도 다루지 못해 집안과 자신을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비판하고 있다. 「寒山詩-148」에서는 유가의 식견에 외관까지 갖춘 한 선비가 평생을 동분서주하여 정처없는 삶을 떠돌지만 끝내 남은 것이라고는 '가난'밖에 없다는 상징적인 비유로 유가적 성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유가의 사상과 경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거나 혹은 그다지 비판적이지 않은 한산이지만 유가의 공부를 통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장기 동안 자신의 몸에 밴 유가적 훈도가 한산에게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선택받지 못한 관직사회로의 좌절도 유가를 바라보는 그의 비판적 성향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산이 出仕로의 미련을 버리고 은둔생활로 방향을 결정해 들어간 곳은 천태산이다. 이곳은 많은 道觀과 신비한 도교적 기운이 서린 곳이다. 이러한 처소에서의 오랜 은둔생활은 그에게 佛家뿐만 아니라 道家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령, 「寒山詩-005」에서는 한 나뭇가지에 몸을 편히 쉬는 뱁새의 이야기가 실린 『莊子』「逍遙遊」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도가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寒山詩-016」에서는 나무 아래에서 '仙書'를 읽으며 인위적 행위는 배제한 채 만물이 순환하는 자연스런 흐름을 즐기는 도가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寒山詩-020」에서는 머리가 반백이 된 화자가 소나무 아래에서 黃帝와 老子의 글을 중얼거리며 십년이 되어도 돌아갈 줄 모른다는 내용을 통해 도가의 세계에 흠뻑 빠져든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寒山詩-071」에서는 『莊子』「應帝王」에 나오는 혼돈의 우화를 詩想으로 삼아서 일생을 구속받으며 한 닢 동전에도 암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寒山詩-008」에서는 본인의 장례식에 天地를 葬事지내는 棺으로 삼고 죽어서는 곤충의 먹이가 되겠다는 莊子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고 자연의 순환구조로 받아들이는 老莊적 생사관을 보여주고 있다. 「寒山詩-188」에서는 '仁'과 '義'와 같은 큰 거짓이 사라져야 효심과 자애로움이 생겨날 것이라는 老子의 사상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寒山詩-156」에서는 자신의 거처에 취사도구도 없고 출입함에 의복도 개의치 않는 한산이 손에는 늘 老子의 『道德經』을 들고 다닌다는 구절을 통하여 도가의 사상적 이념을 전면 수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寒山詩-004」에서는 숲 속 오솔길과 하늘 위 구름을 벗으로 하며 『莊子』의 '大椿'이라는 나무를 통해 소요자적하며 무위

83) 羅時進, 『唐詩演進論』, 江蘇古籍出版社, 2001, p.121. 참조.

의 삶을 살아가는 노장적 세계관을 그리고 있다.

도가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성향과는 달리 도가의 사상을 수용하며 종교화의 길로 나아간 도교화된 모습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적 견해를 던지고 있다.

가령, 「寒山詩-039」에서는 '흰 학', '복숭아', '봉래산' 등의 도가적 용어를 시에 차용하며 실체도 없는 신선이 되려는 환상에 빠져서 심신을 망쳐버리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욕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寒山詩-068」에서는 '영지'와 '백출' 등의 도가에서 일컫는 약용 식물로 수명을 연장하며 신선이 되려고 일생을 허비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寒山詩-157」에서는 자신의 직위와 재산을 동원하여 산의 약초를 뿌리마저 캐어 보지만 신선이 되지는 못하고 도리어 초조한 마음에 화만 내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욕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寒山詩-248」에서는 도교사원인 '운하관'에서 화자에게 들려주는 도사들의 신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도사들의 도술에 미혹되어 한평생 어리석음에 빠져 사는 존재가 되지 말라고 준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寒山詩-274」에서는 불로장생과 관계되는 신선술을 무척 신봉하던 이들인 漢武帝와 秦始皇을 통해 인간의 최고 지존인 역대 황제마저도 불로장생은 이루지 못하고 그들의 무덤에는 잡초만 무성하다는 이야기를 통해 이루지 못할 도가적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寒山詩-066」에서는 孔子와 莊子의 그릇된 설교의 방편으로는 진정한 도에 도달할 수 없음을 설파하여 유가와 도가에 대해 한 시편에서 동시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84]

이상을 통해서 한산은 자신의 시 곳곳에서 현세에 불법을 닦아 번뇌를 없애고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것을 독자들에게 주문하고 있지만, 그의 이면에는 이전에 자신이 걸어왔던 유가의 그림자와 시대상이 보여주는 도가의 존재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었다. 특히 도가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은 불가와 함께 한산의 내면에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論語』
『孟子』
『詩經』
『書經』
『道德經』
『莊子』
陳耀東, 『寒山詩集板本研究』北京:世界知識出版社, 2007.
何善蒙, 『隱逸詩人-寒山傳』, 浙江人民出版社, 2006.
羅時進, 『唐詩演進論』, 江蘇古籍出版社, 2001.
歐陽慧娟, 『寒山詩歌研究』, 湖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7.
孫昌武, 『禪思與詩情』,北京:中華書局, 1997.
項楚, 『寒山詩注』, 北京:中華書局, 2000.
蕭華榮, 『中國詩學思想史』,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
崔小敬, 『寒山及其詩研究』, 中國 復旦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4.
윤찬원, 「道家-道教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 『道教文化研究』, 제16집, 2002.
정원호,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 『中國學』, 제52집, 2015.

84) 침묵만 지키고 길이 말이 없으면, 뒷사람은 무엇으로 말을 전하리오. 숲속에 숨어살기만 하면, 지혜의 경지는 어디서 나오리오. 야위어 파리함은 견고한 지킴이 아니리니, 바람과 서리는 요사스런 질병을 만든다네. 흙소로 자갈밭을 경작해보아도, 벼를 수확할 날 오지 않는다네.(默黙永無言, 後生何所述. 隱居在林藪, 智境何由出. 枯槁非堅衛, 風霜成夭疾. 土牛耕石田, 벼를 수확할 날 오지 않는다네.)

【문학 분과】 발표 ⑥

시경 중의 “악(乐)” 사상의 연구

송진열*

【목 차】

1. 서론
2. 선행 연구
3.《시경》중의 악과 고대 생활 (乐과 古代生活)
  3-1. 고대 가무의 사용 — 제천 의식과 연음의식 (祭天、宴饮仪式)
  3-2. 중국인의 풍류의식 (风流意识)
  3-3. 군사, 노역과 전쟁
4.《시경》중의 악(“乐”) 과 화 (“和”) 思想
  4-1.《시경》중 악(“乐”)
  4-2.《시경의 시관저》— 악 연구
  4-3. 琴瑟、钟鼓的 덕(“德”) 과 화(“和”)
  4-4.《시경의 시 나那》의 사상 연구
5.《시경》의 악과 인문정신의 의미
6. 결론

【초록】

이 연구는 중국 선진 시대 대표적인 경전인 시경에 나타나는 악과 화 사상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고대 중국에서 공자의 예악관은 음악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자는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고 피라미드적 사회 건설을 위한 예악관을 주장하였다. 그는 예(藝)는 사회 질서를 제공해주는 수단이지만 악(樂)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 연구에서는 “예”보다는 “악”에 집중하여 악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완성되었고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음악의 규칙은 자연의 오행과 연관이 되어있는데 이런 철학적 원리보다는 음악이 어떻게 화를 이루는 수단이 되고 교화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경 시의 구체적인 예를 분석하기 전에 중국인들의 고대 생활에서 제천 의식에서 가무의 사용이나 중국인의 풍류의식을 먼저 다루고 군사나 전쟁 중에 음악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인들은 시를 문학작품의 정수로 보았기 때문에 시를 모아 편찬한 시경이라는 경전이 만들어졌다. 시는 운율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시경의 시들은 음악의 가사로 사용되었다. 시경은 민간인들이 불렀던 시가들이나 궁중에서 종묘제례에 사용되었던 시들을 채집하게 공자가 편집하였다. 시경의 시들은 본디 노래로 불리다가 악기와 함께 연주되면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각종 연회나 조회나 종묘제례 등에 사용되었다.

고대 중국인은 예를 중시하면서도 사회 내에서 화합을 강조하는 화의 사상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樂의 사상은 시경의 여러 詩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본고에서는 시경에서 가장 먼저 실린 시 《關雎》나 蕩王을 기르는 시《那》의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樂이 어떻게 和를 추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 중국인들의 시는 악과 무가 일심동체를 이루고 있고 예와 연관되어 교화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교화의 수단임은 물론이고 인문학적 교양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임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 동서대학교 (sjsimon2358@hanmail.net)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만든 악기들을 통해 인간의 심성을 개발하는 修德의 수단일 수 있도록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중국인의 화를 추구하는 사상을 시를 통해서 살펴보고 분석하면서 악과 우주와의 화, 인간과 우주와의 화에 관한 사상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키워드】 제천의식, 예악, 금과 슬, 종과 고, 화

1. 서론

인간은 대자연 (Mother Nature)을 보고 경이 (wonder)를 느끼며 “인간은 누구인가? (Wer ist das Mensch?)”라는 질문을 던져왔다. 문학작품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 (the ontological questioning between man and world relationship)에 답을 제시하려고 했던 인간 사유(思惟)(thinking)의 대상이다. 사유의 대상으로서 문학 작품은 동시대인 (the contemporary)뿐만 아니라 후대 (future generation)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학은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 (emotion)을 추상적 요소인 문자로 표현하는 장르인데 사회를 반영할 수 있는 매체로 운율, 절주 (rhythm)의 형식인 서정시 (lyric)와 소설(novel)과 같은 서사시 (epic)로 구분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운율로 표현된 고대 시경에 나타난 음악이나 악기를 중심으로 예악이 어떻게 중화사상 (Sinocentrism)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경을 통해서 人間性 (humanity)-人性의 발로나 표현을 위한 교화의 매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시경(詩經)》은 운율적 리듬감을 갖는 노래 가사나 낭송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왕들은 민심을 알고 선정을 베풀기 위해 가사를 채집(collect)하는 기관(태사)을 두어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러한 기록 중의 하나가 시경이다. 시경은 다양한 운율을 통해 불린 시가로 수많은 세대들에게 읽히거나 노래로 불리면서 전승되는 고전적 텍스트로서 주나라부터 전국 시대까지의 채집된 노래 가사를 모아 공자가 편찬한 시가 모음이다.

중국에서의 예(禮) 관념 (idea)은 일체의 규범(norma), 법령(legisltaon), 제도 및 사회적 질서의 의미를 포함한다.[1] 유교 사상적 예(禮) 문화의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분만 아니라 계급에 따라 연회 때 악기의 사용이나 무용수에도 차이를 두면서 엄격한 피라미드적 신분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도구로도 작용했다. 천자는 정(Ding) 9개를 사용하고 제후 (royal class)들은 6개, 경(Qing)은 3개를 사용하는 등 엄격한 예식과 행동을 취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꾀했다. 또한 일찍이 고대 중국사회는 계급문화가 형성되어 후대로 갈수록 복식을 통해 신분을 구별하는 제도가 엄격했다.

중국 고대 경전인 시경에서 '예'와 '악'이 어떻게 서로 화를 이루는 수단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공자는 '예'와 '악'관계에 관해 상세히 해석하는 위대한 학자 중의 하나이다. 연구자는 시경에서 음악과 악기의 사용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 시를 통해 고대 중국인들이 음악을 사용하는 많은 형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시경에 나타난 악의 화 사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며 구체적인 실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중국의 최초의 문학 형식은 일정한 배율을 가진 시로서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시경은 중국 주나라와 춘추전국시대의 생활상이나 사상을 알 수 있는 시들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다: 멕시코 음악가 카를로스 챠베스는 '시가와 음악은 인류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2]”역설하였듯이 시란 인간의 자연

1) 최경옥, <禮 理念의 전개>, 『인문학논총』(부산: 경성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제4권, 2001년 8월) p.323.
2) Carlos Chavez, 音樂中的思想,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5, p.54: 诗歌和音乐表达人类的思想状态。

스러운 감정과 사고의 산물인 것이다. 고대 중국 전통 유학 사상을 예를 중시하면서 예란 악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예악관이 나타났다.

중국인는 예와 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실체로서 절제된 감정의 표현인 和가 독특한 음악관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이 예 만을 지키게 되면 인간의 본성은 딱딱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악의 오락적인 감정을 발산을 통해 즐거움을 표현하고 흥에 취함으로서 도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학자 김해명씨는 金海明씨는 ≪周代 樂儀의 性格과 그 分類≫에서 인간관계에서 악을 통한 감정의 표현에서 和가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경은 고대 중국인들이 혼인이나 제사에서 즐거움이나 오락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다; 류창교 ≪《詩經》의 즐거움의 세계≫ 에서 시경들은 고대 중국인들이 혼인이나 각종 연회에서 악과 악기를 연주하면서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런 악을 이용한 즐거움을 표시는 신분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어서 천자나 왕이나 제후 귀족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음악이 되었다.

궁중음악들은 아주 정제되고 절제된 형태로 감정을 표현할 때 조차 화를 중시하였다. 시경은 왕들의 행동을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자는 인문교양적인 예악 사상이 깊이 스며들고 있다; 중국의 학자 刘志刚은 ≪浅析≪论语≫中“礼乐”之“乐” ≫에서 공자의≪论语≫를 중심으로 和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인들에게 악은 인간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였고 일상생활 가운데 연주되었던 악들이 중국의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3. 시경 중 음악과 고대 생활

3-1. 고대 가무의 사용-제천 의식

古代 中國人들은 農耕 中心의 社會로 황허 강의 범람 같은 自然의 挑戰에 應戰하기 위해 中央 集權體制를 갖추기 시작했다. 農耕은 自然의 힘이나 現像에 依存하였다. 古代 中國人들은 황허 강의 범람에서 農耕地를 再整備하기 위해서 中央 組織을 필요로 했다. 治水 事業은 古代 中國人들에게 제일 重要한 治積 중의 하나였으므로 國家的 行事로 여겨졌다. 그리고 氾濫을 막고 洪水가 난 뒤 農耕地를 再整備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의 水準의 作業으로는 힘들고 광범위한 地域全體가 動員되어야 한다. 이 科程을 統制하기 위해서는 中央의 組織이 必要하며, 또 强壓에 의해 사람들을 動員하기보다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돌리는 神政政治가 確立되어야 한다. [3] 中央 集權의 體制를 갖춘 支配者들은 하늘에 祭祀를 지내고 복을 받으려는 神政 政治를 하였다. 향을 피우고 犧牲祭物을 바치면서 하늘에 祭祀를 지내는 것은 國家의 大業이었다. 이런 祭天 儀式에서 왕은 神政一致의 祭司長으로 하늘과 通交하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使者의 役割을 擔當했다. 가뭄이 계속되어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나 하늘에 祈雨祭를 지내는 祭天儀式은 國家의 行事일 뿐만 아니라 事會를 統合하는 하나의 儀式이 되었다. 이 儀式 중에 樂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儀式이 끝나면 백성들은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즐기기 시작했다. 이런 儀式은 하나의 國家의 大業으로 事會 統合을 이루는 하나의 儀式이었다. 이 儀式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을 樂의 사용인데 人間의 感情을 表現하는 詩가 리듬이 주어지면서 歌詞가 되고 舞를 통해 表現되면서 信과의 交感을 이루는데 필요한 要素가 되었다.

옛사람도 예악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일세의 풍속을 아름답게 하려면 예악의 시행에 앞서서 먼저 시교를 베풀어야 했다. 짧고 재미있고 노래하기 쉬운 시를 널리 퍼뜨려 마음을 착하고 아름답게 촉발하자는 취지다. 시는 노래다. 고대에는 시가무악이 구별이 없었다. 기악이 포함된 시가와 무용이 완비된 형태를 악이라고 한다. 공자의 말대로 시는 사람을 흥기시킨다.[4]

이런 樂이 사용될 때 祭天儀式에 參加하는 審美的 主體들이 客觀的 對象인 노래와 舞를 접하게 될 때 마음

3) 주경철, 문화로 읽는 세계사, (서울, 사계절) 2005, p.28.
4) 윤용섭, 악 음악, 마음을 다스리다. (서울, 글 항아리), 2014 p.55.

속에서 절로 興이 일어나거나 情이 일어나 하나의 一致感을 이루게 된다. 詩 역시 審美的 主體인 人間이 詩의 情感을 접하게 될 때 마음에 情이 일어나 興이 생기게 마련이다. 詩는 樂과 舞가 분리될 수 없는 形態로 古代 中國人들은 祭祀儀式이나 宴禮 때 歌詞에 音樂이 가해지면서 興을 돋우는 手段으로 사용되었다. 興이 생기게 되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된다.

> 古代의 詩는 歌와 舞가 渾然一切가 된 綜合藝術의 形態이다. 樂은 사실 孔子 哲學 體系의 重要한 哲學的 範疇로서 個人 人格 修養, 政治制度, 社會 論理 등 思想을 解釋하는 科程 중에서 提起되었다.[5)]

중국인들에게 음악은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왕국이 건국될 때 가장 먼저 악을 정리하고 왕국의 정당성을 주창하려고 하였다. 음악이 제천의식에 사용될 때 사회의 통합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강력한 매체였다.

> 음악은 예술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었고, 예술 가운데 정치적으로나 풍속교화의 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분야이기에 악으로 예술 전반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6)]

고대 중국에서 악은 예술의 표현일뿐만 아니라 시와 무가 종합적으로 행해지면서 왕이나 제후들이 백성들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의 중국인의 질서를 강조하는 엄격한 유교 사상에 부드러움을 강조하면서 和를 강조하는 華夏 사상이 탄생 되었다.

3-2. 중국인의 풍류의식

시경은 고대 중국인의 풍류 놀이 문화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다. 풍류는 멋지면서 고상하게 노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풍류는 노는 것이되, 미적으로 예술적으로 노는 것[7)]을 말한다. 이런 중국인의 풍류의식은 시경에 잘 나타나 있다. 시경이 본래 노래가사로서 고대 중국인들이 각종 연회나 사신들이 외국에서 왔을 때나 제례의식에 사용되었다. 궁중이나 귀족들은 宴會를 베풀어 酒宴과 樂이 가미되어 그 즐거움이 배가될 수 있다. 연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더불어'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가령 우리는 관저 같은 시에서 금을 연주하면서 술을 서로 권하면서 여흥을 즐기거나 노래에 박자가 있는 악을 수반하고 가무를 곁들여서 그 여흥이 더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시에 박자를 넣어 금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고 춤을 가미하는 중국 고대의 놀이문화를 볼 수 있다. 인간은 예로부터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놀이하는 인간의 모습(Homo Ludens)이 드러나고 있다. 풍류를 즐기는 귀족문화의 전형을 볼 수 있다. 흥겨운 자리에서 즐겁게 노는[8)]을 풍류놀음을 통해서 중국의 궁중과 귀족들의 宴樂의 風景圖를 볼 수 있는 시의 전형이다. 궁중이나 귀족들이 서로 모여서 북을 두드리고 編鐘까지 연주하면서 흥을 즐기는 酒宴文化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악은 연회에 참가하는 이들에게 풍류를 즐기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 풍류란 미적 인식에 기반을 둔 일종의 놀이 문화라고 일차적인 성격규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풍류는 놀이문화의 원형인 동시에 예술 문화의 원형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9)]

宴會를 베풀어 즐거움을 누리는 놀이적 측면과 악이 연주되는 귀족의 풍류 놀음을 시경의 《 鹿鳴》같은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

5) 유지강, 김창경, 淺析 《論語》中"禮樂" 之 "樂", 2016, 동북아 문화연구, vol.49. p.360: "事實上"樂"作爲孔子哲學體系中的重要哲學範疇, 在關于個人修養, 政治制度, 事會論理等思想的闡釋科程中也都有對 "樂"的提及.
6) 신은역, 풍류, 서울 보고사 1999, p.70.
7) 위의 책, p.71.
8) 신은역, 풍류, 서울 보고사 1999, p.53.
9) 위의 책, p.66.

3-3. 军事，劳役和战争

고대 은나라와 주나라나 춘추 전국 시대 때 제후 국가간의 영토 전쟁은 빈번했다. 이 시대에는 국가를 상징하는 청동기로 만든 정 종류의 종이 크게 제작되어 전쟁 동안 계속해서 울렸다. 전쟁이 끝나고 휴식을 취할 때는 3발 달린 솥에 먹을 음식들을 끓여 먹으면서 서로 간의 화합을 다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종은 단지 군사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和나 일치감을 이루게 해주는 집단의식의 상징물이 되었다.

청동기 시대에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 종이 쓰였을 뿐만 아니라 퇴각할 때도 다양한 종이 울렸다. 이처럼 종은 전쟁 때 사용되면서 국가의 운명을 함께 하는 고대의 중요한 악기이다. 전쟁 때 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전쟁의 시작, 퇴각이나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3-4. 宫中儀式과 宴會

공자는 음악을 인간에게 좋은 아악과 나쁜 음악인 정악으로 나누었다. 왕의 조례에서는 음악은 필수적인 요소로 당상의 악기와 당하의 악기가 나누어져 방중악과도 당상에는 규모가 적은 악기들이 편성되었다. 당하에서는 편종이나 편경등 아주 거대한 악기들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노래와 춤이 가미되면서 조례의 엄숙성과 왕의 권위를 대변하는 수단이 되었다.

시경의 시 《만무》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이 시작되면 제일먼저 무용수들이 일무를 추면서 궁중의 의식을 시작하였다. 왕의 문덕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에는 翟을 왼손에는 (籥)약을 들고 왕의 무공을 칭송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에는 칼과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춤을 춘다. 악은 국가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서 권위와 화합을 상징하는 요소가 되었다.

공자는 인간에게 조화를 제공해주는 조용하고 느린 아악만이 좋은 음악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나 인간에게 불협화음의 빠른 음악은 나쁜 음악이라 하여 鄭聲이라 하였다. 선진시대 아악은 인간을 교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궁중의 각종 의식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이런 아악은 궁중에서 연주 음악으로 사용되면서 국가의 행사나 다양한 연회에서 사용되어 점차 하나의 공연예술 형태로 변해갔었다.

4. 《시경》중의 악(“乐”) 과 화 (“和”) 思想

4-1. 중국인의 악 사상

中國 美學의 基本 槪念은 가운데 中자와 조화로울 和자를 합친 글자 中和이다. 中이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最適의 狀態를 일컫는 말이다. 중국의 유교 정치는 예에 의한 다스림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런 예치는 예와 악이 화합해 조화를 이루는 ‘和’의 사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예와 악은 상호 보완적이다.

> 예와 악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인간의 성품 (nature)과 감정을 바로잡아 국가의 질서와 통합을 확보해주는 (procure)기능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10]

중국의 문화의 핵심중 하나는 中和思想으로, 공자는 礼樂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였다. 음악은 당시의 사회상이나 민족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10) 금장태, 한국 유학의 악론, (서울; 예문 서원, 2008), p.5.

> 紀元前 6世紀經의 孔子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音樂이 敎育 目的으로 使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孔子의 中庸思想은 孔子의 中庸思想은 음악에서도 엄격히 적용되었다. 후에 유학자들은 음악과 악기 및 의식 절차 (ritual procedure)에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현학적으로 설명하였다. 11)

공자는 시의 효용성은 감흥을 주고 사물에 대한 인식과 대중과 함께 화락하고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시를 통해서 흥을 돋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음악이 가미되고 연회나 향연을 베풀 때 더욱 그 흥이 배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관저에서도 군자는 오매불망 구하던 여인을 만나 琴瑟을 타며 화락을 즐기고 있다.

> 子曰: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12)

위에 제시한 인용문 論語 陽貨篇을 보면 공자가 시의 효용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시가 이렇게 흥을 돋우지만 특히 음악 歌詞로 쓰일 때 더욱 그러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에 악기가 연주될 때 더욱 흥이 돋워지리라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예약의 이런 중화사상은 국풍의 시 관저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금슬은 바로 2重奏 合奏를 하는 대표적인 조화의 표시로서 부부의 좋은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인간의 禮樂 文化는 周나라와 혼란한 春秋 戰國시대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고대 사상이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詩經』에 나타난 음악이나 악기를 연구하되, 유교 경전 중의 하나인『詩經』을 통해 각종 의식에 따라 착용하였던 음악의 종류나 형태를 고찰함으로써 고대 중국인들이 시가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상징적 의미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경에서 관저에서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화를 이루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관저의 시에서 금과 슬은 연주되면서 화를 일으키면서 인간에 기쁨을 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악기의 조화는 인간의 조화를 상징할 수 있는 심성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인의 華夏사상의 핵심은 바로 和에 있듯이 음악의 목적도 협화를 이루는데 있다. 8음의 소재들로 만들어진 악기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조화로운 음악이 자연에 울려 퍼지고 자연으로 돌려 보내면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 自然에의 順應은 東洋文化의 일반적인 특색이라 할 수 있겠는데 音樂에 있어서도 이른바 自然의 法則에 順應할 때 人間의 精神生活은 秩序와 道德的 感化를 얻게 된다고 믿었다.13)

대우주와 인간의 조화, 천체 운행과 인간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의 조화를 이룰 수 있기에 어떤 음악이든지 인간 심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이런 자연 합일은 중국인이 추구해왔던 사상으로 악기를 통한 자연과의 화를 이루고자 하는 고대 중국인의 악관을 볼 수 있다.

> 음악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소리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따라서 음악의 유일한 표현수단, 즉 전달매체는 소리이다. 어떤 물체에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면 물체가 진동하는데, 이 진동이 인간의 귀에 전해지고 청각의 자극이 뇌에 전달되면서 비로소 소리를 인지하게 된다. 소리가 지니는 일반적 성질인 셈여림(强弱), 길이, 높낮이, 음색 등 진동하는 물체의 성질과 진동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 소리의 네 가지 성질 중 셈여림과 길이는 음악에서 리듬으로 표현되며, 높이가 다른 음을 順次的으로 구사하여 높고 낮은 선율을 만들기도 하고, 높낮이가 다른 악기 중의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 개를 조합하여 원하는 음향을 만들 수도 있다. 이처럼 음악은 소리가 지니고 있는 이들 네 가지의 성질을 적절하게 변형하고 조합하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14)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서로 왕이나 천자가 되겠다고 전쟁을 하였던 시대에 공자는 질서를 잡기 위해 음악을 활용했다. 악기를 편성하여 (organize) 예를 통해 질서 체계를 확립하고 악은 하나의 보충수단으로 예의 완성을 꾀하고자 했다. 누구든 예를 어기면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예만 강조하면 사회가 딱

11) 東洋 音樂, 韓萬榮 金仁平, (서울, 삼호출판사, 1996), p.15.
12) 공자, 張基槿. (서울, 平凡社, 1976), p.450.
13) 김진균, 古代 東西洋의 音樂觀, 東西文化 (대구, 계명대학교, 1979). p.198.
14) 김영운, 국악개론, (서울, 음악세계, 2015), p.26.

딱해지므로 악을 통해 화합이나 동화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 중국인들은 예와 악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음악에 대한 관심을 통해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유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질서가 강한 사회에서 신분 질서에 따라 천자, 제후가 피라미드적 질서를 유지하는 체계를 음악적 소통으로 화합을 꾀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같은 음악을 듣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同質感을 형성할 수 있고 하나로 묶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중국 음악의 특징은 확실히 과학성보다는 정치성이 강하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공자의 영향으로 중국 음악은 정치와의 연관성이 더욱 커진다. 공자는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며 교육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음악에서도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음악에 지대한 관심과 소질이 있었다. 그는 고대의 舜임금이 만들었다는 소(韶)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음률에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릴 정도였다.[15] 그리고 실제로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고 만년에는 고대음악을 정리하여 그것을 제자들의 교육에 활용했다.

공자가 음악을 좋아했던 것은 물론 개인적 취향도 있었겠지만 음악의 정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공자는 음악에 담겨 있는 정치적 가치를 충분히 이해했다. 물론 이 말은 음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음악을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좋은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말이다. 즉, 음악을 통해서 스스로의 성정을 도야하고 나아가 세상을 교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중국 고대인들에게 시란 당연히 음악의 일부분으로서의 노래를 의미했다. 이 때문에 유교에서 시로써 백성을 교화시키는 시교(詩教)와 음악으로써 백성을 교화시키는 악교(樂教)는 거의 같은 의미다. 그리고 그것은 예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예교(禮教)와도 통한다. 실제로 악은 중국에서는 예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였으며 그래서 흔히 예악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조화로움이고 예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질서이다. 조화로우므로 만물이 모두 화육되고, 질서가 있으므로 만물이 모두 구별된다. 악은 하늘을 본떠 만든 것이고 예는 땅으로써 제정한 것이다. 예를 잘못 제정하면 문란해지고 악을 잘못 지으면 난폭해진다. 하늘과 땅이 밝은 뒤에야 예악을 흥성하게 할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 예의 본질은 사회 계층과 신분 사이의 질서 확립이다. 그리고 그 질서란 차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차별적인 질서가 확립될 때 사회는 안정된다. 그러나 차별성을 강조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는 소원해지고 사회는 삭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악이 필요한 것이다. 악의 본질은 서로 동화되어 서로 가까워지게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악이 너무 강조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난잡해질 수 있다. 반대로 질서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서로 거리감이 있게 되므로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화와 균형을 위해 악의 필요성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전한 시대에 악은 예의 표현수단으로써 왕권이 민족을 통치하는 수단이나 교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시경의 시가 채집되어 기록되었던 주(周) 대부터 춘추 전국시대에 국가에서 거행했던 제사의례(祭祀儀禮)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들을 숭배하는 예악 제도가 완비되었고 음악의 입지 충악(立基充樂)을 마련하였으며 인(仁)과 덕(德)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토대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당시 이루어졌던 악기 편성이나 철학적 사상들이 오늘날까지 전파되어 종묘 제례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고대 중국인의 경전인 시경의 시들, 그리고 關雎나 那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종묘제례에 사용되면서 국가의 안녕을 꾀하거나 공동체의 동질감을 제공하는데 쓰여 왔다. 고대 중국인들은 악을 예의 완성의 수단으로 보면서 예와 악의 조화인 和를 강조하였다.

> 제도적인 입장에서 음악을 제정한 목적은 개인적인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화를 통한 윤리교육의 회복과 정도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역대 봉건 왕조에서는 음악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화 자체가 정치를 저울질하는 표준이 되기도 하였다. 物心의 조화를 이룬 음악은 중국 고대사회에서 인치의 이상적인 경계인 和의 표상이었다.[16]

15) cited from m.iask.sina.com.cn
16) 오창화, 鄭聲淫, 鄭衛之音에 대한 論考, 경성대학교 인문학 논총, 2008, p.23.

중국 고대인들에게 시란 당연히 음악의 일부분으로서의 노래를 의미했다. 이 때문에 유교에서 시로써 백성을 교화시키는 시교(詩教)와 음악으로써 백성을 교화시키는 악교(樂教)는 거의 같은 의미다. 그리고 그것은 예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예교(禮教)와도 통한다. 실제로 악은 중국에서는 예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였으며 그래서 흔히 예악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樂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調和로움이고 禮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秩序다. 고대 중국인들의 思想은 樂을 통해서 天地와 調和를 이루고자 하는 和로 집약될 수 있다.

> 樂은 天地의 調和를 소리로 나타낸 것이다. 天地간의 모든 事物이 한데 어울려 서로 調和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學文의 窮極的 理想이다. 그래서 孔子는 詩에서 感興을 일으키고 禮로 確立하며 樂으로 完城한다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고 하였다. 天地의 調和를 合致하는 것이 人間의 窮極的인 幸福이기에 音樂은 곧 樂인 것이다.[17]

人間 世上에서 禮가 그릇되면 紊亂해지고 樂이 잘못되면 天地의 調和가 불가능해지고 난폭해질 수 있다. 이처럼 天地가 調和를 이루어질 때 禮樂이 흥해질 수 있을 것이다.

4-3. 《시경의 시관저》 – 악 사례 연구

시는 장단 고저가 있고 노래에는 음이 있듯이 시를 곡에 붙여 노래로 부르게 된다. 시는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악기가 연주되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토로하게 된다. 시가 노래로 되기 위해서는 악기가 항상 연주되어야 하듯이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로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에 음악은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왔다. 음악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사회와 문화에서 음악의 주된 기능은 인간의 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소리를 통해 만들어진 인간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사회와 문화 속의 동인은 인간에 의해 조직된 소리로 표현되게 마련이다. 음악가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나 집단에서 항상 필요한 존재였다. 음악가는 그 마을 집단의 통합을 가져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집단의 군무나 의식에 참가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18]

시경에는 당시에 사용되던 악기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오동나무와 실을 꼬아 현악기를 만드는 등 자연에서 재료를 구해 자연친화적인 악기를 만들어낸다. 돌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석경으로 악기를 만들기도 했다. 자연적 재료를 통해 자연과 친화되는 동양 사상을 악기 제조에서도 엿볼 수 있다. 피리 역시 대나무를 본체로 만들고 중앙에 갈대 청을 붙여 소리를 크게 울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악기의 소재가 자연의 것을 채택하여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다. 동양적 악기는 자연의 것을 그대로 응용하여 자연적 형태를 만들어 내었기 때문에 듣는 이들에게 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요함을 취할 수 있게 만든다. 다시 말해 자연의 재료를 악기로 만들어 연주하게 되면 우리의 심성에 맞는 자연의 소리가 나와 자연적으로 친화되고 자연과 합일될 수 있게 된다. 고대 중국인들은 자연에 있는 요소를 끌고 와서 그들이 문화에 끌어 들이고 그들에 맞는 심성으로 승화했다.

중국의 고대 악기의 하나로 인간의 수양으로 금이 연주되었는데 금은 오동나무로 밑동을 만들고 섬유인 실을 꼬아서 줄을 만든다. 자연의 소리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자연의 것을 가져와 자연의 감정 현상을 넣는다. 모든 음악은 자연이 주는 어떤 현상과 더불어 자기의 마음과 심성인 희로애락을 표현하는데 시경의 첫 번째 시인 관저에 잘 나타나 있다. 고대 중국인들의 일인연주가 가능한 금을 타면서 여인을 기쁘게 해주려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周南・關雎>

17) 미수 선생 허묵 선설, 정경주역, 미수 경설 비해 (부산, 세종 출판사), p.212.
18) 세계민속악기박물과, 인간과 악기 (서울, 모노폴리, 2016), p.23.

關關雎鳩, 꾸욱 꾸욱 물수리는,
在河之洲. 물속 모래섬에서 울고 있네.
窈窕淑女, 아리따운 숙녀는,
君子好逑. 군자의 좋은 짝.

參差荇菜, 들쑥날쑥 노랑어리연꽃은,[19]
左右流之. 좌로 우로 흔들거리는데,
窈窕淑女, 아리따운 숙녀를,
寤寐求之. 자나 깨나 얻고 싶네.
求之不得, 구하여도 얻지 못해,
寤寐思服. 자나 깨나 생각노니,
悠哉悠哉, 길고도 길어라,
輾轉反側. 엎치락뒤치락 잠 못 이루네.

參差荇菜, 들쑥날쑥 노랑어리연꽃을,
左右采之. 여기저기서 따리라.
窈窕淑女, 아리따운 숙녀를,
琴瑟友之. 금을 타고 슬 뜯으며 벗하리라.
參差荇菜, 들쑥날쑥 노랑어리연꽃을,
左右芼之. 이리저리 고르리라.
窈窕淑女, 아리따운 숙녀를,
鍾鼓樂之. 종 울리고 북 두드리며 즐기리라.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하고 禮樂을 중시하면서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기치를 들고 絶對 勸力을 가진 中央 集權 國家를 建國하였다. 周나라는 詩經의 詩들에서 修身齊家라는 사상들을 볼 수 있다.

> 「關雎」편의 의미를 살핀다면, 「關雎」문왕와 태사의 성정의 올바름을 노래하였을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부부의 윤리가 이룩되고 제가를 통하여 주 나라의 건국이라는 治國 平天下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은 「關雎」는 儒學의 理想을 實現하는 出發點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

性情의 올바름은 「關雎」詩의 君子들의 行動에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君子가 배필을 얻지 못해도 조급하지 않고 感情이 드러나더라도 中庸과 和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인간의 성정의 올바름을 가진 부분들의 모습들을 노래하면서 시들은 백성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수신제가의 한 덕목으로 六藝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주나라는 고공단보로부터 왕계를 거쳐서 문왕에 이르러 은나라를 정벌할 기초를 쌓았고 무왕이 천하통일을 이룩하자 주공이 성왕을 도와서 예악을 제정하였는데, 주공은 문왕의 시대에 이르러 시를 교화의 수단으로 삼아서 치국평천하를 이룩한 것이다.[21]

주나라 왕들은 민간이나 궁중에서 불리는 시들을 채집 수록하여 치국의 근본으로 삼았고 교화의 수단으로 삼았다. 관저에서 군자의 성정의 올바름을 통해 수신이나 치국의 근본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관저시는 이런 교화적인 측면에서 보는 면들이 강하고 악이 예를 완성하는 수단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다. 그러나 시는 사람이 외부의 대상을 보고 하나의 성정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

19) 노랑어리연꽃(다음사전): 수생 식물로 뿌리줄기는 물밑 진흙 속에 가로로 뻗으며 원줄기는 물속에서 비스듬히 자란다. 잎은 물위에 뜨며 7~8월에 밝은 황색의 꽃이 물위에서 핀다.
출처: http://www.1688.com/combo/-DCF4B2CB.html
20) 오종일, 시경 「관저」편과 치국 평천하, (한국 공자학회 논문집), p.78.
21) 오종일, 시경 「관저」편과 치국 평천하, (한국 공자학회 논문집), p.81.

게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여길 수 있다. 시가 가사로 변하여 악이 더해지면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 우리 사람들은 악이 있게 되면 흥이 절로 나게 되고 감정이 올라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감정의 정화도 될 수 있게 마련이다. 이런 예악이 하나의 시로 인간의 감정의 개발을 하는 하나의 교육 수단 뿐만 아니라 흥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느낄 수 있다. 흥에 내포된 즐거움의 요소는 가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22] 우리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되면 흥이 나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시는 이처럼 인간의 감정을 토로하고 악과 연결되어 즐거움과 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는 단지 교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토로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군자는 오매불망하던 여인을 구하게 되어 기쁨에 차, 금을 타고 술을 뜯으며 여인을 구하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금이라는 악기는 중국 고대에 사용한 현악기 (string instrument)로 공명판 (a sounding-board)은 오동 (梧桐)으로 만들어졌고 7개의 누에고치 (cocoon)에서 나오는 명주실 (reel silk)로 엮어 줄을 튕기면서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 오동나무의 공명판이 텅 비어 있고 실로 엮어 만든 7개의 줄을 튕기면 슬보다는 울림이 강하고 소리가 명확하다. 반면 25개의 실로 만든 슬은 줄이 금의 2배 정도로 많아 부드럽고 미묘한 소리를 된다. 금의 크면서도 강한 소리와 작고 미묘한 슬이 함께 연주되면 강하고 분명한 소리와 부드러우면서도 미묘한 소리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중국의 모든 악기 편성은 예악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는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금은 강하면서 양의 모습인 남성성을 상징할 수 있고 술은 약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의 모습인 여성성을 상징하여 인간을 교화 (edification)하는 수단으로 예악의 사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금과 슬은 고대에 연회에 가장 흔하게 연주되는 현악기로 금과 슬이 2중주로 연주되면서 두 사람의 화합을 상징하게 되었다.

관저는 시경 305편의 첫 번째 시로서 악이 어떻게 인간에게 기쁨을 제공해주는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공감을 만들어내는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 관저에 4장에는 종과 고를 연주하면서 연회를 베풀고 있음이 문맥상 (contextual)드러나고 있다. 큰북 역시 연회에 사용되어 하나의 관현악 (orchestral music)을 이루며 군자가 절세미인(a matchless beauty)의 여인을 얻음에 기뻐하고 종과 북을 울리고 있다. 관저의 마지막 장에서 군자는 악사들을 시켜 종을 강하게 치고 북을 둥둥 울리면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4-4. 琴瑟、钟鼓的 화(“和”)

中國의 모든 樂器 編成은 禮樂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는 人間의 價値를 實現하는 데 樂의 必要性을 力說하고 있다. 琴은 강하면서 陽의 모습인 男性性을 象徵할 수 있고 瑟은 약하면서도 부드러운 陰의 모습인 女性性을 象徵하여 人間을 敎化 (edification)하는 手段으로 예악의 사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금과 슬은 고대에 연회에 가장 흔하게 연주되는 현악기로 부부간의 화합을 상징하기도 한다. 금슬은 2중주로 연주되면서 두 사람의 화합을 상징한다. 관저는 시경 300편의 첫 번째 시로서 악이 어떻게 인간에게 기쁨을 제공해주는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공감을 만들어내는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 악기는 인간의 예를 완성하는 하나의 和의 도구로서 작용을 한다. 금의 5현금은 음양 오행 사상을 표현하면서 인간 사이의 화, 우주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다.

> 악기에서 음악은 예절과 짝을 이루는 존재로 화和를 본질로 하는 문화작용으로 다뤄진다. 화란 화평, 화합, 화목, 유화, 평화, 평안, 조화를 말하며, 작게는 마음의 평안, 사람들 사이의 화합, 나아가서 한나라와 세계의 평화, 우주의 조화를 말한다.[23]

금은 문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금지할 금으로 사악한 생각을 금하다는 뜻이 존재한다. 슬은 폐라는 뜻으로 분노의 생각을 막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금과 슬을 연주하는 것은 중용과 화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선비

22) 신은역, 풍류, 서울 보고사 1999, p.99.
23) 윤용섭, 악 음악, 마음을 다스리다. (서울, 글 항아리), 2014 p.37.

들이 인격의 수양으로 금을 연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4-5. 《시경의 시 나那》에 나타난 악의 연구

상나라 시대에는 탕왕께 제사 드리는 樂詞로 시경이나 주나라의 제례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那(나)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악기의 용례를 볼 수 있다.

那(나)
- 아름답도다--
猗與那與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구나.
置我鞉鼓 내 작은 북과 큰 북을 걸고
奏鼓簡簡 북소리 둥둥 울리니
衎我烈祖 우리 열조가 즐거워하도다.

상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음악을 세 번 연주한 후에 제물을 바치고 탕에게 제사지내는 의식에 음악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북을 울리면서 조상에게 예를 드리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가사를 붙여 노래를 불렀다.

湯孫奏假 탕 손주가 선조의 강림을 공손히 청하니
綏我思成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도다.
鞉鼓淵淵 작은북 큰 북 소리 우렁차고
嘒嘒管聲 부드러운 소리 길게 울려
旣和且平 그 소리 화합하고 평온하니
依我磬聲 당상의 옥경((玉磬) 소리와 잘 어울리네.
於赫湯孫 아아, 찬란히 빛나는 탕왕의 자손들이여!
穆穆厥聲 맑은 그 소리 아름답구나.

탕손은 제사를 주재하는 (preside)자신을 칭하고 있고, 주는 연주를 하면서 조상신 (ancestors)이 복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음악을 연주하면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이 강림하여 복을 내려주시길 기원하는 부분이다.

庸鼓有斁 종과 북이 성대히 울리면
萬舞有奕 아름다운 온갖 춤이 찬란하니
我有嘉客 우리의 가객께서
亦不夷懌 또한 기뻐하지 아니하랴.
自古在昔 예로부터
先民有作 옛날 선민들의 지음이 있으니
溫恭朝夕 아침저녁으로 온화하고 공경하여
執事有恪 일을 함에 정성스러웠다.
顧予烝嘗 내 증제와 상제를 돌아볼진저
湯孫之將 탕왕의 후손이 올림이니라.

庸(용)은 북을 일컫는데 작은 북과 큰 북, 피리 소리가 큰 홀 (hall)아래서 연주되고 큰 홀 (전당) 위에서는 옥경을 연주하고 무용을 하면서 제사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피리, 옥으로 만든 경, 쇠북, 가죽으로 만든 북으로 탕왕의 덕을 기리는 제사의식인 것이다.

이 시에 대해서 모, 한 모두다 탕왕을 기리기 위한 노래가사로 여겼다. 위원, 왕선겸 등 모두다 송국인이 조상들을 추모하고 제자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간주하고 여겼다. 양공귀는 이 시의 내용에 착안하여 제례개시를 조상신

> 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무를 즐겼다고 지적했다: 고를 두드리고, 경을 치고, 피리를 불고, 종을 치고, 상나라 왕 자제들이 춤을 추고 만무를 춘 후에 채후에 제품과 희생을 바쳤다.[24]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을 두드리거나, 경을 치고, 피리를 불고, 종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 연후에 동물 등의 희생물을 바쳤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때 불려진 노래가사는 탕왕을 기리고 추모하기(commemorate) 위해 지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처럼 종묘제례악은 국가의 행사이므로 악사들이 편종 (Carillon)을 연주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편종은 높은 음을 내는 종 8개가 위에 설치되고 아래에는 낮은 소리가 나는 종을 설치하게 된다. 편종은 고대사회의 최고통치자의 위상과 권위를 상징하는 악기였으므로 국가적인 의례에서만 연주되었다.[25] 공자가 편수한 시경도 시 那(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조를 기리고 추모하는 종묘 제악 때 사용하기 위한 노래 가사로 시가 지어져 읊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한 시대에 악은 예의 표현수단으로써 왕권이 민족을 통치하는 수단이나 교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시경의 시가 채집되어 기록되었던 주(周)대부터 춘추 전국시대에 국가에서 거행했던 제사의례(祭祀儀禮)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들을 숭배하는 예악 제도가 완비되었다. 이 때부터 음악의 입지 충악(立基充樂)을 마련하였으며 인(仁)과 덕(德)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토대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루어졌던 악기 편성이나 철학적 사상들이 오늘날까지 전파되어 종묘 제례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5. 결론

악은 인간성 함양의 필수 수단으로 수덕의 한 방편이다. 덕을 갖춘 인간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거듭나야함을 강조했다. 천하를 다스려도 될 만큼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천명을 받을 대상이 되는 덕을 갖춘자는 사람이 따라야 할 인륜의 규범과 법칙을 구비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과 교육을 통해 육덕과 육행을 갖춘 사람이다.[26]

선진시대 중국인들의 인간 수양의 행동강령으로 인간이 인을 갖추기 위해서는 六藝 즉 禮, 樂, 射, 御, 書, 數를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공자는 인간은 모든 행위에서 禮를 갖추어야 하고 인간의 마음을 수양하고 조화로운 수단으로 악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예악을 통해 인간은 마음이 수양되고 사회 관계에서 和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예를 갖춘 인간에게 악은 와를 가져다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음악 자체는 신을 찬미하는 데 쓰이고 인간은 자연과 일치하여 악기나 노래를 통해서 표현한다.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달과 별들의 조화나 음양의 조화, 밀물과 썰물의 조화, 계절마다 달라지는 나무 색깔의 조화나 동식물의 조화를 보고 변화하는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동양적인 음악관은 자연에 대한 사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음악은 정서 함양의 도구로 인간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생명을 인지하듯이 소리로써 자연에 순응하게 만든다. 여러 가지 소리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인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정한 기분을 가진 음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기도 하고 작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하는 것이다.

고대 중국인의 경전인 시경의 시들, 그리고 관저나 나에서 볼 수 있듯이 음악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종묘제례에 사용되면서 국가의 안녕을 꾀하거나 공동체의 동질감을 제공하는 데 쓰여왔다. 고대 중국인들은 악을 예의 완성의 수단으로 보면서 예와 악의 조화인 和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자는 고대 경전의 하나인 시경의 시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아쉬움이 있다면, 경 외에도 시공자의 예악관이 잘 드러나고 있는 논어나 춘추 좌전에서 나타나는 예와 악에 대한 연구

---

24) 葉舒憲 著, 詩經的文化闡釋, 湖北, 湖北人民出版社, 1994, p.273: 這首詩毛, 韓皆以是爲是祀成湯之樂詞. 魏源, 王先謙等皆認爲宋國人追際祖先而作. 楊公귀 從詩的內容着眼, 提出祭禮開始以歌舞娛祖先神: 고 鞉鼓, 擊磬, 吹管, 扣鐘,商族子弟唱歌跳萬舞, 最后才獻上祭品犧牲.

25) 김영운, 국악개론, (서울, 음악 세계, 2015), p.115.

26) 이희진, 중화사상과 동아시아, (서울, 책세상, 2007), p.20.

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의 논문에는 시경과 춘추좌전에서 나타나는 예악관이나 화에 대한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악은 교화와 화해와 수덕과 통치의 수단. 관저 시에서 나타나듯이 아내를 위해 베푼 연회에서 노래에 악이 가해지면 흥이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런 흥이 넘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지 않고 보다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공자, 張基槿 (서울, 平凡社, 1976),
금장태, 한국 유학의 악론 (서울; 예문 서원. 2008)
김영운, 국악개론, (서울, 음악 세계, 2015)
김진균, 古代 東西洋의 音樂觀, 東西文化 (대구, 계명대학교, 1979)
미수 선생 허묵 선설, 정경주역, 미수 경설 비해 (부산, 세종 출판사)
세계민속악기박물과, 인간과 악기 (서울, 모노폴리, 2016)
신은역, 풍류, (서울;보고사 1999)
윤용섭, 악 음악, 마음을 다스리다. (서울, 글 항아리, 2014)
이희진, 중화사상과 동아시아, (서울, 책세상) 2007. p.20
주경철, 문화로 읽는 세계사, (서울, 사계절, 2005)
韓萬榮 金仁平, 東洋 音樂, (서울, 삼호출판사, 1996)
Carlos Chavez, 音樂中的思想, (중국,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5)
葉舒憲 著, 詩經的文化闡釋 (湖北, 湖北人民出版社, 1994)

오종일, 시경 「관저」편과 치국 평천하, (한국 공자학회 논문집,)
오창화, 鄭聲淫, 鄭衛之音에 대한 論考, (경성대학교 인문학 논총, 2008)
유지강, 김창경, 淺析 《論語》中“禮樂” 之 “樂” (동북아 문화연구, 2016), vol 49.
최경옥, <禮 理念의 전개>, 『인문학논총』(부산: 경성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01년 8월) vol.4

【메 모】

【문학 분과】 발표 ⑦

중국 드라마의 생산메커니즘과 주선률 드라마

고윤실*

1

중국에서 제작 및 방영되는 드라마를 포함하여 모든 영상물은 국가제도가 지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단계별 허가와 비준을 얻어야만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 중국의 모든 드라마는 관방과 자본의 영향력 하에 생성된 '국가-시장 관리제도'라는 특수한 메커니즘 하에서 제작되는데, 이러한 제작 메커니즘은 본격적인 드라마 제도 형성기 때부터 대내외적 독특한 시대적 배경과 이데올로기적 상황이 반영되어 온 결과이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회복 추진과 현대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그동안 적대의 대상이 되었던 서구가 학습과 모방의 대상이 됨에 따라 사상안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가 정책 안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모순을 조정하기 위해 미디어 영역에서 제도적 정비가 진행되었다. 중국의 드라마 관리제도의 핵심은 제편인 제도와 심사제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제편인 제도가 관방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체제 하의 드라마 제작 생산의 기본 운용 구조와 실질적 운영체계를 보여준다 한다면, 심사제도의 형성과정은 국가 건설의 기반이 되었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개혁개방 이후 현대화와 시장주의의 이데올로기 간의 충돌과 모순 그리고 이에 사회질서 유지라는 사상안전 의식 등 다양한 정치적 구조적 역량의 작동방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심사제도는 혁명 이상주의의 퇴장이 확실시되는 포스트 사회주의 시기에 드라마의 내용이 이데올로기적 공백을 은폐하고 사상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와 규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드라마 제도 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1980년대를 기점으로 심사제도의 형성과정을 추적하여 당대 중국사회의 정치적 정세변화와 사회구조 변동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긴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의 긴장관계는 현재 중국의 현안 정치상황을 판단할 때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국 주류 이데올로기 작동방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류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작동 방식이드라마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선률 드라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선률드라마는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전파 도구로 기획된 만큼 이데올로기적 영향력과 작용방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장르라 할 수 있다. 이 주선률 드라마가 이데올로기적 공백을 어떻게 상상적 허구를 통하여 은폐하며 시청자에게 사회주의 이상주의에 관한 나르시즘적 향유를 제공하는지 고찰하고, 시청자의 갈망과 중국 지도부의 욕망사이의 모순과 갈등이 어떻게 이데올로기적 보편성(주류 이데올로기)을 형성해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치를 어떻게 탈정치화하려는 시도로 작용하게 되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2

1958년 중국에서 최초의 드라마가 출현하여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문화적 격동기의 제작 침체기를 거쳐 정돈과 회복에 이르는 1970년대 중반의 시기까지 드라마는 제작과 생산, 그리고 심사에 관한 규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문혁이후 몇 년간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사와 제재 기준은 문혁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평가에 대한 경계가 주를 이루었고[1], 이 역시 관련 부문의 영도자나 고위 간부의 "강

* 숙명여자대학교

화(講話)"가 심사와 표준의 잣대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를 거치며 개혁개방의 진행과 가속이 이루어졌고, 결국 중국 내부적 민주화의 목소리와 변화의 움직임과 더불어 사회주의 동구권 몰락의 국제사회의 변화가 감지되는 1980년대 말과 1990년 대 초반 전면적 시장화와 현대화의 선포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견지와 현대화와 시장화라는 시대적 과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다. 문혁에 대한 정치적 반성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개혁개방이라는 변혁적 전환은 그동안 국가 이데올로기를 지탱해오던 혁명 이상주의의 퇴조를 가속화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척점에 서 있던 서구의 이데올로기는 변화와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장화와 현대화의 학습 모델로 새롭게 주목받게 되면서 중국은 이데올로기적 기반의 와해 속에 국가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유지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공고화라는 모순적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중국의 정치는 혁명 이상주의라는 '고유한 의미로서의 정치'[2] 이데올로기가 지배했던 시대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사상안전의 강화와 이데올로기적 보호라는 치안의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 즉 탈정치의 시대로 전환되게 된다. 중국의 혁명 이상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정치'라는 의미에서의 정치는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 혹은 자리를 부여받지 못한 농민을 포함한 수많은 자들이 공적 영역속의 지배적 지위를 가진 자들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자신들의 억압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적법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들의 보편적 대변자로서 '중국공산당'을 내세움으로써 건국이라는 형태로 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과정이나, 우파척결, 정신오염척결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운동은 이미 혁명 이상주의가 '고유한 정치'로서의 정치로 작동하지 못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치안의 정치, 즉 탈정치화된 정치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치안정치는 '평등과 자유', 그리고 인민의 대변자로서의 '공산당'이라는 이미 공백이 되어버린 보편성의 원리와 배제된 무수한 사람들의 잃어버린 목소리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긴장은 사회질서유지라는 치안의 정치 하에서 어떠한 정치적 계기도 사건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동질한 이데올로기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혁명 이상주의가 시장 이데올로기와 모순 갈등하는 국면이 형성되면서 사상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었으며 주류 이데올로기는 점차 치안정치를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서구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규제와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 텔레비전 드라마를 포함한 영상 미디어 역시 당시 주류 이데올로기의 경향성이 그대로 투영된 제도적 자장 안에 포획될 수밖에 없었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의 확산과 더불어 드라마 제작·생산 영역에 있어서 시장화와 현대화, 그리고 규범화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드라마의 생산 기획과 자본의 운용, 제작 및 발행의 각 단계마다 국가 부문과 관방부문의 직접 관리에서 시장의 법칙에 따른 적절한 방임과 분리가 이루어져야만 했다. 따라서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드라마 생산영역 역시 시장체제로 이행되면서 새로운 제도와 규정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완전 시장화가 아닌 관방의 주도 하에서 계획적으로 시장체계가 운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구조적 특성은 드라마 생산 메커니즘 형성에 반영되었다. 먼저 중국의 드라마 생산 시스템은 기획(規劃/立項), 제작(制作), 심사(審查), 발행(發行)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경제 도입 이후, 드라마 생산 시스템에서의 시장의 역할과 자본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를 관방이 분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그

1) 張永峰,「中國電視劇審查制度的形成,」,『新聞大學』, 2014年 第1期. p.62.

2) "랑시에르가 하버마스에 반대하여 증명한 '고유한 정치'의 투쟁이란, 복잡한 이해관계들 사이의 합리적 논쟁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가 적법한 상대자의 목소리로서 들려지고 인정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리스의 데모스에서 폴란드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배제된'자들이 지배계급(귀족이나 노멘클라투라)에 항의할 때, 진정으로 내기에 걸려 있는 것은 단지 그들의 명시적 요구들 뿐인 것이 아니라, 논쟁 속에서 동등한 상대자로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바로 그 권리이다." 랑시에르는 그의 저서『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에서 정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바 있다. 위 인용부분은 지젝이 바디우, 발리바르, 랑시에르에 대한 논의를 옮겨쓰며 정치적 주체화와 이에 대한 '비-'혹은 '선-정치적'관계들을 지탱하는 숨겨진 정치적 과정을 식별하는 부분의 장에서 랑시에르가 말한 '고유한 정치'의 개념을 논한 부분으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슬라보예 지젝,『까다로운주체』, 2015년. 서울: 도서출판b, p.305.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주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시장 이데올로기의 마찰에 대해서는 심사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기획단계는 관방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에서 방송사 및 제작단위가 직접 생산을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계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드라마 장르와 주제가 일시적인 유행에 따라 편중되거나 유사한 작품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드라마 내용의 질적 저하가 문제시되었고 폐기되는 작품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방은 경쟁을 통해 드라마 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 대신 조정과 관리라는 개입의 방식으로 시장을 운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드라마 내용의 질적 제고와 경제적 효용을 꾀하기 위해 1984년부터 "드라마제재기획회의(電視劇題材規劃會議)"를 매년 개최하기 시작했다.[3] 이 회의를 통해 관방은 매년 드라마 창작과 생산 전반에 대한 주제와 방향을 결정은 물론, 드라마의 장르에 따른 제재, 총 제작 편수와 생산 규모, 한시적으로 편성되는 특별기획드라마 등 드라마 제작 기획 전반에 대한 거시적 청사진을 제시한다. 즉 "드라마제재기획회의"는 드라마 제작에 관한 이데올로기적 방침에 따라 시장을 계획한다. 관방이 자율성과 경쟁체제라는 시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 정책과 드라마 생산 영역을 긴밀히 연결하고 생산성과 질적 제고를 꾀함으로써 활력을 부여하려는 "주선률을 선양하고, 다양화를 견지한다(弘揚主旋律, 堅持多樣化)"라는 전략적 기조와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드라마 제작은 원래 관방이 관리하는 방송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작 여건과 자본의 부족으로 정부는 방송국 외의 부문과 및 일부 민간 자본 역량이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점진적으로 제작과 방영의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4] 이에 정부는 1986년부터 "드라마제작허가증제도(電視劇制作許可證制度)"를 실시하여 제작자 측의 정치적 사상적 자질심사를 검증하도록 했다. 특히 1992년이후부터 드라마 산업이 3차 산업으로 규정되면서 본격적 산업화의 길로 들어서며, 제작 방영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영상제작경영기구관리임시규정(影視制作經營機構管理暫行規正)(1995)", "드라마제작허가증관리규정(電視劇制作許可管理規正)(1995)"등 관련 조항이 발표되었다. 민영기업(자본)이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며 이에 따른 관리조항을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영 역시 "드라마발행허가증(電視劇發行許可證)"을 보유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는 민간 자본의 유입으로 오로지 이윤창출만을 위한 상업적 오락적 내용이 국가 혹은 주류 이데올로기를 압도할 수 없도록 만든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시장과 자본의 역할과 영향력 확장에 따라 관방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관방의 관리 능력과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5] 또한, 드라마 생산의 매 단계에 있어 기획부터 극본, 완성작과 방영에 이르기까지 관방의 가장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드라마심사규정에 따른 내용심의라 할 수 있다. 중국 관방은 경제구조 전환 이후 사회주의 주류 이데올로기의 약화에 따른 서구 자본이데올로기에 대한 경계와 주류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위해 드라마 영역에서 외국 드라마와 방송콘텐츠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조치는 중국 내 드라마심사규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참조가 되었다.

3) 이 회의는 2006년 폐지되었고, 대신 "드라마제작사전공시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다 점차적으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모든 드라마는 제작 준비 단계에 모든 제작단위와 기관은 사전 신고와 심사를 받게 되었으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다. 이 제도는 이전에 비해 시장의 자율성에 더욱 중점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제작자의 이데올로기적 자아 검열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고윤실, 「중국 미디어 관리의 생성적 변화와 이데올로기적 수렴」, 『비교문화연구』, 44집, 2016. pp.312-134.

4) 최초의 제작과 방영 분리 방식으로 제작된 드라마는 『新郎之死』(1980) 라는 드라마였다. 즉 방송국이 아닌 외부의 기관에서 제작을 하고 방송국이 판권을 구입하여 방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부터 드라마 방영에 '광고'가 삽입되었으며, 드라마 내부에서 간접광고(軟廣告)의 방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제작 방영이 분리되어 적용된 시기는 1992년 이후부터이다. 楊旦修, 『規制與發展-中國電視劇産業化進程研究』, 南京大學博士論文, 2011. p.65.

5) 이러한 변화에 따라 드라마 영역에서는 시장의 관리자와 자본의 경영자로서 "제편인"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후 그 역할은 제편인제도로 수렴되었다. 제편인은 관방의 이데올로기적 지침과 요구에 맞도록 제작과 생산 전반에 깊이 관여한다. 제편인제도에 관련된 내용은 고윤실, 「중국 미디어 관리의 생성적 변화와 이데올로기적 수렴」, 『비교문화연구』, 44집, 2016 참고.

3

당대 중국 드라마 생산 메커니즘을 통틀어 말하자면 '국가-시장 관리제도(國家-市場管制)'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둑판'이 국가의 자장으로 이루어진 생산의 기본 틀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국'의 내용이 바로 국가 정책과 선전이데올로기, 자본, 작가, 시청자라는 다양한 요소가 이루어내는 드라마의 컨텐츠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 드라마 생산의 시장화가 추진되면서 드라마 생산은 기본적으로 '국가-시장'의 공모관계라고 볼 수 있다. 국가와 시장 중 어디에 방점이 찍히느냐에 따라 주선률 드라마와 상업 드라마의 유형이 판가름된다. '국가'에 방점이 찍힌다면 주류이데올로기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오락적 효과와 더불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자본이 공모한다. 그리고 '시장'에 방점이 찍히면 국가 정책과 이데올로기성을 줄이고 오락과 여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에(유행, 여흥, 오락)그 영역을 확장시켜준다.

주선률 드라마는 위 두 유형 가운데 '국가'에 방점을 둔 드라마 유형으로서, 국가 이데올로기 전파를 위해 자본이 공모(共謀)함으로써 재미와 오락적 요소를 가미하여 건당, 항일투쟁, 건국에 관한 독특한 서사를 형성하였다. 중국의 주선률 드라마는 1921년부터 1949년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정과 당의 역사를 다루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며 '중요한 역사제재 드라마(重大歷史題材電視劇)' 라고 하는 대표적인 드라마 유형을 형성하였다. 주로 건국 영웅의 이야기, 국공 내전과 첩보활동, 대장정을 비롯한 굵직한 역사적 사건과 민중의 삶과 애환을 다룬 이야기를 중심으로 독특한 역사성과 중국성을 바탕으로 '중국 드라마'로서의 새로운 장을 구성하고 있다.[6]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국가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확보한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4

주선률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예외상태의 발생과 적용을 적절히 드러낸다. 주선률 드라마는 항구적인 예외상황의 발생에 있어 국가/통치권력이 우선할 수 있음의 로직을 전파한다. 주선률 드라마를 통해 전시적 상황에서 당의 결정과 역할이 개인의 권리에 우위에 작용함을 반복적인 이미지 훈련으로 학습된다. 주선률 드라마가 관방 이데올로기 전파와 이를 공고히 하는 작용은 바로 이러한 항구적 예외상황의 존재에 대한 중국인들의 정서적 동의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통치권이 개인과 사회의 우위에 적용될 때, 자연히 개인의 권리와 지위가 말살될 수 있음을 용인하고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드라마 <懸崖>에서 주인공은 예외상황 하에서 당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장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실제 자신의 가족이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였을 때 공익의 추구를 선택했다. 물론, 과거 주선률 드라마에서 대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단조로운 영웅의 형상에서 탈피하여 개인적 고뇌를 가진 흔들리는 영웅의 형상을 재창조했지만, 결국 예외상황 하에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숭고미와 비장미를 부여했다.

드라마 <僞裝者>에서도 예외상황 하에서 주인공은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목적을 일치시켰으며 이는 국가 대의를 위한 개인의 '희생'과 인민을 위한(공익) '복무'로 미화된다. 이 가운데 부르주아 계급출신인 주인공 명대는 어리숙한 청년에서 국민당 요원에서 공산당 비밀요원으로 정체성의 환골탈태를 거친다.

드라마 <人民的名義>는 부패청산이라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국가의 노력과 정책의 실효성이 가시적으로 선전될 수 있도록 기획된 드라마이다. 중국인들은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상태 역시 전시상황은 아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개인의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을 탄압하는 정치적 계엄상황, 즉 예외상태의 시전이다.

예외상태는 주권 즉 통치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주로 내전, 봉기, 레지스탕스와 같이 공적인 질서와 정치적인 것이 마주쳐 생겨나는 불안정하고 모호한 경계와 같은 것이다. 예외조치가 실제로 정치적 위기

6) 「"中國電視劇"的"中國氣息"」, 『居變時代的思想與文化-文化研究對話录』, 孫曉忠 編, 上海書店出版社, 2011年, p.202.

로 인한 결과라면 이는 헌법적 토대가 아닌 정치 영역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외상태는 말 그대로 법적상황에서 벗어난 상태에 대한 법적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역설적인 법률적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효력정지 시키면서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예외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성원들을 법의 테두리에 묶는 동시에 법의 테두리로부터 방기하는 역설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아감벤에 의하면, 예외상태는 정치적 반대자 뿐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체제에 맞서는 자를 억압하고 모든 시민의 육체적 억압과 말살을 허용하는 '합법적' 비상체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상사태를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 국가가 가진 통치의 기본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7] 이것은 종종 '애국법' 혹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은 바로 이러한 비상체제를 용인함으로써 민주국가의 구성원이 가진 개인의 권리와 지위를 철처히 취소하고 국가/통치권이 개인과 사회 위에 존재함을 드러낸다.

중국에서는 국가의 사상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미디어 콘텐츠 내용에 관한 심의 절차를 강화한다든지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내용에 관한 합법적이고 적극적 검열을 위해 기존의 영상미디어와 출판신문, 인터넷 영역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굴기 등의 관방이데올로기와 충돌하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를 마련해두었다. 특히 18,19대 시진핑 시기에 들어와 이데올로기 강화와 사상안전에 대한 조치는 질서유지와 공익을 위하여 국가/통치권이 우선한다는 예외상황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선률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예외상태의 발생과 적용을 적절히 드러낸다. 주선률 드라마는 항구적인 예외상황의 발생에 있어 국가/통치권력이 우선할 수 있음의 논리를 전파한다. 주선률 드라마를 통해 전시적 상황에서 당의 결정과 역할이 개인의 권리에 우위에 작용함을 반복적인 이미지 훈련으로 학습된다. 주선률 드라마가 관방 이데올로기 전파와 이를 공고히 하는 작용은 바로 이러한 항구적 예외상황의 존재에 대한 중국인들의 정서적 동의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통치권이 개인과 사회의 우위에 적용될 때, 자연히 개인의 권리와 지위가 말살될 수 있음을 용인하고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7) 조르조 아감벤,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pp.15-17.

【메 모】

【문학 분과】 발표 ⑧

『鏡花緣』속 유토피아와 혁신사상

박명진*

Ⅰ. 들어가며

'유토피아(utopia)'는 'u(없다)'와 'topia(장소)'의 합성어로, '이 세상에 없는 곳', 동시에 '좋은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1] 처음 '유토피아'란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16세기 영국의 정치가 토머스 모어(Tomas More)로, 그는 1516년에 쓴 『최선의 국가 형태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하여』[2]에서 "유토피아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좋은 곳"이라고 말하였다. 서양의 유토피아(Utopia)와 중국의 유토피아(烏托邦)는 '최선의 국가 형태와 새로운 섬'이라는 유토피아의 개념에서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나, 유토피아의 표현형식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서양의 유토피아는 성서의 천국, 황금시대, 파라다이스, 천년왕국, 아틀란티스, 모어의 유토피아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유토피아는 그 유형을 신화 유형, 삼신산(三神山) 유형, 무릉도원 유형, 대동사회(大同社會)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3] 이것은 다시 핵심적인 두 가지 측면 즉, 판타지적 이상향 유형(신화 유형으로 대표된다)과 현실적 이상사회 유형(대동사회 유형으로 대표된다)의 서로 다른 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흔히 중국인의 사유 속에 있는 '무릉도원'형 유토피아는 신화 유형과 대동사회 유형이 결합된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유토피아를 제시한 사례들 중에서 소설 장르는 유토피아를 제시하는데 유리한 글쓰기일 것이다. 중국의 고전서사에서 유토피아적 사유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판타지적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중국의 신화와 전설, 현실비판적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중국의 고전 대작 『水滸傳』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18-19세기 중국인이 사유하는 유토피아를 접할 수 있는 텍스트로 독특한 제재 유형의 고전소설 『鏡花緣』을 들 수 있다. 유토피아는 공상의 세계, 허구의 나라를 그리고 있으나 현실에 대한 철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탐색한 후 개선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4] 유토피아가 사회현실에 대한 냉철한 비판에서 시작되어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일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중국의 고전소설 『경화연』에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과 혁신사상을 바탕으로 유토피아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청대(淸代) 중국인의 유토피아적 상상력, 사회비판, 새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비전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토피아 저작이라 할 수 있다.

『경화연』은 이여진(李汝珍, 1763-1830)에 의해 1820년 전후에 창작된 것으로, 작가의 신화적 상상력과 혁신적 사상을 보여주는 청대의 대표적인 풍자소설이다. 이 소설은 기행소설·풍자소설·역사소설·영웅전기·재자소설·신마소설·재학소설 등 다양한 제재유형이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작품이다. 『경화연』은 '중국의 『걸리버 여행기』'라 불리는 작품으로, 현실에서 뜻을 펼치지 못한 인물이 해외를 유람하며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경화연』을 한국어로 번역한 문현선은 이 작품이 이여진의 혁신적인 사고와 풍부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걸작으로, 선계와 인간계를 씨실로 삼고 신화와 역사를 날실로 삼아 과거와 현재, 하늘과 바다를 종횡무진 넘나들고 있다고 했다.[5]

---

* 영남대학교

1) 그리스어에서 'eu'가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유토피아에 '좋은 곳'이란 의미가 더해졌다.

2) 이 책은 바로 『유토피아』로 알려진 책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번역본 『유토피아』(토마스 모여 지음, 주경철 옮김, 을유문화사, 2017)를 참고하였다.

3) 정재서, 「유토피아의 개념(槪念) 및 유형(類型)에 관한 비교(比較) 시론(試論)」, 『중국문학』 제24집, 1995.

4) 주경철 지음, 『유토피아, 농담과 역설의 이상 사회』, 사계절출판사, 2015, 26-27쪽.

이여진은 자가 송석(松石)이고 직례 대흥(大興) 사람으로, 과거시험에서는 향시만 급제하여 평생을 秀才로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경전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천문・의약・수학・음운・시가・서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해박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빼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펼칠 수 없었던 삶을 살았고, 이로 인해 청대 사회에 대해 비판적 성향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여진은『경화연』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빼어난 문장력을 바탕으로 사회비판 의식과 혁신 사상을 담고 있는 유토피아의 단면들을 제시하였다.

Ⅱ.『경화연』의 유토피아 구상

『경화연』은 총 100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화와 역사가 만나는 이야기이다. 선계 백화선자가 여신 항아와의 다툼으로 인해 인간세계로 귀양을 오게 되는데, 무측천(武則天) 시대에 당오(唐敖)의 딸 당소산(唐小山)으로 환생하여 중종의 복위를 돕는 내용이다. 작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회-제6회는 신화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인공 인물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와 복선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7회-제40회까지는 당오(唐敖)가 중심인물로 등장하며 임지양(林之洋), 다구공(多九公)과 동행하여 배를 타고 군자국・무장국・대인국・흑치국・숙사국・양면국・여아국・헌원국 등 해외 여러 나라를 유람한 후, 소봉래산으로 가서 신선이 되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작품의 후반부 제41회-제60회는 당오의 딸 당소산이 중심인물로 등장하며, 소산은 두 차례 소봉래산으로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데, 첫 번째 소봉래로 간 후 재녀 과거 응시를 위해 돌아와 재능을 드러내고, 두 번째 소봉래로 간 후에는 신선들과 함께 의사들의 중종 복위를 도우러 돌아온다는 내용이 주축을 이룬다. 작품 속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된 과정을 전하고 있는데, 선계 흰 원숭이의 부탁을 받고 이여진이 '경화수월(鏡花水月)'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경화수월'은 이루지 못한 이상사회에 대한 동경이라 할 수 있다.

『경화연』의 이야기는 고대의 신화세계, 신선의 선경, 현실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작품은 무측천 시대를 배경으로 중종의 복위를 서사의 주축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작품은 재녀들의 과거시험 이야기와 당오가 여행한 해외의 나라들의 이야기를 부각시키고 있다. 작품 속 해외 나라들은 대부분『산해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기한 곳들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투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작품 속 유토피아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1. 이상사회 유토피아

『경화연』의 유토피아는 군자국・대인국・흑치국・여인국・헌원국 등의 나라로 묘사된다. 작품 속 여러 나라들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섬'을 떠올리게 한다. 이곳은 갈 수 없는 곳, 전해들은 기이한 이야기 속 해외의 섬나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나『경화연』의 유토피아는 현실비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어의 유토피아와 유사하지만, 모어의 현실적 유토피아와는 달리 중국신화에 기반을 둔 환상적 혹은 선경적 유토피아이다.

『경화연』 속 해외 몇몇 나라들에서 현실비판에 기반을 둔 이상사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성인이 가르침을 실현한 이상사회로서의 유토피아가 등장한다. 제11회에는 오직 선한 것만을 보배로 삼는 '유선위보(惟善爲普)'의 나라 군자국이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예의를 아는 군자국과 인의가 넘치는 충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군자국 사람들은 서로 '양보를 좋아하고 다투지 않으며', '농부는 논밭의 경계를 양보하고 행인은 길을 양보하며', '선비건 서민이건 부귀빈천을 막론하고 언행이 엄전하며 공손하고 예의 바르니 군자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 군자국(君子國)의 유토피아는 성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신랄한 현실비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군자국의 오지화, 오지상은 장례・잔치・출가・소송・도살・음식・매파・무당・계모・전족・점・사치 등 구풍속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군자들이 나설 때 악습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5) 이여진 저, 문현선 옮김,『경화연』, 문학과지성사, 2011.

제14회에서는 오색구름을 타고 다니는 대인국(大人國)을 묘사하고 있다. 대인국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구름은 사람의 행실의 선악에 따라 오색, 노란색, 검정색으로 그 색깔이 달라진다. '모두들 검은 구름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나쁜 일에는 몸을 사리고 착한 일에는 앞장서는 등, 대인 같은 기질을 보이기 때문에 이웃나라에서 이곳을 대인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제16회-제18회에는 치아와 입술은 검고, 눈썹은 붉고 옷도 붉은 색을 입는 흑치국이 등장한다. 이 나라는 군자국과 유사한 풍습을 지니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가 따로 모이고, 시전 가운데의 큰길에서도 남자들은 오른쪽, 여자들은 왼쪽으로 걸었으며 심지어 작은 골목에서도 구별이 있다.'그런데 흑치국은 표면적으로는 전통적인 예의범절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혁신이 있는 곳이다. 흑치국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폐방에 여성 과거는 없지만 국모께서 10년에 한 번씩 큰 시험을 여십니다. 그때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처녀들이 응시하지요. 학문의 우열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재녀라는 편액을 하사하거나, 관대를 내리거나, 부모에게 벼슬을 주거나, 시부모에게까지 영화를 베푸니 이곳에서는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천을 막론하고 딸 가진 집에서는 사오 세만 되면 딸을 학당으로 보내 시험 준비를 시작합니다."라고 하였다. 이곳은 남녀평등이 실현된 진보적인 곳이다. 또한, 재학이 넘치는 흑치국 여성인물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혁신적이고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제18회에는 조타수 다구공(多九公)이 잘난 척하다 흑치국 소녀들의 학식에 밀려 혼줄이 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다구공은 모욕을 당한 후, "전체를 보지 못하고 표면에만 집착해서 사고가 편협해졌지요."라고 자신을 반성했다. 『경화연』은 우화적 방법으로 흑치국 이야기를 전하는데, '검은 겉모습만 보느라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세태와 '우아한 학풍에 제 가증스럽고 천박한 면모가 또렷이 보이는'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작품은 당오, 임지양, 다구공이 흑치국에서 곤혹을 치르고 흑치국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는 모습을 통해 억지로 선비인 척 하며 우아한 자세를 취하느라 허리며 다리, 목이 쑤셔 괴로워 하는 장면을 유머 넘치게 묘사하였다. 또한 책을 귀하게 여기는 흑치국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흑치국에는 도적이 없어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길에 금이 떨어져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 책을 훔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하고, 책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른답니다."

『경화연』 제32회-제37회에서 들려주는 여인국 이야기에서는 여성들의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다. 여인국에서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바뀌어 여자가 남자이고 남자가 여자이다. 여자들이 장화와 모자 등 남자 복장을 하고 정치 등 바깥일을 하고,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고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고 전족을 하고 있다. 남자 부인네들은'검은 머리카락을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매끈하게 기름칠해 머리 위로 쪽을 찌고, 귀밑머리 옆을 진주와 비취로 눈부시게 장식했다. 또한 화려한 금 귀걸이를 달고 장밋빛 장삼에 초록색 치마를 입었는데 치맛단 아래로 작은 발이 보였다. … 분을 바른 얼굴이 눈에 띄게 고왔다.' 임지양(林之洋)이 물건을 팔러 국구부에 갔다가, 국왕이 그를 왕비로 책봉하여 귀를 뚫고 보석이 박힌 금 귀걸이를 걸고, 분을 바르고 능사로 발을 동여매는 고초를 겪는 이야기는 유머 넘치는 장면이다. 작품에서 여인국 유토피아는 여자들의 재능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경화연』 제38회-제39회에는 서해에서 가장 큰 나라 헌원국(軒轅國)이 등장한다. 헌원국은 태평성세로 난새가 노래하고 봉황이 춤을 추는 곳이다. 여기에는 독특한 유토피아가 제시되고 있는데, 헌원국의 국왕은 황제(黃帝) 이후 성덕이 가장 높다고 칭송을 받으며 이웃 나라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분쟁을 해결하고 있었다. 헌원국 국왕은 화평의 방식을 통해 두 나라 간의 다툼을 없앰으로써 군비를 줄이고 인명을 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유토피아 국가의 운영 방식은 나라 간 전쟁을 인정하는 모어의 '유토피아'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경화연』에는 이상사회에 대한 묘사가 곳곳에 등장한다. 또한 작품은 이상적이 못한 사회 디스토피아(Distopia)의 모습을 보여주는 무장국, 백민국, 양면국, 천흉국, 장비국 등의 나라들의 모습을 통해 이상사회에 대한 동경을 제시하고 있다.

2. 선경(무릉도원) 유토피아

『경화연』의 유토피아는 기본적으로 '선계' 혹은 '선경'을 그리고 있다. '선경'은 도교문화에서는 신선이 사는 곳을 뜻하지만 신선이 살만한 좋은 곳의 의미로부터 속세를 떠난 좋은 곳, 이상적이고 완전한 곳 등의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선경'은 현실적인 인간의 이상세계라는 점에서 신화적 환상세계와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초기의 도가와 유가에서 추구했던 태평성세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곳은 서구의 유토피아와는 달리 현실과 공존하고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현재에도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선경은 천부적인 자연조건이 갖추어진 장소이며, 자연에 순응하는 '무위의 정치(無爲而治)' 도리에 따라 운영되는 곳으로, 제한된 공간 속에 건설된 유토피아이다. 그렇지만 신화적 환상세계와는 달리 소극적 현실의지 즉, 사회의식이 어느 정도는 담겨있는 곳이다.

『경화연』의 유토피아는 중국의 전통적인 환상적 유토피아와 이상사회가 결합된 무릉도원형 유토피아를 보여준다. 제40회에서 해외 유람을 끝낸 당오는 소봉래으로 들어가 신선이 된다. 소봉래는 삼신산 유토피아 중 하나인 봉래산에서 온 이름이다. 삼신산은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이다. 『경화연』 제1회에서도 선경 유토피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천하의 명산 서왕모가 사는 곤륜산과 바다 가운데 있는 삼신산에 신선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은보화가 넘쳐난다고 하였다. 당오의 딸 당소산의 전생인 백화선자는 봉래산에 살고 있는 선녀이다. 당오가 귀의하게 되는 소봉래는 두루미와 사슴 같은 짐승들이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입안에 맑은 향기가 가득 퍼지는 소나무와 측백나무 열매들이 가득한 곳, 선경 유토피아이다.

『경화연』의 유토피아는 선경 유토피아의 관점에서 볼 때 도선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상사회로서 생명 유토피아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작품은 종종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양생 등 생명 유토피아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의 묘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생명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등장한다. 헌원국 사람들은 평화로운 태평성세를 살면서 단명해도 800세를 누린다. 헌원국의 국왕은 '태로태공(太老太公)'이라 불리며 천수를 누린다. 이에 비해 지가국 사람들은 머리를 너무 써서 단명하여 길어도 4,50세를 산다. 노동을 즐기는 노민국 사람들은 기꺼이 노동을 하며 장수한다.

Ⅲ. 『경화연』의 사회비판 의식과 혁신 사상

모어의 『유토피아』는 풍자의 방식으로 16세기 초 유럽사회와 영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이상사회인 유토피아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모어의 유토피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비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경화연』의 유토피아도 유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경화연』의 작가 이여진은 만주족이 지배하에 핍박받는 한족의 실상에 불만을 품고, 사회적 불평등과 불합리를 목도한 인물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풍자의 방식을 통해 현실사회를 비판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토피아적 대안을 발견하게 된다.

『경화연』은 독특한 서사 구조 속에 사회비판과 풍자 그리고 유토피아사상을 담아내고 있다. 작품 제1회에서 작가는 이 책을 쓴 취지와 내용의 특성을 논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여성은 더욱 여성스러워지고 아내는 더욱 아내다워지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비록 소소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고, 음란하거나 상스러운 말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작가는 이 책이 바꾸는 것 즉, '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달하고 있다. 또한 특별히 여성문제에 관한 것임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작가는 혁신을 말하고자 하나, 서두에서 이 책이 정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고 독자를 안심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작품 서두에서 작가는 이 책이 정통인지 혁신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묘한 말을 함으로써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결국, 『경화연』은 유토피아에 대한 제시, 그 속에 담긴 작가의 혁신사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화수월'처럼 순간 사라지고 동경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화연』은 재녀들의 과거시험 이야기와 기이한 해외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풍자의 수법을 통해 사회비판 의식과 현실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여성의 정절, 교육, 정치 참여, 전족, 남녀평등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으며, 특히 양성문제에 대

한 진보적인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 여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관한 것임을 서두에서 알 수 있다. 제1회에서 봉래산 박명암 홍안동에 살고 있던 백화선자는 백초선자, 백곡선자와 함께 3월 3일 서왕모의 생일을 맞아, 곤륜산 반도승회에 가게 되는데, 도중에 하계 인간사를 주관하는 신 괴성(魁星)이 부인의 모습으로 꽃구름을 타고 곤륜산으로 가고 있었다. 백화선자가 “우리가 득도한다고 해도 결국은 여성의 몸이잖아요.”라고 회의적 태도를 취하자, 백초선자는 “지금 괴성이 여성의 모습을 띠고 있으니 여성과 관련된 징조임에 틀림없어요.”라고 확신한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여성과 관련이 있음을, 특히 재녀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특히, 남성의 모습인 줄만 알고 있었던 괴성이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여성문제에 대한 혁신을 보여줄 것을 암시한다.

작품은 제41회에서 무측천이 소혜의 『선기도』에 대해 풀이한 사유탐과 애췌방을 재능에 감탄하여 조서를 내린다. 당민은 당소산에게 그 가치를 말해주었다. “소혜처럼 고금을 초월한 재녀는 드물더라도 사유탐이나 애췌방처럼 다재다능한 인물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지. … 그렇게 재능을 아끼는 마음에서 재녀를 뽑는 과거를 시행하기로 신하들과 논의하셨단다. … 문장의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한 뒤 재녀에게는 편액, 부모에게는 관대를 하사하기로 하셨어. 이는 인재를 독려하는 동시에 재능 있는 여인들에게 빛을 더하는 일이니 역사적으로도 가치 있지.” 제42회에서 무태후는 여성 과거를 선포했다. “허나 내규에 따라 인재를 신중히 선발해도 규방이 과거에서 제외된 것 또한 사실이다. 낭군은 추천을 받지만 여인들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인재를 신중히 선발하고자 규중에서도 전례에 없던 성전을 시행하려고 한다....이에 널리 의논하여 새로운 과거를 창설하니 성력 3년에 예부에서 여성 과거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여 지금까지 과거가 남녀에 대해 공평하게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화연』을 통해 이여진이 철저하게 현실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개혁에의 의지를 보여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그는 유토피아의 단편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토피아 세계를 만들지는 않았다. 그는 시종일관 창작의도에 대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여성문제에 대한 혁신을 제시해 보지만, 결국 재녀들은 재녀 과거 이후 남성들과 혼인하여 부덕을 지키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작품은 서두에서 조대가의 『여계』를 소개하며 부덕(婦德), 부언(婦言), 부용(婦容), 부공(婦功)의 4가지 덕목을 강조하고, 이 소설이 반소의 『여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힌다. 소설이 규방의 소소한 이야깃거리와 여인들의 한가로운 심정을 다루지만, 무엇보다 위의 4가지 덕목을 갖춰 고결한 품성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작품의 결말 역시, 무태후가 태평성세를 누리며 재녀 과거를 실시하는 등 혁신적 정치를 보여주지만, 재녀들은 과거 시험을 치르고 여학사・여박사・여유사의 직위를 하사받은 후 직접적인 정치참여나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학을 드러내는 장면만이 길게 묘사된다. 결국, 『경화연』의 이야기는 무태후의 퇴진과 중종의 복귀로 끝이 난다. 재녀들 역시 중종의 복귀에 앞장 선 인물들을 남편으로 맞아 부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현실정치와 제도를 비판하고 있으며, 사회 관습과 풍속의 불합리함을 비판하고 있다. 작품은 구체적으로 정치제도와 과거제도 등 현실정치와 제도를 비롯해 사회관습과 풍속 즉, 사치・잔치・음식・혼인・매파・궁합・사주・장례・송사・미신・전족 등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경화연』은 “하계 소설 중에는 좋은 작품도 있지만 묵은 관습으로 가득 한 작품도 많습니다.”라고 비교하면서, 이 작품이 새로운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12회 군자국의 묘사에서 오지상과 오지화의 가르침을 통해 직접적으로 현실정치와 사회 구습을 비판하고 있다. 또, 제16회 심목국의 묘사에서 눈이 손에 달려 상하 좌우는 물론 전후까지 두루 경계해야 하는 무서운 세상을 비판하고 있다. 제22회에서 백민국의 황당한 학식을 묘사하면서, “열 살부터 아흔 살까지 공부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든 해 동안 3년마다 시험을 쳐야하는데, 그게 생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라고 청대 과거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제24회 숙사국의 술집에서는 어진 정치에 대해 듣게 되는데, 이들은 사농공상에 관계없이 모두 선비복장을 하고, 어려서부터 모두 글을 읽는다. 또 선비가 죄를 저지르면 엄하게 처벌하고, 선행을 쌓으면 죄가 사라진다. 이 나라에서는 선비들은 거의 죄를 짓지 않고, 책을 통해 품성을 가다듬고 성현의 가르침에 따른다.

이러한 유토피아적 대안의 제시와 함께, 작품은 디스토피아를 묘사함으로써 사회비판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제24회 양면국에 대한 묘사는 인간의 추악한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다. 양면국 사람들의 뒤쪽 호연건 뒤에

숨어 있는 추악한 얼굴 현실에서의 인간의 본성임을 말하고 있다. 또,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고 매사에 찡그려 심장이 비뚤어지고 병을 앓아 가슴에 구멍이 뚫린 천흉국도 현실사회의 디스토피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27회에서는 '재물을 탐해서 자기 몫은 물론이고 남의 것에 손을 뻗더니 폐인처럼 팔만 길어진' 장비국(長臂國)과 민심이 나빠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전생에 거짓말한 죄로 돼지주둥이를 갖게 된 시훼국(豕喙國)의 디스토피아도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음으로, 과학문명에 뒤처진 중국의 현실을 비판하고, 서구의 과학 문명인 서학(西學)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대목들이 보인다. 특히 역사・물리・의학・지리・수리・역산・기계공정 등의 지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런 점에서 『경화연』 속 유토피아는 현실개혁에의 의지와 혁신사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Ⅳ. 나오며

【참고문헌】

李汝珍 著,『鏡花緣』, 人民文学出版社, 1994.
이여진 저, 문현선 옮김,『경화연』, 문학과지성사, 2011.
魏得胜,「李汝珍的乌托邦」, 서평, 2009.
정선경,「신선설화와 유토피아」,『중국어문학지』 제20집, 2002.
정재서,「유토피아의 개념(槪念) 및 유형(類型)에 관한 비교(比較) 시론(試論)」,『중국문학』 제24집, 1995.
정재서,『중국신화의 세계』, 돌베개, 2011.
주경철 지음,『유토피아』, 을유문화사, 2017.
주경철 지음,『유토피아, 농담과 역설의 이상 사회』, 사계절출판사, 2015.

【문학 분과】 발표 ⑨

“楚瑭”与“鲁瑭”：朱舜水的家国之思*

刘晓东**

【摘要】朱舜水的“字”是“楚瑭”还是“鲁瑭”，是学界争论已久的一个问题。但若从朱舜水兄弟三人名字的逻辑性来看，他最初预设的“字”可能是“叔瑭”。或由于家庭变故原因最后选择了“楚瑭”，这主要是源于对家族祖源记忆的一种追溯。直至德川光圀征召前夕，才改字为“鲁瑭”。这一是感念鲁王知遇之恩，二也是为了彰显自身“大明遗士”的身份。不过，朱舜水的改“字”，并不意味着对“楚瑭”的彻底摒弃，而是字“鲁”而存“楚”。可以说，朱舜水的“字”既是“鲁瑭”也是“楚瑭”。“楚瑭”寄托“乡愁”，“鲁瑭”含蕴“国念”，这种“家国之思”也正是朱舜水“思明衷情”的一种展露。

【关键词】朱舜水、名字、德川光圀、家国之思

朱舜水名之瑜，号舜水，学者称为舜水先生。他在明朝灭亡后侨居日本，受聘于水户德川第二代藩主德川光圀，昭讲实学，并以其对日本文化发展的巨大影响，被后世学者尊奉为“胜国宾师”。国内学界对朱舜水研究的关注，发轫于清末梁启超先生，直至今日仍是东亚史学界颇为引人关注的话题。[1)]

朱舜水一生谜团颇多，尤其关于他的早年行实更是扑朔迷离。其中关于朱舜水的“名”、“字”、“号”等问题也成为中外学界关注的一个焦点。近年来，随着相关研究的日渐深入，学界对朱舜水名“之瑜”、号“舜水”、“溶霜”为其斋号，其余“名号”之说多为误植错讹的认识，已基本趋于一致。但对于朱舜水的“字”到底是“楚瑭”还是“鲁瑭”，仍有诸种不同说法。[2)]表面看来这只是一个小问题，但这一问题对于我们深刻理解朱舜水思想的演变，却是十分重要的。因此，本文拟就此问题略作考论，以就教于方家。

一、“鲁瑭”说的疑问

朱舜水字“鲁瑭”的说法，是学界较为常见之说。这主要源于朱舜水在日本的弟子今井弘济与安积觉在为其所

* 本文系教育部重点研究基地重大项目“明清时期的周边认知与多民族统一国家的建构”（项目编号：16JJD770008）、教育部新世纪人才资助计划项目“明清时期中国知识界‘倭寇’叙事的历史演变”（项目编号:NECT-12-0823）的阶段性成果。

** 刘晓东，1972年生,辽宁凤城人，男，满族，历史学博士，现任东北师范大学历史文化学院院长、教授、博士生导师。电子邮箱：liuxd329@nenu.edu.cn

1) 关于朱舜水研究的相关状况，可参看赵建民《朱舜水研究的回顾与前瞻》（载《浙江学刊》2001年第2期，第147-150页），[日] 久信田喜一《水户的朱舜水研究现状》（载 [日] 町田三郎、潘富恩主编：《朱舜水与日本文化》，北京：人民出版社，2003年，第57-63页），以及徐兴庆《新订朱舜水集补遗》附录三（台北：台湾大学出版中心，2004年，第353-393页）、《日本的朱舜水研究史》（载《杭州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9年第4期，第1-7页）。

2) 关于朱舜水的“字”，大致来说有两种不同的看法：一种认为朱舜水最初字“楚瑭（嶼）”，到日本后复字“鲁瑭（嶼）”，诸如朱舜水族孙朱衍绪于清同治十一年（1872）所撰《明遗民族祖楚嶼先生家传》中就云：“我族祖楚嶼先生，讳之瑜，字楚嶼，至海外复字鲁嶼”（余姚：浙江余姚市文物保护管理所藏清代稿本，名录号：00253）。台湾学者王进祥也认为朱舜水“原字楚瑭，至海外后复改字鲁瑭”（王进祥:《朱舜水评传》，台北：台湾商务印书馆，1976年，第3页）；另一种则认为朱舜水的字是“鲁瑭”而非“楚瑭”，诸如南炳文先生就从“鲁”与“瑭”的关联性角度，论述了“鲁瑭”说的正确性(南炳文：《明末流亡日本二遗民朱舜水、戴笠生平考二则》，载《东北师大学报（哲社版）》2008年第2期，第5-9页)；钱明、万斌则认为朱舜水是坚定的孔子儒家思想的崇拜者，以“鲁”为字才符合朱舜水思想之实际，“鲁瑭”并非朱舜水因感鲁王知遇之恩所改，而是其原来之字，因为这一字之差，对朱舜水来说是关系到信奉儒道还是崇奉皇道的大问题（钱明、万斌：《胜国宾师——朱舜水传》，杭州：浙江人民出版社，2008年）。

作的《行实》中的一番记述：

文恭先生，讳之瑜，字鲁璵（鲁作楚，非也。印章讹楚璵，不复改刻；故人或称楚璵），姓朱氏，号舜水；明浙江余姚人。[3)]

这里不仅明确指出朱舜水的字为“鲁璵”，而且对“楚璵”错误的原因也做出了进一步解释，乃是因为朱舜水印章曾经错刻为“楚璵”，后来也未曾改刻所致。

当代学者南炳文先生还对中国与日本史料中对朱舜水“字号”的记载做过一番统计，兹将其中关于“字”的部分整理如下表：

序号	书名及页码	篇名	字	文献出处
3	《朱舜水集》第26页	<安南供役纪事>	鲁嶼	北京：中华书局，1981年。
42	《朱舜水集》第161页	<与安东守约书二十五首之十一>	鲁璵	
69	《朱舜水集》第612页	<舜水先生行实>	鲁璵，因刻章误鲁为楚，故或称楚璵。	
70	《朱舜水集》第630页	<明故征君文恭先生碑阴>	鲁璵	
71	《朱舜水集》第634页	《先哲丛谈》卷二<朱之瑜>	鲁璵	
72	《朱舜水集》第731页	<祭朱先生文三首之一>	鲁璵	
73	《朱舜水集》第735页	<悼朱先生文>	鲁璵	
78	《朱舜水集》第781页	<霞池省庵手柬序>	鲁璵	
88	《朱舜水集》第836页	《文苑遗谈》卷一引《莽苍园集》载<张斐寄弘济书>	楚璵	
94	《海东逸史》第94页	<朱之瑜传>	楚嶼，至海外复字鲁嶼	杭州：浙江古籍出版社，1985年。
95	《南疆逸史》第335页	<义士朱之玙传>	楚嶼	北京：中华书局，1959年。
97	《复思堂文集》第401页	<明遗民所知录·朱之玙传>	楚嶼	《四库全书存目丛书本》
98	《朱舜水集》第791页	《朱舜水全集（稻叶本）凡例》载张廷枚《姚江诗存·识语》	楚嶼	北京：中华书局，1981年。
99	《余姚县志》卷二三，第18页下	<朱之玙传>	楚嶼	光绪二十五年刊本
100	《碑传集补》第1900页	<朱张两先生传>	鲁嶼	台北：台湾文海出版社，1980年。
103	《朱舜水集》第791页	《朱舜水全集（稻叶本）凡例》	楚嶼盖为楚璵之讹	北京：中华书局，1981年。
107	《清史稿》卷五O五	<遗逸传·朱之瑜>	鲁璵	北京：中华书局，1998年。
资料来源与备注	资料来源：南炳文著《明末流亡日本二遗民朱舜水、戴笠生平考二则》，载《东北师大学报（哲社版）》2008年第2期，第5-7页；“顺序号”为南文原有序号，书名、页码、篇名、文献出处、版本等皆遵循原文，未做改动；南文中的“字”原文皆为简体字，为方便后面叙述，今改回为繁体字。			

通过对上表的分析，南炳文先生认为朱舜水的“字”应该为“鲁璵”，原因有三：第一，“鲁璵”出现次数最多，计8次，“楚璵”1次，“鲁嶼”3次，“楚嶼”5次；第二，使用“鲁璵”者多为朱舜水本人及其学生们，真实性要强许多；第三，中国古人的“名”与“字”在意义上一般都是有所关联的，“瑜”为“美玉”，“璵”为“鲁

3)（明）朱舜水著、朱谦之整理：《朱舜水集》附录一《传记年谱》，［日］今井弘济、安积觉：《舜水先生行实》，北京：中华书局，1981年，第612页。

之宝玉”，因此“之瑜”与“鲁璵”的意义关联性很强。而“嶼”字在意义上与“瑜”没有关联性，应该是一种“讹误”。4)

南炳文先生的分析，确实为我们深入理解朱舜水“字”的问题，提供了新的视角。但就其结论而言，仍还有一些需要进一步思考的地方：

首先，根据南炳文先生关于“名”、“字”关系的分析，我们现在基本可以肯定“嶼”是讹误所致。如果本字应该是“璵”的话，那么“鲁璵”出现的次数应该是11次，但“楚璵”出现的次数也达到了6次，恐怕也不能看作是过少吧。

其次，在同时期中国文献中出现的基本皆为“楚璵”，而“鲁璵”主要出现在同时期日本编纂的文献，或以日本文献为底本的中国文献（如《朱舜水集》）之中。仅以两者出现次数的多少，就断定中国文献记载的错误性，似乎也略有偏颇之嫌。

第三，称其为“鲁璵”的，基本是朱舜水在日本的弟子门人，而“楚璵”多为中国方面士人的称呼，即便是稍后流寓日本的另一大明遗民张斐，在写给今井弘济的书信中也称朱舜水为“楚璵”5)。这种过于明显的认识分野，也不能不让人心生疑惑。

事实上，即便是在日本的文献资料中，也并非全将朱舜水的“字”记述为“鲁璵”，诸如记载了朱舜水滞留长崎情况的《長崎御役所留》文书的目录中就有《朱楚玙與申博学之唐人長崎在留之儀、…相伺候処一々御下知被仰下候事》的条目6)，在正文的《長崎諸事覚書》书中如斯所载：

> 一 去年罷越候朱楚玙と申博学之唐人有之候。彼者長崎ニ被差置被下候様ニと唐人通事并住宅之唐人捧訴状候事是者一両年差置其様子次第ニ可仕事。7)

这里的朱楚玙就是朱舜水，“玙”应该是“璵”的误书。8)

此外，《唐通事会所日録》寛文三年（1663）正月十五日的记录中也有这样的记载：

> 儒者朱楚嶼（之瑜、號舜水）御禮ニ被罷出候、中間何も同道、獨立（性易、崇福寺）御政所へ御禮ニ今日被罷出候、惣右衛門同道仕、取次申候。9)

虽然这里的“璵”写作了“嶼”，但从后面的解释中我们明确可知该人就是朱舜水，他的“字”为“楚嶼（璵）”而非“鲁嶼（璵）”。

可见，朱舜水在滞留长崎期间，其为日本人所知的名字标识，也如多数中国士人所认知一样，是“楚璵”而非“鲁璵”。因此，今井弘济等人所说的朱舜水之“字”为“鲁璵”的说法，应该还有进一步检讨的必要。

二、“楚璵”说的思考

正如南炳文先生所言，中国古人的“名”与“字”在意义上一般都有所关联。大致来说，或为同义反复（如诸葛亮字孔明）、或为反义相对（如朱熹字元晦）、或为连义推想（如岳飞字鹏举）等。简言之，也就是“字”多为解“名”，所以也称“表字”。

朱舜水的名为“之瑜”，这里的“瑜”为“美玉”之意，《礼记·玉藻》中就有“君子无故，玉不去身，……

4) 南炳文：《明末流亡日本二遗民朱舜水、戴笠生平考二则》，载《东北师大学报（哲社版）》2008年第2期，第8页。
5) （明）朱舜水著、朱谦之整理：《朱舜水集》附录五，《友人弟子传记资料·十三·今井弘济》，北京：中华书局，1981年，第836页。
6) [日] 太田勝也編：《近世長崎·対外関係史料》，京都：思文閣出版，2007年，第6页。
7) [日] 太田勝也編：《近世長崎·対外関係史料》，京都：思文閣出版，2007年，第52页。
8) 参看 [日] 松浦章：《朱舜水日本来航時の日中文化交流》，载《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第4号，2011年3月，第347页。
9) [日] 東京大学史料編纂所編：《大日本近世史料·唐通事会所日録一》，东京：東京大学出版会，1955年，第3页。

世子佩瑜玉而綦织绶”之语。[10] 而“璵”也是指古代的一种佩玉，《春秋左传》中就记载季平子卒于房，“阳虎将以璵璠敛”。对此，杜预注疏云：“璵璠，美玉，君所佩”。[11]从同义反复的角度来说，“璵”与“瑜”意思正好相合。同时，按照《说文解字》所言，“璵”与“璠”经常连用，同为“鲁之宝玉”的意思。[12]也正因为如此，南炳文先生才力主朱舜水的“字”应该是“鲁璵”而非“楚璵”。

从逻辑关系来看，这种解说无疑十分合理。但问题在于，“璵”既有相对广义上的“美玉”之意，也有相对狭义上的“鲁之宝玉”之意。朱舜水“字”中的“璵”，究竟是从何种意义上而言呢？若仅从朱舜水本人，及今井弘济等人的“鲁璵”说来看，无疑相对狭义层面的“鲁之宝玉”似乎更合情理。不过，对朱舜水“字”中“璵”的理解，似乎不能仅局限于他本身，更应该从其家族男性兄弟取“字”的逻辑脉络中进行解析。

按照《民国余姚朱氏谱》卷十三《老三房世系》所载，朱舜水的父亲叫朱正，共生有三子。其中长子朱启明，原名之琦，字伯球，号苍曙；次子朱之瑾，字仲琳，庠生，未冠而卒；舜水先生朱之瑜乃是朱正第三子。[13]

从中我们不难看出，朱舜水三兄弟的命名取字，是十分符合中国古代传统文化规范的。三兄弟的名字皆围绕“美玉”的意蕴展开，并呈现出前后相继的逻辑性。长子名中的“琦”、次子名中的“瑾”，以及三子朱舜水名中的“瑜”，皆为古代美玉的一种。从“字”来看，三兄弟都采用了同义反复的表字方式。那么，除却朱舜水“字”中的“璵”之外，其两位兄长“字”中的“球”与“琳”是否也具有明显的地域指代性呢？

按照《说文解字》的说法，“球，玉磬也，从玉，求声；“琳,美玉也，从玉，林声”。[14]若进一步解释，则又有“天球”一词，专指“雍州所贡之玉，色如天者”；[15]“琳”则特指青碧色的玉。如果说“球”具有一定“雍州”的地域指向的话，那么依据南炳文先生所说朱舜水的“表字”逻辑，其长兄朱之琦的“字”应该为“雍球”或者“岐球”才更合乎情理。[16]但事实上，朱舜水两位兄长的“表字”逻辑，并非是按照地域指向，而是依据长幼之序（伯仲叔季）施行的。即长兄朱之琦，字“伯球”；次兄朱之瑾，字“仲琳”。从这一角度来说，无论是“球”字还是“琳”字，都应该没有明显的地域指代性。因此朱舜水“字”中的“璵”，也应该没有所谓“鲁之宝玉”的强烈指向，只是广义层面的“美玉”而已。基于此，我们是否可以推测，朱舜水最初的“表字”设计，既不是“楚璵”也不是“鲁璵”，而应该是“叔璵”。对于后来为何发生改变，我们目前尚不得而知，可能与其次兄朱之瑾的“未冠而卒”，以及其父亲朱正的去世有关。

在“伯仲叔季”这一长幼之序的“表字”原则改变后，“楚璵”与“鲁璵”哪个更具有被选择的可能性呢？朱舜水曾向德川光圀陈述过自己的族源世系，其云：

> 仆系出于邾，后更为邹。秦、楚之际，去邑言朱。汉兴，流转鲁、魏之间，始祖为朱晖，汉丞相也。后有朱辅、朱穆，亦为三公。穆之直声震于朝廷，而吏治称之。入国朝初，先祖于皇帝族属为兄，雅不欲以天潢为累，物色累征，坚卧不赴，遂更姓为诸。故生则为诸，及祔主入庙，题姓为朱。仆生之年，始复今姓。[17]

可见，在朱舜水的族源记忆中，其家族祖源出自先秦时期的一个小诸侯国——邾国。

邾国本为周代鲁国的附庸，春秋时期因帮助齐桓公完成霸业，在齐桓公的奏请下，周天子册封其为子爵国，得以跻身诸侯之列。但邾国常受鲁国侵扰，“鲁朝夕伐我，几亡矣”。[18]为避免亡国的危险，曾经三次迁都，最后定都于绎。据《左传》记载，邾国在反击鲁国的侵略中，还曾取得过一些小胜利，“获（鲁僖）公胄，悬诸鱼门”，令鲁国颜面扫地。[19]到战国后期，邾国被势力不断东渐北上的楚国所吞并，“故邾国,曹姓,二十九世为楚所灭”，

10)（汉）郑玄注、（唐）孔颖达整理：《礼记正义》卷第三十，《玉藻》，北京：北京大学出版社，第914页。
11)（周）左丘明传、（晋）杜预注、（唐）孔颖达正义：《春秋左传正义》卷第五十五，《定公五年至九年》，北京：北京大学出版社，第1560页。
12)（汉）许慎：《说文解字》第一上，《玉部》，北京：九州出版社，2001年，第10页。
13)（民国）朱元树纂：《民国余姚朱氏谱》卷十三，《老三房世系》，余姚：“一本堂”民国二十年（1931）木活字本。
14)（汉）许慎：《说文解字》第一上，《玉部》，北京：九州出版社，2001年，第11页。
15) 屈万里注释：《尚书今注今译》，台北：台湾商务印书馆，1977年，第167页。
16) 雍州是中国古九州之一，中心区域在今天陕西省凤翔县一带。这里曾是周室发祥之地，也是嬴秦创霸之域，因而有“凤凰鸣于岐，翔于雍”之说。
17)（明）朱舜水著、朱谦之整理：《朱舜水集》卷十，《问答一・答源光国问十一条・六》，北京：中华书局，1981年，第348页。
18)（周）左丘明传、（晋）杜预注、（唐）孔颖达正义：《春秋左传正义》卷第四十六，《昭公十三年》，北京：北京大学出版社，第1326页。

成为“楚国”的一部分。[20]

从邾国的历史来看，与鲁国和楚国都是有所关联的。但邾国是在自立于鲁国之后才被楚国吞并的，从族源记忆的角度来说，其世系的梳理应该是由“邾”入“楚”再到秦汉一统。因此，邾国后裔对“楚国”的认同程度应该远高于对“鲁国”的认同，也就是说，在后来的历史演变中，他们很容易形成对自己“楚国人”的身份认同，而绝不会形成“鲁国人”的身份认同。从这一角度来说，朱舜水取“楚璵”为“字”的可能性是要高于“鲁璵”的。

巧合的是，与朱舜水及其次兄的名（之瑜、之瑾）最具关联性的典故，莫过于“怀瑾握瑜”了。而“怀瑾握瑜”一词，则出自于战国时楚国名臣屈原所作的楚辞《九章》中的《怀沙》篇。[21]朱舜水的弟子安积觉在为其文集所作的后序中，称赞其师不为“八股制义”所累，“独为古文，圆柄方凿，绝不相入”。[22]其中的“圆柄方凿”一词，是安积觉自己所学还是朱舜水所授，我们不得而知，但这句话却是出自战国时楚国另一位重要人物宋玉——也是屈原弟子——所作的《九辨》，“圆凿而方枘兮，吾固知其龃龉而难入。”[23]尤其耐人寻味的是，步其后尘而至的明朝遗民张斐，不仅称朱舜水的“字”为“楚璵”，而且在舜水先生去世后，其所写的第一篇祭文竟然是用“楚辞”体写的：

> 登彼西山兮，蹈此东海；夷齐千古兮，而有公在。公之不死兮，将有所待；公而既死兮，痛讵有艾！嗟予小子兮，有志未逮。独行寡和兮，群刺为怪；天乎知我兮，心则已惫。既穷域内兮，复之海外。初至国门兮，阍者以戒。忧从中来兮，谁与为解？异方之人兮，鬼神是赖；公其佑我兮，无即于殆！[24]

或许在张斐的心里，“楚辞”似乎更容易与舜水先生沟通，也更能慰藉其在天之灵。

同时，随着《史记》中“楚有三俗”[25]及“楚虽三户，亡秦必楚”[26]故事的流播，在中国古人的认识理念中，“楚”与“三”也有了某些暗合之处。因此，“叔璵”与“楚璵”，从“三”的意义层面理解，是否也有某些暗通之处呢？

三、字“鲁”而存“楚”

《舜水先生行实》中关于“鲁璵”的解说，实际上来源于朱舜水滞居长崎期间，与安积觉就“大明书札之体”所作的一段“笔语”：

今寄来书帖，即大明书札之体。客中至此者无一知朝廷仪制，一概不可作准。来书“大教铎楚璵朱夫子老先生大人函丈”，既足下执谦不已，尚当一一厘定。“璵”字不必用，当用“翁”字，“老”字不必。书中“生”字应作“门生某”或称名，亦或有不称名者。贱字原是鲁璵，因人之讹就作楚璵，虽有印章，实非也。[27]

从这段“笔语”中，我们不难看出“鲁璵”确实是朱舜水亲笔所言，因此说朱舜水的“字”是“鲁璵”应该也是没有问题的。况且，“鲁璵”之“字”，随着德川光圀对朱舜水征召的进行，更以特殊的方式被确定下来。据朱舜水所言，宽文四年（1664）七月十九日，他到达江户和德川光圀见面的第二天，小宅生顺就秉承光圀之意来求问朱舜水“斋号”之事，云：

19）（周）左丘明传、（晋）杜预注、（唐）孔颖达正义：《春秋左传正义》卷第十五，《僖公二十二年至二十四年》，北京：北京大学出版社，第403页。
20）（汉）班固：《汉书》卷二十八下，《地理志第八下》，北京：中华书局，年，第 页。
21）（宋）朱熹集注：《楚辞集注》卷第四，《九章第四·怀沙》，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9年，第89页。
22）（明）朱舜水著、朱谦之整理：《朱舜水集》附录四《序跋》，安积觉：《朱舜水先生文集后序》，北京：中华书局，1981年，第787页。
23）（宋）朱熹集注：《楚辞集注》卷第六，《九辩第八》，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9年，第124页。
24）（明）朱舜水著、朱谦之整理：《朱舜水集》附录二《祭文》，张斐：《长崎祭舜水朱先生文二首·一》，北京：中华书局，1981年，第739页。
25）（汉）司马迁：《史记》卷一百二十九，《货殖列传》，北京：中华书局，1959年，第3267页。
26）（汉）司马迁：《史记》卷七，《项羽本纪》，北京：中华书局，1959年，第300页。
27）徐兴庆：《新订朱舜水集补遗》卷二，《朱舜水寄安东省菴笔语》，台北：台湾大学出版中心，2004年，第194页。

不佞老人（指朱舜水，舜水常自谦称为“不佞”）有道，朱鲁璵乃字也，不敢称，欲得一庵、斋之号称之。不佞答言无有。三次致言，今已将舜水为号。舜水者，敝邑之水名。古来大名公多有此等，如瞿昆湖、冯巨区、王阳明，皆本乡山水也。[28]

可见，经安积觉、小宅生顺、德川光圀的一系列追问，朱舜水不仅新取了“舜水”之号，“鲁璵”之“字”也由此为日本朝野人士所知。

但从朱舜水所言中，我们也不难得知，朱舜水确实使用过以“楚璵”为“字”的印章，且其曾以“楚璵”为“字”之事，也为安积觉所熟知。按照他自己的解释，是因为曾有人将“鲁”错为“楚”，自己也就“因人之讹”未做改正。这位将“鲁”“楚”搞错的人是谁？我们不得而知，但朱舜水本身就精于篆刻，自己名章之事一般不会假手他人，那么他又为何明知有错却不予以纠正呢？如果说，在德川光圀征召之前，为避免麻烦而“以讹顺讹”也算合乎情理。那么在经过德川光圀确认之后，朱舜水无疑应该将刻为“楚璵”的“错章”加以毁弃或放置不用，改刻“鲁璵”新章以“拨乱反正”，似乎才更合乎朱舜水的“心意”。况且，这对精于篆刻之道的朱舜水来说，不过是举手之劳罢了。[29]

据《朱文恭遗事》卷二记载，朱舜水遗留的常用印共有五枚，这五枚印章被收录在了水户德川家“彰考馆”所藏珍贵古籍《舜水先生印谱》中，分别为：（1）朱文长形书斋印“溶霜斋”印、（2）白文“朱之瑜印”、（3）大朱文“朱之瑜印”、（4）朱文“楚玓”印、（5）大白文“楚璵父”印。[30]

令人惊异的是，其中并无我们想象中理应存在的“鲁璵”之印，相反倒有两方本应毁弃的与“楚璵”相关的印（“璵”与“玓”实为同一字）。那么，“楚璵”之印又是否被朱舜水放置不用呢？在水户彰考馆收藏有一副朱舜水视为珍爱，一生携带不弃，也被水户德川家奉为至宝的《小李将军画卷》，所钤的却是（2）白文“朱之瑜印”与（4）朱文“楚玓”两方印章。[31]如果说《小李将军画卷》的钤印时间，或许在德川光圀征召朱舜水之前，故有“楚玓”之印也不为怪。那么，彰考馆所藏另一幅据说是朱舜水七十岁前后的画像，在上部的“诗堂”处除朱舜水亲笔题诗外，也钤有上述的（1）“溶霜斋”、（2）白文“朱之瑜印”与（4）朱文“楚玓”三方印章。[32]而在西泠印社2015春季拍卖会上，还出现过一幅日本明治时期著名收藏家江马天江所藏的《舜水朱子天地君亲师解真迹》。这幅字的右上方所钤为（1）“溶霜斋”印，左下方款识“明舜水朱之瑜撰并书”，之下则钤盖了（3）大朱文“朱之瑜印”和（5）大白文“楚璵父”印两枚印章。[33]

此外，在杨儒宾、吴国豪主编的《朱舜水及其时代》一书中，收录了另外11幅经计文渊先生鉴定为朱舜水真迹的书法作品，其钤印情况见下表：

序号	名称	尺寸	落款	钤印	页码
1	行书五律横幅	32 X 52cm	舜水朱之瑜	（2）（4）	14
2	行书立轴（梅寒秀）	129 X 29cm	舜水朱道人	（3）（5）	15
3	行书张子房赞卷	28 X 190cm	舜水朱之瑜	（1）（2）（4）	16
4	行楷古诗七首册页	28 X 516cm	舜水朱之瑜	（2）（4）	17
5	草书七律横幅	30 X 54cm	古越朱之瑜	（1）（2）（4）	18
6	草书七律横幅	28 X 53cm	舜水朱之瑜	无	19

28)（明）朱舜水著、朱谦之整理：《朱舜水集》卷七，《书简四・与安东守约书二十五首・十一》，北京：中华书局，1981年，第161页。

29) 事实上，据清代叶为铭所作《广印人传》记述，朱舜水“通毛诗，精篆刻”。余姚书画院的计文渊先生也认为朱舜水的“自用篆刻印”，当为其自己所刻。参见计文渊：《论朱舜水书法》，载杨儒宾、吴国豪主编：《朱舜水及其时代》，台北：台湾大学出版中心，2010年，第12页。

30)［日］德川真木监修、徐兴庆主编：《日本德川博物馆藏品录Ⅰ・朱舜水文献释解》，计文渊解读：《朱舜水印谱》，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3年，第124页。另，“楚璵父”中的“父”并非指“父亲”而言，乃是“老人”的一种指代。

31)［日］德川真木监修、徐兴庆主编：《日本德川博物馆藏品录Ⅰ・ 朱舜水文献释解》，计文渊解读：《<小李将军画卷>并题跋（朱舜水旧藏）》，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3年，第119页

32)［日］德川真木监修、徐兴庆主编：《日本德川博物馆藏品录Ⅰ・ 朱舜水文献释解》，计文渊解读：《朱舜水画像并诗题》，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3年，第128页。

33) 参见西泠印社拍卖有限公司网页： http://pmgs.kongfz.com/detail/49_618691/。

7	行书一行书立轴	125 X 45.5cm	朱之瑜	（2）（4）	20
8	行书七律立轴（优游静坐野僧家）	39.6 X 54.2cm	古越朱之瑜	（1）（3）（5）	21
9	行书七律立轴（入得山来便学呆）	39.6 X 54.2cm	古越朱之瑜	（1）（3）（5）	22
10	行书庄说横幅	27 X 52cm	舜水朱之瑜	（1）（2）（4）	23
11	楷书尺牍	不详	之瑜顿首	（2）	24
资料来源：杨儒宾、吴国豪主编《朱舜水及其时代》，台北：台湾大学出版中心，2010年。					

这11幅书法作品均未见有类似于“鲁璵”的印章，相反却几乎都钤盖了“楚璵（楚玙）”之印，其中多数作品应该是作于他与德川光圀会面之后。此时的朱舜水早已自言其“字”为“鲁璵”而非“楚璵”，为什么还要钤盖“楚璵（楚玙）”之“错章”呢？

当然，我们也不能排除这样一种可能性的存在：这些印或许在当时并未钤盖，而是在朱舜水去世后被他人后盖上去的。尽管按照中国传统绘画规则，这种可能性极小。但即便是如此，仍有一些令人难解之处：

首先，这两枚被朱舜水视为“错讹”，甚至可能给他带来不必要“麻烦”的“楚璵”之印，为何又被他保留收藏下来，至死不弃呢？

其次，若这些印是朱舜水身后为他人所盖，那么能够接触到这些印的大概只有水户德川家的人和舜水先生之弟子们，为什么德川光圀等人对这种明显的“错误”视而不见呢？难道是他们不识“楚璵”二字吗？还是他们对“楚璵”“鲁璵”问题背后的隐衷有了更为深入的理解呢？

对于这些疑问，恐怕现在我们还难以给出准确的解答。但有一点可以肯定的是，所谓“楚璵”的“错章”，在朱舜水的一生中一直沿用未改。恐怕在朱舜水的内心深处，对“楚璵”二字还是有着极其难以割舍的情愫吧。

四、结语

对于朱舜水“字”的理解，后人常陷于非“楚璵”则“鲁璵”的漩涡之中。从朱舜水兄弟三人命名取字的逻辑性来看，朱舜水最初预设的“字”可能是“叔璵”。或许是由于家庭变故的原因（父丧兄亡），最后选择了“楚璵”，这主要是源于对家族祖源记忆的一种追溯。流亡日本后，他也还使用“楚璵”之“字”，直至德川光圀征召前夕，才改字为“鲁璵”。之所以改为“鲁璵”的原因，既不是对“鲁之宝玉”的诠释，也不是对自己尊奉“儒道”的特殊表现，更主要的恐怕还是如王进祥先生所云，“盖因感鲁王监国知遇之恩也”。[34] 当然，这其中也不排除他通过感激鲁王恩遇的隐晦表达，彰显自身的“大明遗士”的气节、学识与身份，以引起德川光圀等人关注的意图所在。

不过，朱舜水的改“字”，并不意味着对“楚璵”的彻底摒弃，而是字“鲁”而不废“楚”，至少“楚玙”与“楚璵父”两枚印章的存在，就多少向我们展现出了朱舜水的这种情愫所在。事实上，如果说“鲁璵”代表了朱舜水对故国的深切思念，“楚璵”又何尝不是其“乡愁”的一种寄托呢？这两种情愫在朱舜水的生命中又如何能够切割开来，恐怕只有两者的深切交融才是舜水先生“大明人”身份得以成立的前提。从这一角度来说，朱舜水的“字”既是“鲁璵”也是“楚璵”，至少在他自己的内心深处，应该从未将两者“非此即彼”的对立起来。“楚璵”寄托“乡愁”，“鲁璵”含蕴“国念”，这种“家国之思”不正是舜水先生“思明衷情”的展露吗？

34）王进祥:《朱舜水评传》，台北：台湾商务印书馆，1976年，第3页。

【메 모】

【문학 분과】 발표 ⑩

모옌 소설 특징과 중국 국내외 문학과의 관계*
— 모옌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유소희**

【목 차】

서론
1) 연구동기 2) 연구총론 3) 연구계획
1. 모옌소설의 민간성 특징에 관한 연구
1) 모옌 소설의 민간성특징의 기원과 발전
2) 모옌소설의 대지모친 형상
3) 모옌소설의 긍정적 남성인물형상
4) 모옌소설의 민간영웅형상
2. 모옌소설의 현실 비판주의 특징에 관한 연구
1) 욕망의 형상화와 부패현상에 대한 비판
(1) 모옌소설 속의 성욕 (2) 모옌소설 속의 식욕 (3) 모옌소설 속의 부패현상
2) "식인(吃人)"현상과 "방관자(看客)"사상
(1) 모옌소설의"식인"현상 (2) 모옌소설의"방관자"심리
3. 모옌소설의 마술적 리얼리즘 특징
1) 서양의 마술적 리얼리즘의 기원과 특징
2) 모옌의 중국특색 마술적 리얼리즘
4. 모옌소설의 언어와 구조적 특징
1) 모옌소설의 언어적 특징
2) 모옌소설의 구조적 특징
5. 모옌소설과 중국 국내외 문학과의 관계
1) 중국문학의 모옌소설에 대한 영향
(1) 중국고전소설의 모옌 소설에 대한 영향
(2) 중국현대문학의 모옌에 대한 영향
(3) 중국당대문학의 모옌소설에 대한 영향
2) 서양 문학의 모옌소설에 대한 영향
(1) 윌리엄 포크너의 모옌 소설에 대한 영향
(2)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모옌 소설에 대한 영향
(3) 프란츠 카프카의 모옌소설에 대한 영향
결론

근래의 중국 문단은 전통문화에 대한 재발견과 이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급변해온 중국 현·당대 역사 속에 민중 농민의 현실을 소설 속에 담은 모옌(莫言)은 중국적 '마술적 리얼리즘(魔幻现实主义;Magic Realism)'을 소설 속에 담았다는 것이 높이 평가되어 201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모옌의 노벨문학상 수상 5주년을 맞이하여 2017년에 浙江文艺出版社에서 모옌소설의 새로운 판본이 나오기도 하였다. 수상 초기에 중국내부에서는 수많은 작가들 중 모옌이 수상했는가에 대한 일부의 논란들이 있었다. 오리엔탈

* 复旦大学 文学博士 毕业论文 (『莫言小说特征与中外文学的关系 — 以莫言长篇小说为中心』)
** 이화여자대학교

리즘적 시각에서 서양에서 판단하기에 모옌의 소설이 매력적이었을 것이라는 비판과 그의 정치적 입장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옌 소설에 반영된 중국 민담과 전설 등 전통적인 문화의 창조적인 재탄생이라는데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모옌 작품 속에 담겨있는 부패한 사회 세력들에 대한 비판성과 일반 민중에 대한 애정은 그의 작품을 돋보이게 하였고 이로 인해 본 논문에서 모옌을 통해 중국 당대 소설을 연구하게 되었다.

모옌이 모옌의 마술적 리얼리즘은 본인이 강연 중에 이야기했듯, 어릴 적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본인의 소설도 자신이 자란 농촌 마을 까오미 동북향(高密东北向) [1]에서 전해오던 이야기에 상상력을 가미하여 창작하였다. 중국 근현대사의 일반 민중들이 주인공이지만 중국 전통의 신화적 요소, 영웅적 이야기, 불교 윤회 사상 등이 담겨있는 모옌 소설은 중국 문단의 전통 재발견 분위기를 대표할 만한 작가이다. 또한 1980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서구 소설들이 유입되면서 모옌의 글에서 밝혔듯, 마르케스(GabrielGarcía Márquez),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 프란츠 카프카(Franz Kafuka)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학계에서도 큰 틀에서 모옌 소설이 마르케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소논문들은 있지만 어떠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것이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아 본 논문에서 그러한 의미를 상세하게 되짚어보았다.

모옌의 장편 소설『홍까오량 가족(红高粱家族)』, 『술의 나라(酒国)』,『풍만한 가슴 살찐 엉덩이(丰乳肥臀)』,『인생은 고달파(生死疲劳)』등을 중심으로, 소설 중에 나타난 특징을 민간성 특징, 현실 비판적 특징, 환상적 사실주의 특징, 소설의 언어와 구조적 특징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분석 및 연구해보고 더 나아가 중국 문학과 외국문학이 모옌 문학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1장에서는 모옌 소설에 반영된 민간성의 특징을 소설 속 인물 형상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민간성(民间性)'의 개념은 천쓰허(陈思和)의 『民间的浮尘－－从抗战到"文革"文学史的一个尝试性解释』에서 잘 명시되어 있는데 "민간은 국가와 대립되는 하나의 개념으로 민간문화형상은 국가 권력 중심에서 통제하는 범위의 경계 구역에 있는 문화공간을 가리킨다."고 기술하고 있다. 모옌의 "민간 저작(民间写作)"은 계몽적 관점의 상위에서 "민중을 위해 글을 쓴다(为老百姓而写作)"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소시민으로서 보통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생각을 저작하는 것이다(作为老百姓的创作)" 는 본인의 소설 창작 동기와도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청나라 소설가 포송령의『요재지이(聊斋志異)』, 조설근의 『홍루몽(红楼梦)』과 같은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2]

모옌 소설 작품 속 인물 중 이러한 '민간성'의 정신이 집약적으로 반영된 인물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먼저, "민간성"을 대표하는 인물은 『풍만한 가슴 살찐 엉덩이(丰乳肥臀)』의 자녀들이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휩쓸려 불행을 당하는 속에서도 인내하고 버티는 상관 루씨(上官鲁氏)와 같은 대지모친 형상이다. 모옌의『풍만한 가슴 살찐 엉덩이(丰乳肥臀)』의 서문에서 작고한 모친에게 바치는 글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소설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제목의 선정성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상관 루씨는 일반적인 어머니의 형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녀는 불임인 남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남아선호사상의 희생양이긴 하였지만, 아버지가 다른 자식 9명을 낳았다. 그 9명의 자식들이 급변하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희생되거나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모든 고난을 묵묵히 겪어내며 가뭄과 기근으로 피폐해졌을 때는 노동 동원 중에 삼킨 곡물을 위에서 토해내서라도 자식을 먹여 살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다. 비록 현실 정치 상황을 바꾸어낼 힘은 없지만 모든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대지모친 형상을 통해 '민간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치 한국의 '민초(民草)'와 같은 강인한 생명력을 모옌은 중국 농촌의 평범한 부녀자의 모습을 통해 '민간성'의 개념을 형상화해내었다. 이러한 시도는 '어머니'라는 인류가 지닌 공통의 관념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편성을 지니며, 모옌의 다른 작품『풀먹는 가족 (食草家族) 』에서는 여성에 신화적 요소가 가미되어 표현된다. 둘째, '민간성'이 잘 드러난 남성 인물 형상으로는 대표적으로『인생은 고달파(生死疲劳)』에서 토지 개혁으로 국유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직하게 자작농의 근면함을 보여준 난롄(蓝脸)과 같은 인물 형상이 있다. 셋

1) 모옌이 태어난 곳은 산둥성(山东省) 가오미현(高密县) 허야구(河崖区) 다란향(大栾乡) 핑안춘(平安村)이다.
2) 莫言.文学创作的民间资源.孔范今主编.莫言研究资料[M].山东:山东文艺出版社, 2006:39

째, 모옌이 작품 속에 묘사하는 영웅의 형상은 미성숙한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평범한 민중에서 영웅의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불완전한 존재로 그려진다. 모옌 작품 속 영웅은 고전『삼국지』속 권력의 중심에 있는 황제나 제후도 아니고, 중국 현대 작가를 대표하는 루쉰의 글에서처럼 지식인이나 초인이 아니다. 신분이 낮았거나 거창한 포부가 없었던 범부가 굴곡진 정치적 상황을 겪으며 가족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민중 속에서 키워진 민간영웅이다. 이러한 인물로는『박달나무 형벌(檀香刑)』의 쑨빙(孙丙)이 있다.『술의 나라 (酒国) 』에서는 비범함을 지닌 비늘 소년이 인육 요리로 만들어질 뻔했던 갇혀있는 아이들을 구한다. 이들을 통해 모옌이 생각하는 민간성의 개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모옌 소설의 현실 비판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먼저 모옌 소설 속에 묘사된 인간의 욕망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파생된 부패 현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부의 억압에도 인간 고유의 소유욕이나 식욕, 성욕과 같은 기본적 본능은 지켜져야 하며 소설 속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때로는 해학적으로, 또는 직설적으로 표현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이 지나쳐 권력과 결탁하여 정치적으로 부패한 세력들의 수단화되는 현상을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술의 나라』의 조사관 딩꼬우(丁鈎)가 '홍샤오 아이 요리(红烧婴儿)'에 관한 지방 정부의 부패를 조사하러 갔다가 성욕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유혹에 빠져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모옌은 이러한 현실 비판적인 표현을 통하여 현대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2장의 2절에서는 모옌 소설에서는 중국 현대의 대표적인 작가 루쉰(鲁迅)의 현실 비판적인 관점인 '식인(吃人)'현상과 '방관자(看客) 심리'가 당대의 모옌 소설 작품에서는 어떻게 변용되어 묘사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먼저, 모옌 소설 속 '식인(吃人)'현상은『술의 나라 (酒国) 』와 『열세걸음 (十三步) 』에서 묘사되고 있다. 1918년 발표된 루쉰 소설 『광인일기(狂人日记)』에서 묘사된 '식인(吃人)' 사회는 부패된 황권(皇权)이 지배하고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을 침략하던 청 말에 주체적 시민 의식을 갖지 못했던 군중들 속에서 먼저 계몽된 선각자가 현실을 바꾸어 보려 해도 오히려 '광인(狂人)'으로 취급받고 좌절하는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식인(吃人)'현상이 2003년 발표된 모옌의『열세걸음 (十三步) 』에서 다른 관점에서 형상화되었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개혁개방 초기 1980년대이고, 주인공 중학교 물리 교사 팡푸구이(方富贵)는 지식인이지만 경제적으로 곤궁하다. 어느 날 수업 중 일시적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깨어났지만, 이미 그는 죽은 사람이 되어있었고 그의 죽음은 사회에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지식인 처우 개선의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되었다. 이미 팡푸구이(方富贵)의 죽음은 숭고한 것으로 포장되어 지식인 동료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비록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다른 교사 장츠추(张赤球)의 이름을 빌려 그의 모습으로 성형하여 다시 강단에 선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잃고 다른 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모옌은 이 작품을 통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삶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오늘 날의 '식인(吃人)'사회를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중국판 프란츠 카프카의『변신(The Metamorphosis)』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5장 2절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였다. 한편, 1993년에 발표된『술의 나라 (酒国) 』에서는 '식인(吃人) '현상을 '홍샤오 아기 요리(红烧婴儿)'라는 과장된 상징을 통해 당시 중국의 지방 정부 관료들의 부패상을 지적하였다. 구매처 직원에서 돈을 받고 아이를 상품처럼 파는 부모, 식욕을 채우기 위해 부패한 관료들이 아이의 형상을 한 요리를 먹는 행위는 그들의 부패함이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희생을 초래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장에서는 모옌 소설의 '마술적 리얼리즘(魔幻现实主义)'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서양의 마술적 리얼리즘의 기원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절에서 모옌 소설에서 새롭게 재해석해낸 중국적인 '마술적 리얼리즘(魔幻现实主义)'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20세기 초에 대두된 '마술적 리얼리즘(魔幻现实主义)'는 90년대 이후 다시 문단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제3세계인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초현실주의, 상징주의, 의식류 등의 수법으로 암울했던 역사적 현실을 서술하였고 제국주의 침략의 압박에 저항할 희망을 담고 있는데 대표작으로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One Hundred Years of Solitude』이 있다. 특히 모옌은 1984년 방대한 독서를 통해 미국 작가 포크너의 『음향과 분노 The Sound and the Fury』에서 많은 영향을 받긴 했지만 중국 특색의 '마술적 리얼리즘(魔幻现实主义)'을 창작해내었는데 대표적인 작품이『인생은 고달파(生死疲劳)』이다. 불교의 윤회(轮回) 사상에 기반하여 지주 계급이였던 시먼나오(西门闹)가 토지 개혁과정에서 억울

한 죽음을 당하고 짐승으로 환생하는 이야기를 1950년 이후 급변했던 중국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일반 민중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또 다른 작품『풀먹는 가족(食草家族)』에서는 중국의 신화적 요소에서 착안하여 물갈퀴가 있는 조상의 형상으로 근친혼에 대해 표현하기도 하고, 중국 고전 소설에 흔히 차용되었던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서술의 시간적 순서를 파괴하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4장에서는 모옌 소설의 언어와 구조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모옌은 『박달나무 형벌(檀香刑)』의 특정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猫腔' 이라는 중국 전통극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희극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장면은 쑨빙(孙丙)이 猫腔으로 강창을 주고받는 부분이다. 희곡적 요소를 극대화하며 압운(押韵)이 있는 강창의 어조가 반복되며 점점 고조되어 쑨빙(孙丙)의 희생을 극대화한다. 한편, 모옌은 소설 화자의 설정에 있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청년 화자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회상의 과정에서 언어적 측면에서 쉬운 구어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 또한 소시민으로서 보통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생각을 저작한다(作为老百姓的创作)"는 본인의 소설 창작 동기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농촌에서 나고 자란 경험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 까오미 동베이향에서 전해오던 이야기와 전설에 상상력을 가미하여 구어체의 문장으로 풀어냄으로써 모옌 고유의 중국적인 '마술적 리얼리즘' 서술 공간을 창작해낼 수 있었다. 회상을 통한 소년 화자의 설정은 내용적 측면에서 과거의 기억에 비현실적 상상력이 더해져 황당하면서도 어린이의 천진함과 익살스러움이 가미되어 '마술적 리얼리즘'을 자연스럽게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십일포(四十一炮)』의 뤄샤오통(罗小通)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끊임없이 쏟아내는 과거의 이야기가 그러하다. 비록 罗小通이 본인의 어머니가 고기 가공 공장의 란씨와 정분이나 이를 알게 된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참담한 이야기를 서술하면서도 罗小通의 문체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가 복수를 위해 하늘에 쏘아올렸다는 포탄은 사실인지 상상인지 불분명한 분위기를 풍긴다. 모옌이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야기했듯, 삭막한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장에 대한 심리적 동기가 차단된 뤄샤오통이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끝없이 이야기하며 자아를 잃지 않으려는 자기 위로를 하는데 이는 작가 모옌의 과거 자아의 한 모습이기도 했다. 2절에서는 모옌 소설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작품 속에서 창작 의도에 따라 신화 사유 구조, 고전소설의 风头-猪肚-豹尾구조, 장회체 (章回体) , 서신체(书信体)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분위기 형성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모옌 소설이 중국 국내 문학과 해외 문학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그 수용 과정에서 모옌의 창작 특색이 드러나게 해석해낸 것을 모옌 소설 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그 의의를 되짚어 보았다. 5장의 1절에서는 중국문학의 모옌 소설에 대한 영향을 중국 고전소설, 현대문학, 당대문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고전문학에서 내용적으로도 모옌 작품의 마술적 리얼리즘 특징이 중국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던 신기하고 신화적인 이야기, 불교의 윤회사상이 반영된 사람이 동물로 환생하는 이야기 등의 영향을 받았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구조적으로도 중국 고전 소설에서 장회체 형식을 가져오고 그 외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중국 현대소설에서는 루쉰(鲁迅)과 션총원(沈从文)의 영향을 주로 살펴보았다. 루쉰의 『광인일기(狂人日记)』에서는 광인이 '인의도덕'의 봉건 예교가 '사람을 잡아먹는(吃人)' 이데올로기임을 고발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모옌 소설『술의 나라』에서 부패한 세력이 아이 형상의 요리를 먹는 형상이나 『열세걸음』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팡푸구이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그리고 루쉰의『아Q정전(啊Q正传)』에서 아Q가 자오 나리 댁의 강도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어 사형수로서 형장에 끌려가는 장면에서 구경꾼들의 무시무시한 눈길에 영혼을 물어뜯기는 듯한 장면이 모옌의 작품『박달나무 형벌』에서는 다르게 형상화 되었다. 자오자(赵甲)는 형부(刑部)에서 일하는 망나니이고 국가를 대신해서 형을 집행한다는 사명감과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집행하는 잔인한 형벌은 부패한 황권(皇权)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본보기이다. 모옌 소설의 구경꾼(看客)들 중 일부는 루쉰 소설에서처럼 무감각(麻木)하게만 묘사되지 않고 변화하고 깨어있기도 하다. 쑨빙의 형이 집행되고 있을 때 극단의 단원들이 주고받는 곡조(마오창; 猫腔) 의 내용과 장면이 이러한 저항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저항의 민중정신을 행동으로 옮겼다. 한편, 모옌은 션총원(沈从文)의『변성(边城)』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션총원은 도시 근대문명과 인위적인 금지에 의해 인간의 본성이 상실되는 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934년 발표한『변성(边城)』에서 원시적인 자연미를 가진 향촌을 배경으로 순박한

마음을 지닌 취취와 뉘송의 이야기를 전개했다. 모옌은 비록 과장된 수법으로 야성적인 인간의 본성을 그린다는 점에서 션총원과 표현 방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권력에 의해 수단화되지 않은 인간의 성욕, 식욕, 소유욕 등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션총원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풀먹는가족』에서 도시에서 편히 배설하지 못하고 풀을 먹는 행위로 영혼을 정화하였던 농촌 조상들을 떠올리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고향으로부터 치유 받으려는 션총원과 유사한 점이 보인다.

당대문학에서는 그가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하게 된 요인에는 성장과정에서 농촌에서 겪었던 경험들과 중국 전통 소설을 읽으며 받았던 영향이 크며 문혁 이후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나갔음을 살펴보았다. 급작스럽게 개혁 개방된 80년대 초기 중국 문단에서 서방 소설 기법을 모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작품들이 탄생하였으며 위화(余华)는 모옌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에 대한 '식인(吃人)'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낯설게하기 기법(陌生化理论 ; defamiliarization)'과 같은 다양한 문학적 시도를 함께 하였다. 작가 쑤퉁(苏童)의『나의 단풍나무 고향으로 날아가다(飞越我的枫杨树故乡)』, 왕안이(王安忆)의 『장한가(长恨歌)』가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형상화한 번화한 도시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이 모옌의 『풀먹는 가족(食草家族) 』에서도 도시에서 시원하게 배변하지 못하는 주인공을 통해 그려진다. 물갈퀴가 달린 조상들을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조우하고 활발한 배변활동을 위해 풀을 먹었던 조상을 떠올리는 장면을 통해 도시인의 상상 속 고향에 대한 향수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모옌은 이처럼 동시대 작가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까오미 동북향(高密东北乡)을 배경으로 한 향토적 마술적 리얼리즘 작품을 발표하며 독창적 문학세계를 개척해나갔다.

5장의 2절에서는 서양문학의 윌리엄 포크너, 마르케스, 카프카 세 작가의 소설이 모옌소설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옌은 이러한 소설에서 알게 된 문학 기법을 중국 전통 문학 요소를 기반으로 창조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반영하였는데 포크너의 소설 『음향과 분노』의 창조된 배경인 미시시피의 요크너 퍼토퍼 카운티(Yoknapatawpha County)는 모옌에게 까오미 동북향(高密东北乡)을 문학 창작의 기반으로 삼는 것에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 미국 남북 전쟁후 남부 몰락한 지주 콤프슨 집안의 주인공 벤자민 콤프슨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청각을 통해 큰형 퀜틴, 여동생 캔디스의 대화를 연상하고 물건 냄새나 색채를 통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이 전개된다. 한편, 마르케스는 『백년의 고독』에서 『성경(圣经)』을 참고하여 가상으로 만들어낸 콜롬비아 시골 마을 마콘도를 중심으로 '마술적 사실주의' 색채의 대하소설을 저작하였다. 모옌은 중국전통문학의 배경 하에 『백년의 고독』의 영향을 받아 중국적인 마술적 리얼리즘을 작품화하였다. 그리고 카프카 『변신』의 영향을 받아 『열세걸음(十三步)』에서 죽지 않았으나 지식인 집단의 열악한 처우를 대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의 삶을 그렸다. 이를 통해 집단을 위해 희생된 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중국 국내외 문학이 모옌 소설에 끼친 영향을 통해 모옌 소설 특징과 중국 국내외 문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모옌 소설의 민간성 특징은 모옌이 어린 시절 농촌에서 성장한 배경과 관련 있으며, 중국 문단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사조의 발전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둘째, 모옌 소설의 현실 비판적 특징은 서구 리얼리즘에서 영향을 받았고 중국 현대 작가 루쉰의 비판 정신과 중국 고전 소설의 현실 풍자적인 면모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셋째, 모옌 소설의 마술적 리얼리즘특징은 중국 신화적 요소와 고전 소설로부터 영향을 받아 윤회, 꿈, 변형 등을 통해 환상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서구의 마르케스와 포크너의 영향을 받아 의식적 흐름이라는 서술 기법과 소설 공간의 설정에 있어 영향을 받았다. 넷째, 모옌 소설의 언어 구조적 특징으로는 중국 전통적인 희극이나 강창 문학의 영향을 받아 이를 문학 작품에 활용하였고 구조적으로도 장회체(章回体)를 차용하였다.

모옌 소설 특징을 살펴보고 모옌이 창작과정에서 중국소설 및 해외 소설로부터 받은 영향을 기반으로 모옌 고유의 문학 세계를 재창조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1980년대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당대의 대표 작가 모옌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모옌이 중국 전통문학을 기반으로 서양 문학을 수용하는 창조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고, 오늘날 중국의 당대 문단을 세계인들이 이해하는데 있어 모옌 소설은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中文摘要】

《红高粱家族》、《丰乳肥臀》、《生死疲劳》、《蛙》、《檀香刑》等长篇小说为中心，对莫言小说中体现出来的民间性特征、批判现实主义特征、魔幻现实主义特征、小说语言结构特征进行了具体分析。首先，通过研究获得诺贝尔文学奖的莫言小说，来分析莫言小说的这四大特征，具有重大意义。第一，通过研究莫言小说中的人物形象和民间性的关系，来进一步说明和解释“民间性”的概念和重要性。莫言小说的“民间性”特征主要从大地母亲形象、正面男性形象以及民间英雄形象三个方面来进行分析和讨论。

莫言小说中的民间性特征说明莫言小说扎根于民间，扎根于中国广大老百姓，以一个老百姓的视角去观察周围的世界。这种“作为老百姓”的写作方式，深受大众喜爱，这也是莫言能够立足于中国文坛甚至世界文坛的重要原因。第二，讲述莫言小说的批判现实主义特征，通过具体分析莫言小说中欲望、腐败现象以及看客主义和“吃人”现象等否定性现象，来表达莫言希望通过这种批判来改变社会现状的心情。欲望和腐败现象主要从莫言小说中的性欲、食欲以及官僚主义腐败三个方面来进行分析；“吃人”现象主要从莫言小说《檀香刑》、《酒国》、《丰乳肥臀》中封建皇权压迫、政府腐败以及食欲性欲之间的关系来进行分析讨论；看客主义则以《檀香刑》为中心具体分析莫言小说中看客们的心理。第三，通过研究西方魔幻现实主义的起源和发展，进一步莫言小说中的中国特色魔幻现实主义特征。首先阐述西方魔幻现实主义的来源与发展过程，其次阐述中国特色魔幻现实主义中所具有的佛教、神话等中国元素，来具体分析中国特色魔幻现实主义与西方魔幻现实主义的关系。第四，具体分析莫言小说的语言风格以及结构特征。语言风格方面，莫言小说深受中国传统戏曲语言以及民间口语的影响，莫言的很多小说都可以看到中国古典文学以及传统戏曲的影子，比如《檀香刑》中的猫腔；莫言小说中运用了大量民间口语，这与莫言的农村背景不无关系。在小说结构方面，莫言一方面受到中国东西方神话影响，开始采用神话思维结构的创作方式；另一方面，莫言受到中国古典小说的影响开始采用凤头-猪肚-豹尾的结构以及章回体的结构方式进行探索和创作。其次，通过对国内文学和国外文学的分析，研究国内外文学对莫言小说的影响，并且具体分析莫言小说特征和国内外文学的关系。影响莫言小说的国内文学主要体现为中国古典小说，现代文学以及当代文学三个方面。中国古典小说对莫言的影响主要体现在《三国演义》、《西游记》等章回体小说上，无论是内容上还是语言结构方式上对莫言影响都很大， 内容上《西游记》、《聊斋志异》等古典小说中的神话色彩、佛教轮回思想以及动物异化现象以及结构上采用的章回体、凤头-猪肚-豹尾格式对莫言对产生了一定的启发；现代文学对莫言的影响主要集中在鲁迅小说和沈从文小说上，鲁迅小说中的“吃人”和看客主义、沈从文小说中的乡村背景、恢复人性愿景都对莫言产生了一定影响，并将鲁迅小说对莫言的影响以及沈从文小说对莫言的影响进行了对比分析；而当代文学对莫言的影响主要集中体现在红色经典、八十年代文学以及九十年代网络文学三个方面：早期的红色经典如《苦菜花》、《林海雪原》等对莫言产生的影响， 改革开放八十年代的中国文坛相继出现的“伤痕文学”、“寻根文学”以及“中国现代主义文学”特别是以余华、苏童、王安忆为代表的作家对莫言产生的影响，因为信息共享而缺乏创新力而受到广泛批评的九十年代网络文学对莫言所产生的影响。但是不论如何，莫言在坚持中国传统文学的同时也借鉴了西方文学经验，并不断进行探索和创新。另一方面，影响莫言小说的国外文学主要体现在福克纳《喧哗与骚动》，马尔克斯《百年孤独》以及卡夫卡《变形记》三个方面上。福克纳对莫言的影响主要集中体现在以自己的故乡为背景进行描述的“约克纳帕塔法世系”以及意识流打乱时空顺序的创作手法上；马尔克斯对莫言的影响主要集中在魔幻现实主义手法的应用上，并具体分析东方魔幻现实主义和西方魔幻现实主义的关系；卡夫卡对莫言的影响主要集中在荒诞的写作技巧上，主要从马克思主义异化观和“陌生化理论”两个方面进行分析和讨论。总体上来说，国外文学对莫言小说的影响集中体现在魔幻现实主义的写作方式上，莫言在国内文学的基础上，形成了具有中国特色的魔幻现实主义。

综上所述，莫言小说的民间性和批判现实主义特征、魔幻现实主义特征以及语言结构特征与国内外文学之间有着密切联系。

【어학 분과】 발표 ①

An Error Analysis on Summary Writing of Chinese English Learners

여정화* · 김주현**

1. Background

This presentation was designed to address the grammatical errors in EFL students' writing. Because th e researcher found that there were a number of errors in their English composition assignments after rea ding and rewriting summary. The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in an intact conversational class in w hich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mpleted three writing assignments during a semester. Students were asked to write answers in English to three questions they chose in the list of possible interview question s. They were allowed to write as much as they want. An English native speaker instructor mark that ad dressed a student's language errors was classified using error categories proposed by Ferris et al(2002). After students' errors were classified, frequencies of each category were tallied. The findings of the analy sis, stated as frequencies and percentages, were provided. The three biggest error types (such as capitaliz ation and punctuation, articles/determiners, and sentence structure) were then discussed along with some pedagogical suggestion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The development of learner's writing skills in L2 plays a factor in university education and also a highl y problematic area for L2 (Kroll, 1993/ Jordan, 1997). Summarization in which students read texts from th ose texts into their own written products(Segev-Miler, 2004) has been considered an effective tool for the development of both writing and reading skills(Karbalaei and Rajyashree, 2010). There are many gaps bet ween the essay writing and the summary writing as the essay writing is a task along one's conciousnes s flowing and a creative task while summary writing is a writing task after reading literatures. Thus We need to access the summary writing differently. Summary writing starts from reading tasks because this is less creative than that of the essay writing. So L2 learners are affected by the original literature. Are thus there more errors of vocabularies and grammar used in the summary writing than those of the essa y writing? This paper wonders if the errors of the summary writing affect the ability of English and the errors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abilities of English.

2. Questions

1. Which grammatical errors more commonly found in summary writing compared to essay writings?

2. What are the differences in patterns of errors between high and low English proficiency?

* 경성대학교
** 부산대학교

This is a list of the errors in English writing shown the paper of Ferris (2002).

TABLE 2

Description of Error Categories and Codes Used in This Study

Error Type		Code	Description
Morphological Errors			
Verbs	Tense	VT	Include missing or erroneous verb tense markers and modals when they clearly mark tense.
	Subject-verb agreement	SV	Includes error in either noun or verb form leading to Lack of agreement in number.
	Form	VF	Includes errors in formation of the verb phrase not specific to time or tense markings, such as ill-formed passives, conditionals, subjunctives, and misuse of modals, infinitives, and gerunds.
Nouns	Determiners	DET	Includes errors involving unnecessary, missing, or wrong article or determiner.
	Noun endings (Plural/possessive)	N	Includes missing, unnecessary, or ill-formed plural or possessive markers.
Lexical Errors		Code	Description
Word choice		WC	Includes wrong, unclear meaning or words in context, along with verb, auxiliary, modal, and relative pronoun.
Word form		WF	Includes all non-verb related errors in which the word is in the wrong lexical category for the context.
Pronoun error		PR	Includes pronouns that do not agree in number or case with referent or that have no apparent antecedent. Includes only personal pronoun reference.
Syntactic Errors		Code	Description
Sentence structure		SS	Includes missing and unnecessary words, word order, and other hard-to-classify problems related to syntax.
Run-on		RO	Includes run-on sentences and two or more independent clauses with no punctuation or conjunction to separate them.
Fragment		FRAG	Includes dependent clauses standing alone as sentences or clauses missing a subject or ve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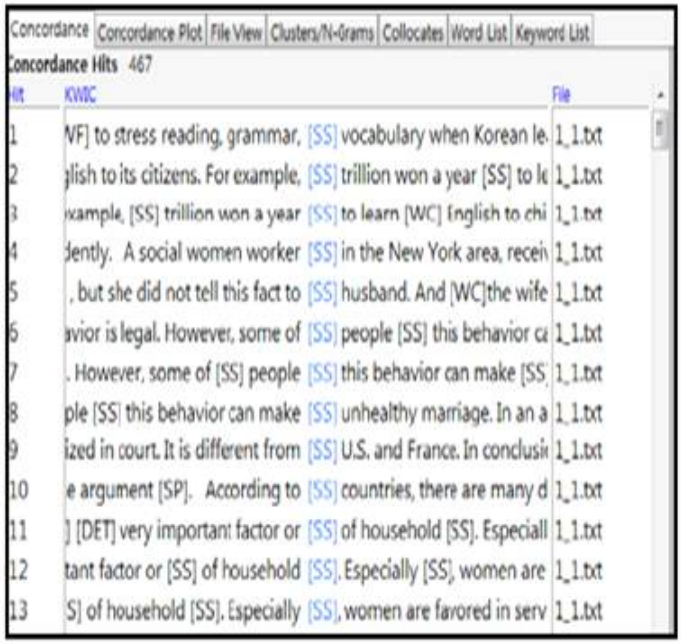
(Adapted from Ferris, 2002)

It classified the verbs, nouns, words, and syntax and showed the item used in the table. We considered the sentence wrong for example it included error in either noun or verb form leading to lack of agreemen t in number.

3. Research Procedure

Research procedure is the following. We classified 80 Chinese students two groups based on their mid term score. We also asked English native speakers to review to find any errors in the questionnaires. Chi nese students were asked to read the 6 articles from text book and write the summary. The tool we use d was *AntConc 3.4.4.*

A Sample Screenshot of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AntConc3.4.4.*



4. Results

The top of the errors is syntax followed the words and next determiners. The syntax had the most errors that showed the order was wrong in the summary writing of Chinese students. The second rank is the word that didn't appear the appropriate meaning. As the second question *The table 2*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ility of English and errors in summary reading. There are the rank of errors item between low proficiency and high proficiency but as the determinars high proficiency had more errors than that of proficiency.

TABLE 3
Overall Frequency of Err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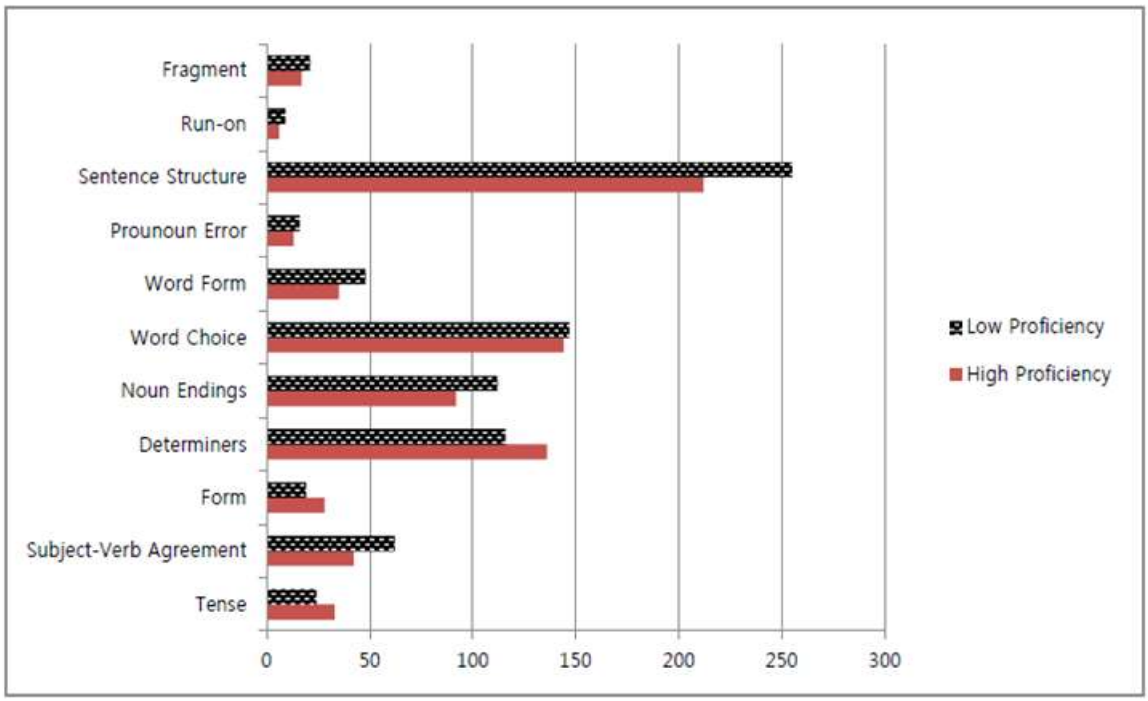
Error Type <Morphological Errors>		Number of Examples	Percentage (%)
Verbs	Tense	57	3.59
	Subject-verb agreement	104	6.55
	Form	47	2.96
	Total	208	13.1
Nouns	Determiners	252	15.88
	Noun endings (Plural/possessive)	204	12.85
	Total	456	28.73

(Continued)

TABLE 3 (Continued)
Overall Frequency of Errors

Error Type	Number of Examples	Percentage (%)
<Lexical Errors>		
Word choice	291	18.34
Word form	83	5.23
Pronoun Error	29	1.83
Total	403	25.39
<Syntactic Errors>		
Sentence structure	467	29.43
Run-on	15	0.95
Fragment	38	2.39
Total	520	32.77

Comparison of Errors between Groups



5. Limitation

There are only 80 students, so it cannot represent most Chinese group. And the age of the participatio n in research was the same. If attender's age had been various, it would have shown the various results. Finally, it should have asked the students to read more articles. We hope it can help the future study im prove.

【어학 분과】 발표 ②

近代日本的语言政策研究述评
— 以保科孝一为中心

洪仁善*

【摘要】在近代日本语言文字改革的风波中，保科孝一是涉入最深、涉时最长的官僚学者，他是论及日本近代语言政策时不可规避的一个人物。故而，中日韩学者在相关研究中都对其提及过。本论文以他为中心，对与近代日本的语言政策相关的先行研究进行概述，继而提出今后的研究课题。

一、导言

江户时期以降，随着国学的兴起，汉字的地位开始受到部分学者质疑，这种倾向在西学东渐和脱亚入欧的时代背景下一触即发。1866年德川幕府的幕臣前岛密掀开了日本文字改革运动之先河,对日本而言汉字是外来的，因此日本的文字改革比拥有原生文字的中国简单。日本一边高喊废除汉字，一边却积极翻译西方书籍，创制出大量的“日本制汉字词”，这些承载着西方文化的词汇继而传至汉字文化圈，引领了亚洲文化。

另一方面，甲午战争后日语却以“国语”的身份粉墨登场，随着对外侵略战争的深入，“国语”逐渐成为对内（在此“对内”表日本国内，“对外”表殖民地）普及标准语和对外同化异民族的手段。令人费解的是，在日本国内被烙上落后标签的汉字在“大东亚共荣圈”中，却以“同文”的身份登场，由此，语言殖民政策充分展现了日本亚洲主义的侵略色彩。

在整个近代语言文字改革的风波中，保科孝一（1872-1955以下简称为保科）是涉入最深、涉时最长的官僚学者。他虽未在学术上做出显赫贡献，然而在决策的制定上却具有举足轻重的地位。探析日本近代语言政策蕴含着对于作为学术基础的“国语学”、作为其实践舞台的“国语教育”、以及作为政治基础的“语言政策”等三个因素的综合考量，此三因素密切关联且均涉及保科。以下将以保科为中心，从日本国内的语言文字问题、近代日本的语言殖民政策、近代日本的日语教育等三个维度，对有关近代日本的语言政策的先行研究进行梳理和述评，继而提出新的研究课题。

二、国内外相关研究现状综述与简评

现将与近代语言政策相密切相关的研究现状简评如下：

日本国内的语言文字问题的相关研究不断深入。

日本在该领域的研究成果甚丰。例如，平井昌夫。（1948）、武部良明（1979）、

野村雅昭（1988）、仓岛长正 (2002)、阿辻哲次 (2010)等，对近代以来日本国语国字问题的历史背景、产生和发展过程做了有益探索，呈现了日本学界对日本近代语言文字问题的基本看法。明治初期日本试图在文字上“脱亚”，但是在引进西方文明时却制造了大量“日本制汉字词”，并且随着侵华战争的深入，汉字的重要性进一步凸显，汉字成为日本不可回避的“他者”。旅日学者陈力卫（2001，2017）、沈国威（2001，2016）对近代以后“日

* 东北师范大学

本制汉字词”进入汉语的日语词汇，对其传入的时期、路径、接受和落实的情况进行了研究，是把握近代日本制汉字词史问题之重要参考（旅日学者的成果在此都归类于日本的研究成果）。

明治初期的日语研究主要聚焦于古典文本的阅读以及诗词创作等实践性研究，并未脱离江户时代之前的传统学问的范畴。同一时期的西方国家的言语研究业已从个体研究步入到一般语言学。随着西方学者和西方语言学的影响日益加深，从明治后期开始，日本的语言学的研究方向开始多元化，直接影响了国家的语言政策。上田万年、保科、藤冈胜二、时枝诚记等海归学者引领了近代日本的语言学界的走向，并对近代日本“国语”的成立和语言政策的制定提供了理论支撑。安田敏朗（2005）、高增名代（2010，2011）、柿木重宜（2017）等，就近代西方语言学对日本语言学界及“国语”成立的影响进行了微观、中观研究。近年来着眼于近代日本的国语成立的人物的研究有，柿木重宜（2017）、山口谣司（2015）等，两位学者对藤冈胜二和上田万年在近代日本的国语的成立中起到的作用与贡献进行了剖析。

1993年至2003年间是日本学者的国语思想研究的兴盛期。如京极兴一（1993）、李妍淑（旅日韩国学者，1996）、安田敏朗（1997、2000）、长志珠绘（1998）、小森阳一（2003）、子安宣邦（2003）等，从“后殖民主义”、“方言认识”、“国家主义”、“国民国家论”、“汉字论”等视角，分析了日语对近代日本的影响、汉字在近代日语中的地位的演变及语言问题背后的日本政府的政治目的，其中可见学者们对近代国语思想的学术反思。

其中涉及保科的研究有李妍淑（1996）和安田敏朗（1999）。李妍淑认为，保科的语言思想建立在具有政策色彩的语言政策之上，并从国家主义和帝国主义两个视角对其进行了论述。安田敏朗在第一章“近代国民国家的形成与方言”的一小节中提及保科，文中以保科的方言观为中心，论述了西方语言学在日本的应用。这两位学者虽然侧重面不同，在论述近代日本的国语思想的时候都涉及到了保科，这些先行研究大大丰富和扩展了日本思想史的研究。

中国学者相关研究如下。陈月娥（2011）对日本的近代国语研究情况进行了简要梳理和评述。齐一民（2013）、黎力（2013）、郝吉祥（2014）等，从社会语言学、历史学的视角，对近代日本言文一致问题、明治以来的汉字问题、语言政策中展现的民族性格等予以揭示。与此同时，韩国学者金彩树（2002）、金宝恩（2002）、项珍毅（2009）、李汉正（2012）等，对近代日语的言文一致及近代化、标准语等问题进行了研究，总得来看微观研究较多，整体研究相对匮乏。

总体看来，西方语言学的引入对近代日本“国语”成立的影响、侵略战争的推进与标准语制定、言文一致运动及废除汉字政策之间的关联等方面均揭示出，语言政策史问题的背后蕴含着极其复杂的社会历史背景和区域关系纠葛，有助于揭示日本亚细亚主义的本质。

（2）近代日本的语言殖民政策研究初具规模。

随着战局的发展，日本国内的语言文字问题，逐渐拓展为对外的语言殖民政策。关于这一领域，日本学者的代表性研究如下，旅日学者石刚（1993）对中国台湾、伪满洲国、大陆占领地的殖民地语言政策进行了实证研究。川村湊（1994）、驹込武（1996）、安田敏朗（1997）等，对日本帝国主义的语言政策的形态和变化进行了综合考查，是对近代日本帝国的意识形态演变的有益探索。

在这一领域内，中国学者的相关研究也颇具规模。武强（1989，1993）、卢鸿德（1995）等，从宏观上对日本侵略东北后所施行的教育进行了历史回顾。齐红深（2002、2005）、宋恩荣，金子侠（2005）、胡晓研（2010）、徐志民（2015）等，对日本侵华教育本质，政策和后果进行了揭露批判，是该领域研究的有益借鉴。聚焦于中国台湾、满洲国、大陆占领地的日本语教育问题的个案研究及比较研究亦不断深化，如徐敏民（1996）、计璧瑞（2004）、杨晓（2004）、马学磊（2009）、都斌（2012）罗仁洙（2015）、包贺喜格图（2016）等。

近期国内学者涉及保科的研究有，包贺喜格图（2016）、陈林俊（2017）等，前者对二十世纪前半期内蒙古地区日语教育史论述时，只是简单提及了保科的殖民教育思想，并没有具体展开，后者的论文以保科为例揭示了近代日本的语言同化观，为在该领域进一步开展研究奠定基础。故而，在论及日本的语言殖民政策问题时中国学者也注意到了保科的影响。

与此同时，韩国学者的微观、中观研究不断深入。李万圭（1947，1949）、李诗勇(2000）、郑在哲(1981）、朴主新（1998）、等，以朝鲜总督所推行的有关殖民政策、殖民地时期的具体学校和教科书为中心，对日本侵略者的教育政策的真实目的和实施过程予以揭示。李忠元（1995）对比了韩国和台湾的语言教育政策之间的异同点，揭

示出语言教育在殖民统治中所起到的作用。朴荣淑（2008）分析了时枝诚记（1900-1967）的“言语过程说”与总督府的语言政策之间的关系，就语言与文字的关系而言，时枝认为，依据语言过程说，文字语言与音声语言应是相互独立的语言过程，并含有不同的价值和功能，两者与不同的语言生活相关联。两者并非随时可以置换，因为它们作用不同，关乎着不同的语言生活，如果在狭小的部落中生活的人，并不想把他的思想和文化传播到别的地区的话，音声语言足以。时枝在制定朝鲜半岛的语言殖民政策中亦反对朝鲜人将自己的母语定为国语。时枝虽然在

朴荣淑以时枝为视觉分析语言殖民政策，研究视觉独特，对研究保科是一个很好的借鉴。金明淑(2015）通过调查1914年1945年间的东德女高的学籍簿的变化，揭示出日帝殖民教育的实况与侵略战争之间的关联。

上述先行研究虽然可观，然而聚焦于保科，剖析日本和欧洲的语言殖民政策的异同点及日本对内和对外的语言政策间的关联方面，尚未可见先行研究。

（3）近代日本的日语教育研究有待开发。近代日本的教育问题与标准语的

普及和语言殖民政策的推行息息相关。对内的标准语教育和对外的语言殖民教育是近代日本的日语教育领域的两个主要课题。随着甲午战争的胜利，上田万年（1895）提出国语和标准语问题，并建议利用标准语统一国语，虽然该建议并非是为了消除方言，但是却给方言扣上了“野蛮”的帽子。随着战局的变化，方言的范围扩大到殖民地，在这样的背景下，保科（1916）提出了方言并非是语言的言论，以普及标准语为目的的日语教育的重要性逐渐引起重视。对此，片村恒雄（1992）认为，战后认可方言后，日语变得更加丰富，基于此，他对战前的标准语教育提出了质疑。

到1930-40年代，明治时期确立下来的语言政策的基本方针开始逐渐渗透到教育之中。布施真由美（2000)，通过1930年以降的保科的文本，通过与同一时代的民俗学者柳田国男的教育论相比较，分析了保科的语言观，并立体解读了其国语教育论，揭示出保科如何具体呼应帝国主义的要求。浮田真弓（2015）提到，保科主编的《国语教育》杂志给国语教师们提供了参考，并指出保科很少被别人提及是因为语言学界有意无视以及国语教育领域轻视历史所致。

有关保科在教育领域的影响的研究一般都集中在对《国语教育》杂志的分析和研究之上，范围比较狭窄，而且研究成果主要集中在日本，如片村恒雄（1991）、仓泽荣吉（1995）等。最近，永田洋史（2017）通过1910年代盛行的直观教学法视角分析了保科的语言教育观，并揭示了国语教育与国语政策之间的关系。上述研究成果虽然较为丰实，然而，文献调查范围尚需进一步扩大，有必要从跨学科视角全面分析和梳理保科对内和对外的语言教育观的异同点及欧洲的语言政策对他的教育观的影响，进而探析其背后的政治逻辑。

三、保科孝一与近代日本的语言政策

1872年保科生于山形県米沢市，在他的伯父宫岛诚一郎家长大，宫岛诚一郎是汉诗人，与历代的中国公使和参赞官有深交，其中与何如璋、黎庶昌关系甚密。他还与明治维新时期的勝海舟、大久保利通、西郷隆盛、三条実美等元老也有亲密接触。

保科1889年考入第一高等学校。第一高等学校建立于1886年，以服务于日本近代国家建设为主旨，培养了一大批精英。近代日本语言学界的上田万年、八杉贞差、新村出、东条操等学者，时任司法大臣的川村竹治、文部大臣松浦镇次郎均是一高出身。日本基督教思想家内村鉴三曾任东京第一高级中学校（简称“一高”）教师，他反对把《教育敕语》神格化。1891年在该校校长捧读天皇《教育敕语》时，内村因为是基督徒，坚持不鞠躬礼拜。这是因为，他认为敕语属于偶像，基督徒只能礼拜上帝。同事的劝说以及学生的恳求都没有令他改变想法。后来，5位学生代表访问了内村的家，与其面对面地进行了交流，但仍旧无果。他的行为被视为“大不敬事件”，1892年被解除职务，“大不敬事件”发生时保科正好是在校生。

保科的回忆录[1)]中写道，因为解除职务后就与一高没有关系，他们就无计可施，所以五个人就在内村家的玄关的榻榻米上小便，他们认为对这种“非国民”没有必要表敬意。保科认为，这个行为是一高魂魄的真实写照。一高

1)保科，『ある国語学者の回想』，朝日新聞社，1952年，p.9。

魂魄极其天真无邪，学生们的行为看似有点粗暴，却没有一点让人厌恶之处。字里行间中充满着为民除害的豪迈气息和强烈的民族主义情绪。

第一高等学校的毕业生大部分考入东京大学。1894年保科也顺利考入东京大学，上学期间他接触了刚从欧洲归国的近代语言学之父上田万年。对上田回国后在东京帝国大学授课情况，保科就当时的上田的课程提到，上田让学生们第一次认清了国语学的研究方向，让他们感受到一丝曙光。上田对保科起到了启蒙作用，并对他的日后的人生起到了至关重要的作用。1897年7月毕业后保科就在刚成立不久的大学的“国语研究室”当了助教，负责研究室的整理工作。当时正值甲午战争之后，日本的民族情绪高涨，国语国字问题成为热议对象，但是当时的保科对国语国字问题还不太感兴趣。1897年9月在东大的会议室，加藤弘之、井上哲次郎、嘉纳治五郎等学者们进行了讲演。这个讲演成为保科从事国语国字问题的契机。1898年保科与藤冈胜二、冈田正美一起留在文部省图书课，直至1947年，近50年间一直从事国语政策的制定工作。

1895年“标准语”被上田万年提出之后，保科积极呼应国家政策，调查了方言的实况，1897年和1898年发表了关于方言的系列论文。他试图通过方言的调查，对“标准语”进行理论上的正当化。为推进日本的语言学研究，同年上田万年与弟子们创立了“语言学会”，1900年2月创刊了《语言学杂志》，这是第一部语言学专门杂志。与藤岗同一时期的保科积极参与到推广西方语言学的队伍中，《语言学杂志》介绍语言学领域的同时发表了系列有关八丈岛的方言问题，并陆续出版了《言语发达论》、《言语学大意》、《国语学小史》、《语言学讲话》《国语学精义》等多篇著作，在促进近代日本语言学的发展方面，保科的功绩不可磨灭。

在国语政策方面，当时的文部省时刻关注欧洲，认为日本的语言文字改革也迫在眉睫。1902年4月文部省发布了国语调查委员会管制，开始着手国语调查工作，保科担任了辅助委员。并在7月发表了四个调查方针：“第一，采用表音文字，调查假名和罗马字等改革议案的优缺点。第二，强化并努力推行国语的言文一致。第三，调查国语的音韵问题。第四，调查方言，然后选定标准语。”

调查方针主要涉及语言和文字问题，对此保科认为“国语问题主要跟国语教育密切关联，因此应想方设法以最有效的方式去解决该问题，但是国字问题，有时带有政治色彩。”[2]。日本的文字涉及来自中国的汉字，并且修订假名使用和汉字使用方案受到来自右翼和一些学者的强烈反对，因此对日本来说也属于政治范畴，语言问题随着侵略战争的推进，也逐渐成为了政治问题。

隶属于语言范畴的方言，自1895年上田万年提出《关于标准语》以来，也成为被调查对象，如上所述保科也发表了不少关于方言的文章，“他虽然接受美国语言学家的惠特尼的方言论，但他还是站在国语教育者的立场，主张消除方言”[3]。1904年国语调查委员会编辑了《方言采集簿》，其实这是保科的劳作。

1911年7月到1913年12月间，保科去欧洲留学，其目的就是研究国语国字问题，并收集相关资料。根据文部省的内部规定，国语学、汉文学、国史学专业人士不具备派遣资格。但是，保科因调查国语问题的工作得到认可，被特例派出留学。保科此行的还有一个任务就是受到朝鲜总督府的嘱托，调查欧洲的政治视野下的国语问题，特别是有关国语政策的问题，这一嘱托更加激起了他对该问题的兴趣。

回国后保科活跃于国语问题的各领域，1916年他创刊了《国语教育》杂志，该杂志起初没有被人们看好，但是发刊后受到好评，但是如保科所说:“1931年的满洲事变以来，军国主义和超国家主义的思想开始蔓延，不久发生日华事变，民心开始动摇，对于国语教育的研究也渐渐怠慢，特别是言论自由被剥夺。”[4]，因为当时日本政府规定一律禁止对国定教科书加以批判，该杂志最终持续到1940年不得不废刊。除此之外，1921年8月到1944年5月的23年间，保科编辑了国语教科书，深入投入到国语教育的现场，因此他能够比较国语政策与教育现场之间的关联。1930年在保科的努力下国语协会得以成立，《国语运动》杂志得以发刊。

除此之外，在文字问题上，保科一直致力于日语的表音式假名的使用和投身于废除汉字、实现言文一致的运动之中，如1931年的《常用汉字表》、《假名使用改订案》，1942年的《标准汉字表》，为改革日本文字他做了不少努力，但是事与愿违，他的种种努力未能成功。其人也是继上田之后，日本近代的国语政策的主要谋划者。

虽然保科在他的伯父家里接触到了不少高官，因保科经常端茶倒水，所以对政治领域耳濡目染。在工作单位接

2) 保科，『ある国語学者の回想』，朝日新聞社，1952年，p.9。
3) 高增名代，「保科による方言排斥の理由説明」，『大阪千代田短期大学紀要』，2012，p.22。
4) 保科，『国語教育の回顧と展望（一）』，『国語教育講座』，第11卷，刀江書院，p.35。

触大臣、次长；在社交方面作为日本俱乐部[5]的会员接触到很多政界和商界的人士，但是他一直担任干事，始终没有成为负责人。对此白石大二[6]认为，正因为这样，保科才能够一直坚持国语政策的制定工作。

以保科为切入点，有必要对日本近代化与殖民化过程中的语言文字政策进行全面研究。日本近代语言政策蕴含着对于作为学术基础的“国语学”、作为其实践舞台的“国语教育”、以及作为政治基础的“语言政策”等三个因素的综合考量。此三因素密切关联且均涉及保科。然而，迄今为止，虽有学者提及保科，尚无以他为切入点，综合考虑上述三个因素，对决定近代日本的语言政策的内外政治逻辑进行全面、详实的专论、专著问世。

四、近代日本的语言政策的研究意义与今后的课题

2013年习近平主席提出了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构想，2014年“一带一路”战略正式成为中国内政外交的指导思想，语言政策是“一带一路”倡议实施中一项非常具体的工作，以史为鉴，语言能力是国家的软实力。深入了解和研究日本语言政策，对搭建合作平台，畅通语言丝绸之路，促进中日合作有着重要意义。

在西学东渐的背景下，日本不仅向西方学习先进的科学技术，语言政策领域也一直备受关注，并向欧洲派去了不少语言学家，这些学者对近代日本的语言政策起到了举无轻重的作用，他们直接影响了近代日本语言政策的走向。这些学者在学术上有一定建树，又参与到国家政策当中，他们的学术研究是为本国的利益服务，有必要对他们的学术成果进行深入研究，剖析学术研究与国语政策背后的政治目的间的关联。虽然保科称上田万年为官僚学者，其实他也是典型的官僚学者。通过梳理和研究保科，可以深入了解近代日本的语言政策。

研究近代日本的语言政策对研究中国问题也有现实意义。一方面，近代语境下日本的语言政策影响了中国，中国的“国语”、“普通话”[7]等名称都来自日本，

宋恕、吴汝纶等人还曾到日本进行过考查，吴汝纶回国后介绍了日本在语言政策方面情况，宋恕提出了“须造切音文字”的主张，不少留日学者受日本的影响，提出了不少改革方案。

因此近代日本的语言政策研究对于中国语言文字问题研究或可起到一定的殷鉴与启示意义，进而对我国制定和实施“一带一路”的语言战略提供参考。另一方面，近代日本把语言政策作为重要的国策推出，是实行侵略战争的重要手段，但是事到如今在侵略战争的定位上，日本一些做法引发中韩等受害国的强烈不满，以保科为切入点的研究将成为揭发侵略本质的又一佐证。

【参考文献】

1) 上田万年，《国語のため》，東京:富山房,1895。
2) 保科孝一，《国語問題五十年》，東京:三養書房,1895。
3) 金澤庄三郎，《日韓両国語同系論》，東京:三省堂書店，1910。
4) 時枝誠記，《国語学原論》，東京:岩波書店，1941。
5) 八杉貞利、和久利誓一編，《新懸居雑記》，東京:吾妻書房，1970。
6) 井口有一，《明治以来の漢字政策》，東京:日本学術振興会，1982。
7) 駒込武，《植民地帝国日本の文化整合》，東京:岩波書店，1996。
8) 平井昌夫，《国語国字問題の歴史》，東京:三元社，1998。
9) 小森陽一，《日本語の近代》，東京:岩波書店,2000。
10) 倉島長正，《国語100年》，東京:小学館，2002。

5) 1897年11月由公爵近衛篤麿、子爵岡部長職及び鳩山和夫の 3 人的倡导下，汇集了各界名士，协商了关于日本俱乐部的创立，1898年6月正式成立。
6) 白石大二，「保科」，『言語生活』，1968年12月，p.91。
7) 当时的日本使用的是“普通语”，保科在他的论著上使用的就是“普通语”。

11) 安田敏朗，《「国語」の近代史　帝国日本と国語学者たち》，東京:中央公論新社，2006。
12) 文化庁，《国語施策百年史》，東京:ぎょうせい2006。
13) イ.ヨンスク，《国語という思想》，東京:岩波書店，2007。
14) 柿木重宜，《近代「国語」の成立における藤岡勝二の果たした役割について》，京都:カニシヤ出版，2013。
15) 韩东育，《従「請封」到「自封」》，台北:立台湾大学出版社，2016。
16) 王辉，《“一带一路”国家语言状况与语言政策（第一卷）》，北京:社会科学出版社，2015。
17) 武强，《日本侵华时期殖民教育政策》，沈阳:辽宁大学出版社，1994。
18) 卢鸿德，《日本侵略东北教育史》，沈阳:辽宁人民出版社，1995。
19) 齐红深，《日本侵华教育史》. 北京:人民教育出版社出版社, 2005。
20) 包贺喜格图，《二十世纪前半期内蒙古地区日语教育史研究》，内蒙古:呼和浩特:内蒙古大学, 2016。
21) 陈林俊，《近代日本在华语言同化政策研究述评》，江苏:常州大学学报，2017。
22) 韩国学文献研究所，《朝鲜总督府官报》，首尔:亚细亚文化社，1985。
23) 이기문，《개화기의국문연구》，서울:일조각，1985。
24) 정재철，《일제의대한국식민지교육정체사》，서울:일지사，1985。
25) 배수찬，《일제강점기 ‘국어교육’의 식민지 근대성 연구서설: 보통학교국어독본을 중심으로》，서울:한국언어문화，2009。
26) 허재영，《일제 강점기 일본어 보급 정책》，서울:한말연구，2004。

【어학 분과】 발표 ③

“X+爲”类副词的词汇化现象及“爲”的语义功能研究
— 以“极为”、“最为”、“大为”为例

주기하*

【目 录】

1. 引言
2 "为"的语义演变及"X爲"后续成分的变化
2.1 "为"的语义演变
2.2 "X爲"后续成分的变化
3. 副词"X为"的词汇化机制
3.1 重新分析
3.2 去时间化
3.3 类推
4. 词尾"为"的语义功能
4.1 述谓性
4.2 引导变化
5. 结语

1. 引言

“X+为(wéi)”类副词，如“最为”、“较为”、“大为”、“极为”等在现代汉语书面语中使用比较广泛。例如：

(1) 这两种系统是应用**最为**频繁的系统。
(2) 保险业近来**较为**成功。
(3) 马会长虽感意外，但由此**大为**钦佩。
(4) 由于篇幅所限，这里所阐述的问题是**极为**有限的。

《现代汉语词典》中列举了“大为”、“极为”、“较为”、“略为”、“稍为”、“深为”、“甚为”、“尤为”、“最为”等多个“X+为”类副词，“X”大都是表程度、情态、比较、频率、范围等意义的单音副词。本文选取了具有代表性、在古代语料库及现代语料库中使用频率皆较高的三个副词作为研究对象：“极为”、“最为”、“大为”。

通过考察既往研究，我们发现关于“X为”，以下问题尚未得到很好的说明。

首先，“X+为”类的词汇之间到底存在怎样的内在语义关系。而语义关系，自然与不变因素“为”的语源义有密不可分的联系，我们认为它们的词汇化过程会存在很多共同点。考察词汇化过程，可以深层挖掘其历时变迁规律。第二，许多研究局限于个别研究，如巴丹(2011a)、(2011b)集中研究“极为”，陈衡(2014)着重分析“尤为”，而向德珍，牛顺心(2006)则侧重考察“最为”，因此缺乏系统性的研究，而我们希望能综合考察“X为”，从

* 충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中寻找出相关语言规律。第三，在有关“X为”的语法化分析中，很多研究对其虚化机制有所提及，但未进行深入研究，而且对于“X为”的具体虚化过程尚未有详细的描绘。第四，众多词典或研究在对“为”的词义做出说明时，大都主张“X为”的语义等同于“X”的语义。我们认为这种说明抹杀了词尾“X”所起的语义功能。

本论文将利用语法化理论，考察“X为”的词汇化过程，探讨其历时变迁规律，同时，以认知语言学理论为基础，通过语料[1]分析，挖掘出“极为”、“最为”、“大为”等“X为”类副词之间内在的语义联系。通过历时研究与共时研究的结合，以期更全面、更系统地考察“X为”。

2. “为”的语义演变及“X为”后续成分的变化

2.1 “为”的语义演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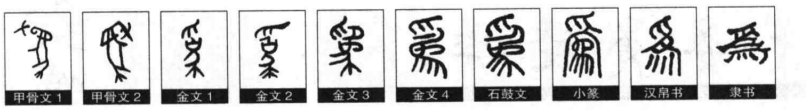
考察不变要素“为”的语义演变，即，了解“X为”中的“为”源自什么，具体发生了哪些变化，不仅可以为考察“X为”词汇化的形成提供必要信息，而且对研究词尾“为”的语义功能也有重要意义。

2.1.1 “为”的本义

“为”字在甲骨文中便有，一直使用到现在，是个使用范围极广的动词。[2]在古代汉语中，“为”的义项很多，如：“制作”、“统治”、“帮助”、“保护”、“治疗”、“负担”、“安排”、“树立”等数十种用法。[3]那么，“为”如此之多的语义项都是从哪里来的?

对于“为”本义的来源向来多有争议，主要分歧出自“为”的字型，一派是以许慎为代表的，认为“为”字表示“母猴”，而近年来，随着古文献的发掘，对“为”有了新的认识，因此出现了另一种主张，即认为“为”字表示“手牵大象”，罗振玉(1970)、熊国英(2006)等都对此有所言及。对于这两种相左的观点，下面我们将分别加以叙述。

首先，许慎在『說文解字』[卷三][爪部]中解释：“为，母猴也。其为禽好爪。下腹为母猴形。王育曰：‘爪，象形也。’ 古文为象兩母猴相對形。” 此后，许多学者根据“为”字甲骨文、金文的字型否定了许慎的这种观点，罗振玉(1970)指出：“为”从爪，从象，绝不见母猴之状，卜辞作手牵象形。意古者役象以助劳，其事或在服牛乘马之前。



<图1> "为"字的字型演变[4]

对于“为”的本义为“大象”的主张，熊国英(2006：223)做出了进一步的解释。他认为：“为”本是牵引大象使其为人劳作。甲骨文(1-2)上边是一只手，下边是一头大象，表示牵引大象劳作。引申制作、治理、使用、作为等义。金文已不如甲骨文形象直观，写法也越来越不相同。秦《石鼓文》已与小篆有了明显的相似，大象的影子更加模糊。但人的手爪却始终保留下来，用手劳作的字义也越来越突出了。后加“人”旁成“伪”字，“伪”是在“作为”的基础上会意的，表示劳作的不是人而是大象，故伪字有虚假、欺诈义。隶书(汉《乙瑛碑》)写作“为”。

1) 本文中所使用的例句大都出自CCL，BCC语料库，部分例句引用自既往研究，将不一一标示出处。古代汉语例句采用繁体字，现代汉语例句采用简体字。
2) 旷书文（2005:59）。
3) 정우인（1994:5）。
4) 熊国英（2006:223）。

"为"字在汉代已有简化字，与今天的简化字相同。

我们采纳第二种观点，即同意"为"的本义为"以手牵象劳作"。因为第一种观点在阐释动词"为"的众多语义项之间的内在联系上存在着很大的障碍，比如"母猴"义与古代"为的"使用频率较高的"劳作"义、"(制)作"义有着不可逾越的距离。我们认为，"为"的"劳作"义包含[使用体力]、[创造]、[担当]、[改变(客观世界)]等语义特征，并进一步推测，这些语义特征在"为"的语义演化过程中起了举足轻重的作用。确定了"为"的本义，接下来需要考察动词"为"的几种主要引申义。

2.1.2 "为"的引申义

정우인(1994)将动词"为"分为行为动词、存在动词、判断动词、使役动词和被动动词，胥淳(2005)把"为"的语义整理为：①做，②作为、当作，③是，④有。我们将"为"语义的研究范围限制在与"X为"有关的几项语义上，在此基础上重点考察"为"的几种相关引申义。下面将对"为"的"做"义、"是"义及"作为、当作"义分别进行说明。

2.1.2.1 "做"义

(5) 譬如**为**山，未成一篑。 《论语》
(6) 见义不**为**，无勇也。《论语》
(7) 臣闻七十里**为**政于天下者，汤是也。《孟子》

在古汉语中，"做"的含义非常广泛，根据语境的不同，有不同的解释。(5)-(7)中的"为"都是动作动词，其中(5)中的"为"是"做"、"造"的意思，所以具有[创造]的语义特征。"创造"这一概念，是指做出新的东西，可以分为两种情况，一种是从无到有，一种是将既有的"A"改变成新事物"B"。因此又可以导出[变化]这一语义特征。(6)中的"为"是"行动"的意思，(7)中的"为"是"从事"、"执行"的意思，因此含有[担当]的语义特征，是指行为者执行某种职责或做出某种行为。

2.1.2.2 "是"义

(8) 知之**为**知之，不知**为**不知，是知也。 《论语》
(9) 尔**为**尔，我**为**我。 《孟子》
(10) 自冯瀛王开始印五经，已后典籍皆**为**板本。 《梦溪笔谈》

(8)-(10)中的"为"是判断动词，表示"是"。"是"义是一种等价判断概念。我们将(8)-(10)中"为"前后的对等成分分别记为"A"、"B"，当我们判断"A=B"时，首先需要进行比较、较量，在此基础上如果达成二者等价，那么判断者就会对此表示"认可"，而得到"认可"的"A"与"B"可以进行交换。据此，我们将"为"的"是"义语义特征整理为：[比较]、[判断]、[等价]、[认可]、[交换]。

2.1.2.3 "作为、当作"义

정우인(1994)把"作为、当作"义的"为"划分到动作动词里，本文认为这种语义的"为"，不能与表示"做"的"为"一视同仁，"作为"、"当作"属于关系动词。

(11) 身**为**天子，弟**为**匹夫，可谓亲爱之乎。 《孟子》
(12) 斩木**为**兵，揭竿**为**旗。 《过秦论》
(13) 霓**为**衣兮风**为**马。 《梦游天姥吟留别》

(11)-(13)中的“为”的共同语义是“把A当作B”，即把实际存在的“A”认可为假想的“B”，这是一种非“创造”概念，是现实世界与假想世界的连接。这种意念的交换，属于认知范畴。

下面以(12)中的“为”为例，分析一下“作为、当作”义“为”的语义特征。首先(12)中存在两对比较对象：A1:木↔ B1:兵; A2:竿↔B2:旗。无论是把“木”看作“兵”，还是把“竿”看成“旗”，首先需要把相关的二者联系到一起，进行比较，当判断二者在心理领域等值时，这是一种认可，即达成“木”与“兵”概念的交换、“竿”与“旗”概念的交换，那么很明显在意识上概念发生了变化。据此我们将“为”的“作为、当作”义的主要语义特征整理如下：[关联]、[比较]、[认可]、[交换]、[变化]。

由上可知，“为”的本义与引申义，及引申义之间存在语义交叉、重合。关于语义间的联系将分别在3.2、4.1、4.2节中进行阐述。

2.2 “X为”后续成分的变化

“X为”的词汇化意味着“X为”所修饰的成分发生了本质性的变化，因此要想了解“X为”词汇化的形成，必须考察其后续成分的演变特征，本文力求在本节中通过语料详细描写后续成分的变化。

2.2.1 “极为”的后续成分

“极为”在先秦时非常少见，汉代和六朝时“极为”可后接形容词。

(14) 王阳虽儒生，自寒贱，然好车马衣服，**极为**鲜好，而无金银文绣之物。 东汉《史论》
(15) 明年三月中，移植於厅斋之前，华净妍雅，**极为**可爱。 六朝《齐民要术》

隋唐时“极为”后接名词、形容词，而宋元时则可后接名词、形容词、动词。

(16) 省所和诗，**极为**佳作。 唐《唐文拾遗》[极为+NP]
(17) 两道选补，停罢多时，**极为**利便。 唐《唐文拾遗》[极为+AP]
(18) 若从漠北入并州**极为**险阻。 北宋《册府元龟》[极为+AP]
(19) 远从碎叶以至神都，肉既难得，**极为**劳费。 北宋《册府元龟》[极为+VP]

明代时期，“极为”后可接名词，如下列(20)；也可后接形容词，如(21)。

(20) 明月当空，照耀如同白昼，映着各色奇巧花灯，从来叫做灯月交辉，**极为**美景。 明《今古奇观》[极为+NP]
(21) 故我今日盖造宫殿**极为**坚久壮丽，使后为帝者享用，不须再造，劳苦军民也。 明《姜氏秘史》[极为+AP]

而清代时，“极为”后接名词、形容词、动词。

(22) 在杨子江中大放三日龙船，官民同乐，**极为**大观。 清《乾隆南巡记》[极为+NP]
(23) 两旁均用小万字栏干围起，高在半空中，**极为**凉爽。 清《乾隆南巡记》[极为+AP]
(24) 兄弟**极为**佩服，极为欢喜。 清《官场现形记》[极为+VP]

“极为”在古代汉语中后续成分大多为名词和形容词，而在现代汉语中则只能后接形容词和动词。据我们不完全统计，后续形容词的占91%，后续动词的占9%。动词主要有“有价值、注重、称赞、赞同、珍爱、孝敬、感兴趣、赞赏、重视”，大多为评价动词或表态动词。

2.2.2 “最为”的后续成分

先秦时“最为”可后接名词、形容词，而汉代时则除了名词、形容词，还可后接动词。

(25) 凡味之本，水**最为**始。 战国《吕氏春秋》［最为+NP］
(26) 隘而用之，得而後功之，功赏相长也，五甲首而隶五家，是**最为**众强长久。 战国《荀子》［最为+AP］
(27) 鲁人徐生。善为礼容。文帝时。为礼官大夫。宣帝时。为少府。后仓**最为**明礼。 东汉《前汉纪》［最为+VP］

六朝时后接名词、形容词、动词，该时期的特点是后接成分中形容词占的比重比较大，约占69%。

(28) 故云会於流俗。岂不以指事遗形，穷情写物，**最为**详切者邪。 六朝《全梁文》［最为+NP］
(29) 张衡为太史令，乃铸铜制范，衡传云：“其作浑天仪，考步阴阳，**最为**详密。”六朝《全刘宋文》［最为+AP］
(30) 昔虞喜云，依五经典议，以毁主埋於虞主，埋於庙之北墙，**最为**可据。 六朝《全刘宋文》［最为+VP］

隋唐、宋元及明清时期的“最为”都可以后接名词、形容词、动词，只不过清代时后接动词的例句不太常见。

(31) 六贼俱为患，心贼**最为**灾。 唐《王梵志诗》［最为+NP］
(32) 入地狱者，万亦数十，如君狱内囚；唯鬼及畜生，**最为**多也，如君县内课役户。 北宋《太平广记》［最为+AP］
(33) 年久人多，不腾重复，至创为不雅之字，而以金木水火土附之，**最为**可笑。 明《万历野获编》［最为+AP］
(34) 原来王子张奇有一个心爱的茶杯，乃是白玉的，里面可这两条翡翠的龙，倒下水时，龙在里面犹如活的一般，是以王爷时刻不离，**最为**珍爱。 清《三侠剑》［最为+VP］

“最为”在古代汉语中可后接名词、形容词和动词，现代汉语中也同样延续了这一特点，但后续名词的用例数量非常少。据我们不完全统计，“最为”的例句中后接形容词的占98%，接动词的所占比重非常小，仅占不到2%，动词有“关心”、“有影响力”等。

2.2.3 “大为”的后续成分

先秦时可后接名词、形容词。(35)，(36)中同样“大为”后接名词，但是“为”的语义有所不同，在(35)中表示“是”，在(36)中表示“设立”、“建造”。汉代时“大为”后接名词、动词。

(35) 秋，乐大心从之，**大为**宋患，宠向魋故也。 春秋《左传》［大为+NP］
(36) 七月，郑子产为火故，**大为**社。 春秋《左传》［大为+NP］
(37) 当此天下之君子皆知而非之。谓之不义今至**大为**不义。 春秋《墨子》［大为+AP］
(38) 秦之时，高为台榭，**大为**苑囿，远为驰道，铸金人，发适戍。 西汉《淮南子》［大为+AP］
(39) 乃**大为**发兵六万人。拜太常任千秋为奋威将军以助之。 东汉《史论・前汉纪》［大为+VP］

六朝后接名词、形容词、动词。隋唐时可后接名词，宋元时后接名词、动词。

(40) 咸作舟梁，**大为**利益。 六朝《全梁文》［大为+NP］
(41) 此间顷来甚多草秽，君载细小，作此轻行，**大为**不易。 六朝《搜神记》［大为+AP］
(42) 繇轻慢宪度，不畏诏令，不与国同心，为臣不忠，无所畏忌，**大为**不敬。 六朝《三国志》［大为+VP］
(43) 荥阳人郑损，率有力者，每乡**大为**一墓，以葬弃尸，谓之“乡葬”，翕然有仁义之声。
唐《唐国史补》［大为+NP］
(44) 县先有雹渊，冬夏未尝消释。岁中辄出，飞布十数里，**大为**民害。 北宋《太平广记》［大为+NP］
(45) 岩每见朝贤，**大为**称赏。 北宋《太平广记》［大为+VP］

明代时可后接名词、形容词，清代时“大为”可后接形容词。

(46) 每打鱼时，内官出视，科索百端，**大为**渔户及地方之害。 明《万历野获编》［大为+NP］
(47) 今仁兄仗义讨贼，以安隋室，**大为**有理。 明《隋唐野史》［大为+AP］
(48) 以及水退之后，回到故家，见家中什物器具，漂流净尽，心中大为难过，病势益见沉重。

清《八仙得道》［大为+AP］

在现代汉语中，“大为”主要后接形容词和动词。“大为”例句中后续动词的占92%，接形容词的占8%。形容词有“落后、不同、逊色”等，主要为显示比较结果的形容词。“极为、最为”两者的共同点是在现代汉语中后续成分很少为动词成分，而“大为”的后续成分则大部分是动词成分。

我们可以将“极为”、“最为”和“大为”后续成分的变化整理为下表。

	极为	最为	大为
先秦	/	N，A	N，A
两汉	N，A	N，A，V	N，V
六朝	A	N，A，V	N，A，V
隋唐	N，A	N，A，V	N
宋元	N，A，V	N，A，V	N，V
明清	N，A，V	N，A，V	N，A
现代	A，V	N，A，V	A，V

<表1> “极为”、“最为”和“大为”后续成分的历时变化

“X为”后续成分变化上的重要特点是，最初“X为”不能后接动词性成分，而到了后期直至现代，“X为”几乎不再后续名词性成分，只后接形容词或动词成分，其中形容词成分所占比重较大。这种句法上的特征表明“X为”已经词汇化为一个副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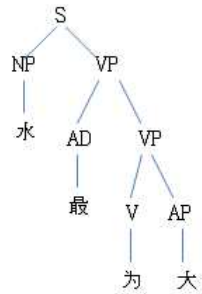
3. 副词“X为”的词汇化机制

副词“X为”的形成，简单说来，是由“X”和“为”这两个实义词逐渐融合成一个词汇，其中的“为”作为词尾附着于“X”之后。那么，该词汇化过程中具体有哪些主要因素和机制起了作用？关于这些问题，本节中将以“极为”、“最为”和“大为”为例，结合重新分析机制、去时间化机制及类推机制对副词“X为”的形成进行考察分析。

3.1 重新分析

徐志林(2012:80)曾对古代例句“水最为大”的句法关系进行过探讨。

(49) 桓公曰：“愿闻五害之说。”管仲对曰：“水，一害也；旱，一害也；风雾雹霜，一害也；厉，一害也；虫，一害也。此谓五害。五害之属，**水最为大**。” 战国 《管子》



<图2> 水最为大”的句法关系示意图

如徐志林(2012:80)所提供的上图所示，在副词“最为”形成之前，“最”和“为”两者是“跨层”的非短语结构。即，副词“最”修饰形容词“大”，“最”和“为”不在同一个句法层面上，因此它们之间也结合不成短语，只因为线形序列上的紧邻而构成完整表达。在此，本文将从语法化的角度上，结合重新分析理论对此进行具体分析。

Langacker把重新分析(reanalyses)定义为：“一个或一类表达的结构变化，这种变化不包括它任何直接或固有的表层显现的修饰关系”。在“X为”词汇化形成的过程中，重新分析起了举足轻重的作用。

(51) 三万六千天地之间，寿**最为善**。 东汉《太平经》
(52) 两道选补，停罢多时，**极为利便**。 唐《唐文拾遗》
(53) 权特为案行至濡须坞，因会诸将，**大为酣乐**。 六朝《三国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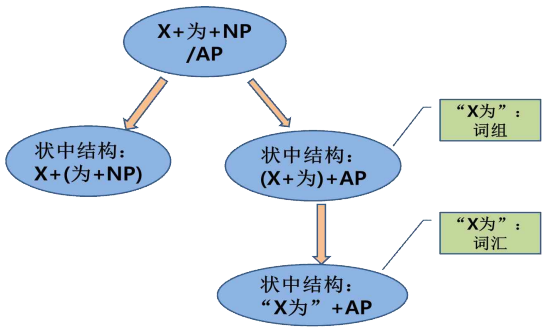
首先来看(51)中的“寿最为善”，我们可以将其分为下面四个阶段来考察。

第一阶段 [最]+[为]+[NP/AP]
第二阶段 [最]+[[为]+[AP]]
第三阶段 [[最]+[为]]+[AP]
第四阶段 [最为]+[AP]

在第一阶段，“最为善”的语义关系是动词“为”引导副词“最”修饰“善”所形成的结构，其实际语义是：(寿)为+[最+善]，这是古代汉语倒置语法的一种痕迹，“为+最善”是动宾结构。第二阶段，“善”可以看做一个名词性成分，理解为“善事”，即“美好的事情”，与动词“为”关系最密切，那么“X为+NP”的结构可以分析为副词“最”修饰动词“为”与名词“善”构成的动宾结构，即状中结构“最+[为善]”。第三阶段是过渡阶段，“善”看做形容词性成分，可以理解为“美好/好”，“善”与副词“最”关系最密切，“最”、“为”及“善”结构可以分析为状中结构“[最+为]+善”，此时“最为”构成的是一个词组。到了第四阶段，“最为”的关系已经非常紧密，“最为善“中的“最”和“为”之间不可以插入任何成分，通过词汇化的完成二者已经固定为一个词汇。(52)中的“极为利便”，(53)中“大为酣乐”的重新分析过程也同理。

“X为”发展成为一个词汇的证据大致有几条：首先，“为”失去动词语义；其次，后续成分由名词性成分变成谓词性成分；再次，“X”和“为”中间不能插入其他成分；最后，“X为”共同修饰AP或VP的使用频率大大增加。

我们将“X为”在重新分析作用下的词汇化过程整理如下图：



<图3> 重新分析与“X为”的词汇化过程

重新分析理论在此最大的作用是能阐明“为”在语法层面上是如何由一个动词演化为词尾的，却说明不了在语义层面上“为”是如何由表达“做”等义引申出“是”、“当作、作为”等语义的。

3.2 去时间化

时间性是概念化中事件的时间属性，是由心智扫描而产生或加附于所描述情形(包括事体和事件)的过程性连续统，是概念化者的主观认知加工在语言中留下的烙印。时间性(temporality)是过程性，非时间性(atemporality)就是非过程性。去时间化(atemporalize)是指将一根时间线条压缩为一个时间点，即在一个时间点上取一个事件中所有时间点所对应的构型，也就是将所有的构型重叠在一起。这样，时间整体得到了突显，而时间性侧面被隐入到了背景之中。[5] 下面来看去时间化在“X为”的词汇化中是如何起作用的。

(55) 子曰：譬如**为**山，未成一篑，止，吾止也！ 春秋 《论语》
(56) 修为墙垣，甬道相连。残高增下，积土**为**山。西汉《淮南子》

(55)-(56)的共同点是文中涉及到隐含的行为者S拿土“为”山，即拿土石造一座山。S是动作链条的链头，是射体和能量源，通过“为(做)”这一动作，将能量传达给界标，即动作链条的链层“土”，使得“土”变成“山”的形态，从“山”的角度出发，可以说是一个从无到有(无山→有山)的生成过程。“为”指向动作对象(事体)“土”，即“山”成型所用的材料“土”。在“造”的过程中，“为”的时间性表现很明显，山的形成伴随着时间的流逝。而当“为”失去时间性侧面时，其语义会发生变化。

(57) 至齐襄王时，孙卿**最为**老师。 东汉《全汉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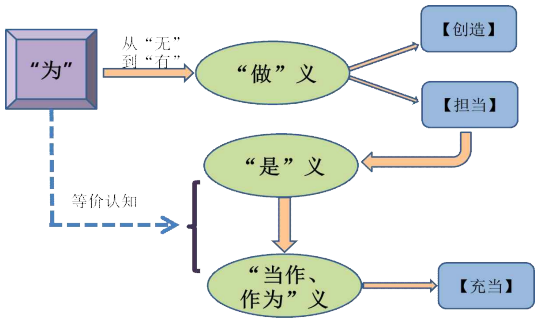
根据认知语言学理论，我们可以将“孙卿”看做界标，将“老师”看做射体；同时，又可以将“孙卿”看做目标，将“老师”看做参照点。那么，“老师”作为一种身份地位，是一个非时间性参照点，而同时与目标之间也是非时间性关系。

假设一个物体运动时的初始状态为“0”，运动状态为“1”，再假设物体的运动在时间上的变化表现在横向的X轴上，在空间上的变化表现在纵向的Y轴上，那么，(55)-(56)中的表“做”义的“为”可以描写为(1，1)，而(57)中表“是”义的“为”则应描写为(0，0)。正如莫启扬，文旭(2017:24)[6]所言，客观关系弱化过程，也就是其逐渐去时间化并最终失去时间性侧面的过程。

(58) 斩木**为**兵，揭竿**为**旗。 《过秦论》

沈家煊(2008)区分了三个认知域：行域、知域和言域。行域中的关系要受到物理和事理的制约，知域中的关系要受到思维定律和逻辑的制约，而言域内复句的语义关系可以不顺应一般的事理或逻辑。我们认为，(55)-(56)，(57)，(58)中的“为”分别对应行域、知域和言域。当“为”投射到言域，例如(58)中的“为”表达“当作、作为”语义的时候，“木”对“兵”，“竿”对“旗”没有任何控制力，即，不能看作行为者与对象的关系。这时原来动词“为”表述的过程性已经完全消失，只能表达一种认知活动，即隐含的思维者对“木”及“竿”的认知判断。

动词“为”的语义间关联可以用下图展示出来。



<图4> 动词"为"的语义网

5) 参考莫启扬(2016:4)。
6) 莫启扬，文旭(2017)，<认知语法框架下的主观化和语法化>，《外语教学》，第38卷第3期。

(59) 兄弟极为佩服，**极为**欢喜。 清《官场现形记》
(60) 太后因大内宫娥，抛离父母，长处深宫，**最为**凄凉。 清《镜花缘》
(61) 这位张玉龙哥哥，做事**大为**严密。 清《三侠剑》

如上所述，“为”在语义上的变化，伴随着去时间化，过程性逐渐弱化甚至消失，最终如(59)-(61)中的“为”成为词尾，失去独立性，与“X”构成词汇“X为”，共同修饰后面的成分。

重新分析机制可以说明“为”的语法功能的变化，去时间化机制可以解释“为”语义上的演化，但二者却都不能阐释“X为”是如何由后接名词逐渐发展至可以后接形容词以及动词的。

3.3 类推

类推指的是已经存在的结构对现存形式产生的吸收同化。在本质上，重新分析和类推都涉及创新，只不过是沿着不同的轴。重新分析沿着线性成分结构的“横向组合”轴在起作用，而类推是沿着在任何一个构成成分的节点上选择的“纵聚合”轴在起作用。[7]高育花(2010:98)指出如果同一范畴的两个(或多个)词语或结构有着共同的语义基础、句法位置，且发生演化，那么它们一般会朝着同一方向发生相同或相近的演化，这就是所谓的“类化”、“类推”，是语法化或词汇化的重要机制之一。

(62) 省所和诗，**极为**佳作。 唐《唐文拾遗》
(63)《史记》但为一篇，而次第全异，文亦小异，**最为**古本。 东汉《全汉文》
(64) 秋，乐大心从之，**大为**宋患，宠向魋故也。 春秋《左传》

上面的“X为”的后续成分都是名词，此处的“为”尚具有动词性，因此后面的名词“佳作”、“古本”、“宋患”都充当“为”的宾语。

(65) 此间顷来甚多草秽，君载细小，作此轻行，**大为**不易。 六朝《搜神记》
(66) 后仓**最为**明礼。 东汉《前汉纪》
(67) 岩每见朝贤，**大为**称赏。 北宋《太平广记》

(65)-(67)中“X为”后续成分是非名词成分，其中有形容词，也有动词。在过渡阶段，形容词成分可以看做名词性成分。比如(65)中的“不易”，可以理解为“不易的事情”、“不易的举动”，而在这一认知过程中起作用的正是类推机制。类推在纵聚合轴上起作用，使已经存在的“X为+N”结构对现存形式“X为+A”，“X为+V”结构产生吸引同化。因此，可以说是类推机制使得“X为”的用法得到扩张，从而成为高产构式。

4. 词尾“为”的语义功能

在本章中，我们将着重考察词尾“为”有哪些主要语义功能，并将对语义功能与本义、引申义之间的联系做出阐释。

4.1 述谓性

在句法功能上，“X为+AP”在句子中既可以充当谓语，也可以充当定语。如在(68)-(70)中作谓语，而在(71)-

7) 参考梁银峰译(2008:79)。

(73)中作定语。

(68) 在人力资源管理上，双向沟通**极为**重要。
(69) 这种现象在娱乐界、工商界和政界**最为**普遍。
(70) 20年后的今天，情况**大为**不同。
(71) 在一个国家的宪法中，国家制度居于**极为**重要的地位。
(72) 重庆是我国大气环境污染**最为**严重的城市之一。
(73)福柯提出了一个令正统马克思主义者**大为**不悦的观点。

为考察“为”的语义功能，我们对1，500个句子进行了统计，发现在句法功能上，担当句法成分上，“X为+AP”与删除了“为”的“X+AP”在作谓语和作定语的比重上表现出一些不同。首先，本文的研究对象“极为”、“最为”、“大为”中，由于其中的“大为”在删除“为”后，“大+A”不符合语法，因此单独统计500句“大为+A”，发现作定语的仅有19句，也就是说作谓语的占96%。

同时，“极/最为+A”中删除“为”后“极/最+AP”的语义在表面上没有很大变化，因此，我们为了比较二者的差异，另外统计了“极/最为+A”和“极/最+A”各500例子[8]，其中在500例含有“极/最为+AP”的句子中，“极/最为+AP”作定语的有225句，占45%，作谓语的有275，占55%。而与此相对，在500例不含有词尾“为”、仅含有“极/最+AP”的句子中，“极/最+AP”作定语的有312句，占62%，作谓语的有188句，仅占38%。

也就是说，相比“X+AP”，“X为+AP”表现出更强的述谓特征。因此我们可以断定，词尾“为”对于担当谓语或定语，起着重要的作用，即，“为”具有述谓性。[9]我们认为，词尾“为”的这种述谓性语义功能，与其语源义有着密切关系。由于动词“为”有系动词的功能，因此描述性功能就被传承下来。

4.2 引导变化

(74)哈贝马斯的批判理论与霍克海默或阿多诺时期相比已**大为**改观。
(75)把市场注意力集中到四只证券上后，情况就**大为**不同。

(74)-(75)中“大为”的后续成分都表示某种变化，如果说这种“变化”是模糊的，那么下列例句中所展现的“变化”相对来说则比较具体。

(76) 中国庄园组织由唐迄宋**大为**扩增。
(77) 国家意志和命令的效力则**大为**减弱。
(78) 首先，市场化的发展意味着国家直接控制的资源相比过去**大为**减少。
(79) 如果被试采用组块的方法，其记忆广度就可以**大为**增加。

上列“大为”后续的“扩增”、“减弱”、“减少”、“增加”及此外大量存在用例的“减退”、“缩短”、“加强”、“降低”等都表示一种量变。量变作为一个重要的哲学概念，是指事物量的规定性的变化，是事物数量的增减、场所的变更以及事物内部各个组成部分在空间排列组合上的变化。[10] 我们检索了CCL，没有发现一例诸如“大为一致”，“大为相同”等不表示变化的用例。这从侧面可以辅助证明“为”的功能在于引导转化或变化义。

王兴才(2010:52)主张“X为”后面跟AP时，不再判断“为”前后两部分是否具有相同或类似的性质，而是主观地强调主语在属性、特征或性状等方面所达到的程度。AP一经程度副词修饰，语义上不再表性质状态，而是表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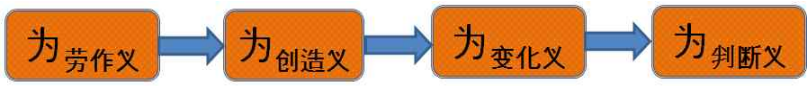
8) 统计的具体操作步骤如下: 首先在BCC语料库上调查“极/最为+A”与“极/最+A”的出现频率，并选取出现频率高的“A”，确定“A”的样本后，在CCL语料库中分别检索“极/最为”与样本“A”结合的例句，“极/最”与样本“A”结合的例句。具体例句限定于下列四种情况：①极为+样本“A”，②极+样本“A”，③最为+样本“A”，④最+样本“A”。例如：含有“极为丰富”，“极丰富”，“最为重要”，“最重要”等的例句。收集含有“极为/最为+A”的例句和含有“极/最+A”的例句各500句，共计1，000句。
9) 焦学峰(2014)在比较“X其”与“X为”的功能差异时，也曾言及到“述谓性”，遗憾的是缺乏推导过程。
10) 王利，王光明(2013:6)，〈量变与质变的辩证关系及现实意义〉，《南昌教育学院学报》，第2期。

物性质在某种程度上的变化过程。例如“秦朝的‘传国玺’最为珍贵，被历朝视为‘至宝’。”句子传达的信息是，既有说话人程度很深的主观性评价-秦朝的“传国玺”是最珍贵的；也隐含着事物性质的发展变化，即：秦朝的传国玺变得“珍贵”而成为了“至宝”。这种变化可以看作“质变”，这也与我们的“为”引导变化的观点相契合。

量变和质变都是一种变化，那么，词尾“为”表“变化”的功能与动词“为”有什么语义联系呢？在第二章中，我们曾讨论过，“为”的本义是“劳作”，我们认为“劳作”义包含[创造]、[改变]等语义特征。即，存在“劳作→创造→变化”这一语义链。

到此，我们找到了引导变化的“为”与表“劳作”的“为”之间的语义衔接，但是表“劳作”的“为”又是如何演化出“是”这一语义的呢？在调查过程中，我们发现语言类型学家已经找到了“CHANGE-OF-STATE(become)>COPULA状态变化(变成)>系动词”这一语言演化链。比如，恩加拉卡语(Ngalakan)-men:“变成”，起始体动词化后缀>相当于英语be，未完整体过去时形式的“准系动词(semi-copula)。Hegeveld(1992:253-4)提出了支持该语法化过程的证据，Hegeveld同时指出土耳其语(Turish)olmak(相当英语be“系动词”，become“变成”，happen“发生”，mature“成熟”)也符合这一变化过程。另外，原始印欧语(Proto-Indo-Europe-an)*bhū(“变成”)也形成了类似系动词的标记；从印欧语系现代语言中仍然能够观察到演变的痕迹，如德语的bin“(我)是”和英语的been(Lehmann1982:137)。[11)]

据此，我们可以将“为”由“劳作”义到“是”义的语义链还原如下：



5. 结语

本论文以“极为”、“最为”、“大为”为例，将历时考察与共时研究相结合，主要探讨了“X+为”类副词的词汇化过程与机制及词尾“为”的语义功能。

为弥补既往研究对“为”各语义间的关联所持关注的欠缺，本文首先确定了动词“为”的本义为“劳作义”，并集中考察了与“X为”有关的“为”的三种相关引申义：“做”义、“是”义及“作为、当作”义。“为”的“劳作”义包含[使用体力]、[创造]、[担当]、[改变客观世界]等语义特征。“做”义的主要语义特征为：[创造]、[变化]、[担当]；“是”义的主要语义特征为：[比较]、[判断]、[等价]、[认可]、[交换]；“作为、当作”义的主要语义特征为：[关联]、[比较]、[认可]、[交换]及[变化]。“为”的本义与引申义，及引申义之间关系密切，多有语义交叉、重合。

此外重点分析了“X为”词汇化过程中的三大机制：重新分析、去时间化及类推。在语法层面上，重新分析机制推动了“为”由动词演化为词尾，“X为”由词组变为词汇。其具体过程是：动宾结构：X+为+AP → 状中结构：(X+为)$_{词组}$+AP → 状中结构：X为$_{词汇}$+AP。在语义层面上，去时间化机制促进了“为”由表达“劳作”义引申出“做”、“是”、“当作、作为”等语义。当“为”是动词时，其时间性表现很明显，“为”的作用力伴随着时间的移动；而当“为”的时间性逐渐减弱并至消失时，“为”的语义引申为表等价判断的“是”义及表关系的“当作、作为”，而当“为”演化成词尾时，其时间性则完全消失。去时间化最终使得“为”失去语义上的独立性，与“X”构成副词“X为”。在词汇化的后期阶段，伴随着类推机制的作用，“X为”的用法得到扩张，由后接名词逐渐发展至可以后接形容词以及动词。

最后，阐明了词尾“为”有述谓性功能和引导变化的功能，而这些功能则渊源于动词“为”的语源义。

11) 参考[德]Bernd Heine，Tania Kuteva 著，龙海平等3人译(2012:84)。

【参考文献】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1998.

장선주(2012), 〈‘最’의 어법화 연구〉, 《동아인문학》, 제22집.

정우인(1994), 〈동사 ‘为’에 대한 연구〉, 《한자한문교육》, 창간호.

高育花(2010), 〈汉语双音节程度副词“X为”的历时发展及演变〉, 《长江学术》, 第2期。

旷书文(2005), 〈论“程度副语素+ 为/是”的语法化〉, 《暨南大学华文学院学报》, 第3期。

罗振玉(1970), 《增订殷虚书契考释》, 艺文印书馆。

莫启扬(2016), 《语言中的去时间化研究》, 科学出版社。

胥 淳(2005), 〈细说“为”字〉, 《张家口职业技术学院学报》, 第2期。

徐志林(2012), 〈“最为”：跨层非短语结构的词汇化-兼论“X为”类副词的词汇化现象〉, 《广东第二师范学院学报》, 第2期。

王兴才(2010), 〈副词后缀“为”的形成及其类推范围〉, 《古汉语研究》, 第2期。

熊国英(2006), 《图释古汉字》, 齐鲁书社。

陈 衡(2014), 〈同义程度副词“尤其”与“尤为”辨析〉, 《汉语学习》, 第1期。

巴 丹(2011a), 〈极性程度副词“极其”和“极为”〉, 《汉语学报》第2期。

_____(2011b), 〈“极其”与“极为”的演化机制〉, 《百色学院学报》第4期。

向德珍、牛顺心(2006), 〈“最为”与“最是”〉, 《湛江师范学院学报》, 第5期。

呼叙利(2007), 〈副词后缀“为”例释〉, 《西南交通大学学报》第1期。

(汉)许慎撰, (清)段玉裁注(1988), 《说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德]Bernd Heine, Tania Kuteva 著, 龙海平等3人译(2012), 《语法化的世界词库》, 世界图书出版公司。

Paul J. Hopper and Elizabeth Closs Traugott(2003), (Second Edition),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梁銀峰譯2008, 语法化, 復旦大學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2014), 《現代漢語詞典(第六版)》, 商務印書館.

北京大學 漢語語言學研究中心 現代漢語語料庫, 古代漢語語料庫: http://ccl.pku.edu.cn/

北京語言大學 現代漢語研究語料庫: http://bcc.blcu.edu.cn/

【어학 분과】 발표 ④

중국어 '把'와 한국어 '를'의 의미기능 대조와 습득 순서*

양소열 · 김영실*****

【목 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把'와 '를'의 의미기능 분포
  1. '把'의 의미기능 분포
  2. '를'의 의미기능 분포
Ⅳ. '把'와 '를'의 의미기능 대조 및 각 기능의 습득순서
  1. '把'와 '를'의 의미기능 대조
  2. '把'와 '를'의 각 기능의 습득순서
Ⅴ. 결론

Ⅰ. 서론

본고는 그 동안 대조분석가설이론으로 차이점을 찾아 해결을 시도해 왔던 방법에서 탈피하여 언어유형론에서 제기된 의미지도 이론을 도입하여 중국어 전치사(preposition)[1] '把'와 한국어 후치사(postposition) '를[2]'이 나타내는 의미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把'와 '를'의 의미기능을 대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把'와 '를'의 각각 의미기능들의 유표성을 살피고 제2언어와 외국어 습득 순서에 적용시켜 '把'와 '를'의 각 기능의 습득 순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의미지도(semantic map)는 '개념공간'(conceptual space)을 기초로 언어의 다기능 문법형식[3](multifunctional grams)과 의미 간의 관련 패턴을 연구하고 여러 언어 간의 형식과 의미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최근에 학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 의미지도는 기존의 대조 분석 방법에 비해 동일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면 모두 대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의미지도는 형식적인 대조에서 벗어나 언어 형식을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에 초점을 둔 연구 방법이고 그 연구대상은 다양한 층위에서 찾아 낼 수 있다. 의미지도는 언어와 언어 간의 각 문법형식 간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모두 일목요연하게

* 이 논문은 2017년 중국유학기금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완성되었음(지원 번호: 201706907119).
** 제1저자.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박사과정생 (yang_suyue@163.com)
*** 교신저자. 중국 연변대학교 예술학원 중국어과 교수 (yskim@ybu.edu.cn)

1) 부치사는 주로 명사구와 동사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데에 사용(영어의 'of'처럼 일부 언어에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는 부치사도 존재함)되고, 명사와 동사 간에 통사관계를 연결해주는 동시에 명사와 동사 간에 의미역 관계도 나타낼 수 있다. 명사구 앞에 오는 부치사를 전치사라 하고, 중국어로는 前置詞 또는 前置介詞라고 한다. 명사구 뒤에 오는 것은 후치사라 하고, 중국어로는 後置詞 또는 後置介詞라고 한다. 이 세 가지 부치사를 'adposition'라고 통칭하는데, 중국의 일부 학자는 '개사'라고 칭한다. 본고에서는 개사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2) '를'은 '을'/'ㄹ'의 이형태를 갖는데 본 논문에서 '를'을 대표형으로 사용한다.

3) 張敏(2010)의 논의에 따르면 '언어의 어떤 형식이(어휘, 문법성분, 문법범주, 구문 등)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서로 다르지만, 연관성 있는 문법적 의미를 지녔고 이러한 현상이 여러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면 이는 의미지도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언어형식을 다기능문법형식(多功能語法形式, multifunctional grams)'이라고 하였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미지도는 Anderson이 1982년에 최초로 제시한 것인데, 이후에 Haspelmath(1997, 2003), Croft(2001)등 학자의 발전을 걸쳐서 상대적으로 완전한 이론체계와 연구방법이 이루어졌다. 의미지도와 개념공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aspelmath(2003), 張敏(2010), 王瑞晶(2010), 吳福祥(2011, 2014), 郭銳(2012), 范曉蕾(2017)를 참고할 것이다. 의미지도의 연구 대상은 다기능 문법형식이다. 중국어 전치사 '把'와 한국어 후치사 '를'은 모두 다기능 문법형식에 속한다.

중국어 학계나 한국어 학계에서 '把'와 '를'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고 '把'와 '를'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논의는 '把'와'를'의 의미기능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의가 있지만 다기능 문법형식의 각 의미기능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여러 개의 의미가 한 가지 언어 형식으로 표현될 때, 이 두 의미(혹은 그 이상)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속에서 유사성을 지닌 것이다. 의미지도를 통해 이 의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낼 수 있다. '把'와 '를'은 모두 수동자(patient)를 표기한다. 그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把'와 '를'의 의미기능을 분석하고 의미지도를 이용해서 '把'와 '를'의 의미기능을 대조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의미지도이론을 도입하여 '把'와 '를'의 각각 의미기능들의 유표성을 살피고 제2언어와 외국어 습득 순서에 적용시켜 '把'와 '를'의 각 기능의 습득 순서를 제시하겠다.

Ⅱ. 선행연구

'把'와 '를'에 대한 대조 연구는 현재까지 많지 않다.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把'와 '를' 각각 대응 형식을 살피는 연구와 서로 대조 분석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중국어의 '把'구문은 한국어에서의 대응 형식을 살피는 연구로써 南聖淑(2007), 王立傑(2009), 胡曉清, 김인철(2011), 박애화(2014), 임은정(2015)등의 연구 결과를 들 수 있고 대조 분석하는 연구로써 金英實(2010), 진관초, 강령훼(2014)등으로 대표되는 연구가 있다.

임은정(2015)에서는 '를'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기능을 사전과 선행연구를 통해 분류하여 대상성, 피영향성, 전체성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의미 기능별로 '를'이 중국어와의 대응 형식을 살폈다. 金英實(2010)에서는 중국어 '把'구문, 술목구문과 한국어 'O를 (목적격) VP'구문을 살펴보고 한정성, 전체성, 화제성, 생략성, 복잡정도성과 '把'구문과 한국어 'O를 (목적격) VP'의 대응 조건 등을 검토하였다. 진관초, 강령훼(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를'과 중국어 '把'구문을 통사-의미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폈고 한정성을 비롯해 전체성, 피영향성에 대하여 언어적인 공통점을 밝혔는데 통사구조로 통사-의미적 특성만을 고찰하고 서술어와 명사구 사이의 논항구조, 의미역할(semantic role) 등을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최근에는 의미지도를 바탕으로 다기능 문법형식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어 학계에서 의미지도이론으로 다기능 문법형식을 연구한 학자로는 박진호(2009, 2012), 이지은(2013상, 2013하), 林素延(2013), 그리고 박정구, 강병규, 유수경(2017)등이 있다. 박진호(2012)에서는 한국어의 여러 어휘요소(털, 섭취 행위, 나무/숲, 색채, 친족) 및 문법요소(문장유형, 질문에 대한 대답, 종속, 부치사, 증거성, 비한정 대명사, 계사, 단위사)에 대해서 의미지도를 적용하여, 각 영역에서 언어 현상 및 개념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해주었다. 이지은(2013상)에서는 의미지도모형 이론의 기본 정신과 연구 대상을 알아보고 의미지도의 핵심 개념인 개념 공간과 의미지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林素延(2013)에서 현대 표준 중국어의 각종 개사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들을 기초로 Haspelmath(2003)와 張敏(2010)의 도구격 관련 개념공간을 보완하고 이 보완된 개념공간에서 '把'의 의미지도를 그려냈는데 '把'의 처치(處置)하는 기능만 다루었다. 박정구, 강병규, 유수경(2017)에서 의미지도 이론에 근거하여 중국어 다기능 기점 표시 부치사의 격 기능 확장이 진행되는 보편적 개념공간을 수립하고 각 방언에서의 의미지도를 그려냈다. 한국어학계에서 의미지도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편이 아니다.

반면에 한국에 비해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어와 방언, 그리고 외국어교육 등 분야에서 의미지도를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의미지도이론에 근거한 대표적인 연구는陳前瑞.王繼紅(2010), 林華勇.吳雪鈺(201

3), 盧笑予(2013), 牛彬(2014), 饒春(2016)등이 있다. 陳前瑞.王繼紅(2010)에서는 중국어 일부분 남방 방언 '有'의 용법에 의해 기존의 방언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어 '有'구문의 개념공간과 의미지도를 구축하였다. 盧笑予(2013)에서는 중국 임해 방언 비서술어 전치사의 다기능을 분석하고 전치사 '撥'의 의미지도를 그려냈다. 그리고 牛彬(2014)은 의미지도의 분석 방법으로 중국어방언 '來'의 각 기능을 분류, 정리하고 방언 '來'의 개념공간을 구축하였다. 또한 饒春(2016)의 연구에서 의미지도 이론을 기초로 기존의 '給予義'동사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고 방언 자료를 참고하여 중국어 '給予義' 동사의 의미지도를 구축하였다. 요컨대 의미지도 이론은 범언어적 비교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한 언어 안에서 같은 문법형식의 다기능형식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도 있다. 두 개 언어 대조에 의미지도 이론을 적용하여 문법형식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면 두 언어 문법형식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앞선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의미지도는 최근 언어유형론 연구에서 여러 의미영역에 적용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아직까지 제2언어습득이나 외국어 학습에서 의미지도를 습득순서와 결합하여 연구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의미지도를 적용하고 습득순서를 제시하는 연구로는 林華勇·吳雪鈺(2013)밖에 못 찾았다.

본고는 의미지도 이론에 근거하여 張敏(2012)에서 구축한 교차 영역(cross-domain) 3차원 의미역할 개념공간을 바탕으로 범 언어의 '把'와'를'에 대응하는 문법형식의 의미지도를 그려보고 '把'와 '를'의 각각 의미기능들의 유표성을 살피며 '把'와 '를'의 각 기능의 습득순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Ⅲ. '把'와 '를'의 의미기능 분포

이 장에서는 '把'와 '를'의 의미기능에 대해 따로 알아보겠다.

1. '把'의 의미기능 분포

중국어 전치사 '把'는 통사구조상으로 일반적으로 명사구에 선행한다. 즉 '把NP+VP'의구조로 이룬다. '把'구문은 처치(處置, disposal)나 치사(致使, causative) 혹은 완전(完全義)이나 다른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중국어 학계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把'구문이 나타내는 의미를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把'구문에서 전치사 '把'의 의미기능만 살펴보고자 한다.

1) 처치 수동자(處置受事, disposal-patient)를 표기하는 기능

① 가: 你把桌布洗一洗。 (崔希亮, 1995:14)
　나: 你**把你的东西拿**走。 (崔希亮, 1995:16)

①는 전형적인 타동문으로서 동작의 직접적인 결과가 NP(桌布, 你的东西)에 미쳐, '把'가 동작을 받는 대상(즉 수동자)를 표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동자를 처치(處置)하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 '桌布'와 '你的东西'에 부여되는 의미역할을 처치 수동자라고 하겠다.

2) 피행위자(役事, causee)를 표기하는 기능

② 가: 阿Q**把扇子**放在石凳子上了。 (施春宏, 2010:297)
　나: 侯寶林的相聲**把大伙**听笑了。 (施春宏, 2010 : 298)

②에서 '阿Q'는 '놓다'는 동작을 내고 부채는 이 동작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부채는 동작을 받는 대상이면서도 '놓이다'의 주체이다. 만찬가지로 (나)에서 '大伙'은 동작을 받는 대상이면서도 뒤에 '웃다'는 동작의 주

체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扇子'와 '大伙'은 피행위자라고 한다. 여기서 '把'의 기능은 피행위자를 표기하는 것이다.

3) 피동 행위자(被動施事, passive-agent)를 표기하는 기능

③ 가: 這時候**把老張**病了。
나: 怎麼**把犯人**跑了？ (趙金色, 2010:145)

③에서는 '老張'과 '犯人'은 의미적으로 뒤의 동작이나 상태의 행위자이다. 그러나 이럴 때는 행위자가 피동적으로 동작이나 상태를 이루며 '把'는 뒤의 피동 행위자를 표기한다.

4) 도구(工具, instrumental)를 표기하는 기능

④ 가: 唐文祥正要掏槍，我們的一個同志**把匕首**刺進了他的胸膛。 (史金生, 胡曉萍, 1991:66)
나: 楊昌明**把手**摀住話筒，低聲對吉子寬說：… (史金生, 胡曉萍, 1991:66)

④(가)에서 '匕首(비수)'는 도구로 그 사람의 가슴을 찌른다. (나)에서는 '손'으로 마이크를 가린다. 여기서 '把'는 동작의 도구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5) 재료(材料, material)를 표기하는 기능

⑤ 가: **把買來的布**做了兩件衣服。 (史金生，胡曉萍，1991:69)
나: 爸爸**把柳條**都編了箱子。 (盧加偉，2015:112)

위의 예문에서 '사 온 천'으로 '옷'을 만들거나 '버드나무 가지'로 '상자'를 만든다. '把'가 나타내는 의미는 '옷'과 '상자'를 만드는 재료이다.

6) 방식(方式, manner)를 표기하는 기능

⑥ 가: **把A調**唱成了降A調。 (盧加偉，2015:112)

⑥에서 'A조'는 부르는 방식이고 '把'는 방식을 표기하는 기능을 한다.

7) 처소(處所, location)를 표기하는 기능

⑦ 가: 我願意**把牢底**坐穿。 (盧加偉，2015:112)
나: 他們幾個在屋裡抽煙，**把屋裡**抽滿了煙。 (史金生，胡曉萍，1991:71)

⑦에서 '把'가 표기하는 것은 동작을 이루는 장소이다. 여기서는 '把'의 기능은 처소를 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를'의 의미기능 분포

'를'은 통사구조상으로 동사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에 후행하며(NP를+VP) 의미적으로는 타동성을 나타내는 대격 표지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를'의 의미기능에 대한 기술이라기보다 대격에 대한 기술이다. 본고에서 대격에만 국한하지 않고 '를'은 후치사로서 어떠한 의미기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1) 일반 수동자(一般受事, general-patient)를 표기하는 기능

① 가: 한수가 **손을** 흔든다. (장미라, 2002:13)
나: 철수가 **밥을** 먹는다. (신서인, 2014:92)

①에서는 '손'이나 '밥'은 단지 타동사 '흔들다'와 '먹다'의 동작을 받아 실현되는 수동자이다. 이는 중국어의 '把'가 수동자를 처치(處置)하는 의미와 달리 여기서 '를'은 일반 수동자를 표기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작의 방향(動作方向, direction)를 표기하는 기능

② 가: 한수가 **하늘을** 난다. (장미라, 2002:16)
나: **학교를** 간다. (이갑, 2017:369)

②에서는 '날다', '가다'와 같은 자동사 구문에서 '를'성분이 나타나고 여기서 '를'이 '로'에 상당하여 동작의 방향을 나타냈다.

3) 처소(處所, location)를 표기하는 기능

③ 가: 어제는 하루 종일 **학교를** 돌아다녔다. (이갑, 2017:369)
나: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홍종선·고광주, 1999:153)

③에서 '학교'와 '고향'은 동작이 이루어지는 처소이고 '를'은 처소를 표기하는 기능을 한다.

4) 수령자(接受者, recipient)를 표기하는 기능

④ 가: 철수가 **영희를** 선물을 주었다. (신서인, 2016:6)
나: 그는 **나를** 선물을 주었다.(신서인, 2016:8)

수여 사건에서 타동성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은 수동자이고 간접적인 대상은 수령자이다. ④에서는 '영희'와 '나'는 '주다'의 간접적인 대상(즉 수령자)이고 '를'은 '에게'로 교체할 수 있다. 여기서 수령자는 '를'로 표기되었다.

5) 수혜자(受益者, beneficiary)를 표기하는 기능

⑤ 가: 기영이는 **지수를** 이탈리아어를 가르쳤다.(신서인, 2016:10)
나: 어머니는 **아이를** 운동화를 신기려고 했다.(홍종선·고광주, 1999:173)

위에서 말했듯이 수여 사건에서 수여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은 수동자이고 간접적인 대상은 수령자이다. 이렇듯 수여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 동작일 때 수령자가 수혜자[4]로 된다.

6) 소유자(領有者, possessor)를 표기하는 기능

⑥ 가: 영수가 **순이를** 손을 잡았다. (신서인, 2016:12)
나: 영수가 **나무를** 가지를 잘랐다. (신서인, 2016:12)

⑥의 '순이를'과 '나무를'은 '순이의'와 '나무의'로 교체할 수 있다. ⑥(가)에서 '순이'는 '손'의 소유자이고 ⑥(나)에서 '나무'는 '가지'의 소유자이다. 여기서 소유자를 '를'로 표기한다.

4) 홍종선·고광주(1999)에서'-을'논항의 수혜자 역은 주체의 타동성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객체로서 유정성(animacy)의 실체라고 기술하였다.

7) 원천(來源, source)를 표기하는 기능

⑦ 가: 그 **일을** 시작으로 하자. (이갑, 2017:370)
나: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집을** 나섰다. (홍종선·고광주, 1999:65)

⑦(가)에서 행위가 시작되는 기점을 나타내고 있고 '그 일부터 시작한다'는 뜻이다. ⑦(나)에서는 행위자가 '집'으로부터 벗어나고 '를'은 행위자가 벗어나는 기점을 표시한다. 여기서는 '를'이 원천을 표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8) 목적(目的, purpose)를 표기하는 기능

⑧ 가: 여의도로 **불꽃놀이를** 갔다.
나: **여행을** 간다. (이갑, 2017:369)

⑧(가)에서 '를'은 행동의 목적을 나타내고 ⑧(나)에서 '를'은 행동의 목적이 되는 일을 나타낸다.

9) 도구(工具, instrumental)를 표기하는 기능

⑨ 철수가 벽을 **신문지를** 붙였다. (신서인, 2016:6)

⑨에서 도구격이 대격으로 실현된 경우이며 '신문지를'은 '신문지로'를 교체할 수 있다.

10) 재료(材料, material)를 표기하는 기능

⑩ 가: 그 **커튼을** 무대 의상으로 쓰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나: 이 **나무토막들을** 책꽂이를 만드는 데 쓸 수 있을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⑩에서 '커튼'은 '의상'의 재료가 되고 '나무토막'은 '책꽂이'의 재료가 된다. 이렇듯 '를'은 재료를 표기하는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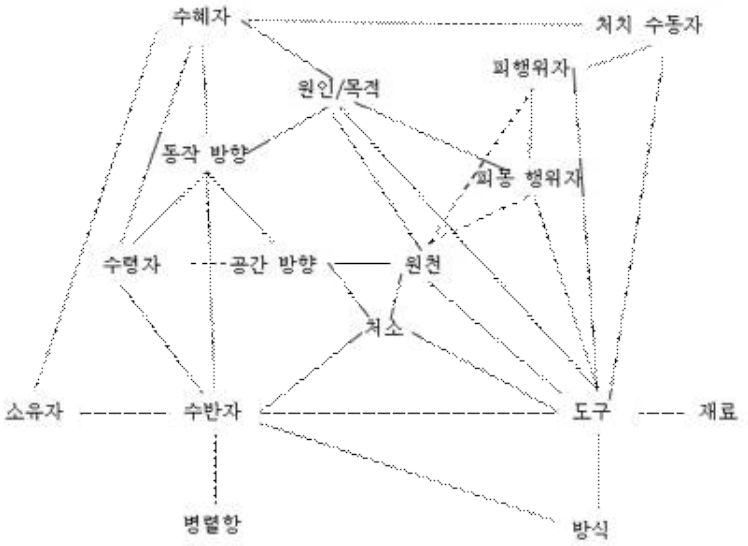
Ⅳ. '把'와 '를'의 의미기능 대조 및 각 기능의 습득 순서

위에서 '把'와 '를'의 여러 가지 의미기능을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장에서는 張敏(2012)에서 구축한 교차 영역(cross-domain) 3차원 의미역할 개념공간에서 '把'와'를'의 의미지도를 그려보고 그 들의 의미기능이 어떻게 유사한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한다. 그리고 범 언어의 '把'와 '를'에 대응하는 문법형식의 의지지도를 그려내고 이를 기초로 '把'와 '를'의 각 기능의 유표성 차이를 살펴보겠다. 또한, 분석한 결과를 제2 언어와 외국어 습득 순서에 적용시켜 언어유형론에서의 유표성 이론에 근거하여 '把'와 '를'의 각 기능의 습득 순서를 제시할 것이다.

1. '把'와 '를'의 의미기능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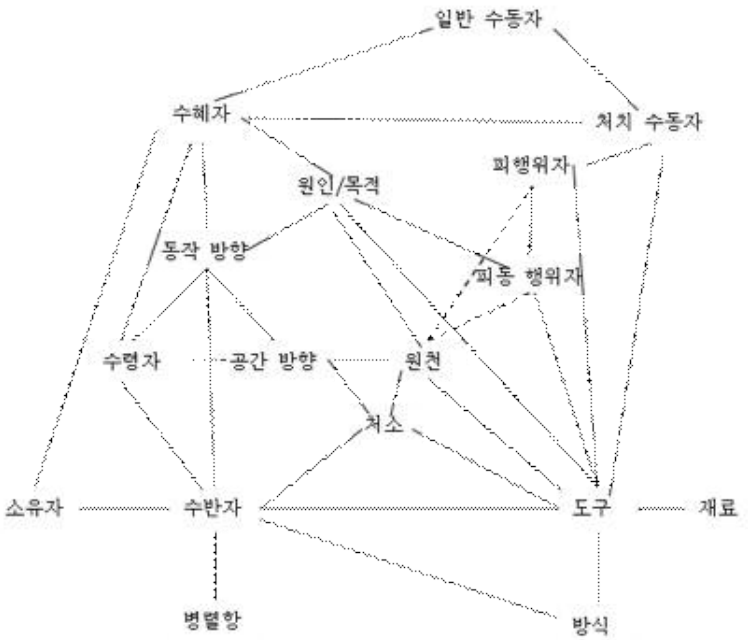
張敏(2012)은 교차 영역 3차원 의미역할의 개념공간[5]을 다음 <그림1>과 같이 제시하였다.

5) 수혜자(受益者, beneficiary), 처치 수동자(處置受事, disposal-patient), 피행위자(役事causee),원인/목적(原因／目的, caus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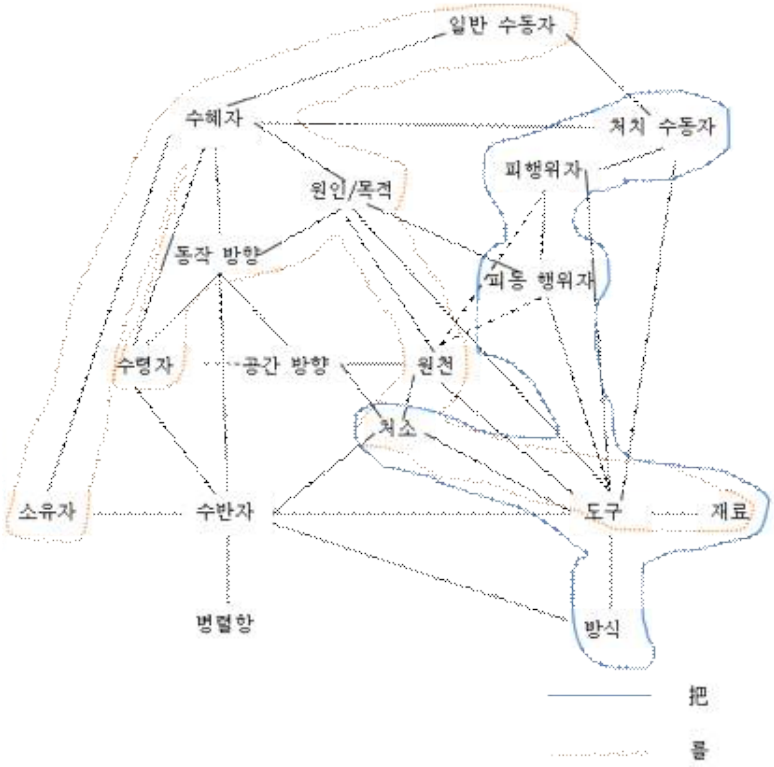
이상의 교차 영역 3차원 의미역할 개념공간을 관찰하여 '把'와 '를'은 표기할 수 있는 의미역할을 '일반 수동자' 외에 남은 것은 다 개념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개념공간에서 항목(일반 수동자)을 추가하고 연결해 보겠다. 의미지도연속가설(Semantic Map Connectivity Hypothesis)에 의하면, 특정한 언어 및 특정한 구조와 관련된 범주가 반드시 개념공간의 연속적 구역에 투사된다. 의미지도연속가설에 따르고 상술한 '把'와 '를'의 기능 항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 수동자'를 첨가하였다.



<그림2>

그러므로 위의 개념공간에서 '把'와 '를'의 의미지도를 다음과 같이 그려낼 수 있다.

e), 동작 방향(動作方向, direction), 피동 행위자(被施, passive-agent), 수령자(接受者, recipient), 공간 방향(空間方向, spatial direction), 원천(來源, source), 처소(處所, location), 소유자(領有者, possessor), 수반자(伴隨者, concomitant), 도구(工具, instrumental), 재료(材料, material), 병렬항(並列項, conjunct), 방식(方式, manner)



<그림3>

이상 그림3을 통해 '把'와 '를'은 개념공간에서의 분할을 보여 주었다. '把'는 '처치 수동자, 피행위자, 피동행위자, 처소, 도구, 재료, 방식'를 표기하는 기능이 있고 '를'은 '일반 수동자, 수혜자, 수령자, 소유자, 처소, 도구, 재료, 원천, 원인/목적, 동작 방향'을 표기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었다.

'把'와 '를'의 의미지도를 보면 두 문법형식의 기능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후치사 '를'의 의미기능은 중국어 전치사 '把'에 비해 많고 의미의 경간이 더 크다.

둘째, 중국어 전치사 '把'와 한국어 후치사 '를'은 다 '수동자'를 표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수동자'와 '처치 수동자'의 구별에 대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문을 통해 '일반 수동자'와 '처치 수동자'의 의미 차별을 살펴보겠다.

가: 他**把剩下的飯**都吃了。
나: 그는 **남은 밥을** 다 먹었다.

예문(가)는 전체적으로 수동자를 처치(處置)하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서 '처치' 동작을 받는 수동자는 '처치 수동자'라고 하고 (나)에서 '남은 밥'은 '먹다'는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뿐이고 '처치'를 받는 의미가 없으므로 본고에서 '일반 수동자'라고 한다.

셋째, 중국어 전치사 '把'와 한국어 후치사 '를'의 공통적인 의미기능(즉, 의미지도에서 겹치는 의미기능)으로는 '처소, 도구, 재료'가 파악될 수 있다.

2. '把'와 '를'의 각 기능의 습득 순서

Eckman(1977,1991)은 대조분석가설을 기초로 언어유형론에서의 '함축관계', '유표성 이론'을 제2 언어 습득에 적용하여 '유표성 차이 가설(The Markedness Differetial Hypothesis)'과 '구조 일치성 가설(Structural Conformity Hypothesis)'을 제시하였다. 이 두 가설에 따르면 목적어 중의 학습항목은 모국어와 다르면서도 유표성이 더 강한 부분들이 학습이 어렵고 모국어와 다르기는 하나 유표성이 낮은 부분들이 학습에서 문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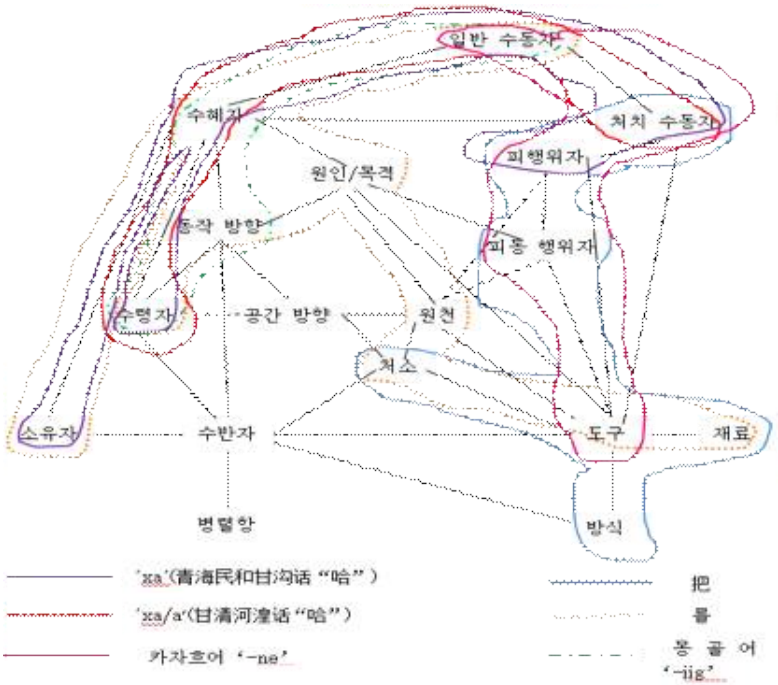
되지 않으며 언어유형론적의 보편성은 중간 언어에도 적용한다.

'把'와 '를'의 각 기능의 유표성은 범 언어의 의미지도를 통해 살펴보겠다. 의미지도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편성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무표적인 의미기능이다. 이와 반면에 상대적으로 유표적인 의미기능이다. 본고는 범 언어(몽골어, 카자흐어, 일부분 중국어 방언) 중에 '把'와 '를'에 대응하는 문법형식을 선택하고 의미지도를 그려보겠다. 범 언어의 기능 정리표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일반 수동자	처치 수동자	수혜자	수령자	피행위자	도구	동작 방향	피동 행위자	소유자	처소	재료	원인/목적	원천	방식
把		+			+	+		+		+	+			+
를	+		+	+		+	+		+	+	+	+	+	
몽골어'iig'[6]	+		+	+			+							
카자흐어'-ne'[7]	+	+			+	+		+						
'xa/a'（甘清河湟話"哈"）[8]	+	+	+	+										
'xa'（青海民和甘沟話"哈"）[9]	+	+	+	+	+				+					
합계	5	4	4	4	3	3	2	2	2	2	2	1	1	1

<표1>

위에 정리한 범 언어의 의미기능들은 개념공간에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4>

6) 만다흐바타르알탄체첵, 「현대 한국어와 몽골어의 격조사 비교 연구 – 목적격조사와부사격조사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pp.23-28.
7) 李玲, 「哈薩克語直接賓語研究」, 中央民族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pp.3-35.
8) 張安生, 「甘清河湟方言名詞的格範疇」, 『中國語文』, 2013, pp.291-307.
9) 楊永龍, 「青海民和甘沟話的多功能格標記"哈"」, 『方言』, 第3期, 2014, pp.230-240.

위에 그려낸 의미지도를 보면 많이 겹치는 의미기능으로는 '일반 수동자', '처치 수동자', '수혜자', '수령자'이다. 즉, 이 의미기능들은 언어유형론에서 보편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무표적이며 쉽게 습득되는 것이다. 본고는 자료 수집의 제한으로 위의 6개 문법형식만을 고찰하였다. 범 언어의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구 결과가 더 정확하다.

위의 범 언어 문법형식의 의미지도를 살폈고 다음과 같은 습득 순서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학생들은 중국어의 '把'구문을 습득하기 어렵지만 '把'의 의미기능을 습득할 때 '처치 수동자'를 표기하는 기능을 가장 먼저 습득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把'의 '처치 수동자'를 표기하는 기능이 다른 기능에 비해 가장 무표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를'의 '일반 수동자'를 표기하는 기능은 다른 기능보다 무표적이고 외국인 학생들이 이 기능을 가장 먼저 습득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 순으로는 '수령자', '수혜자', '동작 방향'이다. '소유자, 원인/목적, 처소, 원천, 도구, 재료'를 표기하는 기능은 유표적인 것이고 습득이 어렵다.

이 외에 제 2 언어교육에서 '把'와 '를'의 의미지도의 연속성에 의하여 '把'와'를'의 각 기능을 교육할 수 있다. 습득순서는 교재의 입력순서와 교육방식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기능 문법형식 '把'와 '를'의 의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입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해야 하며 습득 순서에 관한 연구 역시 실증적인 연구를 더 깊이 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고에서 제시하였듯이 의미지도는 언어유형론에서 언어의 다기능 문법형식과 의미 간의 관련 패턴을 연구하고 여러 언어 간의 형식과 의미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분석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의미지도는 범 언어 간의 다기능 문법형식의 대조 연구뿐만 아니라 제 2언어 습득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 본고는 언어유형론에서 제기된 의미지도 이론에 근거하여 張敏(2012)에서 구축한 교차 영역(cross-domain) 3차원 의미역할 개념공간을 바탕으로 '把'와 '를'이 각각 표기할 수 있는 의미기능을 살펴보았다. '把'는 '처치 수동자, 피행위자, 피동행위자, 처소, 도구, 재료'를 표기하는 기능이 있고 '를'은 '일반 수동자, 수혜자, 수령자, 소유자, 처소, 도구, 재료, 원천, 원인/목적, 동작 방향'을 표기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의미지도 연속가설과 의미 분석에 의해 이 개념공간에 항목을 첨가하고 '把'와 '를'의 의미지도를 그려냈다. 또한 그려낸 '把'와 '를'의 의미지도를 통해 두 문법형식의 기능의 유사점과 차이점도 알아냈고 각 의미기능의 습득 순서도 예측해 보았다.

한국어 후치사 '를'의 의미기능은 중국어 전치사 '把'에 비해 많고 의미의 폭이 더 크다. '把'와 '를'은 다 '수동자'를 표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수동자'와 '처치 수동자'의 구별에 대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처치 수동자'는 '처치' 동작을 받는 의미가 있고'일반 수동자'는 동작은 직접적인 대상이 될 뿐이고 '처치'를 받는 의미는 없었다. 또한, 중국어 전치사 '把'와 한국어 후치사 '를'의 공통적인 의미기능으로는 '처소, 도구, 재료'가 파악될 수 있었다. 그 외, 그려낸 의미지도를 통해 '일반 수동자', '처치 수동자', '수혜자', '수령자'등 의미기능들은 언어유형론에서 보편성을 띠고 상대적으로 무표적이며 쉽게 습득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습득 순서는 학습자에 따라서 그리고 교재 입력과 교수 방법의 영향도 받는다. 향후 중국어와 한국어를 습득하는 중간 언어의 말뭉치를 고찰하고 실증 연구를 통해 '把'와 '를'의 각 기능 습득 순서에 대해 더 깊은 연구를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만다흐바타르알탄체첵,「현대 한국어와몽골어의 격조사 비교 연구 - 목적격조사와 부사격조사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6.

박정구·강병규·유수경,「언어유형론적 관점에 입각한 기점 표시 부치사의의미지도 연구-중국어 방언 분석을 중심으로」,『中國言语研究』, 第71輯, 2017.

박애화,「중국어 'S把OV文과 한국어 SOV文의對應關係分析」,『동아인문학』, 28, 동아인문학회, 2014.

박진호,「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문법요소의 의미 기술」,『국어학』, 제63호, 2012.

신서인,「'이/가, 을/를'의 비전형적인 분포와 기능」,『국어학』, 제69집(3), 2014.

_____,「대격중출 구문에서의 '을/를'의 기능 연구 - 타동성을 중심으로」,『우리말글』, 제68집(03), 우리말글학회, 2016.

이 갑,「韓日琉 격조사 비교연구 - 主格目的格 조사를 중심으로」,『비교문화연구』, 제46집, 2017.

이지은(상),「언어유형론의 새로운 접근-의미지도모형을 통한 범 언어적 연구(상)」,『중국어문학논집』(79), 2013.
(하),「언어유형론의 새로운 접근-의미지도모형을 통한 범 언어적 연구(하)」,『중국어문학논집』(81), 2013.

林素延,「从語義地圖模型看漢語介詞與韓國語格助詞」,『中語中文學』, 第56輯, 2013.

임은정,「한국어 조사 {를}의 중국어 대응 양상 연구 - 한중 중한 신문 병렬말뭉치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장미라,「조사 '를'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황논집』, 제30집, 2002.

진관초·강령훼,「한국어 조사 '를'과 중국어 전치사 '把'에 대한 대조적 고찰」,『한말연구학회 학회발표집』, 한말연구학회, 2014.

홍종선·고광주,「'-을'논항의의미역 체계 연구」,『한글』, 243, 1999.

崔希亮,「'把'字句的若干句法語義問題」,『世界漢語教學』, 第3期, 1995.

陳前瑞·王繼紅,「南方方言"有"字句的多功能性分析」,『語言教學與研究』, 第4期, 2010.

范曉蕾,「語義地圖的解析度及表徵方式-以"能力義为核心的語義地圖"為例」,『世界漢語教學』, 第31卷 第2期, 2017.

郭 鋭,「概念空間和語義圖: 語言變異和演變的限制和路徑」,『對外漢語研究』, 2012.

金英實,「把字句和述賓句與韓國語'O를賓格+VP'句的異同」,『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第33卷 第3期, 2010.

李 玲,「哈薩克語直接賓語研究」, 中央民族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林華勇·吴雪鈺,「語義地圖模型與多功能詞"到"的習得順序」,『語言教學與研究』, 第5期, 2013.

盧加偉,「淺析"把"字句賓語的論元角色」,『長春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8卷 第7期, 2015.

盧笑予,「臨海方言非謂語前置詞的語法多功能性分析」,『現代語文』, 2013.

南聖淑,「"把"字句在韓國語中的對應形式研究」, 北京語言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牛彬,「基於漢語方言的直指趨向"來"語義地圖」,『科學經濟社會』, 第32卷 第4期, 2014.

饒春,「"給予"義動詞語義地圖研究」,『現代語文』, 2016.

施春宏,「从句式群看'把'字句及相關句式的語法意義」,『世界漢語教學』, 第24卷第3期, 2010.

史金生.胡曉萍,「'把+N受+VP'的語義再分析」,『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第1期, 1991.

王立傑,「漢語"把"字句在韓語中的對應關係研究」,『天津商業大學學報』, 第29卷 第2期, 2009.

王瑞晶,「語義地圖: 理論簡介與發展史述評」,『語言學論叢』, 第42輯, 北京, 商務印書館, 2010.

吴福祥,「多功能語素與語義圖模型」,『語言研究』, 第31卷 第1期, 2011.

_____,「語義圖與語法化」,『世界漢語教學』, 2014.

吴福祥·張 定,「語義圖模型: 語言類型學的新視角」,『當代語言學』, 第13卷 第4期, 2011.

楊永龍,「青海民和甘沟話的多功能格標記"哈"」,『方言』, 第3期, 2014.

趙金色,「'把'字句句法-語義研究」,『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2卷 第2期, 2010.

張安生,「甘清河湟方言名詞的格範疇」,『中國語文』, 2013.

張 敏,『"語義地圖模型": 原理、操作及在漢語多功能語法形式研究中的作用』,『語言學論叢』, 第42輯, 北京, 商務印書館, 2010.

_____,「題元角色語義地圖的再思考」,『漢語多功能語法形式的語義地圖研究研討會論文集』, 北京大學, 2012.

Eckman FR, "Markedness and the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Language Learning Journal*, Vol.27(2), 1977.

_____, "The Structural ConformityHypothesis and the Acquisition of Consonant Clusters in the Interlanguage of ESL Learners", *Studies in SecondLanguage Acquisition*, Vol.13(1), 1991.

Haspelmath, Martin, "Thegeometry of gammatical meaning: semantic maps and cross-linguisticcomparison", *The New Psychology of Language*, 2003.

【메 모】

【어학 분과】 발표 ⑤

‘道’와 ‘教’의 인지의미론적 분석

김정필*

중국어의 특징 중에는 동음어가 많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적인 언어생활에서 동의어 또한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언어학에서는 동의어는 크게 의미항목이 완전히 동일한 ‘완전동의어’와 대부분이 같고 몇 개의 항목이 다른 ‘부분동의어’로 구분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언어교제에서 한 두 개의 의미항목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부동의어’가 동의어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부동의어’는 대개 이음절 이상의 어휘에서 형태소로 사용되어 동의어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道’와 ‘教’는 ‘종교’라는 의미항목에서 ‘일부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휘들은 일상적인 언어교재에서는 모국어 화자들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형태가 다른 각각의 동의어 사이에는 의미나 기능면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까닭에 최근에는 동의어보다는 ‘유의어’나 ‘근의어(近义语)’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동의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과연 동의어 상호간의 의미범주가 어떻게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 모국어 화자조차 명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언어교제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언어습관에 근거할 뿐, 동의어나 유의어 상호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는 모국어 화자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작 모국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환경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비록 이러한 때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유의어 사이의 동의성은 의미범주 전체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의미범주 내부에 존재하는 동일한 의미항목의 개수와 동일성의 비율과 연관되어 있다. 즉 각 어휘의 의미범주를 구성하는 동의성 항목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동의성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본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道’와 ‘教’ 사이에는 표제어 ‘길’과 ‘가르치다’가 나타내는 의미범주에서 그 어떤 동의성을 찾아보기 힘들며, 과연 이들 어휘 사이에 대비분석이 성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종교’라는 의미항목에서 동의형태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언어생활에서 ‘道’와 ‘教’가 동의형태소로 사용된 ‘教会’, ‘教堂’, ‘佛教’, ‘道教’, ‘佛道’, ‘道士’, ‘傳道’, ‘会道门’[1], ‘一贯道’ 등에서 ‘종교’나 ‘사상’, 혹은 ‘일정한 교리를 가진 집단’을 지시는 공통된 의미역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과연 ‘종교’의 의미로 사용되는 두 형태소가 완전한 동의성을 가질까, 아니면 어떠한 차이를 두고 사용하는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佛教’와 ‘佛道’는 사전의미에는 분명 석가모니의 교리를 숭상하는 종교라는 동의성의 설명이 있기는 한데, 과연 동일하게 사용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좀 더 재미있는 예를 들어 보면, 무협소설이나 만화에 보면, 무림은 언제나 ‘正道’와 ‘邪(黑/魔)道’, 그리고 ‘魔教’ 등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正派’는 언제나 하나의 ‘무림맹’ 혹은 ‘정도련’ 등의 이름으로 그 세력이 결집되어 나타나는데 비해, 邪派무림은 ‘흑도(黑道)’혹은 ‘魔道’의 사도련(邪道联)과 ‘魔教’가 갈라져 ‘正道’무림과 싸우거나 심지어 같은 ‘魔’의 세력끼리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림맹의 ‘정도련(正道联)’과 대치되는 ‘사도련(邪道联)’은 세상에 드러난 세력으로 나타나지만, ‘마교(魔教)는 대체로 행동하는 은둔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다. 비록 무협의 작가들은 왜 ‘邪派’세력을 ‘道’와 ‘教’라는 형태소를 구별하여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만약 이러한

* 경상대학교

1) [명사] ‘会门(민간 종교 단체)’과 ‘道门(비밀 결사)’의 합칭. 비밀 결사의 성격을 띤 종교 단체. 종교적 색채를 띤 비밀 결사(指某些反动迷信组织).

문제를 이러한 의미항의 차이를 통해 접근하여 이들의 언어사유를 고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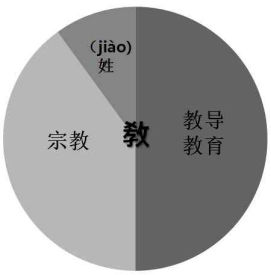
본 발표문은 논문이라 부르기보다는 우리들의 언어교제에서 '동의어'라고 인식되는 서로 다른 한자 및 한자어에 대한 구조방식과 의미범주를 비교해 그 차이점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동의성의 한자 및 한자어가 가지는 차이점을 어휘구조와 의미범주에 대한 도상화를 통해 의미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경계의 설정, 혹은 변별 방식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계의 설정이나 변별 방식이 교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1. '道'와 '教'의 동의성 의미항목과 의미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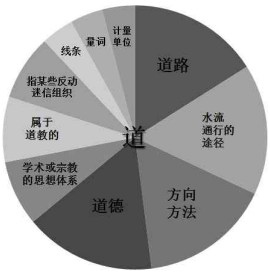
우선 각 낱말이나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범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낱말의 사전의미를 파악하여, 그 동의성분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道'의 사전의미는 크게 10가지 이상의 의미항목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2] 먼저 教와 동의범주를 형성하는 의미는 세 번째의 '사상'과 다섯 번째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 검색사전『汉语词典』(汉典)에 나타난 '道'에는 14가지의 의미항목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길' 혹은 '법도'[3]와 더불어 '道'의 원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네 번째의 "方法, 办法, 技术"은 '道'의 추상적 원리를 구체적 현상에 접목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의 "学术或宗教的思想体系"는 점점 내적 사상에서 '教(가르침)'의 행위와 종교적 행위로 가는 과정에 존재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에서 종교와 관련된 의미[4]가 생성되어 '教'의 종교적 의미와 동일 의미역을 형성하고 있다.

다시 '教'의 사전적 의미는 크게 '教'는 4성(jiào)의 '指导, 训诲(가르치다, 깨닫게 하다) 등'과 1성(jiāo)의 '传授(전하다)'의미로 구분하고 있으나, 두 개의 성조단위 모두 '종교' 및 '종교적 활동'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4성의 첫 번째 의미항목 '가르치다.'는 종교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여전히 포교나 선교활동 등에서 여전히 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宗教'라는 의미항목으로 '教士, 教主, 教皇, 教堂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주요 고찰 대상이다.

이상 사전에 나타나는 '道'와 '教'의 의미항목과 의미역의 상호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道의 의미항과 의미역 -



- 教의 의미항과 의미역 -

위의 그림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道'와 '教'의 사전 속 의미항목과 그 활용도에 따라 의미역을 나누어 본 것이다.[5]

2)『现代汉语词典』(1885)에서는 10가지 의미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터넷검색사전『汉语词典』(汉典)에서는 14가지 의미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3) 첫 번째 표제어는 비교적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국어와 '길'과 동일한 의미의 '路, 方向, 途径'으로 해석되고 있다. '道路, 铁道'가 있으며, '志同道合'의 성어 등으로 예시를 달고 있다. 그 다음의 두 번째에서 네 번째 해석은 주로 추상적인 의미의 (指法则、规律：～理。～德。～义。得～多助, 失～寡助。) 로 되어 있다.

4) 5. 指"道家" (中国春秋战国时期的一个学派, 主要代表人物是老聃和庄周) 6.指"道教" (中国主要宗教之一, 创立于东汉) ：～观 (guàn) 。～士。～姑。～行 (háng) (僧道修行的功夫, 喻技能和本领) 。7. 指某些反动迷信组织：会～门。一贯～。)

2. 형태소 ‘道’와 ‘教’의 어휘구조 비교 분석

우선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전의미에서 출발하여, 종교어휘의 구성요소로써 형태소 ‘道’와 ‘教’의 의미범주는 내적범주와 외적범주로 대비시켜 살펴볼 수 있다. 즉 ‘道’가 대부분 추상적인 내적범주를 가진 의미항목으로 구성되었다면, ‘教’는 내적범주인 ‘道’를 실천하는 과정으로써의 외적범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教’가 나타내는 ‘가르치다’는 두 사람 이상의 행위관계에서 온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만, 먼저 어순의 변화를 통한 ‘道教’(종교집단)과 ‘教道’(종교의 교리)를 통해 구분해 볼 수 있다. 또 동일한 후행형태소를 지닌 ‘道义’와 ‘教义’에서 ‘道义’의 ‘道’는 종교의 의미가 아니라, ‘道’의 원형의미 ‘길’의 파생인 ‘규칙, 사상, 법규’ 등의 의미이다.

그러면 다시 ‘道’가 ‘종교’의미로 사용된 형태소의 어휘구조를 살펴보자. 먼저 ‘道’가 선행형태소로 사용된 ‘道×’의 경우에는 ‘道家’ 및 ‘佛家’와 연관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道家’를 비롯하여 ‘道经’, ‘道馆’, ‘道僧’, ‘道心’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道’가 후행형태소로 사용된 ‘×道’에서는 불교의 용어에 사용되는 ‘無間道’, ‘無漏道’, ‘緣行道’, ‘有漏道’, ‘尼入道’, ‘解脫道’, ‘加行道’ 및 ‘皆成佛道’[6] 등이 있는데, ‘道’가리키는 것은 종교 자체라기보다 종교의 ‘법도(法度)’ 혹은 ‘교리(教理)’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教’ 또한 모두 행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교법(教法)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遗教’는 불교에서 부처나 조사(祖师)가 남긴 교법(教法)을 의미하며, 渐教는 오랫동안 수행하여 점차 깨달음에 이르는 교법(教法)을 의미한다. 즉 ‘教’가 나타내는 것은 행함을 통해 얻은 진리 및 교리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道+X’와 ‘教+X’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우선『现代汉语词典』(商务, 1985)에는 10개의 ‘道+X’구성의 어휘와 9개의 ‘教+X’구성의 어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사한 범주를 가진 어휘를 대비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道场’과 ‘教堂’은 종교의 행사를 치르는 곳으로, 앞의 것은 도교나 불교, 뒤의 것은 기독교나 천주교이다. 또 ‘道士’와 ‘教士’는 교도로서, 교육과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중에서 ‘教士’는 전문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목회자를 의미하며, ‘教徒’가 있다.

3. ‘道’와 ‘教’의 의미범주에 대한 도상화 분석

앞 절의 사전의미에 근거하여 ‘道’와 ‘教’의 도상화 과정으로, 첫째는 ‘道’가 나타내는 ‘길(방법, 이치)’의 추상성에 근거한 원형적 특징과 ‘教’는 행위에 근거한 실천적 특징을 대비시켜 보는 것이다. 둘째는 기능적으로는 명사의 정적인 특성과 동사의 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대비시켜 볼 수 있다. 즉 ‘教’가 나타내는 ‘가르치다’는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통한 동적(외적) 범주를 표현하고 있으며, 또 기능적 측면에서도 동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리를 표현하는 ‘道’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道’와 ‘教’의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의 범주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에 근거하여, ‘원칙-실천’, ‘정적-동적’ 등의 관계를 도상화 방식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道’와 ‘教’의 관계를 이해하기에 앞서, 보다 쉽게 이해되는 동일 표제어를 가지고 있으며, 동의어로 인식되는 ‘道’와 ‘路’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비록 우리는 道’와 ‘路’를 동의어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길(도로)’의 개념으로 합쳐서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이 두 한자의 의미범주에는 ‘추상’과 ‘구체’의 성질범주가 대립되고 있다. 즉 ‘道’에는 방법, 규칙 등의 내재적 추상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路’는 시각적으로 도식화된 ‘길’로

5) 그래프에 보이는 의미역의 대소(大小)는 명확한 통계를 거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형태소로 작용할 때 나타나는 어휘의 숫자나 내용범위의 대소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6) <불교> 누구든지 삼생(三生)을 통하여 불도를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법화경에 있는 구절이다.

외형적 구체성으로 드러난다. 즉 의식 속에 숨어있는 추상의 '道'와 완전히 외재적으로 드러나 있는 '路'는 '내외도식(안팎도식)'을 통해 두 한자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한국어에서 '道'와 '路'는 두 어휘가 결합된 '道路' 혹은 '길'로 파악함으로써, 두 한자를 모두 어휘구조의 초점성분인 '路'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는 '道路'가 결합되어 단순히 '길'이란 의미로 번역함으로써, 한국어에서 '道'와 '路', 혹은 '途'의 의미항목까지 함유한 '길'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道'를 가지고 '路'를 인식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선형성을 지닌 '路'를 가지고는 '道'가 가진 추상화된 길을 표현할 수는 없다.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각각의 성분이 형태소가 되어 새로운 어휘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순관계이다. 우선 '추상(원리)+구체(형태)'의 결합구조인 '道路'는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구조인 '路道'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路程'과 '*道程'의 관계나 '路线'과 '?道线'[7]과 같이 그 결합관계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道'와 '教'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적'과 '동적'의 상태범주, 그리고 기능적 특징을 통한 시간범주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8]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 '道'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宗教'나 '교육'과 관련하여 '教'의 의미범주와 유사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道'가 나타내는 '길'은 크게 '추상범주'와 '구체범주'의 두 가지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먼저 추상범주의 '길'은 하나의 '점선(…)'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道'의 원형범주에 해당하는 '道德', '道理', '道义', '道学' 등의 내적범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구체범주를 표현하는 '길'은 '路(길)'와 동의성을 가진 '실선(—)의 선형성(线性)으로 도상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범주는 '铅笔道儿'이나 양사로서의 '道', 그리고 행정구역에서 사용되는 '道' 등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외적범주로 파생될 수 있다.

7) 물론 车道线, 横道线, 抢道线과 같이 'AB+C'의 경우에는 성립하기도 한다.

8) 범주는 카테고리의 번역어이며, 카테고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유래한다. 그것은 존재자에 관한 진술의 보편적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는 범주에 실체, 양, (성)질, 관계, 장소, 시간, 위치, 상태, 능동, 수동의 10개가 있다고 했다. 범주 [範疇, Kategorie] (칸트사전, 2009. 10. 1. 도서출판 b) 하지만, 범주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학 분과】 발표 ⑥

『漢籍國字解全書』의 고찰을 통해 본 漢籍飜譯과 日本漢學의 성격

최정섭*

Ⅰ. 서론

근대일본의 정체성 확립은 한문과 일본의 관계 정립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동아시아세계의 성립에서 한문이 행한 결정적 역할은 부인할 수 없으며, 오늘날까지도 한문은 이 지역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는 '한문맥'이라는 개념이 일본과 한국의 근대문학연구에서 주목받는 데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세계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한국과 중국, 일본 상호간의 동질성만큼이나 이질성에 대한 시각도 견지하고 있어야 함은 언제나 연구자들의 긴장을 요구하며, 이는 한문이 이 지역에서 가졌던 역할에 대한 고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이라는 외국의 언어, 그 중에서도 구어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성격의 언어인 문언문을 '한문'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표현수단인 한자라는 문자를 함께 수용했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갖는 한국과 일본은, 그러나 그 한자와 한문의 실제 사용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두 나라가 각기 근대국가로 성립해가고 동시에 각국의 근대어를 수립시킬 때 보여준 서로 다른 모습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근대 이전에 한자 한문을 수용한 방식의 차이-한국의 음독과 일본의 음독·훈독 병용-로부터 이어진 면이 크다. 본고의 고찰 대상인 『한적국자해전서』는 음독이 주류였던 한국과 달리 음독·훈독 병행의 한자·한문 사용의 전통 속에서 문언문으로 이루어진 중국 고전이 어떻게 번역되었고, 또 근대국가로의 변용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동시대에 출간된 또 다른 중국고전=한적 번역 선집인 『漢文大系』가 난외주를 제외한 본문은 그 저자가 중국인이건 일본인이건 모두 한문으로 이루어진 반면, 『한적국자해전서』는 국자해라는 표현 그대로, 도쿠가와시기=에도시기 일본 한학자들에 의한 일본어로의 번역 성과들을 집대성하고 있다. 이 두 선집의 차이는 이런 문체뿐 아니라, 그 선집에 수록된 저술들의 내용적 성격, 그리고 출간 이후 일본 국가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일본인들의 정신생활과 맺는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탐색을 진행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중국 번역과 漢籍

1. 日本漢學의 성립과 중국 고전 번역
   (1) 漢學의 함의
   (2) 漢籍의 일본어 번역
2. 근대 일본에서 한문의 위치
   (1) 漢文脈과 近代日本語
   (2) 國字解, 訓讀, 直讀

* 연세대학교

Ⅲ.『漢籍國字解全書』

1.『漢籍國字解全書』의 출판과 그 배경
  (1) 明治末期 日本의 漢學
  (2)『漢文大系』와의 비교
2. 漢籍의 國字解와 근대 일본의 精神生活
  (1)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 한적의 위치
  (2) 일본 파시즘에서 한적의 위치

Ⅳ. 결론

【참고문헌】

최정섭,「漢字論을 통한 日本漢學의 中國專有批判」,『中國語文學論集』, 제89호, 2014.12, 437-457.

히토쓰바시대학한국학연구센터기획, 형진의·임경화 편역,『일본 신민족주의 전환기에『국체의 본의』를 읽다』, 서울: 어문학사, 2017.

사이토 마레시, 황호덕·임상석·류충희 옮김,『근대어의 탄생과 한문: 한문맥과 근대 일본』, 서울: 현실문화, 2010.

近藤春雄,『日本漢文學大辭典』, 東京: 明治書院, 1985.

三浦叶,『明治の漢學』, 東京: 汲古書院, 1998.

三浦叶,『明治漢文學史』, 東京: 汲古書院, 1998.

劉岳兵 主編,『明治儒學與近代日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劉岳兵 ,『中日近現代思想與儒學』, 北京: 三聯書店. 2007.

劉岳兵,『儒學與日本近代思想研究(1868-1945)』,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博士論文, 2001.

張士杰,『學術思潮與日本近代論語學』,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5.

町泉壽郎,「幕末明治期における學術·教學の形成と漢學」,『日本漢文學研究』11, 133~154쪽.

町田三郎,『明治の漢學者たち』, 東京: 研文出版, 2009.

町田三郎,『明治の青春: 續 明治の漢學者たち』, 東京: 研文出版, 2009.

町田三郎,『江戸の漢學者たち』, 東京: 研文出版, 1998.

龜井孝·大藤時彦·山田俊雄 編,『日本語の歷史 6 新しい國語への步 み』, 東京: 平凡社, 2007.

今野眞二,『日本語の近代: はずされた漢語』, 東京: 筑摩書房, 2014.

齋藤希史,『漢文脈の近代: 淸末=明治の文學圈』,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05.

竹村英二,『江戸後期儒者のフィロロギ──原典批判の諸相と國際比較』, 京都: 思文閣出版, 2016.

陶德民,『明治の漢學者と中國-安繹·天囚·湖南の外交論策-』, 關西大學出版部, 2007.

陶德民,『日本漢學思想史論考- 徂徠·仲基および近代-』, 關西大學出版部, 2007.

陶德民,『日本における近代中國學の始まり-漢學の革新と同時代文化交涉-』, 關西大學出版部, 2017.

陳瑋芬,『近代日本漢學的'關鍵詞'研究" 儒學及相關概念的嬗變』,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8.

張寶三·楊儒賓 編,『日本漢學研究初探: 思想文化編』,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8.

黃俊杰 主編,『日本漢學研究初探』,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8.

張博,「荻生徂徠的訓讀論」,『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33卷 第2期, 2016年3月, 24-29.

Margaret Mehl, *Private Academis of Chinese Learning in Meiji Japan: The Decline and Transformation of the Kang aku Juku*, Copenhagen: NIAS press, 2003.

Emanuel Pastreich, "Grappling with Chinese Writing as a Material Language: Ogyū Sorai's Yakubunsentei", i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61, no.1(Jun., 2001), pp.119-170.

Margaret Mehl, "Chinese Learning in Meiji Japan(1868-1912)", in *The Historical Association*, 2000, pp.48-77.

Micahel Facus, "Japanisch-Kundoku-Chinesisch: Zur Geschichte von Sprach und Übersetzung in Japan",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38*, 2012, S.217-242.

Michael Facius, *China Übersetzen*, Framkfurt am Main: Campus Verlag GmbH, 2017.

【어학 분과】 발표 ⑦

論“有益”的詞性、釋義及相關問題

김종찬*

一、序言

《現代漢語詞典》(以下簡稱《現漢》)在中國的影響力頗大。《現漢》將“有益”界定爲形容詞，中國的大多詞典都遵循它的觀點。《現代漢語規範詞典》(以下簡稱《規範》)關於“有益”的釋義與《現漢》相同，却將它界定爲動詞。兩部詞典關於“有益”的釋義相同，爲何對詞性的認識却不相同呢？由此，我們認爲有必要重新探討“有益”的詞性和詞義。

此外，當“有益於”充當述語而帶賓語時，“於”往往可以不用。如果這只是一種偶然現象的話，我們說是“有益(形容詞)+於(虛詞)”結構中“於”的省略。但如果這是種很普遍的現象的話，這是否與詞的增性問題有關呢?

在現代漢語中，“有益”直接充當述語而帶賓語的現象很普遍，那麽，是否應該承認“有益”除了形容詞性之外，還有一個及物動詞的詞性呢?如果確認“有益”具有及物動詞詞性的話，它又具有什麽意義呢?

本文首先討論有關詞典對“有益”詞性的界定與釋義，再探討虛詞“於”的前附性與“有益於”，接着考察及物動詞“有益”與釋義。最後陳述我們關於“有益”的觀點。

二、“有益”詞性與釋義

現在我們先考察一下《現漢》(2016:1591)對“有益”的闡釋:

「【有益】 yǒuyì ［形］ 有幫助;有好處:運動對健康～。」

《現漢》將“有益”界定爲形容詞,具有“有幫助”“有好處”等詞義。大多中國通行的詞典也與《現漢》觀點相同。例如《當代漢語詞典》(以下簡稱《當代》)(2009:1754):

「【有益】 yǒuyì ［形］ 有幫助;有益處;有好處:多做事少說話對你～。」

《現代漢語分類詞典》(以下簡稱《分類》)(1998:1004):

「有益 yǒuyì ［形］ 有幫助;有好處:開卷有益/青蛙捕食害蟲，對農作物有益。」

《學生現代漢語詞典》(以下簡稱《學生》)(2015:1452):

「【有益】 yǒuyì ［形］ 有幫助;有好處:多吃洋葱對身體～。」

* 안동대학교

以上幾部詞典都認爲“有益”是形容詞，其釋義是“有幫助”“有好處”“有益處”等，而它們都是“有+名”結構的詞。

呂叔湘在《現代漢語八百詞》(以下簡稱《八百詞》)(1999:630)中對“有+名”有如下論述:

「b)‘有+名’可受‘很、挺、最’等程度副詞修飾，表示評價。
這孩子很～音樂天才｜他挺～辦法的｜這種木頭最～用處｜他對歷史不但很～興趣，而且很～研究｜他很～兩下子。」

呂叔湘認爲“有+名”可以受程度副詞的修飾，如此言說不太準確，應該是“有+抽象名詞”可以受程度副詞的修飾，這意味着“有+抽象名詞”具有形容詞的意義。

有關“有益”的釋義,是“有幫助”“有好處”“有益處”等。“有”的賓語“幫助”“好處”“益處”等都是抽象名詞，“有+抽象名詞(幫助、好處、益處)”整體表示的意義不是動作、行爲性，而是描寫、形容性的。“有益”則是“有”與抽象名詞性詞“益”構成的。由此觀之，這些詞典有關“有益”的詞性和釋義都沒有問題。如在“吸收新鮮有益的東西。(《高級中國語》p.71)”中,“新鮮”與“有益”具有並列關係。既然“新鮮”是形容詞，那麼“有益”也應是形容詞,具有“有幫助”“有好處”“有益處”等意義。

《規範》(2004:1591)關於“有益”的闡釋如下:

「【有益】 yǒuyì［動］有益處;有幫助▷開卷～｜～於健康｜對工作～。」

《規範》對“有益”的釋義是“有益處”“有幫助”，與《現漢》的“有幫助”“有好處”一樣。如上所說，“有”加上“抽象名詞”是形容詞性的，《規範》却將“有益”歸於動詞。

《規範》所舉例句爲“有益於健康”“對工作有益”。這兩個例句可以分別改寫爲“對健康有益”“有益於工作”。變換句與原句雖然强調點有所不同，但意義基本相同。[1]比較一下“對健康有益”與“有益於健康”，可以看出“於”相當於介詞“對”。持傳統觀點的人將“對健康”分析爲介詞結構充當狀語，而將“於健康”分析成介賓結構充當補語。

周行健在《實用漢語用法詞典》(以下簡稱《實用》)(1992:805)中關於“有利”的論述如下:

「有利 yǒulì 合成詞，動賓式。<動>有好處;有幫助。褒義詞。{謂} 時機～。〔狀～〕兒童智力早期開發比較～｜合同應該對雙方都～｜定期儲蓄比活期存款～。〔～補〕這場及時雨～極了｜地形～得很｜抽籤的結果～於中國隊｜高尚娛樂～於身心健康｜晴好天氣～於收割水稻。{定}出現了～的情況｜把握～的時機｜錯過了～的突圍時間。{補}〔狀～〕局勢變得對我們～了。{賓}〔狀～〕這個條件他認爲很～｜所處的地位顯得非常～｜目前的形勢我們覺得比較～。{主} 那家伙十分貪婪，～就上。〔定～〕位置的～表現在他能看見敵人，而敵人不會發現他。
【同】 有益　有助　利於
【反】 無利　不利　無益　有害　有弊」

1)《現漢》、《當代》、《分類》、《學生》等關於“有益”所舉例都有一個共同點，都出現介詞結構。
現在我們考察一下各類詞典所舉的例句中與介詞“對”配合使用的例句。例如:
① 運動對健康有益。
② 多做事少說話對你有益。
③ 青蛙捕食害蟲，對農作物有益。
④ 多吃洋葱對身體有益。
⑤ 對工作有益。
上面的介詞“對”分別與介詞賓語“你”“農作物”“身體”“工作”一起構成介賓結構充當狀語，修飾形容詞述語“有益”。我們可以將上面的例①至例⑤都改寫爲如下:
① 運動有益 於健康。
② 多做事少說話有益於你。
③ 青蛙捕食害蟲，有益於農作物。
④ 多吃洋葱有益於身體。
⑤ 有益於工作。

周行健認爲“有利”是動詞，“有益”是“有利”的同義詞。《實用》沒有收“有益”，但從它“有利”的闡釋來看，它很可能會將“有益”也歸於動詞，然而這是值得商榷的。“有利”也是由“有”加上抽象名詞性詞“利”構成的，其意義是形容詞性的，應與“有益”一樣是形容詞。

在周行健所舉例句中，值得注意的有“抽籤的結果有利於中國隊”。周行健將“於中國隊”視爲介賓結構充當補語。由此推之，周行健可能也會將“運動有益於健康”中的“於健康”看成介賓結構充當補語。[2]與此類似的句子有“自然利於學習、便於教育、也有益於信息處理。(《當前我國語言文字的規範化問題》p.471)”中在這裏“利於”“便於”“有益於”之間具有對應關係。既然“利於”“便於”是及物動詞充當述語，那麽“有益於”可能是詞也可能是短語，其功能相當於及物動詞，在句子中充當述語。

三、虛詞“於”的前附性與“有益於”

邢福義[3]、吳爲善[4]認爲介詞“給”“向”“在”“到”出現在動詞後面時都有前附性傾向，這種觀點符合實際語言現象，語法學界支持介詞前附性觀點的學者越来越多。介詞“於”和其他介詞一樣也具有前附性功能。試舉例如下:

① 會讓我失去自理能力，完全依賴於他人。(《五體不滿足》 p.26)
案: “失去”與“依賴於”具有對應關係，後面都有語音停頓，它們都作述語。
② 前者着重於具有音位性的變化，後者則主要關注語句中的音高表現。(《漢語韻律詞研究》p.5)
案: “着重於”與“關注”具有對應關係，後面都有語音停頓，它們都作述語。
③ 這既符合文字發展的總趨勢，也確實有利於國人。(《當前我國語言文字的規範化問題》p.431)
案: “符合”與“有利於”具有對應關係，後面都有語音停頓，它們都作述語。
④ 植根於活的語言又重視活的語言。(《當前我國語言文字的規範化問題》p.57)
案: “植根於”與“重視”有對應關係，它們後面都有語音停頓，都作述語。
⑤ 毫無例外地都是轉折複句高於甚至遠遠高於假設複句。(《現代漢語歐化語法現象研究》p.277)
案: “高於”後面有連詞“甚至”，“高於”作為一個語言單位作述語。
⑥ 全部利益最終都歸於而且只歸於全體和每一個勞動者。(《現代漢語歐化語法現象研究》p.208)
案: “歸於”後面有連詞“而且”“歸於”是一個語言單位，作述語。
⑦ 又以送氣音的特徵區別於而且對立於非常相近的不送氣音/t/音位。(《現代漢語理論教程》p.25)
案: “區別於”後面有連詞“而且”，“區別於”是一個語言單位，作述語。
⑧ 實質的條件是否存在於或基本上存在於所確定的單位。(《現代漢語理論教程》p.54)

---

2) 李臨定、許小穎在《現代漢語短語解析詞典》(2008:138)中有如下論述:
「“有助於……”是“對……有幫助”的同義形式。如：這有助於我們|這筆貸款有助於你們克服眼前的困難。“有助”是“有幫助”的略化形式，“於”和“對”是同義介詞。」
李臨定、許小穎“對”與“於”的相關性，即“對健康有益”等於“有益於健康”。李臨定等根據這種認識將“於健康”視爲形容詞述語“有益”的補語。(案：李臨定等處理“取信於民家”時，將“於民家”視爲動詞“取信”的補語(p.295))可見李臨定、許小穎與周行健的觀點是完全相同的。

3) 邢福義在《漢語語法學》(1998:220)中有一段關於介詞前附性的論述:
「介詞及其受介詞語出現在動詞後邊，按說整個介詞結構應該成爲補語。但是，在現代漢語裏，“動介”後邊可以用“了”，“介”顯然有往前黏附於“動”的傾向。這就突破了介詞跟受介詞語組成介詞結構充當一個成分的一般格局。不僅是“到”，“給、向、在”等介詞也是這樣。如:
我把一本新出的書 〈送給(了)〉 他。
戰士們猛虎般 〈撲向(了)〉 敵人。
聘請專家的任務 〈落在(了)〉 我的頭上。
需要特別指出: “V在了+賓”的說法近年來越來越多了起來。應該承認這是規範的、有生命力的說法。」

4) 吳爲善在《漢語韻律句法探索》(2006:128)中則有如下論述:
「狀中結構（狀語+vp.）和動補結構（vp.+補語）也是一組相對格式，其中vp.爲核心成分，狀語或補語爲非核心成分，因此這一組相對格式也有核心成分字在前或在後的區別。～～在抽屜裏擱著→擱在抽屜裏～～上述例子中介詞短語置vp.前，與動詞的結合相對較鬆，一旦移到vp.之後，動詞與介詞結合極緊，現代語法學界一般都把它們看作是動介式合成詞（如“擱在”、“坐到”、“送給”、“衝向”）。」

案: “存在於”後面有連詞“或”, “存在於”是一個語言單位, 作述語。

⑨ 這些照片分別攝於:①哈爾濱, ②上海, ③深圳, ④北京, ⑤杭州, ⑥廈門。(《當前我國語言文字的規範化問題》p. 396)

案: “攝於”後面有冒號, “攝於”是一個語言單位, 作述語。

⑩ 語言的經濟效用取決於: ~ (《語用學與英語學習》 p. 157)

案: “取決於”後面有冒號, “取決於”是一個語言單位, 作述語。

⑪ 成語主要來源於: ~ (《圖解語言學》p. 84)

案: “來源於”後面有冒號, “來源於”是一個語言單位, 作述語。

⑫ 當您熱衷於、或者說是投入到某種事業上的時候, ……(《暗戀》 p. 38)

案: “熱衷於”後面有頓號, 它是一個語言單位, 作述語。

⑬ 而體系發展服務於、受制於功能發展。(《語言學概論》 p. 21)

案: “服務於”後面有頓號, 它是一個語言單位, 作述語。

(以上例句轉引自〈“接近”詞性新論〉2015:49-50)

從以上例句中可以看出虛詞“於”的前附性, 它無疑是與其前面的成分結合在一起, 充當述語。關於這種現象, 葉景烈在<說“於”>《語言大觀》(2000:120)中有如下論述:

「在文言裏, 作爲介詞“於”, 同前面的單位關係不緊; 在現代漢語中, “於”同前面的單位結合得很緊了。」

葉景烈對“於”的前附性敍述得很中肯。在”運動有益於健康“中”有益於“充當述語, 其功能實際上相當於黏賓及物動詞。

葉景烈<說“於”>《語言大觀》(2000:201):

「從上面的分析可以看出:在現代漢語中, “於”已經成爲一個構詞成分——後綴了。這是因爲:一、“於”本來就是一個虛詞, 當它附加在詞根之後時, 意義更虛化了;二、“於”已經有讀輕聲的趨勢, 試比較“於人民有利”和“有利於人民”, 前一個“於”還是文言虛詞, 讀陽平, 後一個“於”已是後綴, 似乎讀作輕聲了。三、無論什麽詞根帶上後綴“於”之後, 就取得了動詞的資格。動詞最顯著的語法特點是可以帶賓語。“忠”、“勇”、“勤”、“富”、“源”、“位”、“傾向”等, 同後綴“於”結合之後, 就改變了詞根原來的屬性和特點, 變成了動詞, 可以有賓語跟在後邊了。例如:……」

葉景烈注意到介詞“於”的前附性,[5] 並認爲在“有利於人民”中“於”已經虛化而且念輕聲, 已與“有利”結合成一個詞, 這樣“於”已經不再是介詞, 而是詞綴。基於這種認識, 葉景烈將這一類型都歸於動詞(《語言大觀》2000:203), 如“依賴於”“從屬於”“存在於”“滿足於”…“有別於”“有助於”“有益於”等。我們不同意葉景烈關於“有益於”已經構成詞的觀點。我們認爲“有益於”只是一個短語充當述語。

在現代漢語中,“形容詞+於”充當述語是具有及物動詞性的。例如:

① 因此示範模仿的方法不僅**有利於**發音能力的提高, 對語音的感知和辨別也有極大的促進作用。(《對外漢語語音教學》p. 167)

案: “有利於”與“有”具有對應關係。“有”是及物動詞, 那麼“有利於”應具有及物動詞的功能。

② 他們常**熱心於**幸福問題,勝於物質進步問題。(《林語堂散文》p. 59)

案: “熱心”是形容詞, 它與“於”結合在一起構成述語。

③ 我有點**茫然於**他的鄭重其事,但還是答應了他出去午餐的要求。(《愛情秘碼》p. 164)

案: “茫然”是形容詞。形容詞“茫然”加上“於”具有及物動詞的功能。

④ 詞**有別於**語素、短語。(《詞與短語》p. 6)

5) ① 又 主要 立足於 中國 語言 事實 的 剖析。(《語言 理論》p. 3(序))
② 區分 了 相當於 後人 的 “主語” 和 “謂語” 等。(《語言 理論》p. 16)
③ 會 更加 有利於 提高 詞語 理解 和 記憶 的 效率。(《語言 理論》p. 294)
④ … 是 着眼於 單句 或者 複句 中 的 分句 結構。(《語言 理論》p. 364)
⑤ 它 不同於 在 非 母語 地區 進行 的 “外語 教學”。(《語言 理論》p. 468)

案：“有別”是“有”與抽象名詞性語素“別”結合在一起構成形容詞性。“有別”常以單獨充當句子成分，故可以理解爲形容詞。例如“……範圍有別”(《語言學是什麼》p.60)、“……表現形式儘管有別……”(《語言學是什麼》p.65)。“有別”與“於”在一起構成述語，其功能相當於及物動詞。

以上的例句中的“有利於”“熱心於”“茫然於”“有別於”等都是“形容詞+於”類型。“有益於”也屬於這種類型。關於“有益”需要注意的是運用“有益”的例句非常多。而“有益於”中的“於”並沒有虛化，具有表示“對象”“地點”等語法意義，“於”也不能讀成輕聲。因此，將“有益於”視爲“形容詞+於”短語更恰當。

《中朝詞典》(以下簡稱《中朝》)(1986:2061):

「[有益於] yǒuyìyú [組] …에 리롭다, …에 유익하다 | ～人民生活 인민생활에 이롭다/～ 健康 건강에 유익하다.」

《中朝》將“有益於”視爲短語，其釋義“…에 리롭다”，在這裏“於”並沒有虛化，具有表示方面的意義，可見“有益”相當於韓語的“유익하다”，“於”相當於韓語助詞“에”。

四、及物動詞“有益”及釋義

葉景烈在<說“於”> 《語言大觀》(2008:294)中有如下論述:

「再次，形容詞性詞根同後綴“於”構成的動詞，一般還保留形容詞的一個語法特點，可以受程度副詞修飾。例如:
最忠於　更高於　太難於　挺樂於
稍大於　非常忠實於　十分熱心於
一部分帶“於”的動詞(特別是雙音詞根的)，由於修辭上調整音節的需要，或者用於口語的要求，可以把後綴“於”省略掉。」

葉景烈認爲一部分帶詞綴“於”的動詞,由於修辭上調整音節的需要，或者用於口語的要求，可以把後綴“於”省略掉。

① 熱甜餅和涼牛奶**有益**健康。(《金字塔英語背誦範文精華》p.204)
② 散步**有益**健康。(《漢語研究與對外漢語教學》p.227)

在葉氏看來，上面例句中的“有益”是動詞“有益於”的省略形式，但在我們看來，“有益於”是由“有益(形容詞)”和“於(虛詞)”結合在一起構成的短語。“有益”既然能直接帶賓語，這時就獲得了及物動詞的詞性。[6]

盧英順關於詞語的變化有如下論述:

6) 呂叔湘在《現代漢語八百詞》(1999:574)中有如下論述:
「相當 xiāngdāng
[形] 1. 用於可對比的兩方面，兩方面差不多(多指數量、價值、條件等方面說)。
a)可以單獨作謂語。不受程度副詞修飾。
他們兩個人水平～ | 我覺得你們年齡～，條件也～ | 兩個隊的實力～ | 旗鼓～
b)相當+於……。‘於’有時也可以省去。
這部叢的價錢～於我一個月的工資 | 這孩子已經十歲了，可是身體發育情況只～於七、八歲的孩子 | 面積～一個足球場 | 他的文化水平～大學本科……」
以上我們考察了呂叔湘對“相當”的觀點。呂叔湘認爲“相當於”中的“相當”是形容詞(案:這裏的“相當”有爭論，有的人認爲是動詞，這裏不談這一問題)，其中“於”有時可以省略。呂叔湘沒有虛詞“於”的前附性這一觀點。故他的意思是介詞結構“於……”中“於”有時可以省略。但我們依據虛詞“於”的前附性，“相當於”已經構書成一個句子成分了，因此現在我們不能說介詞結構中的“於”省略了。如果“於”省略的頻率很低的話，“相當”可能只是形容詞，但省略具有經常性的話，我們應該認爲“相當”獲得了新的詞性，即及物動詞。

「有些例外的語言現象則是新的現象的萌芽，如果能敏銳地把握住這類例外，在選題上就有了新意。比如“服務、聯係”這兩個動詞，本是不及物動詞，後面不能帶賓語，現在帶賓語的現象常常看到，如“服務社會”、“聯係我們”等。」7)

盧英順認爲“服務”“聯係”等本來是不及物動詞，由於語言的發展變化，“服務”“聯係”也可以直接帶賓語了。由此它們獲得了新的詞性，即及物動詞。盧英順的觀點有一定的道理。“服務”“聯係”跟介詞“爲”“跟”一起用時，它們都是不及物動詞，當直接帶賓語時，是及物動詞。基於這種認識，我們來考察一下“有益於”。

“對工作有益”與“有益於工作”意義基本上相同，“有益於”與“對…有益”相對，“有益於”的釋義應是“對……有幫助”“對…有好處”“對…有益處”。有趣的是跟“對”不同，“於”可以不用。例如:“運動有益健康。”這句與“運動有益於健康”意思基本相同。與“有益於”具有聚合關係的“有益”，如在“運動有益健康”中的“有益”應該是及物動詞，其意義也應是“對…有幫助”“對…有好處”“對…有益處”。

魯川、王玉菊在《漢字信息語法學》(2008:208)中關於語言結構關係有如下論述:

「語言結構關係在最高層上分爲“組合關係”和“聚合關係”。

一種語言的“句式”的總化可以看作一個“行列表”(table)。每一“行”是一種“句式”，每一“列”是一些可能替換的“詞項”。

①“組合關係”(syntagmatic)是一“行”中橫向的可組合關係。即“下級的語言單位”與“上級的語言單位”之間的可組成的關係。

②“聚合關係”(p.aradigmatic)是一“列”中竪向的可聚合關係。即“同級的語言單位”與“同級的語言單位”之間的可互換的關係。

下面是一個“行列表”

句子成分	主語	狀語	述語	補語	賓語	完句成分
類別	代詞	副詞	動詞	形容詞 +(助詞)	形容詞 +(名詞)	語調 (標點)
陳述句	我	剛	摔	破(了)	(一個)魚缸	。
疑問句	你	也	打	爛(了)	(三塊)玻璃	?
感歎句	她	又	砸	碎(了)	(兩把)酒壺	!

」

以上我們考察了語言結構中的組合關係和聚合關係，現在來整理一下“有益於”與“有益”相關的句子。

<圖1>

句子成分	主語	述語	賓語
類別	名詞	形容詞+虛詞	名詞
陳述句①	運動	有益於	健康

<圖2>

句子成分	主語	述語	賓語
類別	名詞	及物動詞	名詞
陳述句②	運動	有益	健康

從<圖1>和<圖2>的組合關係來看，<圖1>的述語“有益於”與<圖2>的述語“有益”具有聚合關係，因此，它們的語法功能一致，都是主+述+賓的類型。其功能相當於及物動詞。“有益於”是相當於韓語的“…에 유익(有益)하

7) 盧英順,《語法、語彙研究10大認識問題》(2014:88).

다”，而及物動詞“有益”也相當於韓語的“…에 유익(有益)하다”。

下面看一下三種類型的句子。例如：

① 運動對健康有益。
② 運動有益於健康。
③ 運動有益健康。

例①中“對健康”是一個句法單位充當狀語,例②中“有益於”是一個句法單位充當述語。至於例③，意思與例①、例②基本上一樣，但從句型上來看與例②相同，是述+賓結構，但例③沒有虛詞“於”。例③的“有益”應隱含着虛詞“於”的意思。因此，我們認爲形容詞“有益”的意義是“有幫助”“有好處”“有益處”，那麼及物動詞“有益”是“對…有幫助”“對…有好處”“對…有益處”。

在賓語較短的句子中，“有益”與“有益於”可以互相調換，如“運動有益健康”可以改寫成“運動對健康有益”“運動有益於健康”：可以直接用及物動詞“有益”來表達，也可以用短語的形式“有益於”來表達。但在“類推教學法有益於學習者學習信心的培養(《立足於對外漢語教學的類推研究》p.25)”中，理論上這裏的“有益於”可以爲及物動詞“有益”所代替，但實際上賓語太長時，用“有益於”比起用“有益”更自然，更有韻律感，而且更讓人容易識別句子的構造。

五、結論

綜上所述，我們關於“有益”，有如下的結論：

1）“有”加上抽象名詞性詞語構成形容詞或形容詞性結構。

2）“有益”的意思是“有幫助”“有好處”“有益處”。再者,“有益”本身是由“有”加上抽象名詞“益”構成的詞,因此，“有益”是形容詞。

3）由於介詞“於”的前附性而產生的“有益於”是由“有益(形容詞)”加上“於(虛詞)”構成的及物動詞性結構，充當述語。在現代漢語中，“有益”獲得了及物動詞的詞性,可以直接帶賓語。

4）及物動詞“有益”與及物動詞性短語“有益於”具有聚合關係，意思和功能也基本上相同。及物動詞“有益”實際上隱含着“於”的意思。

5）在現代漢語中，及物動詞性結構“形容詞(有益)+虛詞(於)”中的“於”相當於介詞“對”，及物動詞“有益”的釋義應是“對……有幫助”“對……有好處”“對…有益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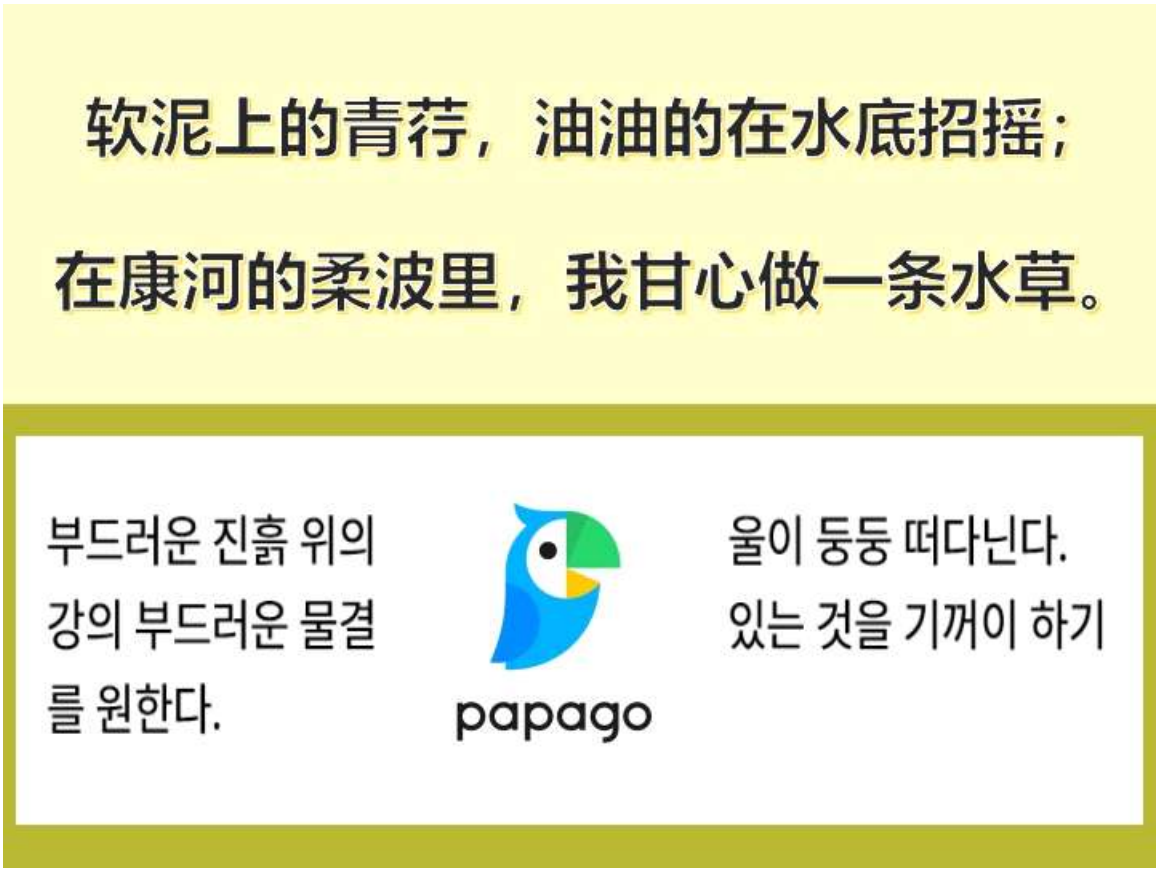
【메 모】

【어학 분과】 발표 ⑧

4차 산업혁명과 중국어 교육의 미래

— 한국 거점 국립대 중국 관련 학과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이근희* · 김현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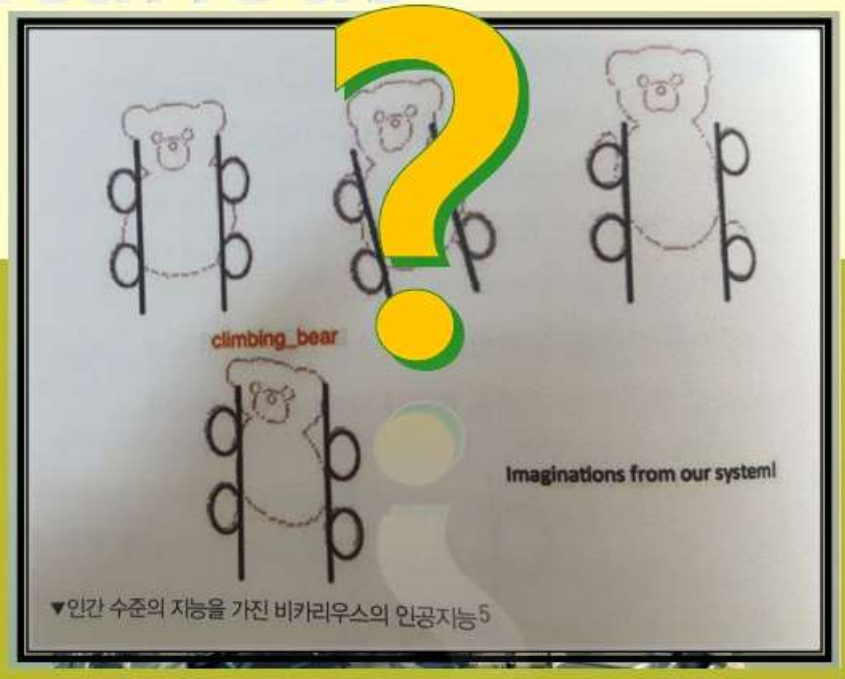
* 부경대학교 (egg1214@naver.com)
** 부경대학교

리커창 총리의 총리 책임제는
헌법의 사문화된 규정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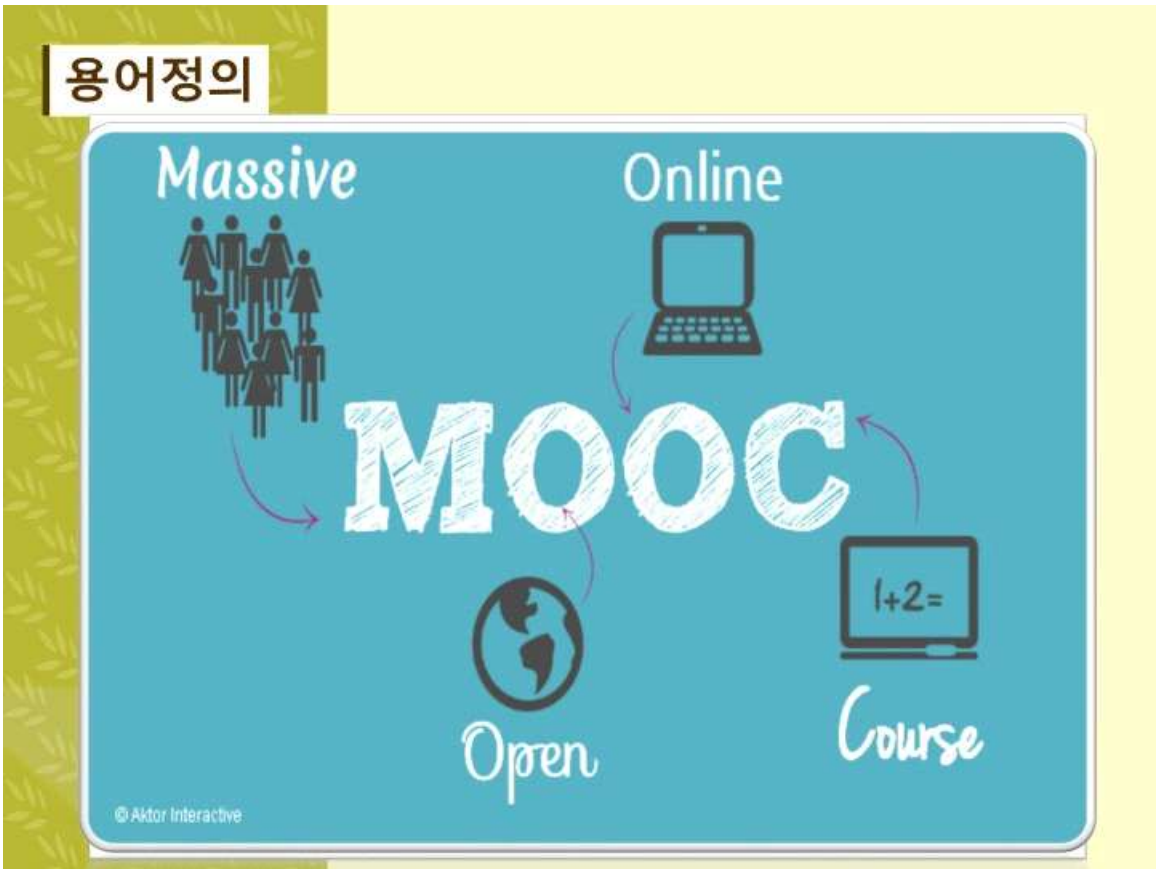
总理李克强总理的总理责任制很有可能变成宪法的"一纸空文"。

zonglǐ lǐkèqiáng zonglǐ de zonglǐ zérènzhì hen you kěnéng biànchéng xiànfǎ de yìzhǐ kōngwén

Vicarious



4차 산업혁명과
중국어 교육의 미래
-한국 거점국립대 중국관련학과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Chinese language education in college
부경대학교 이근희, 김현태
egg1214@naver.com
2018.04.27


용어정의
Massive
Online
MOOC
Open
Course
1+2=
© Aktor Intera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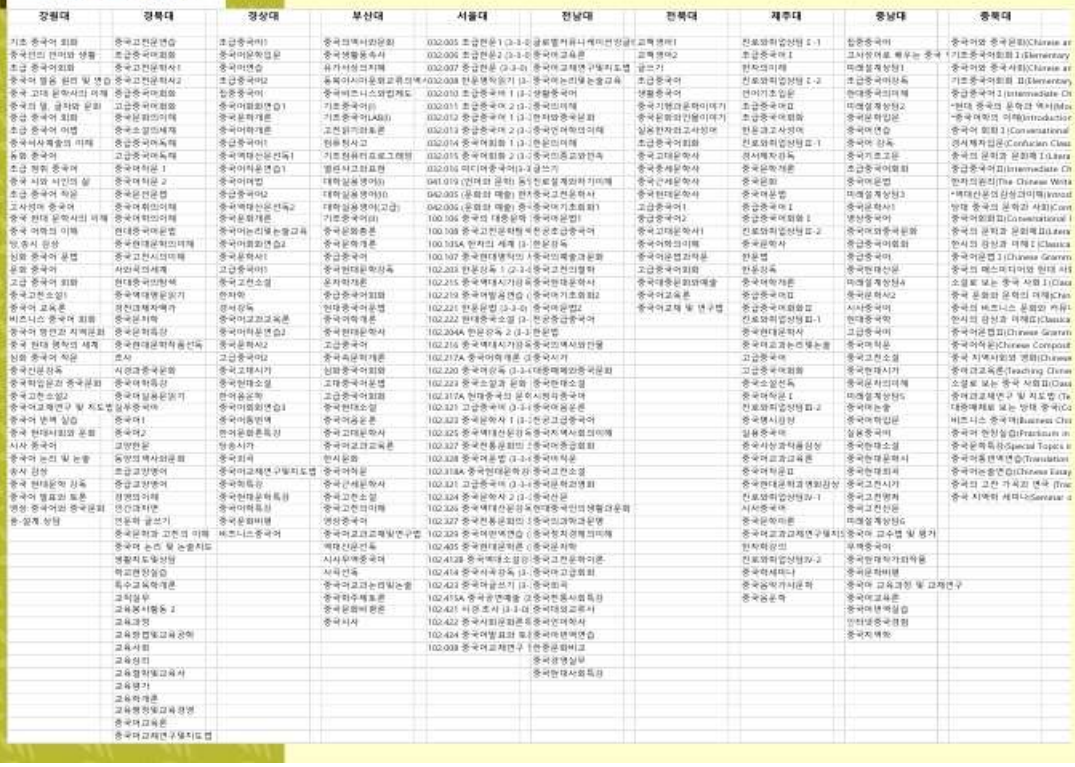
문제제기-AI
Q 4차 산업혁명, 통역 판도 바꿀까?
과거에는 로봇이
문법을 정확하게 익혀서 통역
Q. '4차산업혁명'으로 공공서비스에도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통역 판도 바뀔까요?
스스로 규칙 발견
인간의 언어 영역

문제제기-MOOC
学堂在线
人工智能前沿与产业趋势
《AI 赋能 智赢未来》
课程发起人
直播时间
2018年4月11日（周三）16：40—20:20
aws
Berkeley
跟名校学生一起上课

가설
중어중문학과는 높은 수준의 중국어와 한문 실력을 배양하여 중국의 언어와 문학을 폭넓게 연구하고
한자문화권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어중문학과의 전공과정은 중국 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 과정도 개설되어 있지만,
크게 중국문학과 중국 언어학의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
문학분야는 시, 소설, 산문, 희곡, 사곡, 고전문예이론, 현대문학, 중국학술사, 중국문화 등으로 세분되며,
언어학 분야에는 문법, 음운론, 문자학, 방언학, 중국어 교육, 중국문헌학, 경학 등이 포함된다.
1-1. 중어중문학과의 교육목표
1. 수준 높은 중국어를 교수하여 중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중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2. 중국어학과 중국문학을 집중적으로 교수하여 체계적인 학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육성한다.
3. 중국의 언어,문학,문화,정치,경제,사회 등 중국과 관련된 다방면의 지식을 교수하고 이를 체험하도록 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는 197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중어중문학과는 중국어문학을 통해 중국의 풍부한 문화전통을 배우고, 비약하는 21세기 중국에 대응하는 경쟁력있는
중국전문가를 키워냅니다.
전공분야는 크게 중국문학, 중국어학, 현대중국의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현재 중국인 초빙교수 1명을 포함한 8명의 교수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원에는 석·박사과정을 두어 문학과 언어에 대한 미적 감응력과 과학적 분석력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연구대상
서울대
중어중문학
KNU
강원대학교
강원대
중어중문학
부산대
중어중문학
충남대
중어중문학
전북대
중어중문학
전남대
중어중문학
경북대
중어중문학
충북대
중어중문학
경상대
중어중문학
제주대
중어중문학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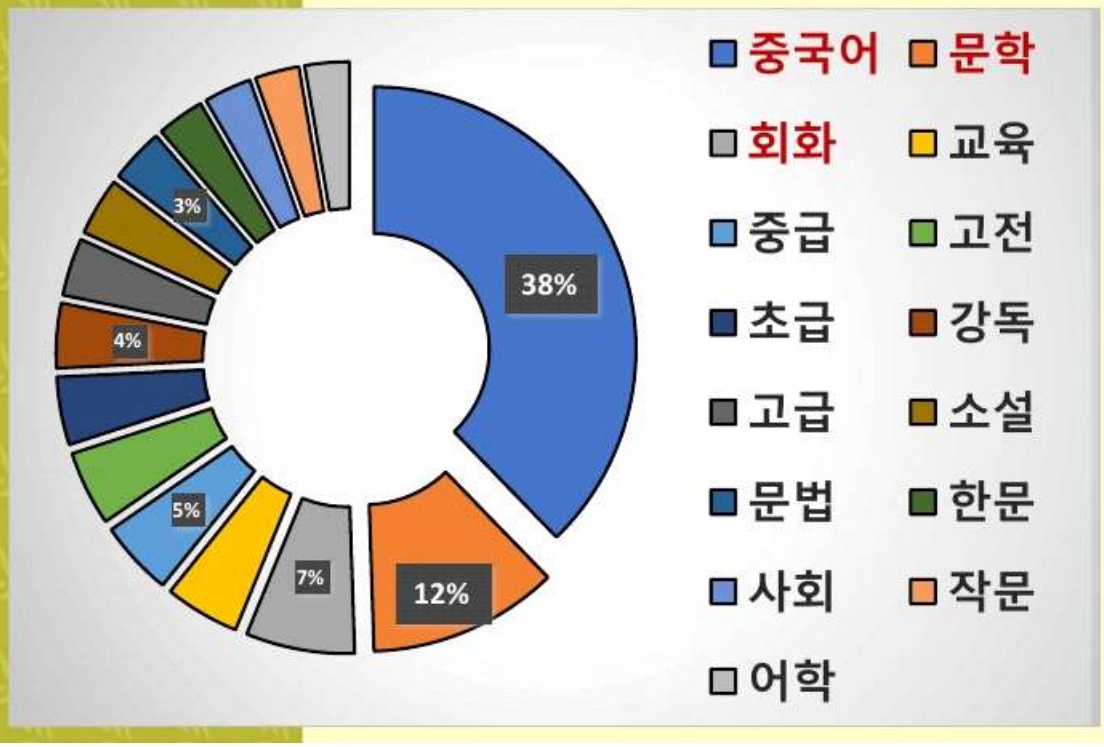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기초 중국어 회화	중국고전문변습	초급중국어1	중국의역사와문화	032.005 초급한문 1 (3-3-0) 글로벌커뮤니케이션	고급 영어1	전로와취업성탐 I -1	입문중국어	중국어와 중국문화(Chinese ar
중국인의 언어와 생활	초급중국어회화	중국어문학입문	중국생활동속사	032.006 초급한문 2 (3-3-0) 중국어고육론	고급 영어2	초급중국어 I	고사성어로 배우는 중국	기초중국어회화 I (Elementary
초급 중국어회화	중국고전문학사1	중국어연습	유가사상의지혜	032.007 초급한문 (3-3-0) 중국어고체변 구및히도법	글쓰기	전로와취업성탐 I -2	현대의이해	미래설계상담1	중국어와 중국사회(Chinese ar
중국어 발음 원리 및 연습	중국고전문학사2	초급중국어2	동북아시아문화교류의역사	032.008 한문명작읽기 (3-3-0) 중국어논리및논술교육	초급중국어	전로와취업성탐 I -2	초급중국어입독	초급중국어회화 II(Elementary
중국 고대 문학사의 이해	중급중국어회화	입문중국어	중국비즈니스와법제도	032.010 초급중국어 1 (3-1-0) 생활중국어	생활중국어	연이기초입문	현대중국의이해	중급중국어 I (Intermediate Ch
중국의 법, 경제와 문화	고급중국어회화	중국어회화(연습)	기초중국어(i)	032.011 초급중국어 2 (3-1-0) 중국의이해	중국기행과문학이해기	초급중국어II	미래설계상담2	"현대 중국의 문학과 역사(Mo
중급 중국어 회화	중국문화의이해	중국문화개론	기초중국어(LAB)	032.012 중급중국어 1 (3-1-0) 현대와중국문화	중국문화와건물이해기	초급중국어회화	중국문학입문	"중국어학의 이해(Introduction
초급 중국어 어법	중국소설의세계	중국어학개론	고전읽기와토론	032.013 중급중국어 2 (3-1-0) 중국언어학의이해	실용한자와고사성어	한문과고사성어	중국어연습	중국어 회화 I (Conversational
중국어사체변의 이해	중급중국어독해	초급중국어1	한류학사고	032.014 중국어회화 1 (3-1-0) 한문의이해	초급중국어회화	전시와취업성탐 II -1	중국어 산독	전시체차입문(Confucian Class
실용 중국어	고급중국어독해	기초한국어프로그래밍	기초한국어프로그래밍	032.015 중국어회화 2 (3-1-0) 중국의종교와한족	중국고대문학사	전시와취업독	중국의 문학과 문화해 I (Litera	
초급 형위 중국어	중국어작문 1	중국어실문연습1	컴퓨터고급프로그램	032.016 미디어중국어(스크실기)	중국근세문학사	중국문학개론	초급중국어회화	중급중국어 II(Intermediate Ch
중국 시와 사인의 삶	중국어작문 2	중국어어법	대학실용영어(i)	041.019 (인력과 문학) 동기전로설계와커기이해	중국근세문학사	중국문화	중국어문법	한자의원리(The Chinese Writ
초급 중국어 작문	중국문전문법	중급중국어2	대학실용영어(ii)	042.005 (문화와 매체) 한자중국전로학사	중국현대문학사	중국어문법	미래설계상담3	"베트남문의상성과이해(Introd
고사성어 중국어	중국어회화이해	중국역대산문선독2	대학실용영어(고급)	042.006 (문화와 매체) 중국중국기초회화1	고급중국어 I	중급중국어 I	중국문학사1	양대 중국의 문학과 사회(Cont
중국 현대 문학사의 이해	중국어회화이해	중국문화개론	기초중국어(ii)	100.106 중국의 대중문학 (중국어문법)	중급중국어2	중급중국어회화 I	생상중국어	중국어회화II(Conversational I
중국 어휘의 이해	현대중국어문법	중국어논리및논술교육	중국문화총론	100.108 중국고전문학텍스트분석중국중국어	중국고대문학사 I	전로와취업성탐 II -2	중국어와중국문화	중국의 문학과 문화해II(Litera
인종시 감상	중국현대문학의이해	중국어회화연습2	중국문학개론	100.1054 한자의 세계 (3-한문강독	중국어학의이해	중국문학사	중급중국어회화	한시의 감상과 이해 I (Classica
신화 중국어 문법	중국고전시선의이해	중국문학사1	중급중국어	100.107 중국현대명작의 사중국의복중고문화	중국어문법과작문	한문법	중급중국어	중국어문법 I (Chinese Gramm
문화 중국어	사전국전세계	고급중국어1	중국현대문학강독	102.203 한문강독 1 (2-1-0) 중국고전인철학	고급중국어회화	한문강독	중국현대산문	중국의 매스미디어와 현대 사
고급 중국어 회화	현대중국인형씩	중국고전소설	문학개론	102.215 중국역대시기의중국현대문학사	중국중문문화와예술	중국어학개론	미래설계상담4	소설로 보는 중국 사회 I (Class
중국고전소설1	중국역대명문읽기	한자학	중급중국어회화	102.219 중국어발음연습 (중국어기초회화2	중급중국어고급	중국문학사2	중국문학사	중국 문화의 문학의 이해(Chin
중국어 교육론	현전대책저에가	문서강독	현대중국어문법	102.221 한문문법 (3-3-0) 중국어문법2	중급중국어회화II	시사중국어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커뮤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중국문자학	중국어고고고육론	중국어학개론	102.222 현대중국소설 (3-한문중급중국어	전로와취업성탐 III-1	중국어학	현대중국학	한시의 감상과 이해2(Classica
중국어 명언과 지혜문화	중국문학특강	중국어작문연습2	중국문학개론	102.2044 한문문속 2 (3-3-한문법	중국현대문학사	고급중국어	중국어문법III(Chinese Gramm	
중국 현대 문학의 세계	중국현대문학작품선독	중국문학사2	고급중국어	102.216 중국역대시기의중국의역사와한문	중국어고고학스트랙스톨	중국문학입문	중국어작문(Chinese Composit	
신화 중국어 작문	초사	고급중국어2	중국독문학개론	102.217A 중국어학개론 (3-중국사기	고급중국어	중국고전소설	중국 지역사회와 언화(Chinese	
중국신문강독	시경과중국문화	중국고대시기	신화중국어회화	102.220 중국어강독 (3-3-1 대중매체와중국문화	고급중국어회화	중국어대시기	중국어교육론(Teaching Chine	
중국학입문과 중국문화	중국어학특강	중국현대소설	고급중국어문법	102.223 중국소설과 문화 (중국현대소설	중국소설선독	중국어작문 I	소설로 보는 중국 사회 II(Class	
중국고전소설2	중국어실용문법기	한어음운학	고급중국어회화	102.217A 현대중국인 문학시적과중국어	중국어학개론 I	미래설계상담5	중국어교체연구 및 지도법 (Te	
중국어교체연구 및 지도법	실용중국어	중국어음운연습1	중국현대소설	102.321 고급중국어 (3-3-1 중국어실문론	전로와취업성탐 II-2	중국어논술	대중매체로 보는 현재 중국(Co	
중국어 번역 실습	중국어1	중국어통번역	중국어음운론	102.323 중국문학사 1 (3-1-0 한문고급중국어	중국명시감상	중국어학입문	비즈니스 중국어(Business Chi	
중국 현대시회와 문화	중국어2	한어문법론강	중국고대문학사	102.325 중국역대산문과중국지역시험의이해	실용중국어	실용중국어	중국어 현장실습(Practicum in	
시사 중국어	고전한문	당송시가	중국어고고고육론	102.327 중국전통문화의 (중국어중급회화	중국시장과작품선상	중국현대소설	중국문학특강(Special Topics i	
중국어 논리 및 논술	중첩의 역사와문화	중국희곡	한시문화	102.328 중국어문법 (3-3-1 중국어작문	중국어고고학론	중국어대시기	중국어통번역연습(Translation	
중서 강좌	초급고장영어	중국어고체변구및히도법	중국어작문	102.314A 중국현대문학강 중국고전소설	중국어작문II	중국어회화	중국어논술연습(Chinese Essay	
중국 현대문학 강독	중급고장영어	중국어특강	중국근세문학사	102.321 고급중국어 (3-3-1 중국문학과영화	중국현대문학과예화감상	중국고전시가	중국고전 가곡의 연주 (Trac	
중국어 멀표와 토론	정명의 이해	중국현대문학특강	중국고전소설	102.324 중국문학사 2 (3-1-0 중국선문	전로와취업성탐IV-1	중국고전명처	중국 지역학 세미나(Seminar o	
영상 중국어와 중국문화	연극과차연	중국어학특강	중국고전작가이해	102.326 중국역대산문과중국현대중국인의생활과문화	시사중국어	중국고전산문		
중·일계 성명	언문학 글쓰기	중국문화비평	영상중국어	102.327 중국전통문화의 (중국의과학고문명	중국문학이론	미래설계상담6		
	중국문학과 고전의 이해	비즈니스중국어	중국어고고고체및연구법	102.329 중국어번역연습 (중국현지경제의이해	중국어고고체변구및히도	중국어 고수법 및 평가		
	중국어 논리 및 논술지도		역대산문선독	102.405 중국현대문학론 (중국문학학	한자학강의	유학중국어		
	병렬지도방상담		시사무역중국어	102.4128 중국역대소설강의 중국고전문학이론	전로와취업성탐IV-2	중국언어학가외학물		
	학교편장실습		시작선독	102.414 중국시작강독 (3-중국어고급회화	중국어세미나	중국문학비평		
	특수교육학개론		중국어고고논리및논술	102.423 중국어글쓰기 (3-중국희곡	중국중국가사문학	중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연구		
	교직실무		중국학주제토론	102.415A 중국문언해설 (3 중국전통시험특강	중국문화론	중국어교육론		
	교육봉사활동 2		중국문화비평론	102.421 시경 조사 (3-1-0 중국대외고육사		중국어번역실습		
	교육과정		중국시사	102.422 중국사회문화론특중국언어학사		인턴생중국경험		
	교육정보및교육공학			102.424 중국어멀표와 독(중국어번역연습		중국지역학		
	교육사회			102.008 중국어교체연구 (한중문화비교				
	교육심리				중국문명실무			
	교육정책및교육사				중국현대시험특강			
	교육평가							
	교육학개론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중국어고육론							
	중국어교체연구및지도법							

자료분석

				교육	중급	고전	초급	강독	고급	소설	문법	한문	사회	작문	어학	영어	논술	한자	연구	역사	취업	감상	실용	시가	번역	예술
강원대	22	3	5	1	1	2	4	2	1	2	1	0	1	2	1	0	1	0	1	0	0	2	0	0	1	1
경북대	18	7	3	11	3	5	2	0	2	1	2	1	1	2	2	2	1	0	1	1	0	0	1	0	0	0
경상대	22	5	3	2	2	1	2	1	2	2	0	0	0	2	2	0	1	1	1	0	0	0	0	2	1	0
부산대	18	6	3	1	2	3	0	1	3	2	2	0	0	1	1	3	1	0	0	2	0	0	3	0	0	0
서울대	18	8	2	0	3	2	4	10	2	3	2	7	3	0	1	2	0	2	1	0	0	0	0	2	1	3
전남대	17	4	4	2	2	4	1	1	2	2	3	3	3	1	2	0	1	1	1	2	0	0	0	1	1	1
전북대	10	6	2	1	1	0	2	0	2	0	1	0	0	1	1	2	0	1	0	0	0	0	1	0	0	1
제주대	18	6	4	1	4	0	3	2	2	1	2	3	0	2	1	0	1	2	1	0	8	3	1	0	0	0
충남대	21	5	2	2	2	4	2	2	1	2	1	0	0	1	1	0	1	0	1	1	0	0	1	2	1	0
충북대	16	6	4	1	2	1	0	0	0	2	2	0	6	1	1	0	1	1	1	2	0	3	0	0	1	0
합계	180	56	32	22	22	22	20	19	17	17	16	14	14	13	13	9	8	8	8	8	8	8	7	7	6	6

논리	즈니	시사	언어	지역	음운	문자	토론	글쓰기	영상	한시	희곡	발음	통번역	중국어	무역	중매체	세미나	사상	인물	사고	인터넷	정치	경제	심리	시청각	인문	비교	통역	창의	로젝	융합	과목수
1	1	1	1	1	0	0	1	0	1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9
1	0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0	0	0	0	56
1	1	0	0	0	1	0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0
1	1	2	0	0	1	1	2	0	1	1	0	0	0	0	1	0	0	1	0	2	0	0	0	0	0	0	0	0	0	0	0	47
0	0	0	1	0	0	0	1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9
1	0	0	2	1	1	1	0	1	0	0	1	0	0	1	0	1	0	0	1	0	0	1	1	0	1	0	1	0	0	0	0	5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2
1	0	1	1	0	1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5
0	0	1	0	1	0	1	0	0	1	0	1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48
0	2	0	0	2	0	0	0	0	2	0	0	1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7
6	5	5	5	5	4	4	4	4	3	3	3	2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0	0	0	0	434

결과도출



교육과정설계

IHS

서강대학교 중국문화전공 커리큘럼		
중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고대통사	중국의 현대와 문학
제자강독	중국현대사 개관	포스트사회주의시기의 중국문화
중국문학사	유교문화의 철학적 배경	현대중국어문법
중국문화 주제특강	도교문화의 철학적 배경	중국 언어의 이해
중국어학 주제특강	중국의 유교와 도교	중국 언어로 보는 중국문화
중국어 통번역	현대 중국 정치	한자와 중국문화
무역중국어	오늘의 중국 경제	중국인의 생활문화
중국문화 사례분석 연습	전공기초중국어1	중국인의 세계관
중국고전 속의 인재경영	전공기초중국어2	그림 속의 중국
한중 문화사업과 문화콘텐츠	중국어회화1	중국의 지역문화
중국어회화2	중국어작문1	영화와 현대중국
중국어작문2	고대한어기초	중국종교의 이해
스크린 중국어	중국문화의 이해	중국어3
중국문화 텍스트 읽기	천자문의 세계	중국어4
중국 고전시의 세계	오늘의 중국, 중국인	고급 중국어
중국신화와 내러티브	중국 문학 입문	신문과 뉴스
중국의 공연예술	중국문화의 역사의 이해	중국의 대중문화
중국고전명문산책	중국사상의 이해	중국문화 속의 여성
무협의 문화적 의의 : 소설과 영화	문화연구 : 상징과 권력	사서와 현대인의 수양

교육과정설계

교육과정설계

Environment, Resource and Energy 能源、资源及环境
China's Development and Environment 中国发展与环境
Policy Instruments for Environmental and Resource Management
环境与资源管理的政策工具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环境风险评价与管理
Water Resources and Water Environment 水资源与水环境
Global Environment Fundamentals 全球环境基础
ERE Economics ERE 经济学

Chinese Studies中国学
Social Issues of China's Modernization中国现代化中的社会问题
Anthropology and Chinese Studies 人类学与中国研究
Religious Systems in China 中国信仰体系
Chinese History Since 1949 1949 年后的中国史
China's Rural Politics中国乡村政治
Ethnic Minorities in Chinese Society 少数民族与中国社会
Modern Chinese Society and Culture 近代中国社会与文化

【사회과학 분과】 발표 ①

朝鲜使臣所见晚明辽东社会的民生与情势

刁书仁*

【摘要】有明一代，在以明朝为中心的东亚“华夷秩序”中，朝鲜被视为朝贡各国的典范，朝鲜每年都要数次派遣使臣前往北京朝贡。朝鲜使臣作为朝鲜士大夫的一个群体，自幼读中华典籍，秉承程朱之学，一切以中华文化为本位，并运用这种价值观念进行观察与思考。他们对晚明辽东社会的民生与情势诸多方面的观察与思考，为我们的研究提供了极为难得的文献资料，这些资料既可补充国内史料的阙失与不足，更有助于从异域的视角，加深我们对晚明辽东社会的认识。

【关键词】朝鲜使臣；所见；晚明辽东；民生与情势。

明代辽东，指明辽东都指挥使司所辖地区，东至鸭绿江，西至山海关，南至旅顺口，北至开原。[1]该区域为明九边长城防御体系的东端，东、南为广阔的东亚海域，北临草原—森林交界地带，西为蒙古高原，地理位置十分重要，其不仅面临来自内陆草原、森林民族，还处于连接东亚陆海疆的枢纽地带。因辽东所处特殊地缘与战略地位，所以被明廷视为“神京左臂”，其安危关系明朝的存亡，如文献所言：“沧海之东，辽为首疆，中夏既宁，斯必戍守。”[2]

学界利用国内文献对明代辽东的研究已取得较多成果。[3]近年来，域外汉籍文献逐渐受到学界关注，如朝鲜汉籍文献《朝鲜王朝实录》、《备边司誊录》等官修史书中，保留许多有关中国的记叙。其实，尚有许多朝鲜汉籍文献尚未得到充分的利用，像朝鲜使臣依据自己出使中国时的见闻写成的汉文燕行文献，该文献与朝鲜官方史书对中国的记录相比，具有直言、真实、具体，视角独特等特点。[4]有鉴于此，笔者以朝鲜赴明使臣所撰《朝天录》为基本史料，参照其它相关文献，探讨朝鲜使臣是如何观察晚明辽东社会的民生与情势的。

一、晚明辽东赋役繁重、灾害频仍

朝鲜使臣出使明朝最关注的问题莫过于明朝治下百姓的民生。有关晚明辽东社会赋税、徭役繁重，致使百姓民不聊生，明代官私文献虽有记载，但朝鲜使臣以异域之眼也留下诸多记录。万历二年（1574），使臣赵宪、许篈赴

* 东北师范大学历史文化学院

1) 毕恭：《辽东志》卷1，地理条记载的更为详细：“东至鸭绿江，五百三十里，西至山海关一千五十里，至北京一千七百里，南至旅顺口七百三十里，渡海至南京三千四十里，北至开原三百四十里。”辽沈书社1984年，第4页。

2)《明太祖实录》卷103，洪武九年正月癸未，台北：“中央研究院”历史语言研究所1962年。

3) 代表性的著作有李健才：《明代东北》辽宁人民出版社1986年；杨旸：《明代辽东都司》中州古籍出版社1988年；张士尊：《明代辽东边疆研究》吉林人民出版社2002年；肖瑶：《李成梁与晚明辽东政局研究》东北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2006年；（韩）南义铉：《明代辽东政策研究》江原大学校出版社2008年；（日）荷見守義：《明代遼東与朝鮮》，汲古書院，平成二十六年；代表性的论文有孙文良：《明代的辽东与明末的辽事问题》，《满洲崛起与明清兴亡》，辽宁大学出版社1992年；姜守鹏：《熊廷弼、孙承宗、袁崇焕经辽研究》，《东北师大学报》1992年第4期；（日）田川孝三：《毛文龙与朝鲜关系》，《青丘说丛》1932年第3卷；（韩）郑炳喆：《明末辽东沿海一带的“海上势力”》《明清史研究》第23辑，2005年。

4) 近年学界已注意到使用《朝天录》为基本史料研究明代辽东与朝鲜的关系，如韩国吴一焕：《17世纪初明朝与朝鲜海路交通的启用》《历史教学》1996年第12期；郑勋士：《朝鲜后期<燕行录>中的辽东》，《韩国民族文化》2007年第29卷；曹苍录：《1636年的海路使行与李晚荣的<崇祯丙子朝天录>》《人文科学》，2011年第47卷；国内刘春丽的《明代朝鲜使臣与中国辽东》吉林大学博士论文2012年，是少见的利用《朝天录》研究明代辽东的专文，但该文重点放在明前期辽东与朝鲜的关系上，而非晚明辽东社会。

明，一路就十分关注百姓的民生。六月二十日，他们抵达连山关，投宿于彭文珠家。晚上，赵宪与主人就辽东赋税问题展开如下讨论：

> （赵宪）曰：“你有许多田，怎么有穷象乎？”（主人）曰：“这地方都司岁征人银一两，若有十男之家，则岁纳十余两银，如之何不穷也”？（赵宪）曰：“这地方御史为谁？”（主人）曰：“姓郭，名不知，后闻则思极也。”（赵宪）曰：“那里人耶？”（主人）曰：“南人也，初来只是瘦蛮子，今作胖蛮子（原文注：胖，肥也；蛮子者，北人辱南人之辞。郭是山西人，而谓之蛮子者）”。5)

笔谈中，赵宪得知辽东赋税征收以人丁为准，比以地亩为准课税重，致使辽东百姓贫困，百姓因此痛恨这位与地方官沆瀣一气的御史，讽刺他“初来只是瘦蛮子，今作胖蛮子”。这也引起赵宪对这位御史的痛恨，他在日记中写道：“以其受天子命为御史，不能弹罢贪残守令，以贻民害，故辱以蛮子，讥其瘠民而自肥如此。可知其尸位也”。6)

上述笔谈的内容，未见明代官私文献载录，可谓十分珍贵的田野调查资料，极具史料价值。主人彭文殊向赵宪讲述其家赋税负担，真实地反映了晚明辽东社会存在着严重赋税不均。这种状况，不仅在晚明辽东地区，关内地区也是如此。7) 因此引起时人的关切，上疏朝廷。是年十二月，顺天府府尹施笃在奏疏中就针对赋税严重不均问题深刻指出：“方今地亩人丁日渐减少，且额外增役有加无已，细访其故：或富豪并吞地土，或势要强占户丁，或飞洒于诡寄，或漏网于影射，有司坐视，莫敢谁何，遂致闾阎小民甘心抛荒田产，逃移四方，又何怪乎丁粮渐减而赋役愈重耶”？8)而作为朝鲜士大夫的许篈，面对天朝百姓的沉重赋税，颇有同感地在日记中这样写道：

> 余尝患我国之贡额烦重，民不堪命，今闻中朝亦如此，则愁怨之声，举普天下皆然矣。夫华夷虽有内外，而其违忧怀惠之性，则环四海如一，此仁人君子之所宜动念也。9)

在许篈看来，天朝百姓赋税之重与属国朝鲜百姓赋税之重并无两样，就是说“贡额烦重，民不堪命”，无论在宗主国明朝，还是属国朝鲜都是一样的。由此，他发出“仁人君子之所宜动念”的慨叹。这种慨叹是士大夫的一种普世情怀的表白。

不仅如此，朝鲜使臣还十分关注晚明辽东的徭役问题。万历二十六年（1598）十月，陈奏使李恒福一行赴明，途经广宁，亲眼所见这座昔日繁华的辽西重镇，变成“商贾皆闭铺不坐市，列肆寂然，下人凡有所需，多不得买卖”的窘况。李恒福大为不解，询问其由，当地人言：“都御史李植，将拓地于辽右，驱出鞑虏（指蒙古—引者），筑城于旧辽阳，发民起城役，加征科外商税。至于人家间架，皆有税以助其役，辽民因大怨，一时废肆”。10)

矿税使高淮乱辽，使原本赋役繁重的辽东雪上加霜。明神宗是位酒色财气俱全的皇帝，如孟森所言：“怠于临政，勇于敛财，不郊不庙不朝者三十年，与外廷隔绝，惟倚阉人四出聚财，矿监税使，毒遍天下”。11)一时间，明朝上下无一片安乐之地，贫富尽倾，农商交困。12)万历二十七年，神宗帝轻信卫所千户阎大经上疏所奏，如派高淮

---

5) 赵宪：《朝天日记》，万历二年六月二十日，《重峯先生文集》卷11，韩国民族文化推进会编：《影印标点韩国文集丛刊》，第54册，首尔：景仁文化社，1990—2001年。

6) 赵宪：《朝天日记》，万历二年六月二十日。

7) 七月二十九日，许篈、赵宪到达蓟州渔阳，投宿于莫违忠家。许篈仍就其关注的“中朝税敛多寡之数”向主人请教。莫违忠答曰：“一顷为百，凡耕一顷田者，岁中最丰则纳银七八两，不稔则二三两。此外，又有杂役，如出牛驴、酿官酒、养苑马之类，色目繁多，贫者则至典子卖女以偿之。大率耕一顷者，有年则收二百斛，次则百余斛，其在饥岁，则得六十余斛，中人十口之家，才可以自给。而今者赋役极重，一顷之出，不足应县官之所需，故民胥怨咨焉”。许篈曰：“你亦苦此役乎”。违忠曰：“余则在族人官下，故不为此等差役云”。许篈曰：“盖中朝凡在官者，力足以庇其族，此所以富益富，而贫益贫也，诚可痛悯”。许篈：《荷谷先生朝天记》，万历二年七月二十九日，《荷谷集》，韩国民族文化推进会编：《影印标点韩国文集丛刊》，第58册，首尔：景仁文化社，1990—2001年。

8)《明神宗实录》卷32，万历二年十二月丙辰。

9) 许篈：《荷谷先生朝天记》，万历二年七月二十九日。

10) 李恒福：《朝天录》下，《白沙先生别集》卷5，韩国民族文化推进会编：《影印标点韩国文集丛刊》第62册，首尔：景仁文化社，1990—2001年。

11) 孟森：《明清史讲义》，中华书局，1981年，第246页。

12) 关于矿监税使的研究，参见汤刚、南炳文：《明史》（下）上海人民出版社2003年，第552—566页；樊树志：《晚明史》（1573—1644年），复旦大学出版社2003年，第728—755页；孙文良《矿税监高淮乱辽述略》，《明史研究论丛》，1882年，第

赴辽东署理矿监税务，朝廷“每年可得银三万二千两”以及开原、广宁马市的收入无数之言蛊惑。[13]不顾廷臣反对，派宦官高淮前往辽东开矿收税。[14]高淮入辽后便大肆搜刮辽民。《明实录》记载，万历二十九年，高淮向朝廷内库进奉采银2万两，[15]三十一年，“进子粒银一千八百余两，矿税银二万三千两，金六十两，马匹、貂鼠等物。”[16]同年十月，高淮又进“岁额银七千两，马五十匹”。[17]仅四个月光景，高淮就向内库进奉白银达4万余两。毋容置疑，高淮进献数目尽管不少，但绝不是其搜刮的全部。《全边略记》载：“税监高淮贪心愈炽，取赢马散给军，收好马之价十倍。至于布靴、香袋、米面诸货，无不派勒各营及民间者，追呼鞭挞，岁无宁日。”[18]

有关辽民深受矿监税使之害朝鲜使臣多有记载。如前所述，万历二十六年十月，朝鲜右议政李恒福以陈奏使身份赴明，正值矿监税使盛行之时，他在日记中载：神宗皇帝“分遣太监，置店于外方，名曰皇店，征纳商税，凡大府巨镇商人辏集之地，皆有皇店，每店岁中所入，多者二万余两。无赖射利之徒，乘时而攘臂，起纷纭，上本争请采珠、开矿者不可胜记”。[19]翌年四月，他归国后，在回复宣祖国王询问“十三省，已为开矿”的问话时，又言：“不独十三省，太监分出天下，言利之道大开。臣行一路处处设皇店，榜曰‘奉谕圣旨征收国助’，虽一蔬一菜亦皆有税。道路之人争相怨詈曰‘皇上爱钱不爱人，未有如此而享国长久之理，我等不久亦将流离如汝等’云。”[20]至于矿税监高淮征敛辽东的情形，是年五月，朝鲜接伴使沈喜寿有如下评论：“天朝太监（高淮一引者），以开矿、店税， 出来金州卫地方，苛虐征敛，无所不至，市民不胜怨苦。”[21]十一月，以书状官身份赴明的使臣赵翊亲见高淮等矿税使自广宁回京的情形。他日记中载：“太监一行夫马，几至数百，残驿无计答应，至拏守驿丞之妻，公肆凌辱。”[22]由此可知，高淮所率回京进献的人马竟达数百人，造成驿路一时难以供应，更有甚者，竟公然凌辱驿丞之妻，其专横跋扈，无视法纪纲常至如此地步。对此，使臣赵翊愤慨地说：“宦官之害，乃至于此，中国事亦可知也！”[23]不仅如此，朝鲜使臣以其敏锐的异域之眼已经觉察到，矿监税使给晚明社会带来的危害。谢恩使李好闵归国后，给国王上的闻见书启中云：“民怨骚然，物货不通，关津萧条……左珰横恣，干预外政”，“前头之事，可虑矣”。[24]而此前随李恒福同赴明的使臣黄汝一更是以其敏锐目光，在日记中深刻地指出，晚明社会已处于内外交困，民穷财尽，危机四伏，岌岌可危的崩溃情势，百姓唯一的出路就是铤而走险，起而造反。[25]朝鲜使臣所言可谓切中时弊。

晚明辽东社会不仅赋役繁重，自然灾害更是频发。自然灾害主要有地震、水灾、旱灾、虫灾、瘟疫等。有学者对《明实录》中辽东赈灾的记载加以统计，仅嘉靖朝45年间，发生各种灾害就达37次之多。[26]有关晚明辽东的自然灾害，明代官私文献记载极为简略，而经由辽东前往北京的朝鲜使臣却多有详细载录。嘉靖十二年（1533）二月，

248—265页。

13)《李朝宣祖实录》卷112，宣祖三十二年四月辛巳，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1年。

14) 给事中包见捷在疏中尖锐地指出：“辽左神京肩臂，视他镇尤重。奸徒敢为祸首，陛下不惩以三尺，急罢开采，则辽事必不可为，而国步且随之矣。”，时辽东抚按及山海主事吴钟英等也积极配合相继上疏反对，然而，万历帝“皆不纳”。《明史》卷237《包见捷传》，第6170页。

15)《明神宗实录》卷365，万历二十九年十一月壬戌。

16)《明神宗实录》卷385，万历三十一年六月丙戌。

17)《明神宗实录》卷389，万历三十一年十月庚寅。

18) 方孔炤：《全边略记》卷10，《辽夷略》，潘喆等编：《清入关前史料选辑》第1辑，中国人民大学出版社1884年，第231页。

19) 李恒福：《朝天录》下，第449页。

20)《李朝宣祖实录》卷112，宣祖三十二年闰四月辛卯。

21)《李朝宣祖实录》卷133，宣祖三十二年五月辛酉。

22) 赵翊：《皇华日记》，万历二十七年十一月二十六日，《可畦先生文集》卷9，韩国民族文化推进会编：《影印标点韩国文集丛刊》第9册，首尔：景仁文化社，1990—2001年。

23) 赵翊：《皇华日记》，万历二十七年十一月二十六日。

24)《李朝宣祖实录》卷126，宣祖三十三年六月乙亥。

25) 黄汝一在其《银槎日录》中直言不讳地说：“天灾时变，通古所无，皇极灾，乾、坤两宫又灾，黄河中渴，泰山中裂四十里，龙开刑人，监收店税，天下骚然，贿赂公行，有识退藏。皇长子，李妃生，为人松；陈妃又生一子；次子，郑妃生。郑妃苏州人，专宠后宫，子亦称贤，上颇欲为副，以此尚未立春宫云。礼部右侍郎朱国祚训之云：大起乾、坤之役，征敛无艺，天下称之曰：朝廷爷爱银不爱民。又民间奢侈成风，虚文日增，所见多有隐忧。呜呼叹哉！海寇杨一龙又叛，南边不靖，北鞑又盛，再见偾将之辱，北境可虑。”见《海月先生文集》卷10，韩国民族文化推进会编：《影印标点韩国文集丛刊》第10册，首尔：景仁文化社，1990—2001年。

26) 参见张世尊：《明代辽东自然灾害考略》，《鞍山师范学院学报》，2001年4期。

朝贡使苏巡一行，途径宁远，“于路边人家暂憩”时，听这家主人云，该“地方数百里连岁饥馑，民不聊生，食人之肉，如同嚼牛羊。”苏巡等“闻此言，不胜惊叹”。[27]检索明代文献，嘉靖十二年前后辽东确实发生过灾害，但记载极其简略。[28]万历二十三年，朝鲜南部主事申忠一访问建州时，曾言：万历十六年，辽东地方发生饥馑，“饿殍相望，你类（女真人—引者）归顺望哺于满浦者，日以千计”。[29]万历二十七年，朝贡使李恒福等完成使命回国时，正逢关内外灾害，饥民满道，甚至有卖妻鬻子者。途中，他亲见一老妇行乞至使团居处，哭泣着说：“有子年今十岁，前月卖与城里家，受银一钱半，未过十日，已吃尽无余，此后吾亦无策。村氓卖子者在在皆然，多不过三四钱，小或一钱”。老妇的悲述，使李恒福发出“气象甚惨”的感叹。[30]同行的使臣黄汝一在其三月三十日的日记中也载：“闾民饥甚，至有卖妻鬻子而亦不得为命，十数岁儿直不过一二两金，而人不乐买之。惨矣”。[31]在四月三日的日记中，他又写道：“时，关内极大饥，主事挂榜，令卖鬻妻子者，许于辽东往来转卖”，对此，他慨叹地写道：“虽有各天之叹，亦莫非王土，要以便宜救活为务。”[32]

辽东的灾害除旱灾外，还有水灾、雹灾等。如嘉靖十五年前后，辽东发生前所未有的水灾。见于《明实录》仅有两条载录：一条为嘉靖十五年十月庚子条：“以灾伤，免辽东金州等卫屯粮有差。”[33]另一条为翌年八月己巳条：“以灾，免辽东海州等卫田粮有差”。[34]两条资料仅载金州、海州等卫受灾，并未载何种灾情，显而易见，明廷的载录强调的是朝廷减免受灾地区的“田粮有差”，对于发生的灾情并不予以关注。相必之下，朝鲜使臣的记载较为详实。嘉靖十六年，以书状官身份出使明朝的丁焕，在辽东遭遇了这场水患，他在日记中载：辽河水位暴涨，途径海城、牛庄、广宁等地，见“禾稼屋居之荡没，到处皆然”，据当地人言，“今夏雨水之患，近古所无也”。[35]

晚明辽东的灾害，往往伴有蝗灾发生。对于辽东蝗灾，明代文献记载极为简单。嘉靖三年（1524），辽东发生蝗灾，《明实录》仅载：“以旱蝗，免辽东、广宁、宁远诸卫屯粮”。[36]比较之下，朝鲜使臣记载较为详细。嘉靖三十八年前后，辽东遭受百年不遇的蝗虫害，引起与辽东一江之隔朝鲜的关注。嘉靖四十年（明宗十六年1561）十一月，朝鲜圣节使鱼季琄回国后，向国王报告其所见蝗虫灾情：“辽东以西，旱干太甚，又有虫损之灾，广宁以西，尤为失稔。至于关内，旱灾虽不太甚，虫损甚于关外，飞蝗蔽天，白日成阴，蝝子被野，随处皆然矣。”[37]朝鲜使臣的上述关于蝗虫灾情的记载颇有价值，可以补充明朝国内史料记载的不足。

面对肆虐的自然灾害，明廷上下别无良策，只希冀通过戒斋、祈祷的方式得缓解。崇祯九年（1636），赴明朝贡的书状官李晚荣在其日记中记录了这一情形：“中国近数年枯旱，今年尤甚，各衙门大小官，自今日斋戒，不食酒肉。每朝各诣其衙门，设位牌中门内，行祈祷拜谒之礼。又街巷之间，禁屠杀，尤禁饮酒。又作画龙大旗各色，老少成群，周行市道上，悬三岁小儿于旗竿，金鼓喧阗，祷声如沸。”[38]

二、蒙古对辽东的骚扰

辽东地区与朝鲜一江之隔，辽东的安危实系朝鲜的安危。所谓“全辽若保，则我国无兵之忧”，[39]所以朝鲜使

27)苏巡：《葆真堂燕行日记》，林基中编：《燕行录全集》，第3册，东国大学出版部，2001年，第380页。
28)如《明世宗实录》卷145，嘉靖十一年十二月庚戌条载：“以旱灾免辽东都司定辽左等二十五卫所屯粮各有差”。同书嘉靖十二年己亥条又载：“以辽东旱灾，发太仓银三万两济之。”
29)申忠一：《建州记程图记》，辽宁大学1979年铅印本，第20页。
30)李恒福：《朝天录》下，第445页。
31)黄汝一：《银槎日录》，第195页。
32)黄汝一：《银槎日录》，第196页。
33)《明世宗实录》卷192，嘉靖十五年十月庚子。
34)《明世宗实录》卷203，嘉靖十六年八月己巳。
35)丁焕：《朝天录》，嘉靖十六年七月十九日，《桧山先生文集》卷2，韩国民族文化推进会编，《影印标点韩国文集丛刊》，第2册，首尔：景仁文化社， 1990—2001年。
36)《明世宗实录》卷43，嘉靖三年九月癸酉；嘉靖二十八年，辽东又发生蝗灾，《明实录》载：“以旱蝗免……辽东宁远等卫秋粮有差”。见《明世宗实录》卷353，嘉靖二十八年十月癸亥。
37)《李朝明宗实录》卷27，明宗十六年十一月壬寅，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0年。
38)李晚荣：《崇祯丙子朝天录》，崇祯九年四月初二日，《雪海逸稿》卷3，韩国民族文化推进会编，《影印标点韩国文集丛刊》，第30册，首尔：景仁文化社， 1990—2001年。

臣赴明朝贡，最为关注问题就是辽东社会的情势。

晚明辽东的边患主要来自蒙古各部。明朝初年，明廷对蒙古各部广置卫所，使其保持“自相统属，打围牧放，各安生业”的状态。[40]十五世纪中叶以降，蒙古诸部陆续从原居地南迁到今辽河以西，辽宁省西半部及内蒙昭盟、河北的北部。[41]南迁加强了蒙古诸部间的联系，同时，也刺激了蒙古向明朝抢掠人口、财富的欲望，对辽东地区构成严重的威胁。正统十四年（1449）“土木之变”，为明廷陷入危机的转折点。如马文升所言：时“以故朵颜三卫并海西、建州夷人处处蜂起，辽东为之弗靖者数年。”[42]

有关晚明蒙古对辽东地区的骚扰，朝鲜使臣多有记载。万历二年，使臣许葑、赵宪等前往明朝庆贺万历皇帝生日，下面我们依据许葑、赵宪的日记，看一下他们途经辽东是如何亲身经历与感受蒙古“达贼”对该地区侵扰的。

六月二十一日，许葑、赵宪一行至辽东甜水站。据许葑日记载：甜水站“城围旧则极大，嘉靖辛酉（1561）五月二十七日，达子陷其城，尽抢人民，故今狭小，其制令其易守”。[43]赵宪日记也载：“有达贼来围，竟屠其城，杀戮殆尽，贼去后，不能守城，退筑而小之。”[44]是日午后，经过青石岭时，遇见位李重阳的汾州（今山西汾阳）人，此人曾于嘉靖四十年（1561）“为达子所斫，剑痕满身。自言家乡相距三千五百里，无所以归，因娶妇居于此焉。”[45]赵宪与其笔谈，问其“疮痕甚大，何以免死乎”？其答：当时“积尸身上，贼来以剑触之，疑皆死人，故得免也”。[46]由此可知，蒙古“达贼”之凶残，此人可谓九死一生。七月，许葑一行至辽西广宁制胜铺城堡，此城堡惜时人烟稠密，号称繁庶，嘉靖三十六年（1557），为蒙古“达虏所陷，今则只有人家数四，而陋不可处。”[47]赵宪日记载：该城堡“于丁巳（1557）达贼陷屠之余，人民凋散，不能设铺，只有烟台而已，闻之甚惨”。[48]七月八日，他们宿于闾阳驿城。赵宪《朝天日记》载：嘉靖三十九年，“本国使臣吴祥入此时，有达贼来围，不知几万”，守城明官军欲逃，我国通事官崔世协厉声告之：“弃城之罪可斩”，守城官军“惶恐惟命，遂闭城固守，贼中片箭而退”。[49]九日，至大凌河紫荆山铺，他们见道傍立有神道碑，驻足细观，碑面刻“光禄大夫赠少保左都督谥忠愍王公神道碑，隆庆壬申（1572）六月立”，碑文为翰林修撰会稽罗万化所题。此碑为纪念抗击蒙古“达贼”而死的辽东总兵官王治道而立。许葑日记录其碑文如下：

> 王公名治道，锦州卫人也，曾任辽东都总兵官。庚午年（1570），往山海关调兵回还，闻达子五百余骑入塞，即率亲兵不满一千，往逐之。达子诱出长墙，稍深入，伏兵四面云集，全军皆没。其麾下义州参将郎得功谓其下曰：“主将已死，吾安忍独生，汝等其各散去”。乃尽弃弓矢，拔剑直前，击杀数百人而死。

对这位抗击蒙军而死的辽东总兵官，许葑等默然起敬，感叹道：“其忠义则虽可尚，而非所谓大将也”。[50]是日，到大凌河驿馆。大凌河昔日为辽西第一重镇，而如今却是“城中人家甚稀，多有逃屋，盖曾因饥荒，又经达子之难，故迄不能苏复云”。面对眼前的残破景象，许葑感慨万千，是夜他“步月中庭，久不能寐”。[51]赵宪日记也载：“大抵凌河以北诸小城，曾于丁巳（1557）之间，尽为达贼所陷，闾里萧条，人物甚少。”[52]十六日，至中后所城，赵宪闻当地人言，嘉靖四十五年（1566），蒙古“达贼陷城，被害者千人，被虏者千人，逃免者二千，守堡官弃走得免”，“时城中小儿走死河边者，几至百余，贼见小儿，多于城上倒抛于濠。贼退后，逃者还家，白髻抚心，寻夫哭儿之状极惨云”。[53]十七日，至前屯卫，许葑等观广宁总兵官杨照神道碑。赵宪日记详载其抗击“达

39)《李朝光海君日记》卷147，光海君十一年十二月辛未，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2年。
40)《李朝太宗实录》卷7，太宗四年四月甲戌，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54年。
41)佟冬主编：《中国东北史》第3卷，吉林文史出版社2001年，第656—755页。
42)马文升：《抚安东夷记》，潘喆等编：《清入关前史料选辑》第1辑，中国人民大学出版社1984年，第3页。
43)许葑：《荷谷先生朝天录》，万历二年六月二十一日。
44)赵宪：《朝天日记》，万历二年六月二十一日。
45)许葑：《荷谷先生朝天录》，万历二年六月二十一日。
46)赵宪：《朝天日记》，万历二年六月二十一日。
47)许葑：《荷谷先生朝天记》，万历二年七月五日。
48)赵宪：《朝天日记》，万历二年七月五日。
49)赵宪：《朝天日记》，万历二年七月八日。
50)许葑：《荷谷先生朝天录》万历二年七月九日。
51)许葑：《荷谷先生朝天录》万历二年七月九日。
52)赵宪：《朝天日记》，万历二年七月九日。
53)赵宪：《朝天日记》，万历二年七月十六日。

贼”事迹：“杨名照，嘉靖朝为广宁总兵，新筑长墙，以成边险，勇而有谋，贼甚畏之，不敢犯塞。癸亥（1563）八月二十八日，身先士卒而战死于贼。”[54]这段文字不长，但字里行间充满者对他的敬仰之情。直至九月，在归国途中三叉河浮桥画船上，许葑还念念不忘向多次出使明廷的译官洪纯彦询问杨照的事迹。据其日记载，杨照战死后，“辽东二十五卫人闻之，如丧父母，照柩自广宁往前屯卫，其所经路傍，皆设香火以奠，哭声振天”。[55]可见，辽东军民对他的深厚情谊。

蒙古对辽东的侵扰，其他赴明使臣也不乏记载。万历五年（1577），使臣金诚一途经沙河站，所见“本处被达贼抢掠不就，民萧然，城内只有十余家。”[56]万历十五年，使臣裴三益途经广宁高平，听当地人言：“前月达贼，抢虏人民千余，头畜百余”。至杏山高桥铺时，又听传闻：“上年六月，达贼陷城，焚荡无余”。[57]万历二十六年十二月，使臣李恒福赴明朝贡时，正遭遇蒙古侵扰辽西，他们途经各城镇时，见“所经各镇外门，皆竖令旗戒严”，到广宁城时，听说“虏骑入锦州卫，距本城百余里，总兵李如梅自领兵万余，追之不及而还”。[58] 他们一行至中后所宿沙河申家时，竟遭遇“达虏来抢于沙河盐场村，杀掠人畜。”这伙“达贼”与他们“相距不数十里”。[59]可谓有惊无险。万历二十七年九月，使臣赵翊赴明朝贡，途经辽东，也亲身经历蒙古“达贼”对辽东侵扰。据其日记所载：九月十三日，过九连城（镇江堡）宿当地人家，听主人言：“边上有二十万达虏声息，君等何行之遽也”。[60]十五日，至甜水站山下村，王姓人家主人言：“开原等处，有六十万达子声息”。[61]二十二日，至海州卫牛家庄，听说：“广宁以西，达虏大抢”。[62]二十四日，至广宁三叉河，又得闻：“闾阳、十三山、大小凌河等地，贼锋弥漫”。[63]十月五日，过沙河所到前屯卫。其日记载：“距贼境不远，行人颇有戒心……宣大兵马戍卒几数千，家家盈满，无处可宿。”[64]

上述蒙古“达贼”对辽东的侵扰，如李恒福《朝天录》所揭示的那样：“自辽阳至山海关，凡十七站，皆傍胡地，远者不过百里，近或十余里，岁为边患，来抢汉人，不记其数”。[65]

三、晚明辽民的逃亡

晚明辽民逃亡问题也是朝鲜使臣关注焦点。晚明辽东因天灾人祸，特别是天启元年（1621），后金进入辽东后，辽民为躲避战祸纷纷踏上逃往之路。辽民逃亡的区域大体如下：由海路逃往山东一带以及附近沿海岛屿；逃往一江之隔的朝鲜境内；经由陆路逃往辽西及蒙古地区。

辽民经由海路逃往山东一带以及附近沿海岛屿的人数众多。1621年，后金占据辽东后，其南边海州、盖州、复州、金州四卫深受其害，四卫军民为躲避战祸大举南下。如文献所云：“携家航海，流寓山东，不能渡者，栖各岛间”。[66]时，经由海路逃往登、莱两府的辽民竟达10万之多。[67]更有数万辽民为躲避战乱逃难至沿海岛屿。[68]有关

54)赵宪：《朝天日记》，万历二年七月十七日。
55)许葑：《荷谷先生朝天记》，万历二年九月二十九日。
56)金诚一：《朝天日记》，万历五年三月二十日，林基中编：《燕行录全集》第4册，首尔：东国大学校出版部，2001年影印本。
57)裴三益：《朝天录》，万历十五年五月，《临渊斋先生文集》卷4，韩国民族文化推进会编：《影印标点韩国文集丛刊》，第4册，首尔：景仁文化社，1990—2001年。
58)李恒福：《朝天录》下，第427页。
59)李恒福《朝天录》下，第433页。
60)赵翊：《皇华日记》，万历二十七年九月十三日，《可畦先生文集》卷9，韩国民族文化推进会编：《影印标点韩国文集丛刊》，第9册，首尔：景仁文化社，1990—2001年。
61)赵翊：《皇华日记》，万历二十七年九月十五日。
62)赵翊：《皇华日记》，万历二十七年九月二十二日。
63)赵翊：《皇华日记》，万历二十七年九月二十四日。
64)赵翊：《皇华日记》，万历二十七年十月五日。
65)李恒福《朝天录》下，记闻，第460页。
66)《明熹宗实录》卷3，天启元年三月丁卯。
67)参见（韩）郑炳喆著 王桂东译：《明末辽东沿海一带的“海上势力”》，达力扎布主编：《中国边疆民族研究》（第九辑）中央民族大学出版社2015年，第257页。
68)如《明熹宗实录》卷9，熹宗天启元年四月丙申条载：“原任辽东赞画兵部主事刘国缙投揭督饷户部侍郎李长庚内称，南四卫官民逃命山东等岛约数万人”。同书卷10，熹宗天启元年五月乙卯条也载：“兵科给事中霍维华言，辽民蹈海者众至数

辽民逃往附近岛屿情况，明代官私文献语焉不详，而经由海路赴京朝贡的朝鲜使臣对其多有记载。下面我们以天启四年赴京使臣洪翼汉所著《华浦先生朝天航海录》为中心，看一下逃往辽东附近岛屿的辽民生存状态。

天启四年，使臣洪翼汉等赴明的使命是请求明廷对新即位的国王李倧尽快加以封典。时，后金已占据辽东，由辽东陆路赴京的贡路阻断，只能取道海路。是年八月四日，洪翼汉一行从朝鲜宣沙浦乘船出发，中经皮岛、车牛岛、竹岛、大小獐子岛、薪岛，进入明辽东海域。[69]他们在辽东海域所经的石城、长山、广鹿、三山、铁山诸岛，到处充斥着避难的辽东逃民。据其日记载，八月十二日，朝贡使团到达隶属明盖州卫石城岛，下船后，所见“岛居者俱辽、广逋民”，这些逃民，见使团一行“初甚疑惧”，以为后金军前来捕杀，遂“聚众放炮”以此自卫。洪翼汉急令随行通事向逃民加以解释，并“慰勉不已”，逃民人心始定。[70]翌年三月，洪翼汉等完成使命回国，再经石城岛时，在岛上龙王庙举行祭祀活动。他仔细观察此岛“有十余家”，“皆辽、广逋民，穿厓穴居”，这些逃民“无以为食，饥困之状，不忍看”，仅靠“时候潮退，采螺蛤充肠而已”。当逃民得知洪翼汉等身份后，遂“绕舡来乞”，洪翼汉见这些“鹄形鸟颜”的逃民，顿生怜悯之情，拿“出剩米六石赒给”。[71]在与这些辽东逃民交谈中，有一人言：“三月初六日，新从虏（后金—引者）中来”，其“头发尽秃，公然一真鞑也，因言虏中事甚悉”。[72]

八月十四日，洪翼汉一行至长山岛。他见岛上“矮屋依草，弊庐傍林，牛羊溢巷，鸡犬盈街”，相互问语，“知其辽左避虏流民也”。洪翼汉向逃民“具道奉使朝天之意，相顾感叹”后，彼此交谈。[73]十五日，至隶属明金州卫的广鹿岛。洪翼汉见岛上居住逃民，“比屋皆窄陋，腥膻之气袭人，闻可欧殽”。这些逃民“新自辽归，头发尽剃”，蓬头垢面，如同囚犯，“看来丑状，不忍正视”。[74]其中一辽民向其讲述逃到岛上的缘由。他说：“奴酋自今秋，始于三叉河东岸筑土墉，高广各数丈余，役民甚毒，人不堪苦，皆怀逃躲之计，而俺亦割恩忍爱，夜间乘家小睡熟，脱身潜来，届此仅数日，心肝如裂”。说到此处，“泣下不绝”。听了这位逃民的痛述，激起洪翼汉对后金的愤怒，在日记中写道：“奴贼之暴虐已极，人心已离，天必悔祸，胡运将尽也夫”。[75]十六日，至平岛。洪翼汉一行入住金州避难士人李嵓家。此人知书达理，待使臣等甚厚。夜间，闻其“读书声达夜弗辍”，洪翼汉听后夜不能寐，在其日记中发出如下感慨：“彼丑虏宇宙间何物，乱华穷凶，一至于此，遂令儒士未免逋播落拓，困厄于岛屿瘴海中哉！殊不知苍苍者天意竟何如？其肯使数百年衣冠文物，尽污于腥膻之尘，而终不悔祸耶。”[76]辽东逃民在沿海岛屿的生存状况，其他朝鲜使臣也有些记载。[77]

辽东与朝鲜一江之隔，鸭绿江北岸沿江一带自然成为辽民逃生的重要去处。嘉靖年间，辽民为躲避蒙古的侵扰就曾逃往朝鲜避难。[78]后金攻占辽沈后，大量辽东逃民涌入朝鲜，因此引起朝鲜使臣的关注。天启元年四月，李植作为陈慰使赴京，[79]他在“请刷还辽民奏文”中详细列举了辽民流入朝鲜沿江城堡的情形。奏文云：

> 据义州府尹柳袠节次驰报：近日归顺假达（指辽民—引者），从方山、麟山、本州岛三路，陆续渡江，或五六十名，或数三百名，布野成群，春耕麦芽，尽行挖食，途遇饿莩，争相屠吃等因。又据昌城府使金时若呈：辽东饥民，自宽奠地方，渡江而来，不记其数，挖掘谷种，抢夺民家。本镇仓粮，亦已罄竭，不能赈救等因。又据龟城府使赵时俊呈：辽民饥饿者，携负妻子，或三四十名，或六七十名，逐日渡江，出入村闾，村民亦饥不能供应，相继逃窜等因。又据青城佥使郑名振呈：假达五十余名，自那边过江前来，不堪饥饿，奔突村闾，讨索食物，小不如意，辄肆欧打，委属闷虑等因。[80]

万”。

69)据《辽东志》卷1，《地理志》载：“金州近海无大川，故附岛屿九十七处，且环列海岸，当要险之所”。

70)洪翼汉：《华浦先生朝天航海录》卷1，天启四年八月十二日，《燕行录全集》第17册，东国大学出版会，2001年。

71)洪翼汉：《华浦先生朝天航海录》卷2，天启五年三月二十九日。

72)洪翼汉：《华浦先生朝天航海录》卷2，天启五年三月二十九日。

73)洪翼汉：《华浦先生朝天航海录》卷1，天启四年八月十四日。

74)洪翼汉：《华浦先生朝天航海录》卷1，天启四年八月十七日。

75)洪翼汉：《华浦先生朝天航海录》卷1，天启四年八月十七日。

76)洪翼汉：《华浦先生朝天航海录》卷1，天启四年八月十六日。

77)如赵濈在《燕行录》中记载：天启三年十月十二日到达鹿岛，见“此岛极其广阔，且农田及风屋，自平时原有居民，今避乱辽人亦多会聚”。

78)据《李朝明宗实录》卷24，明宗十三年五月辛未条载：朝鲜平安道观察使丁应斗奏称：“唐人等携其男女畜产，车载驮运，来驻鸭绿江西边，于赤岛等处，络绎不绝，往问其故，则为达贼所逐，避患到此云”。

79)《李朝光海君日记》卷164，光海君十三年四月二十一日。

是年十月二十四日，朝鲜龙川府使李尚吉在状启中也言：“近自四五日来，沿江上下，避乱辽民等，般移家少，尽向内地，相望于道路，那边声息之可虞，据此可知矣。”[81]天启二年，赴明进贺使吴允谦回国复命后，谈及途中所见逃亡的辽民在朝鲜的情形时说：“所经一路，辽民流离转徙，老弱扶携，络属道路，布满闾里，我寡君憫恻同胞，虽逐户依插，使相资活，折减军饷，计口分哺，而官无宿储，民竭瓶粟，其势将见，主客俱病，胥颠沟壑，触境寓目，无非气塞而心伤。”[82]天启六年，赴明进贺使金尚宪在呈给明礼部、兵部咨文中，也论及辽民逃亡问题。其云：“目今辽民之方住小邦者，计不下数十万口，散走村闾，在处填满，主居二三，客居七八，始借房屋，中夺饔飧，终淫妻妇，人情到此，孰能堪之，弱者携妻负子，转徙内地，强者斫剑怀刃，乘暗相图”。[83]可见，大量辽东逃民涌入朝鲜沿边一带，不仅给朝鲜增加了经济负担，而且严重扰乱朝鲜社会秩序。[84]

面对涌入朝鲜的辽东逃民，李朝政府曾多次劝请据守皮岛的毛文龙将这些逃民迁回内地，但毛文龙多方阻挠。[85]登莱巡抚也恐怕数以万计的逃民一旦遣返内地，难以安置。结果造成这些辽民无家可归，或弃于沿海诸岛，或弃于朝鲜，处于半饥半饱状态之中。

辽东逃民也有经由陆路逃往辽西及蒙古地区。明中叶以来，辽民为逃避辽东沉重赋役多潜入“胡地”，时有“生于辽，不如走入胡”[86]之说。万历二十六年末，朝鲜使臣李恒福赴京朝贡时，与蒙古使团同住会同馆，彼此“颜情稔熟”后，他发现使团“达子数十余人”中，“辽人居十分之八九，其中真达，仅一二而已”， 便好奇地令通事询问，逃往蒙地的辽民“颇恋本土否”？得到的回答是：

> 父母妻子，皆在中原，岂无思恋之心。但胡地风俗，比中国十分醇好，无赋役、无盗贼，外户不闭，朝出暮还，自事而已。其与居辽，役不暇者，苦乐悬殊，苟活目前，不思逃归耳。[87]

李恒福日记中又载，蒙古朝贡使团中，还有辽东籍的士人参与其中。[88]由此可知，逃往蒙地的不光是贫困百姓，还有读孔孟书，知书达理的辽东士人。这些“辽人”因“役不暇者”纷纷背井离乡，逃往“无赋役、无盗贼”的蒙古居地，深刻地反映出晚明辽东社会赋役繁重的残酷现实。

以上所述，朝鲜使者对晚明辽东社会民生与情势的观察与思考，不仅为我们研究晚明辽东社会提供了极为珍贵的史料，也为我们的研究提供一个新的视角。有关晚明辽东社会的民生与情势，明代官私文献记载简略，语焉不详，而朝鲜使臣从域外“他者”的视域，以日记的形式，细无巨细、前后贯穿式地记录了晚明辽东社会的民生与情势诸多方面的见闻，为我们的研究提供了极为难得的文献资料，这些资料既可补充国内史料的阙失与不足，更有助于从异域的视角，加深我们对晚明辽东社会的认识。

---

80) 李植：《泽堂先生别集》卷1，奏文，请刷还辽民奏文，韩国民族文化推进会编：《影印标点韩国文集丛刊》，第88册，首尔：景仁文化社，1990—2001年，第275页。

81) 《李朝光海君日记》卷170，光海君十三年十月丁酉。

82) 吴允谦：《楸灘先生集》卷3，文，免宴呈文，韩国民族文化推进会编：《影印标点韩国文集丛刊》，第64册，首尔：景仁文化社，1990—2001年，第171页。

83) 金尚宪：《朝天录》，禮部兵部呈文　　，《清阴先生集》卷9，韩国民族文化推进会编：《影印标点韩国文集丛刊》，第77册，首尔：景仁文化社，1990—2001年，第139页。

84) 《李朝光海君日记》卷177，光海君十四年五月丁未条载：“避乱辽人，扰害农民，掠夺牛马，使不得耕作”。

85) 参见李光涛：《毛文龙酿乱东江本末》《历史语言研究所集刊》（第19辑），1948年；陈生玺：《明将毛文龙在朝鲜的活动》，《商鸿逵教授逝世十周年纪念文集》，北京大学出版社1996年。

86) 何尔健：《按辽御珰疏稿》，中州书画社1982年。

87) 李恒福：《朝天录》下，第448页。

88) 李恒福：《朝天录》下，记闻条载：“到通州，有卖书人来过，仍言：近来达子朝贡过此者，极求书册，尤好医卜等书云。是夕，余适往江上，登商舶散闷，有前日留馆达子数人来见。译官登欣慰殊甚，与语款款，言及虏中之事，具言：辽阳有士人黄姓者，自少以能文知名，被掳在胡中，称为黄郎中。胡人呼文士为郎中。今方以贡胡来此，虏颇敬之，资产极丰，常畜美姬四人，牛马弥山云”。

【사회과학 분과】 발표 ②

모바일로 떠나는 중국남방여행 : 화동지역

이중희*

【목 차】

3부 화동

상해: 스타박스의 도시, 세계 최대 규모 스타박스 매장
상해: 신소매혁명을 주도하는 허마셴성盒马鲜生
상해: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한 셰청携程

저쟝
닝보: 고대 해양실크로드의 동방출발점
닝보: 고대부터 한국과 교류했던 도시
원저우: 스토리가 많은 우마보행가五马步行街
원저우: 민영기업의 도시, 동방의 유태인
항저우: 마윈의 창업 신화가 있는 알리바바 시시단지西溪园区
항저우: 창업 학생의 천국, 항저우사범대 알리바바경영대阿里巴巴商学院
항저우: 제2, 제3의 마윈을 꿈꾸는 멍샹타운梦想小镇의 대학생

푸젠
푸저우: 중국 근현대사의 절반이 담겨 있다는 삼방칠항三坊七巷
푸저우: 이순신 같은 국민 영웅, 린쩌쉬林则徐
푸저우: 고대 해양 실크로드의 중심도시
푸저우: 민강 변에서 광장무를 추는 따마大妈
샤먼: 외세 침탈의 현장이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변신, 구랑위鼓浪屿
샤먼: 일국양제의 경계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 상해: 스타박스의 도시, 세계 최대 규모 스타박스 매장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스타박스의 2번째시장이다. 상해는 중국에서 스타박스가 가장 많다. 중국내 3천개의 스타박스 가운데 상해에는 600개가 있다. 중국에서 스타박스는 중고소득층이상이거나 과시소비를 상징한다. 일반 중국인에게 커피 한잔 값인 25~35위안은 아직 적은 돈은 아니다.

실제 상해는 중국 최고 소득수준의 도시이다. 중국에서 1인당가처분소득과 1인당소비지출이 가장 높다. 물가도 남방도시 가운데 가장 비싸다. 호텔 모텔 요금도 남방에서 가장 비싸다.

상해에는 세계최대규모의 스타박스 매장도 있다. 2017년에 개소했던 세계최대규모의 스타벅스(Reserve roastery)는 星巴克臻选咖啡烘焙工坊이다. 이 매장은 兴业太古汇店이며 南京西路789号(近石门一路)에 위치해있다. 난징시루南京西路전철역에 내려 5번 출구나 1번 출구로 나가면 된다. 일요일 점심때라 벌써 수 십 명이 매장

*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의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 너무 많은 인파라서 입구의 직원이 10명씩만 입장시키고 있다.

입구로 들어가니 커피와 스낵을 앞에 둔 고객들이 인산인해이다. 중앙에는 2층 높이로 커피 제조과정을 한눈에 볼수있다. 먼저 자루에 싼 원두커피가 있다. 가운데 원두커피 볶는 큰 기계가 있고 옆에서는 그라인딩기계가 있다.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그라인딩한 커피는 봉지에 넣어진다. 계속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커피봉지는 박스에 포장된다. 1~2층에는 피자 제과 커피를 파는 판매대가 여럿 있다. 1~2층에는 커피 마시는 사람들로 꽉 차있다. 스타박스의 도시다운 분위기이다.

□ 상해: 신소매혁명을 주도하는 허마셴성盒马鲜生

신소매를 주도하는 기업은 허마셴성과 7fresh이다. 京东의 生鲜超市7fresh는 북경에만 있고 상해에는 없다. 바이두를 검색한 결과 몇 개의 허마셴성이 상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가운데 난징서로에서 가장 가까운 허마셴성에 가보기로 했다. 가오더高德지도를 검색한 결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로가 가장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3호선을 타고 6정거장을 지나면 목적지에 도달한다. 지하철요금은 3위안이었다.

허마셴성에 도착하여 매장의 입구로 들어가니 먼저 수산물水产판매점이 보인다. 생선 게 가재 랍스터 조개 등이 수족관에서 살아움직인다. 싱싱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채소 판매대에는 싱싱한 채소가 가득하다. 한 봉지의 白菜비닐포장을 집어보니 뒷면에 산지로 저쟝후저우시浙江湖州市가 있다. 포장날짜는 2018년 3월19일(화요일)이고 출시 날짜는 오늘인 3월20일이다. 비닐봉지 앞면에 <星期二 不卖隔夜菜>란 문귀가 있다. <화요일 하룻밤을 넘기면 팔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盒马菜 日日鲜>이란 노란색의 문구도 있다. 허마 채소는 <늘 신선하다>는 뜻이다. 이런 문구가 없는 채소도 출시 날짜가 어제이거나 최근이다.

그 밖에 과일 육류, 가금류, 와인红酒, 주류, 유제품奶制品, 음료饮品, 냉동식품, 양곡 식용유 해산물 가공제품 海产品 스낵休闲食品 조미료 인스탄트식품方便食品 등의 판매대도 보인다.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는 식품들이 모두 구비되어있다.

하늘색 복장을 한 종업원은 번호가 붙은 가방에 개인고객이 모바일로 주문한 식품을 바쁘게 담고 있다. 한 가방을 보니 X000200라는 번호와 바코드가 있다. 가방에 담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상당히 많다. 종업원은 가방에 다 담은 후 천장에서 움직이는 컨베이어벨트에 가방을 걸어둔다. 가방은 한쪽 천장에서 출발하여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포장 배달을 하는 룸으로 이동한다. 포장하는 룸에서는 종업원이 가방의 식품을 포장하고 배달원이 이를 신속하게 배달한다. 허마셴성의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3킬로이내의 고객 주문을 받는다. 보통 주문한 후 빠르면 30분 내에 고객에게 배달됨으로써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이다. 배달료는 전혀 없다.

출구에는 三品一标을 강조하는 홍보물이 있다. 허마셴성은 세가지 식품, 즉 유기有机식품 녹색식품 무공해 농산품만 취급한다는 것이다. 농산품지역표시地理标志라는 문구도 있다. 지역표기는 식품 품질과 관련 특징은 자연생태환경과 역사인문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기에 허마셴성이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고 성공하는 이유가 많다. 신선한 제품만 판매하고 신속히 배달함으로써 고객을 안심시킨다는 것이다.

음식점도 많이 보인다. 이기나리스테이크(ikinari steak牛排) 国民鸡饭 海鲜吧 일본음식점日料 东南亚美食 등이 보인다. 허마셴성과 계약하여 입주한 것으로 보인다. 허마셴성이 슈퍼마켓개념에 국한하지 않고 신선음식을 파는 식당기능도 갖춘 것이다. 일본음식점에서 36위안을 허마앱으로 결제해서 스시도시락을 샀다. 허마셴성이 갖고 있는 명성을 믿으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다. 실제 신선도가 높다.

<easy process> <easy pay>라는 영어 글귀가 벽면 곳곳에 보인다. 허마앱을 깔면 주문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아주 쉽다. <easy process>이다. 허마앱에서 몇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금방 주문할 수 있다. 기술의 승리이다. 또 실제 결제해보니 <easy pay>이다. 허마앱을 통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고 아니면 출구에서 웨이신이나 즈푸바오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

宁波에도 3개의 점포가 있다. 甬江店은 宁波老外滩에서 공유자동차서비스인 디디콰이츠로 11위안의 거리에 있다. 상하이 허마셴성 매장보다 조금 더 크다. 매장의 기본 배치는 상하이 매장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상하이 매장에 없는 식당도 많다. 大保健(health tea) 차오산음식점潮汕卤味 이태리음식점美味西餐 신장음식점阿拉

提 辣串门麻辣料理馆 梅龙镇大酒店档口 石浦大酒店档口 등이 있다. 제빵, 칭찬轻餐, 음료, 간식 등을 파는 오원(O'one, 欧文)도 상하이 매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점포이다.

이태리음식점에서 26위안의 스파게티를 주문했다. 결제는 盒马앱을 통하여 즈푸바오로 하였다. 닝보매장도 고객이 적지않다. 한 종업원에게 허마센성의 성공 여부에 대해 직접 물어보니 자신있게 허마센성이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중고소득층 사이에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다.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신속하게 배달한다는 발상은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 상해: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한 셰청

셰청 본사는 상해에 있다. 여행플랫폼인 셰청携程은 16여만개의 호텔, 모텔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고 있다. 셰청에서 호텔酒店으로 들어 가보자. 梧州로 들어가서 조건을 입력하면 그 조건의 호텔이 나온다. 호텔마다 이미 사용해본 소비자의 평가점수 평균와 평点评이 있다. 평가점수에 따라 超棒 很好 无评分 세 등급이 있다. 또 숙박한 소감을 적은 평도 있다. 소비자들은 호텔의 위치 가격 평가점수 평 등을 참고해서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음식주문플랫폼도 마찬가지이다. 外买플랫폼에도 각 가맹음식점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있다.

여행앱, 음식배달앱에서 가장 스마트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평가시스템에 이다. 여행플랫폼, 음식배달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점수를 매기고 평评을 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준다. 소비자의 평가도 중시하고 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스마트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 저쟝

□ 닝보: 고대 해양실크로드의 동방출발점

닝보는 상해에서 2시간 거리이다. 고속철(G) 요금은 144위안이다. 기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농촌 주택의 외관으로 보아 남방의 어떤 농촌보다 여유있다는 느낌을 준다. 저쟝은 개혁 개방 이후 일찍부터 농촌에서 향진기업을 운영하여 소득수준을 높인 것으로 유명하다. 嘉兴~余杭~杭州东역~余姚北역을 경유해서 닝보역에 도착했다. 닝보역은 고속둥처(G) 둥처(D)뿐 만 아니라 콰이처(K)도 출발하거나 도착한다. 마펑워 앱의 기차 시간표를 검색해 보면 란저우兰州, 난창, 시안 가는 콰이처(K)가 보인다. 정저우 가는 T도 보인다.

宁波역에 내려서 마펑워 앱에서 호텔을 검색하였다. 오늘 목적지인 城隍庙인근으로 검색하여 저렴한 가격인 如家快捷酒店을 찾았다. 141위안에 세금 18위안을 포함해서 169위안이었다. 如家快捷酒店의 城隍庙月湖店이다. 경제형호텔이면서 连锁店이다. 상해에 비하면 닝보의 호텔비용은 저렴하다. 어제 묵었던 상해의 青奢概念酒店은 高端酒店이었다. 상해의 부동산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어제 묵었던 방은 창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265위안이었다.

상해의 그늘에 가린 도시

닝보는 부성급시副省级市이다. 바이두百科에 따르면 1994년 지정된 부성급시로는 광저우 선전 난징 우한 선양 시안 청두 지난 항저우 하얼빈 창춘 다롄 칭다오 샤먼 닝보가 있다. 부성급시는 성급 행정구가 관할하며 부성급시의 시장은 부성장과 행정상 동급이다. 부성급시 가운데 선전 칭다오 다롄 샤먼 닝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도省会이다. 닝보를 포함한 선전, 칭다오, 다롄, 샤먼은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라고도 한다. 국가사회경제발전단열시를 줄여서 계획단열시라 하는 것이다. 계획단열시는 1980년대에 지정되었으며 성 정부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관리도 받는 도시이다.

닝보 사람이 세계 4대 항구 도시라 할 정도로 닝보는 항만산업이 발달되어있다. 역사적으로도 닝보는 고대 해양실크로드에서 동방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2017년 현재 인구도 800만5천 명일 정도로 큰 도시이다. 더욱이 역사적으로도 상해보다 비중이 더 중요한 도시였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성장하였던 상해의 그늘에 가리면서 그 중요성이 약화되었던 것이다. 닝보는 현재의 대구의 자매도시이다. 부산의 자매도시는 상해이다. 하지만 상해가 부산을 저만치 아래로 보고 있는 현실에서 부산은 닝보와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쟝커우三江口

닝보도 고대부터 도시로 발전할 수 밖 에 없는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충칭이나 우저우처럼 두 개의 강이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 닝보의 중심이다. 가오더지도의 목적지는 우선 老外滩으로 입력했다. 지도의 네비게이션을 따라 가니 먼저 신쟝교新江桥의 입구가 보인다. 신쟝교는 위야오강余姚江에 있는 다리이다. 余姚江은 바로 옆에 있는 펑화강奉化江과 만나서 용강甬江로 흘러간다. 닝보의 약칭인 용甬은 甬江과 연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세 강의 중간이 산쟝커우三江口이다. 세 강의 입구口라서 산쟝커우라 하는 것이다.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다리는 甬江大桥이다. 가까이에 있는 펑화강 위의 다리는 江厦桥이다. 세 개의 다리가 삼각을 형성하고 있다. 그 안이 산쟝커우이다. 신쟝교 입구에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 다리 아래에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수 많은 젊은 남여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 사시사철 춥지 않은 남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산쟝커우의 강가쪽으로 가 보았다. 신쟝커우의 바로 옆에 큰 돌로 만든 기념비가 보인다. 가까이 가서 기념비에 적힌 글귀를 보니 “해상차항로출발지海上茶路发航地”라고 적혀있다. 닝보가 해양실크로드의 동방 시발점임이 확인되었다.

닝보는 당대에 중국 4대 항구 가운데 하나이며 이때부터 일본 등 동쪽 나라로 가는 시발점이었다. 남송시기에는 중국 3대 항구 가운데 하나가 된다. 청나라 때 쇄국정책을 취할 때도 닝보는 일본 남양과의 무역을 유지하였다.

라오와이탄老外滩

신쟝교를 건너가면 오래된 천주교 성당이 보이고 바로 라오와이탄이 나온다. 와이탄은 산쟝커우의 북쪽 강인 甬江가에 위치해 있다. 와이탄은 닝보 고성古城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다. 1842년 아편전쟁 후 청정부가 난징조약에서 5개 통상항구를 개방하기로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닝보이다.

바이두 백과에 따르면 영 불 미의 상인이 늘어나면서 북쪽 강변은 영 불 미 3국 교민의 거주지역이 된다. 이 지역은 중국 최초의 조계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와이탄이라 불려졌다. 부두 개방의 역사는 상해 와이탄보다 20년 앞선 것이다. 이후 상해 통관이 번성하면서 닝보 통관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와이탄으로 들어가니 커피숍, 술집 등이 줄비하다. 그 가운데 져우인酒瘾이라는 간판의 술집도 보인다. 옆에 하레이哈雷라는 술집도 보인다. 모두 밤에 술도 마시고 무대에서 무명가수가 노래도 하는 라이브술집音乐酒吧이다. 이런 종류의 술집이 즐비하다.

바로 옆에 용강이 나온다. 강변의 오른편에 용강대교가 보인다. 비가 오는 강변이 무척 운치가 있다. 강변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나오니 와이탄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진다. 우선 용강대교의 밤 조명이 아름답다. 이 대교도 부산의 광안대교처럼 도시를 상징하는 대교이다. 와이탄의 거리는 술집마다 아름다운 조명을 비춘다. 외국인도 많이 보인다. 라이브술집의 안쪽에는 무명가수가 노래를 부른다.

닝보 와이탄은 상해의 신톈디新天地나 항저우의 신시후新西湖 같은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마펑워 앱를 검색해 봐도 닝보에서 어제 인기 2위인 핫플레이스이다. 중국 조계의 슬픈 역사가 이제는 화려한 관광지로 변모했다.

□ 원저우: 스토리가 많은 우마보행가五马步行街

닝보에서 원저우남역으로 가는 고속둥처표를 한국의 코레일앱에 해당하는 12306앱에서 모바일 결제하였다. 가격은 96위안이었다. 지난에서 출발하는 고속둥처에 닝보역에서 승차하였다. 三门县(타이저우시관할)~台州~温岭(타이저우시관할현급시)을 경유하여 1시간 55분 걸려 원저우남 고속철역에 도착하였다.

2000 여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

시내로 들어가면서 바이두백과를 검색해보았다. 원저우는 지급시이다. 중국에서 1급 행정구는 성과 자치구이다. 2급 행정구는 지급 행정구이다. 3급 행정구는 현급 행정구이다. 지급시는 2급 행정구인 지급행정구에 속한다.

원저우는 오우강瓯江의 하류 남쪽에 위치해있다. 이런 연유로 원저우의 약칭은 오우瓯이다. 원저우는 2000 여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이런 연유로 국가역사문화도시国家历史文化名城으로 지장되어있다. 중국에서 국가역사문화도시는 2017년 현재 총 133개에 이른다. 2016년 현재 상주인구는 917만 5천명이다. 원저우는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가장 빠르게 진행한 지역이다. 또한 중국에서 민영경제가 가장 발달한 도시이기도 하다.

중국의 도시는 역사문화거리历史文化街를 조성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한다. 전통거리의 역사문화와 지방민속이 스토리를 제공하고 이것이 거리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한다. 국가역사문화도시名城에는 이런 역사문화재와 스토리가 많다.

우마제

원저우의 우마제五马街는 마펑워 앱의 쇼핑购物분야에서도 핫플레이스이다. 购物로 들어가서 우마제를 보니 하단에 붉은 글자로 <昨日人气No.2>가 있다. 어제 (2018년3월22일)기준으로 인기도가 2위라는 뜻이다.

마펑워에서는 원저우에서 가장 유명한 상업가라는 설명도 있다. 하단에 거리가 현 위치에서 1.5킬로미터라는 표시가 있다. 거리가 멀지않다. 그 밑에 96명의 댓글이 있다. 몇 개를 읽어봤다. 대체로 좋은 평가이다. 그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다. "현지 음식小吃를 맛보기위해서 갔는데 실제 현지 음식이 많았다. 나는 또 우마보행가를 걷는 것이 좋았다. 아침식사로 눠미판糯米饭과 센토장咸豆浆을 추천한다." 마펑워 앱의 설명과 평가가 좋다. 거리도 가깝다. 가보기로 했다. 하단의 주소地址 옆에 지도를 클릭했다. 지도가 나온다. 중간의 导航을 클릭하니 <使用高德地图导航>을 사용할 것인지 묻는다. 이걸 클릭하니 가오더디투로 연결된다.

걷기에는 먼 거리라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단의 公交를 클릭하였다. 시내버스를 이용한 몇개의 노선이 표시되었다. 그 중에서 시간에 적게 걸리는 노선을 선택했다. 가오더디투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친절하게 안내한다. 중국의 시내버스에는 아직 유일하게 모바일 결제방식이 도입되지 않았다. 시내버스 기사는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평소 1위안짜리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내버스에서는 광동처럼 표준어로 안내하고 다음에 방언으로 지명을 간단하게 안내한다. 중국의 7대 방언 가운데 하나인 우어吴语에 속하는 원저우 방언温州话은 중국에서 가장 알아듣기힘든 말이기 때문이다. 실제 웨이보微博에서 한 네티즌이 가장 알아듣기 힘든 방언 1위는 원저우 방언이라고 지적한 바있다.

우마제의 유래

시내버스에 내려 우마보행가 입구로 들어가니 1868년 老香山이라는 간판이 붙은 청말 서양식건물이 보인다. 药店 청대 同治7년에 약재상 이씨가 창업한 원저우 토종기업이다. 1956년에는 공사합영형태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국유기업이다. 아무튼 150년의 역사를 가진 저장남부浙南지역의 유명한 중약판매기업이다. 150년간 같은 자리를 지킨 지역의 명품 기업임을 알 수 있다. 실내로 들어가니 3층에서는 중의의사의 진료도 한다는 안내표지가 있다. 老香山으로 보건대 우리가 모르는 지방 토종기업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들어가니 우마제에 대한 역사가 소개된 설명이 있다. 五马란 명칭은 동진东晋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용쟈永嘉태수太守로 임명된 왕시즈王羲之가 5마리의 말을 타고 부임하였다. 이 모습을 본 원저우 지역의 남여노소가 흠모한데서 이 명칭이 유래한다. 처음에는 五马坊으로 불리다가 청말에 현재의 五马街가 된다. 1934년 손중산 선생을 기념하여 잠시 中山路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1949년 혁명이후 다시 五马街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안내판 옆에 우마제를 상징하는 5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형상화한 동상이 있다. 우마제 곳곳에 원저우 전통 민속을 소개하는 표지판도 흥미롭다.

스토리가 풍부한 거리

표지판 가운데 중양절重阳节에 하는 원저우 활동이 흥미롭다. 중양절은 음력 9월9일이다. 원저우에는 중앙절에 등산하는 풍속이 있다. 이는 액운을 피하고 장수를 구한다는 의미이다. 원저우지역에서 东汉 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큰 액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등산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실제 등산을 해서 액운을 피했다는 전래 이야기에서 비롯한다.

원저우 전래동요에 "9월9일 登糕를 娘舅에게 보낸다"는 구절이 있다. 원저우사람은 중양절때 중양糕를 먹는 풍속이 있다. 중양糕는 登糕라 하기도 한다. 쌀가루로 만든 糕이다. 登糕는 중양절때 예물이다. 원저우 사람은 친구나 연장자에게 선물한다. 풍속에 따르면 登糕를 먹으면 등산을 하지않아도 액운을 피할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한 표지판에는 입하일立夏日에 원저우 사람들의 풍속을 소개하고 있다. 큰 천칭(다청大秤)으로 사람의 체중을 재는 활동을 한다는 설명이 있다. 한마디로 원저우와 우마제의 스토리가 풍부하다.

거리의 건물은 서양식이다. 거리에는 각종 상점이 다 있다. 각종 의류 민속공예품 간식 구두 운동화 아동의류 등의 상점이 있다. 약방감초격인 금은방도 보인다. 금은방 이름은 金大福이다. 温州一百인 中百商城도 있다. 가죽구두 가죽백을 파는 유명 브랜드인 아오캉奥康도 보인다. 남성의류를 파는 유명 브론드인 海澜之家도 보인다. 심지어 일본계 기업인 미니소도 있다. 영화관도 보인다. 청장년층이 많지만 중노년층도 적지않다. 区历史文化街区管委会와 五道办事处가 관리를 담당한다. 우리로 따지면 구청과 주민센타가 우마제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원저우: 민영기업의 도시, 동방의 유태인

원저우는 민영기업의 도시이다. 원저우 모델로도 유명한 도시이다. 원저우 모델은 경공업 소규모 가내기업을 말한다. 개혁개방이후 원저우 사람은 너도 나도 소규모 가내기업 형태로 경공업에 뛰어 들어 부를 축적한 것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민영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도 많다. 오늘날 원저우 경제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저우남역에서 예약한 기차표를 미리 받아두기 위해서 판매처售票厅에 들어가자 우선 캉나이신발康奈皮鞋 대형광고판이 눈에 띈다. 유명연예인 冯绍峰이 남성구두를 들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도 함께 보인다. 1980년에 개업한 캉나이는 원저우에서 대규모 민영기업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캉나이는 남성 여성용 구두 분야에서 중국내 선두기업이다. 그 외에 皮件 복식 내의 수출업 등에도 종사한다. 현재 종업원이 5000 여명이며 연 700 여 만 켤레의 중고급 구두를 생산한다.

원저우의 대표적인 보행가인 우마제五马街에 가도 원저우 토종 민영기업이 많이 보인다. 캉나이내의康奈内衣, 아오캉奥康신발 등의 매장이 보인다. 1988년 향진기업으로 출발한 아오캉은 1999년에 중국 100대 민영기업의 하나로 발전한다. 아오캉은 신발류 皮具 상업부동산 생물제품 금융투자 등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비교적 고급제품을 판매하는 万象城에도 원저우 토종 민영기업의 매장이 보인다.4층으로 올라가니 썬마森马가 있다.

温州新南站 근처 新南站商城은 신발 의류 등 각종 제품의 도매시장이다. 여기에는 중저가제품이 많다.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원저우의 가내기업에서 만든 제품도 많다. 원저우남역 가는 길에 있는 공업로 주변에도 많은 민영기업 공장이 보인다.

중국 내 굴지의 민영기업 가운데 원저우 토종기업이 많다. 다른 도시에 비해 성공한 민영기업의 비율이 높다. 척박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개혁 개방 이후 원저우인은 악착같이 기업을 키워 성공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다른 도시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했다. 오늘날 차오저우潮州인과 함께 원저우인을 동방의 유태인이라고 부른다. 서양의 유태인과 부를 축적하는데 치열한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원저우에 첫 발을 디디면서부터 이런 점을 물씬 느낀다.

□ 항저우: 마윈의 창업 신화가 있는 알리바바 시시단지西溪园区

상해 홍챠오역에서 항저우 동역까지는 고속철 덕분에 50여 분밖에 걸리지않는 가까운 거리로 단축되었다. 교통혁명 덕분에 상해와 저장성의 중심인 항저우가 반나절 생활권으로 단축된 것이다.

항저우 동역은 중국 10대 규모 기차역

항저우 동역에 도착하여 건물 밖으로 나오니 듣던 대로 항저우 동역의 건물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뒤로 계속 물러나서 건물 전체의 사진을 찍으려 해보았지만 건물 전체를 담은 사진을 찍는 것은 포기했다. 항저우 동역은 중국 10대 규모의 기차역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이다. 중국의 기차역은 대부분 규모가 크다. 특히 최근 지은 고속철 역은 더욱 크다. 규모가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 우선 중국의 기차 노선이 한국보다 더욱 복잡하다. 이동 인구도 많다. 중국인들이 크게 짓는 걸 좋아한다. 미래의 더 큰 수요에 대비하는 자세는 본받을 만하다. 아무튼 외국인이나 다른 지방 사람들은 그 규모에 위압감을 느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 도시

먼저 바이두 백과에서 항저우를 검색해보았다. 저쟝성의 성도인 항저우는 저쟝성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교통 및 금융 중심일 뿐만 아니라 창강长江삼각주 도시군 중심도시 중 하나이다. 상주인구는 946만 8천 명이다. 2200 여년의 역사를 가진 항저우는 오월국吴越国과 남송의 수도였다. 항저우에서 출발하는 징항京杭대운하는 북경까지 간다.

항저우는 또한 중국에서 전자상거래의 센터이기도 하다. 또한 창업의 도시이고 4차 산업혁명의 선두도시이기도하다. 항저우의 창업 성공 신화이자 4차 산업혁명의 선두 기업은 단연 알리바바이다. 이런 이유로 첫 번째 행선지로 알리바바 본사로 향했다.

알리바바 시시단지

알리바바 본사 소재지는 알리바바 시시단지西溪园区이다. 일명 타오바오청淘宝城이라고도 한다. 위항구余杭区의 본사소재지에 접근할수록 주변은 항저우의 미래과학기술핵심지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착해서 정문으로 들어가 보니 알리바바 시시단지에 알리바바 본사와 여러 개 자회사가 밀집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천은 열심히, 태도는 겸손하게

입구로 들어가니 먼저 남성이 걸어가는 형상의 대형 조각 몇 개가 보인다. 이 조각들은 모두 걸음은 크게 걷지만 고개 숙이고 있는 형상이다. 이것의 의미는 실천은 열심히 하지만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총 8동의 단독 건물이 보인다. 단독 건물 하나 하나가 아주 크다. 시시단지의 총 면적은 26만 평방미터에 이른다. 마윈회장과 12,000명의 직원이 여기서 근무한다고 한다. 2008년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2013년 입주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중국 대학생 모두 입사하고 싶어 하는 기업! 중국 대졸 초봉이 보통 100만 원 이하 인데 알리바바의 직원은 초봉 월 360만 원 이상일 정도로 엄청난 고액을 받고 있다.

알리바바의 창업과 성장

항저우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한때 영어교사였던 마윈은 1999년에 17명과 함께 항저우에서 창업한다.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면서 현재 알리바바는 1~2차산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서비스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2003년에 창업한 온라인 구매 플랫폼인 하이바오망海宝网이 있다. 2008년 창업한 톈마오天猫도 있다. 2010년 창업한 全球速卖通는 전세계 소비자 대상의 소매 플랫폼이다. 알리바바국제교역시장은 해외 구매자를 위한 도매 플랫폼이다. 2004년에 창업한 즈푸바오支付宝는 모바일 결제와 각종 서비스의 플랫폼이다. 선전에서 4차 산업혁명을 텅쉰이 선도 한다면, 항저우에서는 알리바바가 선도하고 있다.

□ 항저우: 창업 학생의 천국, 항저우사범대 알리바바경영대阿里巴巴商学院

다음으로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에서 바로 항저우사범대로 향했다. 항저우사범대는 알리바바 회장인 마윈의 모교이다. 이 대학에는 알리바바가 지원해서 설립한 알리바바 경영대학이 있다. 알리바바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나름 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항저우에서 두 번째 행선지로 이 대학을 선택한 것이다. 항저우 사범대는 몇 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다. 알리바바 경영대학은 창첸仓前 캠퍼스에 있다. 알리바바 본사에서 창첸캠퍼스까지는 자동차로 10분 거리이다.

대학교-기업합작대학

항저우사범대학에 도착하여 한참 걸어들어 가니 알리바바 경영대학의 건물이 나온다. 건물 앞 잔디밭에 마윈의 서명이 새겨진 돌이 보인다. 전부터 알고 있던 알리바바 경영대의 직원이 건물의 입구에서부터 흔쾌히 안내를 해주었다.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알리바바 경영대학은 마윈 회장의 알리바바 그룹이 한국 돈으로 수백 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에 설립되었다. 항저우사범대와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교-기업합작대학이란 점에서 독특한 모델이다. 2017년에 알리바바 그룹은 인터넷비즈니스 분야에서 창업형 대학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5000만 위안을 더 투자한 바 있다. 현재 마윈은 이사장과 학장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일은 부학장과 당위서기를 겸직하고 있는 장쭤张佐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실습과 실전을 중시하는 대학

건물의 3층으로 올라가니 먼저 학생 창업자의 인큐베이터 공간이 있다. 안으로 들어가니 몇몇 학생들이 컴퓨터를 보면서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한편에는 알리바바의 온라인쇼핑몰인 타오바오淘宝에 올릴 상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도구가 놓여 져있다.

알리바바 경영대가 실전과 실습을 중시하는 대학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알리바바 대학 학부생은 대략 1,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은 실제 창업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은 1학년 때부터 타오바오淘宝에 개점해서 실제 판매를 한다. 개점하는 데는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된다고 한다. 어떤 학생은 2년간 12억 원어치의 상품을 판매했다고 한다. 위탁판매도 한다고 한다.

1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강의실도 보인다. 직원의 말로는 여기서 출판하는 전자상거래와 온라인마케팅 관련 교재는 중국 전역에서 사용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이다. 알리바바경영대학의 전공으로는 전

자상거래, 온라인마케팅, 국제비즈니스, 시장마케팅, 물류관리가 있다. 항저우 사범대학은 211공정 대학이 아니다. 985공정 대학은 더욱 아니다. 항저우의 시립대학일 뿐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는 특성 있는 대학임은 분명하다.

창업 학생에 최대한 지원

1층에는 상품을 보관하고 포장하는 공간이 있다. 학생들이 타오바오의 창업 숍에서 주문 받은 상품을 택배로 보내기 위해 포장하거나 보관하는 공간이다. 학생들이 각종 상품을 부지런히 포장하고 있다. 한편에는 포장된 각종 상품들이 그득하다.

인큐베이터 단계를 지난 일부 창업 회사는 항저우 시정부의 공상관리국에 실제 기업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현재 이렇게 등록까지 한 대규모 창업 기업도 여러 개 있다고 한다. 사장은 당연 학생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창업과정에서 시설과 공간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이 졸업해도 1년 정도 학교에서 학교 공간이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기업이 기존 대학 내에 학교를 설립한 모델

알리바바 경영대는 말 그대로 창업자를 키우는 대학이다. 창업 학생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윈이 세운 대학답고 알리바바라는 이름에 걸맞다. 대기업이 기존 대학 내에 학교를 설립한 흥미로운 모델이다. 대기업과 학교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항저우: 제2, 제3의 마윈을 꿈꾸는 멍샹타운梦想小镇의 대학생

항저우의 창업정책과 창업단지를 알기위해서 항저우사범대 바로 옆의 멍샹타운으로 향했다. 우리말로 하면 "꿈의 타운," 영어로 하면 "Dream Town"이 된다. 멍샹타운은 미래과학기술지구未来科技城에 위치해 있다.

멍샹타운 핵심지구의 총면적은 3 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 멍샹타운은 인터넷창업타운과 텐스타운天使小镇으로 구성되어있다. 인터넷창업타운은 대학생이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설계, 정보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인터넷 관련 상품개발, 생산, 경영, 기술서비스 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타운이다.

우선 인터넷창업타운의 입구로 들어가 보았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관련 창업보육단지 같은 곳이다. 인터넷창업타운은 26동의 신축 건물로 구성된 대규모 창업단지였다. 26동의 건물이 작은 호수를 둘러싸고 있다. 건물은 서양식이다. 환경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다. 강남江南 수향마을도 연상시킨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 수향마을과 서구식 건물의 융합으로 보여 진다.

파격적인 창업 지원

현지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창업하는 청년층에 대한 시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지 않다. 창업하려는 청년에게 작업공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거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관리비의 6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다. 또 멍샹타운의 창업기업이나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국세·지방세 세무등기 업무를 3~5일 내에 처리해 준다. 세금 감면혜택도 적지 않다. 예컨대 기업소득세는 2년간 면제되고 3년간 50퍼센트가 면제된다.

제2, 제3의 마윈이 탄생할 수 있다

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았다. 대학생들이 일에 몰두하고 있다. 창업열기가 쉽게 느껴진다. 멍샹타운은 저장성 성장과 창업자들이 모여 논의되다가 2014년부터 준공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멍샹타운은 저

장성, 더 나아가 전 중국의 특성화된 타운 건설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멍샹타운의 형제격인 인공지능타운人工智能小镇도 준공되기 시작했다. 3년 내 10개 이상의 최고수준 전문연구원과 기업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멍샹타운은 상당한 성과도 보이고 있다. 2017년 7월에 두 명의 멍샹타운 청년이 포브스 2017년 중국 "30세 이하 30인 엘리트" 명단에 들어가기도 했다. 차핑差评의 창업자인 타오웨이화陶伟华와 윈시즈부云犀直播의 창업자인 청원부程文波가 그들이다. 인터넷업계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다. 그 밖에 항저우시가 운영하는 이런 창업단지가 여러 개 있다. 금융창업단지, 화교창업단지 등이 있다. 항저우에서 제2, 제3의 마윈이 탄생하는 것은 멀지 않는 현실이 될 것 같다.

■ 푸젠

□ 푸저우: 중국 근현대사의 절반이 담겨 있다는 삼방칠항三坊七巷

복福을 준다는 도시

원저우남역에서 루이안瑞安~창난苍南~타이무산太姥山~福安을 경유해서 푸저우에 도착했다. 숙소로 가는 거리 곳곳에 '福'자가 새겨진 장식물이 붙어있다. 푸저우福州는 푸자는 복福자이다. 이와 관련하여 푸저우에 체류한지 3일째 福州市旅发委로부터 날라온 문자메시지가 흥미롭다.

"福州是有福之州，多福之州，幸福之州，住在福州有福气，常到福州亦沾福."

푸저우는 복을 주는 도시, 많은 복을 주는 도시, 행복의 도시이다. 푸저우에 체류하면 복의 기운을 받는다. 푸저우에 자주 오면 복을 뜸뿍 받는다는 뜻이다. 푸저우 시정부부터 역시 복의 도시를 표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해안선이 긴 도시

푸저우의 약칭은 용수榕이다. 약칭은 북송시대 푸저우 태수 장바이위张伯玉가 용수나무를 널리 심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푸젠성의 성도인 푸저우는 민강闽江하류와 연해지역에 위치해 있다. 고대 해양실크로드의 관문이었던 푸저우의 해안선은 무려 1137킬로미터이다. 이는 푸젠 해안선의 1/3에 이른다. 2016년 말 상주인구는 757만 명에 이른다.

알아듣기 힘든 방언

푸저우의 방언은 민闽 방언이다. 민 방언은 중국의 7개 방언 가운데 하나이다. 나머지 6개 방언은 북방방언, 우吳방언 湘방언 커쟈客家방언 粵방언 간赣방언이다. 웨이보에서 한 네티즌은 알아듣기 함든 방언의 순위로 원저우 말과 광둥粵방언에 이어 3위는 민방언이라고 할 정도이다.

숙소에서 먼저 마펑워 앱에서 최고의 핫플레이스인 삼방칠항으로 가기로 했다. 가오더지도가 안내하는데로 시내버스를 탔다. 시내버스 요금은 거리와 관계없이 1위안이다. 남방 도시의 시내버스 요금 중에서 제일 싸다. 삼방칠항은 시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다.

삼방칠항에 도착하여 입구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았다. 린저쉬 严福 林觉民 등 근현대에서 중요한 인물이 여기 출신이라는 설명이다. "一片三坊七巷，半部中国近现代史"라는 글귀도 있다. 이는 근대이래 三坊七巷이란 조그만 지역에서 중국 근현대사의 절반이 나왔다는 말이다. 15개의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가 있으며 해협양안 교류기지라는 설명도 있다.

三坊七巷历史文化街区의 면적은 40헥타르이다. 진晋나라때 시작하여 당때 형성되었으며 명청때 번성하였다

는 설명도 있다. 명사 400여명이 여기 출신이라는 설명도 있다. 또 "西三个坊，东七条巷，南北一中抽轴"란 글귀도 있다. 이는 서쪽의 3개 방, 동쪽의 7개 항, 남북으로 뻗은 1개 주축이란 뜻이다. 고대도시 안의 坊구조를 말한다. 三坊七巷이란 말도 이 글귀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방칠항은 명청건축박물관이다. 근대 명사들의 집단거주지라는 설명도 있다. 이로 보건대 귀족과 사대부의 집단거주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郎官巷

입구로 들어가니 왼편에 郎官巷이 먼저 나온다. 안으로 들어가니 먼저 푸저우민속박물관이 있다. 옌푸严复생가故居도 있다. 입구에 옌푸(1854~1921)는 중국근대계몽사상가이자 번역가와 교육가라는 한국어 설명도 있다. 그는 신문 '국문보国闻报'의 창간발기인이고 천연론天演论을 중국어로 번역했다는 설명도 있다. 복건민속박물관도 나온다.

마주신앙

천후궁天后宫도 있다. 천후궁은 중국의 여신인 천후마조天后妈祖를 모시는 건물이다. 중국의 민간신앙 건물인 천후궁은 고대에 주로 강이나 바닷가에 지어졌다. 이 천후궁은 원나라 때 지어졌고 청나라 때 개축되었다. 이 천후궁은 과거 이 근처에 수로가 발달해있었다는 증거라는 설명도 있다.

안으로 들어가니 2인의 妈祖를 모시고 있다. 현지인에게 물어보니 각각 다른 마주라 한다. 옆에 하늘나라天上의 성모圣母이신 마주天后妈祖라는 글귀도 있다. 서양에서 성모마리아를 믿고 있듯이 중국 고대의 해안이나 강변의 중국인들은 마주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곳곳에 기복의 민간신앙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향을 피우고 절하는 사람이 있다. 옆에 개인의 희망을 적은 붉은 띠도 많다. 일정 금액을 주고 붉은 띠를 사서 개인의 희망을 적고 걸어두는 것이다. 붉은 띠 하나를 보니 "혼인이 순조롭게婚姻顺利"라는 글귀가 보인다. 중국의 공자사당이나 사원에서 흔히 보이는 붉은 띠이다. 옆에 희망을 적은 붉은 패도 보인다. 한 패를 보니 이름과 함께 "목표 달성, 월수입 1만위안 초과"란 글귀도 보인다.

海上丝绸之路同源信俗文化交流中心도 있다. 교류센터에 들어가니 여기에도 마주妈祖를 모시고 있다. 최근 일대일로의 영향으로 해양실크로드의 뿌리 문화를 탐색하는 곳이다.

衣锦坊

郎官巷에 나와서 조금 더 걸어가니 衣锦坊이 나온다. 坊도 巷과 외관상 큰 차이가 없다. 衣锦坊으로 들어가니 먼저 물가에 지은 연극무대水榭戏台가 나온다. 원래 명나라때 지어진 개인의 저택인데 가든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믈가에 지은 연극무대이다. 푸우시에 하나밖에 없는 물가에 지은 연극무대라는 설명이 있다. 남방 부호층의 저택을 알 수 있는 건축물이다.

黄巷

衣锦坊의 맞은편에는 황항이 있다. 입구에 황항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있다. 서진西晋때 전쟁을 피해 황씨 가족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황항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당말때 황차오黄巢가 푸젠에서 주도한 농민봉기때도 황항은 난을 피할 수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小黄楼가 있다. 小黄楼는 당나라 때는 당시 유명했던 황푸黄璞의 생가였으며 이후 몇 차례 주인인 바뀌다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안으로 더 들어가니 1933년말~1934년초에 있었던 푸젠사변福建事变기간 중국농공민주당农工民主党 중앙기관건물도 보인다. 이 때 국민당임시행동위원회(농공민주당전신)은 항일반장反蒋을 주도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던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는 설명이 있다. 삼방칠항에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의 중요한

역사도 있는 셈이다. 골목 곳곳에 식당이나 웨딩사진관, 기념품가게도 있다.

巷과 坊이 중간에 南后街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

삼방칠항의 중간에는 난훠제南后街가 있다. 3방7항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난훠제에서 酸辣粉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했다. 원루팡文儒坊에는 북송시대부터 명사들의 생가가 많다. 맞은 편에는 안민항安民巷이 있다. 안민항 다음에는 궁항宫巷이 있다. 이 역시 송나라 때부터 주거지이다. 방간 항간 골목을 조성하여 밀랍 인형관 영화관 등도 만들어 관광객을 끌고 있다. 전체적으로 巷과 坊이 중간에 南后街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이다.

중국근현대역사의 절반이 여기에 담겨있다는 말은 좀 과장이라 하더라도 중국근현대역사의 상당 부분을 알 수 있는 장소임은 분명하다.

□ 푸저우: 이순신 같은 국민 영웅, 린쩌쉬林则徐

중국 근대사의 최초 영웅은 단연 린쩌쉬(1785~1850)이다. 푸저우에서 출생한 린쩌쉬는 1839년 둥관 후먼虎门에서 아편을 불태워버린 영웅이다. 중국에서 추앙하는 정도에서 우리의 이순신장군과 흡사하다.

삼방칠항이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걸어 가보니 린쩌쉬 기념관이 나왔다. 마펑워 앱에서는 입장료가 20위안이었는데 실제 가보니 입장료가 없다. 중국 남방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체제 홍보에 도움되는 중국 공산당 관련 홍색관광지이다. 샤오산의 마오쩌둥 기념지와 난창봉기기념관이 그렇다. 둘째, 중국공산당이 높이 평가하는 근현대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장소나 인물의 기념관이다. 중산의 쑨원 기념관과 푸저우의 린쩌쉬 기념관이 그렇다.

기념관의 입구로 들어가니 오른편에 당시의 포대를 재현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포대 위에 올라타고 놀고 있다. 저 아이들은 린쩌쉬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또 중국 근현대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른편에 树德堂이 있다. 들어가니 정면에 린쩌쉬의 좌상이 있고 린쩌쉬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린쩌쉬 좌상 옆에 중국 공산당 영도자의 린쩌쉬에 대한 평가가 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쟝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이 있다. 시진핑의 평가는 "린쩌쉬의 애국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세계를 보는 눈을 뜨게 한 개착정신을 학습하자"는 것이다. 린쩌쉬와 동시대에 살았던 마르크스의 평가도 중국 영도자와 같은 반열에 놓여 져 있다.

树德堂의 옆에는 린쩌쉬의 일생과 업적을 소개하는 전시관이 있다. 린쩌쉬는 청말 관직에 입문한 후부터 쟝수 지역에 치수에 성공하고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섰다.

중국 근대 개혁사상에 영향을 준 인물

린쩌쉬는 근대시기에 서양의 책과 신문을 번역하여 당시 중국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데도 기여했다는 것이 전시관의 설명이다. 또한 후대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다. 양무운동을 주도했던 쩡궈판曾国藩(1811~1872, 후난인), 쭤쭝탕左宗堂(1812~1885, 후난인), 리훙장李鸿章(1823~1901,안후이인), 장즈둥张之洞(1837~1909) 등에 영향을 주었다. 장즈동은 신식학교를 설립하고 근대적 중공업기업을 설립한 청말 명신이다.

그 밖에 근대 해군의 아버지 선바오전沈葆桢(1820~1879,푸저우), 계몽사상가이자 교육자와 번역가였던 옌푸严复(1854~1921,푸저우)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

아편과의 결연한 투쟁

전시관은 무엇보다 당시 아편의 해악을 깨닫고 이와 단호하게 투쟁했던 업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당시 청말 도광道光황제때 조정은 아편 금지완화파가 다수파였고 아편엄금파가 소수였다. 아편 금지

완화파는 당시 아편 무역에 관계했던 판매업자와 이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각급 관리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린쩌쉬는 단호하게 아편 엄금파를 지지하였다. 1938년 도광황제는 아편을 엄격하게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도광황제는 린쩌쉬를 광둥으로 파견했으며 린쩌쉬는 1939년에 급기야 후먼에서 아편을 불태움으로써 아편과의 결연한 투쟁을 보였다. 전시관은 린쩌쉬가 아편과 투쟁했다는 업적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편전쟁

아편 소각은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킨 구실이 되기도 했다. 1840년 1차 아편전쟁의 시기에도 린쩌쉬는 결연히 싸웠다. 하지만 전세가 불리해지자 청조 내 타협파가 득세하고 린쩌쉬는 희생양이 된다. 린쩌쉬는 초기 아편전쟁에서 공을 세웠지만 투항파의 모함을 받고 1841년 6월 결국 파면된다. 이후 신장으로 유배된다. 1842년 1차 아편전쟁이 끝난 후 1845년 린쩌쉬는 다시 기용되었다가 1850년 서거한다.

마약금지 전시관

린쩌쉬 업적 전시공간 옆에는 마약에 대한 중국 공산당 지도자의 어록과 설명이 있다. 그 옆에는 마약금지 전시관禁毒展馆이 있다. 여러가지 마약과 그 해악을 소개하는 관이다. 중국 내 역사적 인물의 기념관에서 그의 정신을 현재 중국인에게 고취하자는 취지의 전시는 어디에나 보인다. 역사적 인물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교육 목적은 중국에서 보다 뚜렷하다.

□ 푸저우: 고대 해양 실크로드의 중심도시

푸젠박물관에 도착하기 전에 아름다운 서호西湖공원이 보인다. 항저우의 西湖와 이름이 같다. 푸젠박물관은 서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2층에는 福建古代文明之光라는 명칭의 전시공간이 있다. 고대의 단계구분은 4단계, 즉 진~남북조, 수당, 오대~송, 원명청대이다. 4단계로 중국과 푸젠의 문물을 전시한 공간이다. 여기서도 고대 해상실크로드에 관한 전시물이 있다. 명초의 정허郑和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전시물이 있다. 해상실크로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전시물을 보기 위해서는 바로 옆의 고대 해양실크로드 임시전시공간으로 가야했다.

고대 해양실크로드 전시는 7성이 연합한 임시 전시 이벤트이다. 일대일로를 최고의 발전전략이자 해외 진출 전략으로 보는 시진핑시대의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 전시공간에는 먼저 춘추전국시대부터 해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한무제때 이미 동남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등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당~오대

당대~五代에 이르러 동남해의 중심인 푸저우는 남중국과 북중국을 연결시키는 중심이 되었다. 당대 해양실크로드의 항로 지도로 보면 남방에서는 푸저우, 촨저우, 광저우, 밍저우明州(닝보), 원저우 등이 중요한 항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강闽江의 하류에 위치한 푸저우는 푸젠 해양문명의 요람이다. 푸저우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1면은 바다에 접해있는 독특한 지형이다. 민위에闽越사람의 중심이었던 푸저우는 일찍부터 해상 항로를 개척하였다.

송-원

경제중심의 축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이동하고 항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해양실크로드는 더욱 발달하였다. 송원대에 지리적 잇점을 가진 촨저우는 동방 제1의 국제항구가 되었다. 이 때는 푸저우 광저우 원저우 밍저우

는 촨저우에 버금가는 항구였다.

전시관의 지도에 따르면 남방에서 밍저우(닝보)는 고려나 일본 등을 왕래하던 항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교역하던 도자기 등이 전시되어있다. 송원대 때 전성기에 이른 해양 실크로드는 각 국의 문화를 상호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문화, 관념, 종교, 예술풍조 등을 전파하였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송 대의 차 문화가 다른 나라에 전파되었다. 특히 푸젠 지방이 차문화를 일본 등에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외래종교도 해상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입되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교는 당대부터 아랍 상인이 남방연해지역에 정착하면서 가져온 것이다. 오늘날 중국 연해지역에 이슬람사원清真寺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촨저우의 이슬람교 사원은 북송시대(1009년)의 것으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마주妈祖

중국의 전통신앙도 해상 실크로드를 통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동부 연해에 광범위하게 숭배되었던 해상여신 마주 신앙은 송대에 시작되었다. 마주는 湄州에서 출생하였다. 메이저우에는 현재 규모가 큰 마주사당湄州妈祖祖庙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의술에 정통하여 사람을 구했다. 뿐만 아니라 날씨변화를 예측하고 항해 중에 안전하게 인도하였다고 한다. 역대왕조는 天妃, 天后, 天上圣母라는 봉호를 내렸다. 그 영향력이 해외에도 널리 미쳐 30개 가까운 국가에 마주사당이 있다.

정허郑和

서쪽 대양으로 항해함으로써 중국 고대 항해의 정점을 찍었던 인물은 명대 초기의 정허이다. 정허 또한 남방 사람이었다. 윈난 쿤양昆阳에서 출생한 정허는 명대 영락3년(1405년)부터 선덕8년(1433년)까지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아시아 아프리카 30여개 국가와 지역을 항해함으로써 세계 항해사상의 기적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어있다. 푸젠 창러长乐는 정허 선단의 중요한 정박지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창러는 선박을 만들거나 물자를 보급하거나 태풍을 피하는 항구였던 것이다.

명말~청

명말 청초에 漳州의 月港이 촨저우를 대체하여 동남아와의 무역에서 중요한 항구가 되었다. 月港은 푸젠 룽하이龙海에 위치해있다. 명청 시기에도 해양실크로드가 문화교류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불교 기독교 문화의 전파자가 예술과 기술의 최신 성과를 주고 받은 것이다.

□ 푸저우: 민강 변에서 광장무广场舞를 추는 따마大妈

저녁에 민강으로 향했다. 강변 산책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다. 산책로 옆의 가로수에는 복福가 새겨진 등불이 있어 장관을 보인다. 강가 바로 옆에 또 다른 산책로가 있다. 민강 반대편의 상업빌딩과 고층아파트의 야경이 아름답다. 민강에서 달리는 유람선의 조명도 아름답다.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광장무를 추고 있다. 산책로를 계속 걸어가니 광장무를 추는 그룹들이 많이 보인다. 민강을 따라 다수의 그룹이 음악을 틀어놓고 광장무를 추고 있는 것이다. 광장무를 추는 그룹을 자세히 보면 아이나 남성도 보이지만 다수는 따마이다.

북방 남방 가릴 것 없이 이른 아침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광장무를 추는 따마大妈이다. 특히 남방은 북방에 비해 기온이 높아 겨울에 접어들어도 광장무를 추는 따마를 더 쉽게 볼 수 있다. 남방의 아파트단지에서는 아침, 낮, 저녁 할 것 없이 광장무가 계속된다.

중국의 따마세대도 중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세대이고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강한 세대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 비해 주택 보험 등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린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농구장을 두고 젊은 층과 다투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조건으로 중국의 세대갈등은 정치경제적 수준보다 사회문화적 수준에서 먼저 표출되고 있다. 향후 세대갈등이 정치경제적 수준에서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이후 남방 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발전이나 생활수준이 더 빠르게 향상되었다. 때문에 세대갈등이 더 첨예화될 수 있다.

□ 샤먼: 외세 침탈의 현장이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변신, 구랑위鼓浪屿

중국의 52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전북역에서 샤먼북역까지는 둥처动车로 3시간50분이 소요된다. 중간에 광둥의 후이저우남역惠州南, 산웨이汕尾, 차오양潮阳, 차오산潮汕을 경유한다. 둥처가 광둥성과 푸젠성의 경계를 지난 후 푸젠의 장푸漳浦과 장저우漳州를 경유해서 샤먼북역에 이른다.

샤먼북역에 도착해서 먼저 구랑위로 가보기로 했다. 2017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구랑위를 첫 번째 행선지로 삼은 것이다. 중국에서는 52번째 세계문화유산 등재인 셈이다. 구랑위는 샤먼 앞 바다의 한 섬이기 때문에 샤먼 북역에서 구랑위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선착장으로 가야했다. 9월 중순이라서 샤먼은 무척 습하고 더웠다. 샤먼을 여행하기에는 9월 중순은 적당한 시기는 아니다.

시내버스로 구랑위로 가는 한 선착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 선착장의 매표소에서는 낮白天에 외지 관광객에게 표를 팔지 않는다는 안내가 붙어있다. 샤먼 사람만이 신분증을 보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배를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안내에 따라 외지인만 이용할 수 있는 샤구선착장邮轮中心厦鼓码头으로 이동했다. 외지인이 이용하는 샤구페리의 왕복 가격은 50위안이다. 주민이 이용하는 다른 선착장의 배보다 훨씬 비싸다. 여권이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페리 표를 구입할 수 있다. 페리 표 구입에도 실명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많은 관광객이 구랑위로 가는 페리에 승선하는 것으로 보아 구랑위는 샤먼의 가장 큰 관광자원임이 분명하다. 다수가 젊은 층이다. 특히 젊은 여성이 많이 보인다. 외국인 조계지였던 구랑위의 유네스코 등재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샤구 선착장에서 구랑위의 선착장까지는 30분이 소요된다.

수많은 유적지

구랑위의 선착장에 도착하여 섬 입구 안내판에 정성공기념관, 일광암, 피아노박물관钢琴博物馆, 구랑위빌라호텔, 샤먼대학공예미술학원, 해수욕장 등이 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니 53가지 유산의 안내판이 있다. 53가지 유산 가운데 미국영사관 유적지, 일본영사관 유적지, 영국영사공관 유적지, 카톨릭성당, 삼일당三一堂, 일광암과 延平문화 유적지, 종덕궁, 구세병원 및 간호사 학교 유적지, 안헌루, 만국구락부 유적지, 연미산오포대 유적지, 삼구전선착장 유적지, 아세아화유회사 유적지, 후이펑汇丰은행공관 유적지, 상판샤먼전화주식회사 유적지, 중난中南은행 유적지, 랴오가별장廖家别墅, 海天堂构, 番婆楼, 杨家园 등이 눈에 띈다. 53가지 유산의 리스트를 보니 구랑위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먼저 섬 안에 경제형 호텔 하나를 예약한 후에 구랑위의 유적지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구랑위의 건축물마다 건축연도와 용도를 보여주는 안내문이 있다. 오래된 건물 가운데 건축연도가 1870년대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말 민국시기의 건축물이 대체로 많이 보인다. 바이두 백과에 따르면 구랑위의 건축물의 70퍼센트가 21세초부터 1920년대 혹은 1930년대 사이의 건축물이라고 한다.

샤먼과 구랑위는 1840년대 초 1차 아편전쟁 이후 서구세력에 침탈된 것으로 설명되어있다. 이때 이후 서구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청조 광서光绪30년인 1908년이 되면 구랑위는 공공조계公共租界로 전락된다.

자유 관광의 천국

유적지 사이에 청말 민초의 건축물을 흉내 낸 멋진 레스토랑도 보인다. 이런 레스토랑에 젊은이들이 식사하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 골목에는 각종 식당이나 간식거리가 많다. 식당 중에는 해산물 식당이 많이 보인다. 고급호텔과 경제형호텔도 많다. 이들 가운데 상당부분은 주민이 직접 경영하는 것이다. 현재 구랑위에는 15,000여명의 호적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일광암으로 올라가는 거리에는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도 있다.

해변을 따라 있는 산책로를 걸어보면 아름다운 정원에 와 있다는 착각도 있다. 아열대지역의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즐비하다. 그래서 구랑위를 해상화원海上花园이라 하지 않았던가? 많은 젊은 남녀가 산책로를 걷고 있다. 중장년층도 많이 보인다. 날이 어두워지자 바다 건너편에 보이는 샤먼시의 야경도 몹시 아름답다. 현지인은 샤먼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

구랑위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건축물, 자연, 음식 등을 즐기기에 적합한 섬으로 보인다. 특히 사람들이 자유 관광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로 보인다. 또 구랑위는 과거에 열강의 조계지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졌지만 현재에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가장 용이한 조계지라는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변모한 셈이다.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 샤먼: 일국양제의 경계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구랑위에서 1박하고 다음날 샤구선착장厦鼓码头으로 향했다. 돌아가는 페리에서 보이는 샤먼은 도시 라인이 아름다운 해양도시이다. 페리의 양 쪽에서 보이는 샤먼의 도시라인 모두 아름답다. 샤먼은 최근 중국인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10대도시에 포함되기도 했다. 칭다오, 다리엔, 주하이 등의 반열에 들어가는 살기 좋은 해양도시인 셈이다. 샤먼은 부성급도시이며 2016년 상주인구는 392만 명이다.

환다오루环岛路

샤구선착장码头에서 부경대 중국학 박사출신인 샤먼이공대 교수를 만났다. 함께 택시로 환다오루环岛路를 타고 샤먼의 해안을 조망했다. 환다오루는 샤먼의 해안도로를 말한다. 전체 길이가 31킬로미터라고 하며 왕복 6차로이다. 환다오루는 마라톤 코스이기도 하다. 환다오루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라톤 코스라는 명성도 갖고 있다. 차창 밖으로 보니 도로 중앙과 양 옆에 녹지대가 잘 조성되어있다. 차창 밖으로 아열대 경치가 보이고 부유층 주택도 보인다.

일국양제의 경계

환다오루를 타고 가다가 黃厝해변에서 내렸다. 환다오루 옆에 “일국양제, 통일중국一国两制统一中国“란 표어가 새겨진 큰 간판이 인상적이다. 이것은 대만문제 해결에 대한 덩샤오핑의 원칙과 지도사상이기도 하다. 黃厝해변 가까이에는 대만의 진먼다오가金门岛 있다. 샤먼은 타이완의 진먼다오와 가장 가까운 도시이다. 특히 샤먼시 쟈위角屿는 진먼다오에서 1.8컬로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해있다.

이런 이유로 샤먼은 1980년에 주하이, 선전, 산터우와 함께 경제특구로 지정된 도시이다. 4개 도시가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유는 주하이는 마카오, 선전은 홍콩, 산터우와 샤먼은 타이완에 인접해서 타이완, 홍콩, 마카오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조> 바이두 백과

【사회과학 분과】 발표 ③

东亚都城研究相关问题
— 中国学界对日本都城的研究

韩宾娜*

中国国内对日本古代都城的研究肇端于上世纪八十年代，到现今已经有大约近四十年的发展。八十年代的研究以介绍日本都城、相关的考古学；研究古代中日交流兼及中日都城制度为主要趋势。九十年代的研究以考论日本古代都城渊源、中日都城比较为重要课题并出现了对日本学界成果的引进。2000——2010年的研究与上一阶段紧密联系，并趋向细致，出现了以都城内部某个要素，如里坊\条坊、建筑材料为中心主题的研究。近十年来的研究呈现出持续深入、细致的趋势，日本都城深层文化进入学者们的研究视野。

一、日本都城的介绍与中日历史交流中的都城

这一话题领域内具有代表性的学者有蔡凤书、王仁波等。**1.对日本考古学通论性介绍**　蔡凤书的两篇文章[1]对日本考古学的发展历程做出了介绍，将都城发掘归入日本考古学的发展期（战后至今），指出中日古代都城的关系问题得到学界共同关注有助于学术共同发展，"两国学者互相启发，共同研究大有必要"。**2.案例研究**　王仁波的一组研究[2]结合传世文献材料与考古材料对平城京、平安京作了初步介绍并引进日本学界对两座都城的复原成果，论述了平城京与平安京所处的自然环境、城市布局、城市形态等问题，认为平城京、平安京渊源于唐长安城。类似的文章还有《日本平城京的发掘与研究》[3]

3.中日文化交流中的都城制度　《隋唐时期中日文化的交流》[4]一文将两国的都城制度作为众多交流领域中的一个方面——科学技术方面来加以考察，认为其与教育、文学、艺术、风俗等方面一同构成了隋唐时期中日交流的主体部分。《中国文化对日本地名的影响》[5]一文从地名学的角度指出隋唐时期日本地名直接受中国地名影响，如在都城、行政区划单位的命名上。

如上，在八十年代对日本都城研究的主要方向即是对日本都城的介绍与宏观视角下的考察。关注外国学界、开拓新的研究领域，在中日邦交正常化、改革开放的时代背景下，这一时期的研究虽然带有初步性却是基础性的、积极的。另外宏观视角下的考察也启示着都城研究这一学术领域实际上处于政治史、城市史、文化史、城市地理、社会学等多学科视域之下，现今的学术潮流仍然没有背离这一传统。

二、东亚都城比较、日本学者成果引进

1. 东亚都城比较

* 中国 东北师范大学历史文化学院

1) 蔡凤书，《日本考古学的历史与现状》，《文史哲》，1985年第5期，第37-43页。《日本考古研究中的几个与中国有关的课题》，《东南文化》，1992年第5期，第62-66页。

2) 王仁波，《日本著名的古京——平城京》，《海交史研究》，1986年第1期，第49-53页。《日本的千年古都——平安京》，《文博》，1987年第4期，第82-87页。《唐代文化的繁荣与开放政策》，《文博》，1988年第4期，第43-48、38页。

3) 李绍明，《日本平城京的发掘与研究》，《四川文物》，1987年第1期，第64-66期。

4) 易民，《隋唐时期的中日文化交流》，《文史哲》，1978年第5期，第48-55页。

5) 刘沛林，《中国文化对日本地名的影响》，《衡阳师专学报(社会科学)》，1988年第1期，第74-78页。

对日本城市源流与取法对象的探寻其实是一个问题的两个层次，渊源与影响牵涉诸多方面，如国际关系，对外使节等。都城比较则是对这一问题的细化研究。“中国古代都城影响日本古代都城”这一命题在八十年代已初露端倪[6]，并在九十年代掀起大规模讨论，且影响力持久。这一话题中代表性的代表性研究者有王仲殊、王维坤等。

王仲殊最先立足于与日本学者对话的角度，对日本古代都城制度的源流做了考证。[7]他对于“平城京的模仿原型”问题持平安京主要模仿长安城，不同之处“都可以在隋唐洛阳城方面找到相似之处”的观点。论证十分详细，为中日古都比对做好铺垫。王维坤早期的研究[8]，从正反两方面论述平城京模仿自唐长安城，是对平城京的一个个案研究。《隋唐长安城与日本平城京的比较研究——中日古代都城研究之一》，是从地理位置选择、里坊、郭城、街道、市、寺院、园林等诸多方面将长安城与平城京进行了比较，以证明其观点。《日本平城京模仿中国都城原型探究——中日古代都城研究之二》则从具体城市形制、制度访学人员、都城存在时间三个角度论证了平城京建设的模仿对象。两篇文章相互印证，明确地指出平城京模仿自隋唐长安城。这一组研究价值与正确性不容否定，但其中也存在些许不足，如将长安城与平城京中不同的部分简单的认作“性质相同”平城京虽然与长安城有着联系，但是其中不同的部分如何产生，是民族特色的部分，还是间接继承自中国先代都城，这一问题值得留意。在后期的研究中作者结合新发现的考古材料对以上观点作出了补充，。[9]

2000年前后中国学界又产生了“邺城产生重要影响”的观点，[10]指出邺城形制导源于东汉后期，经曹魏、后赵、东魏、北齐不断改进，最终在邺南城得到总结，并对中国隋唐长安城、明清北京城、朝鲜半岛平壤城、开城、汉城、日本藤原京、平城京产生重要影响。需要注意的是邺城作为中国都城市上的一环，其许多形制如宫城居北、明显的中轴线等确实对后世产生了重要影响，但在东亚都城的更大规模视域下，盲目强调邺城的源头性则会陷入前后逻辑不一、主次不明的困境。其他相关观点有《中国古代都城制对朝鲜、日本古代都城制的影响》[11]其文认为邺城对高句丽诸王城的影响大于隋唐长安城，日本都城则取法于长安城的规划方式。《魏晋南北朝至隋唐宫室制度沿革——兼论日本平城京的宫室制度》[12]一文考察了东晋建康台城至隋唐的宫城（内城）布局方式，认为日本都城的宫城可能取法于南北朝时期。《日本古代都城形制渊源考察——兼谈唐渤海国都城形制渊源》[13]一文在认同藤原京及以后的日本都城建设模仿原型来自隋唐长安与洛阳的基础上，将渤海国五京形制与唐代都城做了比对，并对日本难波京及更早都城形制渊源做出了推测。

2. 对日本学界成果的引进

缘于对日本都城渊源的国际性探讨，自九十年代起，国内多种刊物上以翻译的形式引进了日本学界的研究成果。这一趋势持续至今。九十年代引进的基础性研究有：岸俊男著《日本的宫都和中国的都城》、田中琢著《日本早期历史阶段遗址的研究》、木下良著《关于日本古代道路的发掘》[14]，前者是九十年代国内研究的主要“对话对象”，后者二者是关于藤原京、平城京及地方行政中心；日本古代道路的考古研究。研究性文献有：泽田红子著《水与古代城市》，论述古代都城引水与排水；武部健一著《日中道路交流的历史与现状》[15]。二者均涉及日本与

6) 如刘沛林、杨载田，《中国古代都城模式对日本都城制度的影响》，《衡阳师专学报(社会科学)》1989年第2期，第23-28页。
7) 王仲殊，《关于日本古代都城制度的源流》，《考古》，1983年第4期，第354-370页。
8) 王维坤，《隋唐长安城与日本平城京的比较研究——中日古代都城研究之一》，《西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1990年第1期，第101-110页。《日本平城京模仿中国都城原型探究——中日古代都城研究之二》，《.西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1991年第2期，第66-71、3页。《日本平城京模仿隋唐长安城原型初探》，《文博》，1992年第3期，第34-44页。.
9) 王维坤、张小丽，《论隋唐洛阳城的设计思想与影响》，《.西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04年第4期，第127-131页。 王维坤，《论20世纪的中日古代都城研究》，《文史哲》，2002年第4期，第146-152页。
10) 牛润珍，《邺与中世纪东亚都城城制系统》，《河北学刊》，2006年第5期，第105-114页。《邺城城制对古代朝鲜、日本都城制度的影响》，《韩国研究论丛》，2007年第2期，第271-289页。
11) 方学凤，《中国古代都城制对朝鲜、日本古代都城制的影响》，《延边大学社会科学学报》，1997年第1期，第164-167页。
12) 郭湖生，《魏晋南北朝至隋唐宫室制度沿革——兼论日本平城京的宫室制度》，《东南文化》，1990年第1期，第14-20页。.
13) 刘晓东，《日本古代都城形制渊源考察——兼谈唐渤海国都城形制渊源》，《北方文物》，1999年第4期，第35-41页。
14) （日）岸俊男著，于德源译《日本的宫都和中国的都城》，《大同高等专科学校学报》，1997年第2期，第61-70页。 （日）田中琢著，刘丽萍译，《日本早期历史阶段遗址的研究》，《北方文物》，1995年第4期，第:99-102页。（日）木下良著，郭晓华、柴小奇译，《关于日本古代道路的发掘》，《文博》，1994年，第2期，第8-9页。

中国古都，是比较性的研究。2000年以后所引进的成果则吸取了日本最新的考古成果，或研究问题逐渐深入。

如前，九十年代开始的对日本都城渊源问题的讨论打开了中国对日本都城史研究的新局面，影响一直持续至今所引进的文献呈现出收集最新材料、渐趋细化的新特点，这是与国内日本都城研究趋势同步的。

三、都城要素研究

1. 宫殿及及其建筑

王仲殊在发表关于前述日本古都源流的文章后，依旧在中日两国对比的视角下，逐渐转入相对细化的，对都城单个要素的研究。《论日本古代都城宫内大极殿龙尾道》[16]指出：大明宫的正殿“含元殿”前方左右两旁设有称为“龙尾道”的台阶。日本平城京和平安京宫内正殿大极殿亦建立在称为“龙尾坛”或“龙尾道”的高坛之上。进而指出平城京、平安京的大极殿是模仿唐长安大明宫含元殿的形制而建造的。《试论唐长安城大明宫麟德殿对日本平城京、平安京宫殿设计的影响》则指出了大明宫麟德殿——平安京丰乐园之间在功能的对应关系。[17]《论唐长安城圆丘对日本交野圆丘的影响》[18]一文，以桓武天皇时期为中心对比了中日两国同一时期的圆丘郊祀制度，指出日本的郊祀制度仿自中国唐朝，只因国情、人事有所不同，郊祀仪礼的细节不免稍有差异。

2. 京域中的功能空间

里坊变迁 《日本建筑文化发展中的灵活性和独创性》[19] 一文从条坊、道路、城墙、排水系统等方面论证了日本古都建设中的独创性。王晖的两篇文章[20]则从城市街坊和道路规划方法以及宅地分配制度等方面对日本几个古都的条坊制度进行考察，指出了其中的继承性。

城市重心与布局风格 《试论唐长安城与日本平城京及平安京何故皆以东半城(左京)为更繁荣》[21]一文分析了8世纪末以降的日本都城平安京，左京的繁荣程度大大超过右京，受唐长安城的影响应是主要的原因。

市 场 《古代日本的都城与律令制国家——以东、西市为中心的考察》[22]在前人研究的基础上深化了对日本“东、西市——中央贸易圈——国府贸易圈”的研究，指出全国性的流通体系的形成为都城市场贸易的发展提供了必要条件，而东、西市正是这个流通经济圈的中轴。

3. 日本都城文化

对都城文化的研究最早见于九十年代，余干生的一组文章[23]以平安京为核心研究对象，指出奈良盆地在日本都

15)（日）武部健一著，郭晓华、柴小奇译，《日中道路交流的历史与现状》，《.文博》，1994年第2期，第10-12页。（日）泽田红子著，《水与古代城市》，《建筑学报》，1991年第6期，第22-25页。
16)王仲殊，《论日本古代都城宫内大极殿龙尾道》，《考古》，1999年第3期，第72-84页。
17)王仲殊，《试论唐长安城大明宫麟德殿对日本平城京、平安京宫殿设计的影响》，《考古》，2001年第2期，第71-85页。同见于王仲殊，《关于中日两国古代都城、宫殿研究中的若干基本问题》，《.考古》，2001年第9期，第70-77页，此文中加入了渤海五京的考古资料作为沟通理解中日古代都城关系的桥梁。
18)王仲殊，《论唐长安城圆丘对日本交野圆丘的影响》，《考古》，2004年第10期，第69-81、2页。
19)施梦嘉，《日本建筑文化发展中的灵活性和独创性——以中日两国古都规划和布局的相异之处为例》，《浙江社会科学》，2005年第2期，第166-170页。
20)王晖，《日本古代都城条坊制度的演变》，《国际城市规划》，2007年第1期，第77-83页。《日本中世时期的政治格局与城市空间的变迁——以京都为例》，《国际城市规划》，2008年第2期，第3-9页。
21)王仲殊，《试论唐长安城与日本平城京及平安京何故皆以东半城(左京)为更繁荣》，《考古》，2002年第11期，第69-84、1页。
22)章林，《古代日本的都城与律令制国家——以东、西市为中心的考察》，《外国问题研究》，2012年第3期，第24-29页。
23)余干生，《藤原京·平城京与京都文化——日本都城史纪略》，《外国问题研究》，1995年第1期，第56-63页。 《试论京都

城史上具有重要地位，并对平安京（京都）文化进行了分期。2000年以后，《日本都城历史发展及其规划建设》[24]从建筑学的角度出发，指出了中国文化、伊斯兰文化、西方文化对日本都城的不同影响，进而将其分为六种规划风格。《日本的平城宫遗址与天平文化》[25]指出平城宫遗址的发掘成果以及同时代的文化遗品向今人展示了以天平年间为中心形成起来的天平文化。而天平文化是在接受了大陆文化的影响之下的再创文化。

4. 建筑材料

《日本律令制都城的变迁与日唐交流——关于寺院数量的变化及彩釉瓦建筑的出现》[26]以日本都城内的寺院数量及其建筑材料使用为论述对象，结合日本与隋唐交流事实，侧面印证了中日关系与藤原、平城、平安京的变迁过程。《日本和朝鲜半岛的兽面纹砖瓦》[27]则从瓦的类型学分析入手，指出在日本的太宰府、平城宫等具有代表性的宫殿建筑、寺院建筑，及烧制这些瓦的瓦窑，出土有兽面纹东端饰瓦，在样式上可能受到新罗、中国南朝的影响。硕士论文《6~9世纪中日都城造瓦体系的比较研究》[28]从考古学的角度阐述隋唐、日本瓦窑遗址的分布与都城遗址分布的位置关系，进而说明了隋唐时期中国对日本的文化影响。

如上，2000年以后的研究由宏观的中日都城关系探讨转向了细致的要素研究，相比前一个时期研究对象体现出多样性与全面性的特点。

四、深层、底层文化的挖掘

近十年的研究，仍然保持着深入、细致（前述市、造瓦体系的研究）的趋势，并持续引进文献，这样的现状与之前的研究紧密相连的，从这个意义上说，也可以将这一时段视为前一时段的延续。除此之外现阶段的研究也出现了挖掘深层文化含义的新话题，但偏重于思想史的研究，空间感不足。

硕士论文《论京都的庶民文化》[29]京都的庶民的经济政治地位的不平衡产生的反抗意识是庶民文化兴起的动力，但是与江户文化“下克上”的文化模式相反，京都的庶民文化是“上下相融’，“下仿上”的文化模式。受贵族文化的熏陶，京都的庶民文化也含有“雅”的元素。郭雪妮的研究[30]从日本材料出发，分别考证了日本人不同时期对平城京、长安城的不同城市印象及其转变。其中体现着日本自我认同的转变。

综上，自上世纪八十年起至今中国学界对日本都城的研究，前期的研究多是总体性的研究，后期的研究多是个案研究；对比研究是基础性的研究方法。这其中即取得令人欣喜的成果，对日本都城的认识不断加深、细化，同时在古都保护方面也做出了相当的研究[31]，但也存在一些问题，有待改进。

文化》，《日本问题研究》，1994年第3期，第46-50、40页。《古都千载世堪稀——平安建都1200年》，《日本学刊》，1994年第5期，第107-118页。

24) 王建国，《日本都城历史发展及其规划建设》，《世界建筑》，2000年第3期，第62-67页。

25) 林岚，《日本的平城宫遗址与天平文化》，《松辽学刊(哲学社会科学版)》，2000年第3期，第25-28页。

26) 苌岚，《日本律令制都城的变迁与日唐交流——关于寺院数量的变化及彩釉瓦建筑的出现》，《考古与文物》，2001年第1期，第60-64页。

27) 汪勃，《日本和朝鲜半岛的兽面纹砖瓦》，《碑林集刊》，2000年，第274-287页。

28) 熊玮，《6~9世纪中日都城造瓦体系的比较研究》，南京大学硕士学位论文，2014年。

29) 陈蕾，《论京都的庶民文化》，南京大学硕士学位论文，2012年。

30) 郭雪妮，《奈良贵族的都城意识与国家观——藤原宇合汉诗出典研究》，《日本问题研究》，2015年第4期，第43-53页。《帝京欲望与帝国恐惧——日本古代文学中的长安书写》，《东北亚外语研究》，2016年第1期，第22-28页。

31) 如：韩骥，《京都、奈良在城市建设中保存古都风貌的经验》，《城市规划》，1981年第1期，第63-70页。刘玉芝，《从奈良、京都的历史遗迹看日本的文化遗产保护》，《中国文化遗产》，2010年第6期，第106-110页。曲蕾，《京都的町屋保护及其再生》，《建筑史论文集》，2002年第3期，第249-256、278页等。

【사회과학 분과】 발표 ④

特朗普执政以来的中美关系：麻烦不断

李丹*

一序言

- 随着特朗普的执政，美国内外政策变化可能给中美关系的环境、议程和互动方式带来新变化，双边关系发展面临新的挑战与机遇。
- 2016 年12 月2 日，候任总统特朗普与台湾地区领导人蔡英文通电话，之后在“推特”上公开质疑美国政府的“一个中国”政策。美国政策界一片哗然，其他相关国家则对特朗普上台以后的中美关系发展充满担忧.
- 2017 年2 月10 日，习近平主席与特朗普总统通电话，特朗普总统在电话中强调其充分理解美国政府奉行“一个中国”政策的高度重要性，并表示美国政府奉行“一个中国”政策.
- 2017 年11 月8 日至10 日，特朗普总统访华。中美双方在此期间签署了总额超过2500 亿美元的商业合同和双向投资协议。双方还在两军交流、网络安全、朝核、人文科技交流、反恐、反毒、阿富汗等领域达成了共识，决定继续深入合作。

* 釜庆大学中国学科

一序言

- -2017 年12 月18 日，白宫发布了特朗普政府首份《美国国家安全战略》报告。报告把中国和俄罗斯并列为“修正主义国家”(revisionist powers)，把它们和“流氓国家伊朗和朝鲜”、“跨国威胁组织，特别是圣战恐怖组织”一起称为美国的主要竞争对手。
- -在《美国国家安全战略》报告中，“中国”出现了21 次，而2015 年奥巴马的《美国国家安全战略》报告中，“中国”只出现了3 次。在一定程度上可以说这是冷战后第一份以中国为中心的国家安全战略报告。在美国决策者的眼里，中国已经取代苏联在冷战时的地位，成为美国的头号战略对手。

- 整个《美国国家安全战略》报告几乎完全不谈中美之间的合作。中美之间在朝鲜核问题、伊朗核问题、阿富汗问题、气候变化等一系列问题上的合作在《美国国家安全战略》报告中完全被忽略不计，中国的外交政策被说成几乎一无是处。

一序言

-2018年1月9日、2月28日由国会众议院和参议院审议通过“与台湾交往法案”，1月6日提交白宫，致力于“鼓励美国与台湾所有层级的互访，及其它相关之目标”。

- 2018年3月22日，美国总统特朗普签署总统备忘录，依据“３０１调查”结果，将对从中国进口的商品大规模征收关税，并限制中国企业对美投资并购。中国商务部此前表示，中方绝不会坐视合法权益受到损害，必将采取所有必要措施，坚决捍卫自身合法权益。
- 2018年3月23日，中国商务部发布了针对美国进口钢铁和铝产品232措施的中止减让产品清单并征求公众意见，拟对自美进口部分产品加征关税，以平衡因美国对进口钢铁和铝产品加征关税给中方利益造成的损失。
- 中美关系是否进入“新冷战”？未来四年将是中国“十三五”规划完成、第一个百年目标实现的关键时期，这期间中美关系会有怎样的波动？今后中美关系是“软着陆”，还是“硬碰硬”？
- 本文将从中美关系的现状着手， 分析中美关系的走势并再此基础上展望双边关系的未来。分析内容将着眼于经贸、台海及。

二 中美关系现状

- 1 经贸领域：遏制与“奉陪到底”
- 1）美国遏制
- -2018年1月，美国政府宣布“对进口大型洗衣机和光伏产品分别采取为期4年和3年的全球保障措施，并分别征收最高税率达30%和50%的关税”。
- -2018年2月，美国政府宣布“对进口中国的铸铁污水管道配件征收109.95%的反倾销关税”。
- -2018年2月27日，美国商务部宣布“对中国铝箔产品厂商征收48.64%至106.09%的反倾销税，以及17.14%至80.97%的反补贴税”。
- -2018年3月22日，特朗普签署了总统备忘录，宣布为回应中国对美国知识产权的侵犯，将依据1974年贸易法第301条，指示美国贸易代表（USTR）对从中国进口的商品征收关税，涉及的商品总计可达600亿美元；关税并非即时生效，美国贸易代表将“在15天内制定征税货物列表，此后还有30天征询公众意见的公示期

二 中美关系现状

- -2018年4月4日，美国政府发布了加征关税的商品清单，将对中输美的1333项500亿美元的商品加征25%的关税。
- -2018年4月5日，美国总统特朗普要求美国贸易代表办公室依据“301调查”，额外对1000亿美元中国进口商品加征关税。
- - 2018年4月16日，美国商务部部长罗斯宣布，因违反美国政府制裁禁令向伊朗等国出口，中国电信设备商中兴通讯将被禁止从美国市场上购买零部件产品，期限为7年。
- - 4月18日，美国商务部宣布已展开新的调查，以确定从中国进口的部分钢轮产品是否在美国倾销与中国生产商是否接受不公平补贴问题。

二 中美关系现状

- 2）中国应对
- -2018年3月23日，中国商务部发布了针对美国进口钢铁和铝产品232措施的中止减让产品清单并征求公众意见，拟对自美进口部分产品加征关税，以平衡因美国对进口钢铁和铝产品加征关税给中方利益造成的损失。其中计划对价值30亿美元的美国产水果、猪肉、葡萄酒、无缝钢管和另外100多种商品征收关税。
- -2018年4月2日，中国对原产于美国的7类128项进口商品中止关税减让义务，在现行适用关税税率基础上加征关税。
-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决定对原产于美国的大豆、汽车、化工品等14类106项商品加征25%的关税，实施日期将视乎美国政府对中国商品加征关税实施情况，由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另行公布。
- -中国就美国对华301调查项下征税建议，及美国进口钢铁和铝产品232措施，两天内在世贸组织争端解决机制下两次提起磋商请求，正式启动世贸组织争端解决程序

二 中美关系现状

- -2018年4月10日，中国国家主席习近平在博鳌亚洲论坛的开幕主旨演讲中，宣布中国将实施“四大开放”新举措：包括放宽外资的市场准入限制、创造更优投资环境、加强知识产权保护，重组国家知识产权局以及主动扩大进口，其中特别提到将“相当幅度”降低汽车进口关税。
- -4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发布公告，初步认定原产于美国的进口高粱存在倾销行为，决定自2018年4月18日起，对原产于美国的进口高粱采取临时反倾销措施。中国商务部宣布，“进口经营者在进口原产于美国的进口高粱时，应依据裁定所确定的各公司保证金比率（178.6%）向中华人民共和国海关提供相应的保证金。
- - 4月19日，中国商务部决定对原产于美国、欧盟和新加坡的进口卤化丁基橡胶产品实施保证金形式的临时反倾销措施。

二 中美关系现状

• 2. 特朗普的台湾牌：步步惊心

- -立法层面，3月16日，特朗普签署国会通过的“台湾交往法”，允许所有层级的美国政府官员访台，实际上鼓励美台各级官员相互往来。
- -互访方面，3月23日，美国国务院负责东亚与太平洋事务的助理国务卿帮办黄之瀚结束访台，期间曾保证美国对台承诺不变。同一时间，高雄市长陈菊访美，并在美国智库“国际战略研究中心”发表演讲。
- -军售领域，台媒体报道，4月初美国政府已批准向美国制造商核发对台出售潜艇技术和零部件的营销许可证。台当局称，“这项决定将有助于提升台自我防卫力量”。

二 中美关系现状

• 3. 南海问题：相对降温

- -2017 年《美国国家安全战略》报告有专门一章论及“地区背景下的战略”，首先谈到的就是印太地区。
- -东北亚部分主要强调朝核问题，而在东南亚部分则主要是强调盟国、其他国家以及东盟、亚太经合组织的重要性。从相关词频来看，《美国国家安全战略》报告对“东南亚”、“东北亚”的使用差不多，但在两个不同次地区的问题的提及上:“朝鲜”出现16 次，而“南海”出现仅1 次。
- -2017 年《美国国家安全战略》报告仅一次提及南海，即指责中国在该区域建立军事化前哨基地。
- - 特朗普政府“忽视东南亚，重视东北亚”。
- -特朗普政府对南海问题的忽视，在很大程度上是因为失去了“抓手”。
- -南海缺乏直接影响美国安全的重大利益，以及特朗普暂时仍需要中国在朝核问题上合作，也可能促使其“搁置”南海议题。
- -

二 中美关系现状

- 4 朝核问题：利益交叉

- 1）共同立场：无核化
- - 中国坚持朝鲜半岛无核化的原则，反对朝鲜的冒险行为。中国作为安理会常任理事国，坚持和国际社会一同反对朝鲜制造地区危机的行动。
- - 中国就朝核等威胁地区安全的行为保持了与国际社会的沟通。中国原则上支持并参与国际社会制裁。联合国安理会通过制裁朝鲜决议案通过之后，中国责成有关部门履行联合国决议案。
- 2）分歧
- - 中美对于如何平衡无核化和半岛稳定两个目标存在分歧，对稳定和无核化的重视程度不同。
- - 中美在应对朝鲜核扩散问题上的路径认识不同（中国：标本兼治）

三 中美关系的实质：新冷战？

- 1 中美关系新现实
- -中国在经济上对美国的重要性上升：
- 2006至2016年期间，美国对华货物出口额上升了114%，而服务出口增幅则超过了340%。在此期间，中国对欧盟及美国的进口额分别为2080亿美元，及1340亿美元。这表明，美国紧随欧盟脚步，已经成为了中国第二大进口市场。

- -中美军事力量对比发生了新的变化（2015年中国国防开支达到美国的36%）

- -中国的外交战略空间扩大（金砖国家、金砖国家开发银行、一带一路倡议等）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出资400亿美元，于2014年成立丝路基金以推动亚洲地区经济发展。基金将向“一带一路”沿线国家的基建、开发、产业合作等项目提供融资。2017年，中国领导人习近平又宣布向该基金增资1000亿人民币。
-

三 中美关系的实质：新冷战？

- 2 中美关系与美苏关系的区别
- 第一，中美在经济利益交叉
- 第二，中美关系相互牵制、平衡、干预和反干预
- 第三，在国际组织上的对话合作大于摩擦
- 第四，意识形态上并非根本对立

四 中美关系展望:挑战与机遇

- 未来几年，特朗普对华政策的不确定性仍然存在，在经贸领域的矛盾、冲突有可能加剧。
- 1 挑战
- 首先，中美关系日益被“建构”成崛起国与霸权国之间的关系，所谓的“修昔底德陷阱”成为困扰中美关系的发展。
- 第二， 经贸领域的挑战（特朗普的贸易强硬行动导致中美贸易摩擦）
- 第三，中美在安全议题上相互竞争的色彩日益浓厚。

- 2 机遇（中国层面）
- 首先， 中美政治上的矛盾有可能减轻（特朗普没有向中国输出美国模式）
- 其次，由于特朗普的逆全球化，有利于中国国际地位的提高。

- 參考文献
- 达 巍，“中美关系：减少短期脆弱 塑造长期稳定”《当代世界》2017年第12期
- 樊吉社，“朝核问题与中美战略共识”，《美国研究》2014年第2期
- 成汉平，“大国战略博弈的又一关键节点——特朗普政府南海战略展望”，《学术前沿》2017年02期下
- 熊 洁，“特朗普上台，南海风再起？”，《环球视点》2017年第2期
- 阮宗泽，“特朗普‘新愿景’与中国外交选择”，《国际问题研究》2017年第2期
- 尹继武，“未来五年中美领导人交往的稳定性分析”，《战略决策研究》2018年第2期
- 李开盛，“东亚安全观:特朗普政府的延续与变化”，《国际关系研究》2018年第1期
- 易继明，李春晖，“美对华启动301调查与我国的应对措施”，《西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8年1月，第48卷第1期
- 任 晓，“特朗普政府《美国国家安全战略》报告分析”，《国际关系研究》2018年第1期

- 朱 旭，“特朗普执政以来中美关系的回顾与前瞻”，《思想理论教育导刊》2018年第3期/总第231期
- 陈积敏，“特朗普时期的中美关系评析”，《和平与发展》2017年第4期
- 陈宗权，“朝核问题上中美战略互动关系的转型”，《社会科学》2014年第10期

- 晓松，“中美之争，时间站在谁一边”，《世界知识》2018年4月
- “以台制华，特朗普要打‘台湾牌’”？中国网2018-04-16
- “福布斯：中国对美国经济的重要性与日俱增”，（http://caijing.chinadaily.com.cn/2017-09/28/content_32602481.htm）
- 박병광 외, “강력한 권력 집중, 시진핑 신시대 열다“, <<통일한국>>2017.11
- 박병광, “스트롬 맨 시대의 미중관계와 한반도”, <<접경지역통일연구>>제1권 제2호, 2017
- 신상진,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 중미관계 변화와 관련“, <<통일정책연구>>제26권 제2호, 2017
- 신성호, “아시아 재균형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트럼프 행정부 시대 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창설 30주년 기념 논문집>>
- 정재흥. 이동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 고찰: 사드 배치를 중심으로“, <<중국지식네트워크>>9권, 2017
- 주재우, “미.중 동아시아지역 질서관 비교 분석”, <<아태연구>>제20권 제1호, 2013
- 한석희, “국제정치 이론에서 본 중미관계의 미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EAI 프로젝트 리포트 22, 2012
- 한인희, “미.중 양국의 '신형대국관계'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제15권 제1호

【사회과학 분과】 발표 ⑤

한중 新경제통상관계 변화와 전망: 선택적 갈등 vs 협력?

서창배(Seo, Chang-Bae)*

【목 차】

Ⅰ. 서론
Ⅱ. 한-중관계의 발전과 3.0시대의 도래
Ⅲ. 한-중 新경제통상관계의 변화와 쟁점
Ⅳ. 결론: 한-중관계 갈등인가 협력인가?

Ⅰ. 서론

한-중 양국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25주년(2017년)을 넘어섰으나, 2016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종말고고도지역방어(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와 관련한 한-중 양국 간 갈등으로 인해 수교 25주년은 과거 15주년, 20주년 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한 형식적인 행사만 진행되었다. 더욱이 트럼프(Donald Trump) 정부 출범, 시진핑(习近平) 2기 체제와 맞물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새로운 외교관계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중 양국 모두 강력한 자국 이기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 대한 선택을 둘러싼 강요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중국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党)대회를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을 당장(党章)에 삽입하며 '강력한 중국(强国时代)'을 강조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미-중 양국은 미국의 對中무역적자 해소를 둘러싸고 고율의 관세부과,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 등 각종 통상분쟁과 함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에 따른 한국의 입장 정립을 강요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중 양국 사이에서 한국의 포지셔닝(positioning)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고는 시진핑 정부 2기의 한-중관계 3.0시대를 맞이하여 현존하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쟁점사항들과 그 전망을 정리하고 이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한-중관계의 발전과 3.0시대의 도래

정치·외교·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전반적인 한-중 관계는 경제관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변화과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한-중관계 1.0시대(1992.8~2008.2)로서, 주로 경제적 관계가 중심이 된 시기이다. 시기적으로는 한-중 수교부터 노무현-후진타오(胡锦涛)/원자바오(温家宝) 1기 정부까지로 구분되며, 한-중 관계가 경제(무역·투자), 문화(한류), 인적교류(유학생·관광) 등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특히 한-중 양국 모두 동 시기를 역사상 전례가 없는 평화적인 선린우호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시기이다. 동 시기의 한-중 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및 무역이 떠받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둘째, 한-중관계 2.0시대(2008.3~2017.5)로서, 한-중 관계가 경제적 관계에서 정치적 관계로 전환하는 시기이

*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rainmaker@pknu.ac.kr

다. 시기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와 후진타오·원자바오(제4세대 지도부) 2기 출범부터 박근혜 정부 종식과 시진핑(习近平)·리커창(李克强)(제5세대 지도부) 1기까지로 구분된다. 한-중 관계는 2008년 5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설정한 이후 양국관계는 경제적 관계에서 정치·외교적 관계로 전환하였고, 2013년 6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목표에 합의하며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외형적인 발전과는 달리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다소 편향된 친미(親美)관계 심화, 사드배치, 북한 핵무기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이 노정됨으로써 한-중 관계가 내면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셋째, 한-중관계 3.0시대(2017.6~현재)로서, 한-중 관계가 정치적 관계로의 발전 그리고 경제적 관계의 심화 여부를 고민하고 미-중 경쟁관계 속에서 선택의 압력을 강하게 받는 단계이다. 다행히 사드배치 문제로 발생한 한-중 관계가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2017.10.13), 양국 관계개선 합의(2017.10.31) 등을 기점으로 갈등을 완화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양국 간의 교류·협력이 중앙정부 중심의 형식적 차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기관 등으로 다양화하고 질적인 관계로 거듭 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즉, 다차원적·다각적 교류·협력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미-중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며 더욱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전망된다. 이미 한국은 AIIB 가입, 북한 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중 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내부적인 이념논쟁과 갈등을 겪고 있다. 미-중 갈등과 경쟁 속에 과연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에 따라, 한국의 안보개념도 군사적인 안보개념 바탕 속에 경제안보, 지역간 통상협력안보, 문화안보 등으로 다양화하고 다층적인 개념으로 보다 심화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중관계 1.0시대는 한-중 모두 서로를 잘 알지 못했던 무지(無知)의 시대였고, 2.0시대는 한-중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시대였으며, 3.0시대는 한-중 양국이 서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한-중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큰 상태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중 관계 속에서 외교적 포지셔닝의 재정립 필요성과 새로운 對中관계로의 전환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적으로도 대중 수출 및 내수시장 경쟁력 감소와 ICT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고자 하는 중국 소비시장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Ⅲ. 한-중 新경제통상관계의 변화와 쟁점

1. 미-중 경쟁관계의 심화와 한국의 선택

한-중관계는 남북한 분단 속에 미-중 동맹관계, 중-북 혈맹관계, 남북 분단, 경제·무역의존도가 심한 중국, 군사적 의존도 등 특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그동안 한-중 양국 관계를 다소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시켜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즉, 한국의 정치외교와 경제는 경제·문화적 긴밀도는 중국과, 정치·군사적 긴밀도는 미국과 연계되어 움직이는 형태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중관계의 쟁점과 전망을 분석하기에 앞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중 경쟁관계와 그 원인을 먼저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첫째, AIIB 출범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첨예한 갈등이며, 결론적으로 중국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2015년 9월 美금리인상을 둘러싼 달러($)화와 위안화(RMB) 간의 통화·환율 갈등이다. 이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우세승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관계로서, 동 사안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다. 넷째, 高관세 부과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첫째, 현실화되는 G1으로서의 중국의 모습과 예측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셋째, 미국의 영향력 약화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플라자 합의(1985.9.22) 때의 일

본과는 다른 중국의 모습 때문이다. 중국이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대 후반을 기록하는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경제적 격차 축소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2. 한-중 정치·외교 이슈

한-중 관계는 2008년 정치적 관계로의 전환과 함께 협력보다는 갈등의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향후 큰 틀의 대비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한-중 간에 존재하는 정치·외교적인 쟁점과 전망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살펴보았다.

첫째, 경제관계에서 정치관계로의 전환에 따른 우려와 대비의 필요성이다. 둘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따른 갈등관계 해소를 충분한 대비가 여전히 필요한 상태이다. 2017년 10월 31일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에 공식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진행된 갈등을 봉합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완전한 한-중 사드배치 갈등은 2018년 5월을 전후하여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중관계에서 한국의 입장(postition) 정립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다. 지난 10월 시진핑 체제의 강화로 폐막된 18차 당대회와 19차 1중전회를 목격하며 미-중 경쟁구도가 앞으로 더욱 가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과연 한국이 미국, 중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가 향후 한국의 위상 제고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일대일로와 AIIB에 따른 한국의 참여 및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국제적 위상의 제고를 떠나 한국기업을 비롯한 국가이익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3. 한-중 경제·통상 이슈

한-중 경제·통상관계는 한-중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인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긴밀한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한국기업들의 중국내 경쟁력 약화, 경제외적인 문제점 대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현재 한-중 경제·통상관계에 존재하는 쟁점 사항과 전망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THAAD 갈등에 따른 한한령(限韓令, 한류 제한령)·금한령(禁韓令)의 해소가 급선무일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명분 쌓기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중국 소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전환 중인 중국소비시장에서의 실패는 곧 세계시장에서의 실패라는 말이 다국적기업들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기업들의 對中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한-중 양국의 신흥전략산업이 다수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R&D) 투자가 없을 경우, 양국 간의 기술력 및 경쟁력은 추월을 넘어 격차 확대로 이어질 여지가 매우 큰 상태이다. 셋째, 對中 수출 경쟁력 약화 극복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對中 수출품들은 70%이상이 중간재/자본재(최종소비재 열세)이다. 더욱이 중국정부는 제조업2025 등을 통해 부품산업 국산화 및 국내공급업체로 확산 추세라는 점에서 한국의 對中수출은 더욱 어려운 환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넷째, 한-중 FTA 상품무역협정의 조속한 개시 및 중국의 서비스시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서비스무역협상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한-중관계 갈등인가 협력인가?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일관계보다 빠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 성장과 발전만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한-중 관계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로의 발전 여부를 결정짓는 많은 변화와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중 간의 경쟁관계가 더욱 자주 그리고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음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그리고 과거와 같은 선린우호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결코 쉽지 않음이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주요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양자간 통상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최대 무역상대국인 동시에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전적 예방조치가 더욱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분쟁은 첫째, 미국(9월)과 중국의 국내경제 안정 여부, 둘째,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5월말~6월초), 셋째, B&R 이니셔티브와 AIIB의 성공적 안착, 넷째,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예정이다.

최근 발생한 한국의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간의 갈등과 같은 경제외적인 이슈들이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대비와 사전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며 한-중 관계의 후순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對中 무역의존도, 경제적 긴밀도, 관광산업과 그 연계산업의 영향, 유학생 문제와 관련 분야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통상 안보적 측면에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은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을 최근 사례와 같이 무조건적인 방어기제 대상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보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차이나머니(China Money)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정책적 안전장치를 강구함으로써 한국이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유도하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절실한 상태이다. 또한 외교정책의 철학, 대원칙 또는 밑그림(outline)을 정립하여 그에 맞는 대처가 미-중 경쟁관계라는 피하고 싶으나 피할 수 없는 정치·외교적 늪에서 탈피했으면 하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주문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한-중관계가 경쟁이나 우려의 관계가 아닌 상호 윈-윈(win-win)하는 한-중이 공동 발전하는 보완관계(made-with China)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IMF Website. http://www.imf.org
IMF(2017.4). World Economic Outlook.
KOTRA(2017.8).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 추세와 과제, KOCHI 자료 17-02.
기획재정부(2017.11). 월간경제지표(2017.11월), p.74 (검색일: 2017.12.08.)
서창배·곽복선 외(2014). 중국경제론. 서울: 박영사.
서창배(2014.11.15.). 중국경제 3.0과 뉴노멀(신창타이) 진입과 영향. 중국지역학회 세미나 발표자료집.
서창배(2017.10.27.). 시진핑 2기의 미-중관계와 한국의 선택. 4미래 6주년 기념 특강자료집.
서창배(2017.02.28.). 중국의 WTO 통상분쟁 사례 연구. 중국법학회, 중국법연구(제29집), pp.423-451.
한국무역협회 K-stat. 국가 수출입. http://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6.screen (검색일: 2017.12.08.)
한국무역협회 K-stat. 한국의 10대 무역국. http://stat.kita.net/stat/world/major/ KoreaStats06.screen (검색일: 2017.12.08.)

【사회과학 분과】 발표 ⑦

대전광역시와 중국 지방정부 교류를 통해 본 지방 관계의 한계

구성철*

* 동서대학교

1. 한국의 국제교류 현황

博客：www.zzacnoon.net

☞ 종합 현황(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이트)

지역	구분	결연대상		자치단체별 소계
		외국국가	외국도시	
합계	광역(17)	68	506	79개국 1233개 도시 1654건
	기초(224)	66	1232	
서울특별시	광역(1)	39	71	47개국 198개 도시 207건
	기초(25)	29	151	
부산광역시	광역(1)	23	40	24개국 80개 도시 85건
	기초(16)	9	55	
대전광역시	광역(1)	19	29	20개국 36개 도시 36건
	기초(5)	4	11	
경상남도	광역(1)	15	26	25개국 125개 도시 128건
	기초(18)	18	104	

위 자료 이외 대전광역시청 최신자료에서는 대전은 23개국 31개 도시로 파악되고 있음.

2. 대전의 국제교류 현황

博客www.zzacnoon.net

☞ 중국과는 2개의 자매 도시와 4개의 우호 도시가 존재

시 본청	중국	장쑤성 난징시	1994-11-15	자매교류
시 본청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2003-03-24	자매교류
시 본청	중국	산둥성 지난시	2011-06-21	우호교류
시 본청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	2003-10-29	우호교류
시 본청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2006-11-01	우호교류
시 본청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2013-06-27	우호교류

대전은 일본 3곳,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가와 각각 1곳. 중국과 가장 많은 교류가 특징.

(타 지방정부 비교: 서울 8곳, 부산 4곳, 경남 6곳, 창원 6곳)

한국의 대중국 전체 교류 건수는 652건으로 파악됨.

3. 대전광역시 대중국 교류 현황

www.zzacnoon.net

1) 자매도시

-대전시 인구: 1,502,227명, 539㎢, 교통중심도시, 충청지역 상공업과 교육문화의 중심도시

자매도시	도시 개요	교류 사업내용
중국 난징 (1994년 11월 15일)	인구: 8,110,000명 면적: 6,595㎢ 특성: 중국 중부 교통중심지 산업·금융·무역도시	WTA제2차 총회 개최(2000.10) 격년제 문화체육 교류/포럼 참석(2012.9) 상호 교류협력증진사업 협의(2013.6) 대전-난징 결연20주년 시대표단 방문(2014.9) 추영훙 난징부시장 일행 대전 방문(2016.5)
중국 선양 (2013.07.29)	인구: 8,220,000명 면적: 12,942㎢ 특성: 랴오닝성 경제·문화·정치 중심지	선양시 공무원 2인 대전시 연수(2005.7~9) 대전시 공무원 파견연수(2003~2005, 2006~2009) 기업비즈니스 상담(2011,2012,2013년) WACS대전대회 선양시 8명 참가(2012.5) 대전시대표단 방문 자매결연 체결(2013.7) 국제푸드&와인축제 참가(2013.10) 대전시 공무원 선양시 정책연수(2014.7) 중국 선양 경제교류단 일행 방문(2016.4)

www.themegalllery.com

2) 우호도시

우호도시	도시 개요	교류 사업내용
안후이성 허페이 (2003.10.29)	인구: 7,525,000명 면적: 11,323㎢ 특성: 안후이성 성도	WTA회원도시로서 우호도시 교류시작 (2003) 허페이 부시장 등 5명 JAC개막식 참석 (2010.10) WTA신추총회 참가시 허페이 시장 예방 (2010.9) 허페이대표단 WTA 하이테크 페어 참가 (2012,2013) 정무부시장 우호협력 10주년 협약 체결 (2013.11) 허페이대표단 대전세계혁신포럼 참가 (2015.10) 허페이 대표단 WTA하이테크 페어 참가 (2016.11)

COMPANY LOGO

www.themegalllery.com

우호도시	도시개요	교류 사업내용
후베이성 우한 (2006.11.01)	인구: 10,220,000명 면적: 8,494㎢ 특성: 후베이성 성도	상호 교류협력 의향서 교환(2006) 대덕특구와 우한시 동호 신기술개발구간 우호협력 협약 체결(2006) 행정부시장 상호교류 협력 방문(2012.6) 우한시 공무원 K2H참가 대전 연수 (2013.4~10) 청소년 스포츠 교류 참가 (2015.7) 행정부시장 우호협력체결 10주년 기념 협의서 서명(2016.6)
산둥성 지난 (2011.06.21)	인구: 6,814,000명 면적: 8,177㎢ 특성: 산둥성 성도	WTA회원도시 가입(2008.10) 지난시 방문, 우호협력 협정 체결 (2011.6) 지난 해외 교류도시 문화행사 참가 (2011.10) 정무부시장 지난 샘물포럼 참가(2013) 지난시장 대전 방문(2014.4) 상호교류 증진 협의(2015.9) 지난 정책연수단 시청방문(2016.6)

www.themegalllery.com

우호도시	도시 개요	교류 사업내용
산둥성 칭다오 (2013.06.27)	인구: 7,695,000명 면적: 11,026㎢ 특성: 동부 요충도시, 연해 경제중심 도시	우호협력 협정 체결 협의 방문(2012.9) 칭다오 공무원(투자촉진국) 6인 방문 (2013.3) 행정부시장 우호협력 협정 체결(2013.6) 경제교류협력 MOU체결(2014.2) 중국 칭다오 국제교류담당 혁신포럼 참가 (2015.10)

COMPANY LOGO

4. 대전시 일반현황

www.themegalllery.com

★ 상업

충청지역에서 상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자 수도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삼각유통의 본산지

★ 공업

일제 강점기에는 피혁, 양조업이 발달, 광복 후에는 섬유업 번창, 1960년대 후반부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기계·화학 공업이 발달. 산업단지로는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제1산업단지와 대전제2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로는 유성구와 대덕구 일원에 위치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음.

지역내 총생산: 35조 9천억원(전국2.2%)

지역내 총소득: 40조 3천억원

개인소득: 27조 3천억원 (1인당 GRDP 22,123천원, 전국 30,892천원)

★ 생산구조

농림·어업 0.1%, 광업·제조업 17.9%, 건설업 4.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1% 서비스업 및 기타 76.7%

COMPANY LOGO

5. 대전의 수출입 현황

www.themegalllery.com

무역수지 6억 8천 3백만 달러

2015년 대전광역시 수출실적은 43억 7백만 달러로 전년 47조 32백만 달러에 비해 4억 25백만 달러(9%) 감소했으며, 수입실적은 36억 24백만 달러로 전년 35억 58백만 달러에 비해 66백만 달러(1.9%) 증가했다.

2015년 전국대비 대전광역시 수출비중은 0.82%로 낮은 수준이며, 전년에 비해 0.01%P 감소했다.

출처: 대전의 통계 e-book

COMPANY LOGO

6. 대중국 우호도시 별 교류 특징

www.themegalllery.com

1) 허페이시의 경우 중국의 대표적 첨단과학기술도시로 2003년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 이래 WTA활동 등 과학을 중심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청소년, 관광 등 5개 분양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 우정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최근 교류 내용: 2017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간 중국 허페이시와 청소년 스포츠교류의 일환으로 핸드볼 합동훈련 및 친선경기를 가짐. 허페이시 핸드볼 남녀 중학부 27명이 참가, 대전에서는 글꽃중학교와 동방여중 남녀 핸드볼팀이 참가. 이 행사는 2015년부터 상호 교차방문으로 시작된 것임.

2) 우한시의 경우 중국 최대 광전자밸리가 위치해 있고, 바이오, 에너지, IT서비스 등을 역점사업으로 육성, 중국내 발전 속도 1위로 평가되고 있는 도시로 대전시와는 2006년 우호협력을 체결한 이후 과학, 경제부문 등에서 교류를 전개해오고 있음.

3) 가장 교류 기간이 오래된 난징시와는 과학 교류 뿐만 아니라 한국예술문화진흥회(사)와 난징시 정부의 난징서화원과 난징시문학예술계연합회 등 두 예술단체와 한중(대전-난징)서화교류전을 매해 개최해 오기도 했음.

COMPANY LOGO

7.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의 한계

www.themegalllery.com

1)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는 2016년 6월말 현재 537건으로 환발해 지역(4개 성시, 153건, 28.5%), 장강삼각주(3개 성시, 111건, 20.7%), 주강 삼각주(4개성, 41건, 7.6%)의 동부 연안이 305건(56.8%)이며, 동북 3성과 내몽골이 135건(25.1%)로 한반도와의 지정학적 밀접성을 반영하고 있음.

2) 이에 비해 중부지역(6개성, 55건, 10.2%), 서남지역(5개 성시, 23건, 4.3%), 서북지역(5개성, 19건, 3.5%)의 중서부지역이 97건(18.1%)으로 비교적 미흡한 수준의 교류를 보이고 있음.

3)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더불어 중국의 중서부지역에 대한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확대가 필요함. 왜냐하면 이 지역에 대한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확대는 중국 중서부지역으로 진출할 한국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 31개 성시를 대상으로 한국 17개 광역시·도의 전략적 배분을 통한 교류확대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COMPANY LOGO

博客 www.zzacnoon.net

4) 대전광역시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1994년 중국 난징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중국과의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음. 특히 대전광역시는 WTA회장 도시로 43개국 84개 회원 도시와 과학 관련 상호협력을 맺고 있는 것이 대전시가 추진하는 국제협력의 가장 커다란 업적이라 할 수 있음.

5) 대전시는 WTA대전 하이테크 페어 등을 통해 중국 측 참가 도시들과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 전시회 등을 개최해오고 있고, 이것은 대덕연구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라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며 중국과의 직접투자(FDI) 270만 달러(8건)를 달성하기도 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6) 그러나 이는 매우 적은 수치에 불과하고, 과학도시로서의 교류 이외에 대중국 교류에 있어서 민간경제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이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

8. 생각해 볼 점

www.themegalllery.com

1)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관계는 최근 사드사태에서 볼 수 있듯 한중 중앙정부간 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 국가간 마찰에 따라 지방정부간 관계가 요동칠 수밖에 없음.
2) 그동안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는 교류 도시의 확대와 숫자 등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교류에 치우쳐 온 것이 사실임. 중국시장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한 몫 거들었음.
3) 종래의 주먹구구식 교류나 경제분야에 치중된 교류에 집착하기 보다는 차라리 중앙정부가 경제교류를 담당하고, 지방정부가 인적·문화 교류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됨.
4)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정부 사이에 대중국 교류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전반을 전략적이고 정치하게 수립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요컨대 지방분권과 국가전략의 상호 융합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임.

COMPANY LOGO

【메 모】

【사회과학 분과】 발표 ⑧

시진핑 2기 중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고찰

최준환*

【목 차】

Ⅰ. 서론	Ⅳ. 공유자전거
Ⅱ. 고속철도	Ⅴ. 인터넷쇼핑
Ⅲ. 모바일결제	Ⅵ.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신4대발명, 고속철도, 공유자전거, 모바일결제, 인터넷쇼핑

Ⅰ. 서론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지 40년이 되었다. 지난 40년 간 중국 경제는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을 통하여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국민의 소득수준과 소비 수준이 증가하였다. 2017년 중국의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는 34%로 미국 10%, EU 8%, 일본 2%로 이들 3개 지역을 합한 것보다 그 기여율이 높은 세계 경제 성장의 최대 기여국이다.[1] 현재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G2가 되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에는 양적인 성장에 집중한 결과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은 한계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중국경제는 10%대의 고속성장에서 7~8%대의 중고속 성장으로 변화되었으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소비의 역할이 중시되는 구조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요소투입이나 자본투자를 통한 성장에서 과학기술혁신이 성장의 중요 동력으로 전환되었으며, 부동산 및 금융리스크의 증대 등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2] 이에 중국은 신창타이(新常态)상태로의 진입을 선언하였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혁신 및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제 육성 등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중이다.

2017년 10월 제19차 전국공산당대표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정리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시진핑 집권 2기의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하였다. 시진핑은 제19차 전국공산당대표대회에서 중국은 신시대(新时代)[3]에 진입하였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샤오캉 사회를 기반으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으로 실현하며, 신중국 성립 100주년인 2050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문명적이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1) 파이낸셜뉴스(2018.2.4), “중, 세계경제 기여도 35% 육박”, http://www.fnnews.com/news/201802041533011857 (검색일: 2018.03.30)

2) 이철용(2014), “신창타이 중국경제 소비시장 커지지만 사업환경은 더 팍팍해진다”, LG Business Insight 2014.10.29, pp. 5-6.

3) 시진핑은 당 대회보고서에서 신시대를 총 38회 언급하면서 중국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하였다. 신시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시대이며, 전면적 샤오캉(모든 국민이 풍족히 생활할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내외 수준)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시대, 꾸준히 아름다운 생활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전체 인민공동부유의 시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国梦)을 실현하는 시대, 세계무대의 중앙으로 나아가 인류를 위해 더욱 공헌하는 시대라고 정의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18대와 19대 당 대회 보고 비교를 통해 본 시진핑 2기의 경제분야 중점 과제”, pp.5-6.

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여 세계 최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시진핑 2기의 경제정책은 집권 1기에 추진했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심화와 중국제조 2025를 통하여 세계적인 제조 강국 건설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생각하여 과학기술 체계의 개혁과 국제적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며, 일대일로의 추진을 통하여 대외개방의 전면적 확대 및 중국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름다운중국(美丽中国)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시진핑 2기에는 1기에 추진했던 혁신을 통한 기술의 진보를 계속 강조할 것이며, 혁신주동형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중국에서는 신4대발명(新4大发明)이라는 단어가 나타났다.[4] 신4대발명은 중국의 고대 4대 발명에서 기인하고 있다. 고대 중국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 이었으며,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을 한 과학발명품을 가지고 있다. 고대 중국의 4대 발명 즉, 기록할 수 있는 종이, 이 기록을 전파할 수 있는 인쇄술, 항해술의 발전 및 문명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 나침반 그리고 군사적으로 응용되어지기도 하였지만 생산 및 건설 등에 큰 도움을 준 화약의 발명은 중국과 세계의 발전 및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4대발명은 중국에서 발명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큰 시장을 대상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신4대 발명은 현재 중국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향후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신4대발명의 함의를 연구하여 시진핑 집권 2기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고속철도

2004년 중국 정부는 중장기철도망규획(中长期铁路网规划)을 공표하여 고속철도 건설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였다. 2007년 4월 최초로 허시에호(和谐号)고속열차 운행을 시작하였고, 2008년 8월에는 중국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징진(京津:베이징-톈진) 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4종4횡[5] 노선을 완성하여 중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림1> 중국의 4종4횡

자료 : 바이두 이미지 http://image.baidu.com (검색일: 2018.04.02.)

4) 2017년 월 중국에서 20개 국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고국으로 귀국할 때 가장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무엇인기?"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고속철도, 모바일결제, 공용자전거, 인터넷쇼핑을 신4대발명이라 한다. 新浪财经(2017.05.11), "外国人评出中国新四大发明：离不开网购与移动支付", http://finance.sina.com.cn/chanjing/cyxw/2017-05-11/doc-ifyfeius7819603.shtml, (검색일: 2018.03.30)

5) 4종 4횡은 중국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지칭하는 것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4개의 노선, 즉 상하이-베이징 노선, 베이징-우한-광저우-선전 노선, 베이징-선양- 하얼빈 노선, 상하이-항저우-닝보-푸저우-선전 노선이며, 동서를 연결하는 4개 노선, 쉬저우-정저우-란저우 노선, 상하이-항저우-난창－샹사-쿤밍 노선, 상하잉-난징-우한-충칭-청두 노선, 칭다오-스자좡-타이위안 노선으로 구성된다.

고속철도는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하다. 또한 운송능력을 향상시키며, 특히 인적교류, 물류, 정보의 교류를 확산시켜 중국 국민들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또한 국민들의 시공관념을 변화시켰다. 중국에 고속철도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중국인의 생산과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중에 두드러지는 것은 도시경제권의 동성화(同城化)가 가속화되어 거대한 도시군[6]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동성화는 도시간의 교통이 편리해지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거리가 축소되면서 중심도시의 기능이 점점주변도시로 복사·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고속철도의 발달은 도시들 간의 시간적·공간전 거리를 줄여줌으로써 취업, 소비, 생활 등을 하나의 영역으로 만든다. 창장삼각주의 예를 들면, 난징에서 상하이까지 약 1시간, 항주에서 상하이까지 38분, 쿤산에서 상하이까지 18분이 소요된다. "낮에는 상하이 푸동의 찐마오빌딩에서 일하고 밤에는 항주의 서호에서 차를 마시는 생활(白天在浦东的金茂大厦上班，晚上在西湖边品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2020년쯤에는 창장삼각주 경제권의 도시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3시간도시권"을 형성할 것이며, 환보하이경제권은 베이징과 톈진을 중심으로 하는 "2시간도시권", 주장삼각주경제권은 광저우를 중심으로 하는 "1시간도시권"을 형성할 것이다.[7]

이러한 시간적·공간전 거리의 단축은 대도시 위주의 소비활성화를 촉진할 것이고, 이러한 결과 "빨대효과(Straw Effects)"가 나타날 것이다. 빨대효과란 고속철도 등과 같은 고속교통 수단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켜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인구의 이동, 구매력의 이동 등이 나타나는 현상이다.[8] 빨대효과가 나타나면 인구와 소비가 규모가 큰 도시로 집중하여 규모가 작은 도시의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9] 그러나 중국에서는 대도시 및 도시군 우선 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은 징진지,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지역의 대도시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균형 발전이었다. 17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중국 특색의 도시화 전략을 선택하고, 대도시로 소도시를 이끄는 원칙에 따라 대·중·소도시와 소성진[10]의 협조발전을 촉진하며, 특대도시에 의탁하여 영향력이 큰 도시군을 형성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극을 배양한다"고 나타나있다.[11] 중국 정부는 향후 중국경제 발전의 주요한 원천으로 도시군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중국의 거대도시들은 아직까지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제발전의 공헌도가 낮으며, 공간분포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공간적·경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집적효과를 높여 경제성장의 효율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고속철도의 발전은 도시들의 동성화를 강화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도시군들은 중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속철도의 발전은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새로운 제조업 육성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였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는 향후 30년간 10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노동집약형 전통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스마트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제조강국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12]

중국은 고속철도 발전 초기에는 내수확대 촉진을 통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을 개발하고 부품의 국산화 등으로 경쟁력을 키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전략이 실시되면서, 중국은 육상실크로드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13], 세계 최장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6) 도시군이란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는 도시집합체를 의미한다. 서론 다른 규모와 유형의 여러 도시들이 하나 또는 수 개의 특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체계를 형성하여 일정한 자연환경과 교통조건을 기초로 도시간의 내재적 연계를 강화하면서 도시 간 네트워크를 형성 발전시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중국의 도시화 및 도시군 전략", 중국경제현안브리핑 2009년 12월 16일, p.1.

7) 徐长乐·郇亚丽(2011), "高铁时代到来的区域影响和意义", 『长江流域资源与环境』, 第20卷 第6期, p.650.

8) 조남건 외(2005),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빨대효과 분석: 쇼핑통행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47권, p.2.

9) 허재완(2010), "고속철도의 빨대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시행정학보』, 제23집 제4호, p.61.

10) 중국에서도 그 개념이 명확하게 통일되고 있지 않으나, 협의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읍에 해당하는 건제진(建制镇)을 의미하며 광의의 개념은 '건제진 + 집진'을 의미함. 광의의 개념이 소성진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중국의 도시화 및 도시군 전략", 중국경제현안브리핑 2009.12.16, p.2.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중국의 도시화 및 도시군 전략", 중국경제현안브리핑 2009.12.16, p.7.

12) 1단계로는 2025년까지 제조강국을 추진하고, 2단계로는 2035년까지 중국 제조업을 세계 제조 강국의 중간 수준까지 높인다. 3단계로는 신중화설립 100주년(2049년)으로 제조업대국으로서 제조강국 우위를 선점하는 계획을 가지 고 있다. 최혜옥(2016), "연결되는 공장, 중국제조 2025", 과학기술정책, 2016년 8월호, pp.22-23.

육상 실크로드 일대를 중심으로 중국 고속철도의 해외진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의 수출은 과거의 노동집약적 중심의 상품수출에서 자본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중심의 기술수출로의 전환이다.

이전의 중국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혁신을 추구하지 않고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한 성장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고속철도의 해외진출은 중국의 경제모델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즉 해외로부터의 기술이전을 통한 혁신 없는 성장에서 스스로 기술혁신을 이루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통한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최근 중국은 인프라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산업 수출의 증가는 최근 중국의 상품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수출의 활로가 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구조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즉, 이전의 노동집약형 제품수출에서 기술혁신은 바탕으로 하는 기술집약형 기술수출로의 전환이다.

Ⅲ. 모바일 결제

과거 중국은 현금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세상이 되었다. 중국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소비자들의 현금 사용액은 66조위안(한화 약 11.04조원)으로 지난 2년간 약 10%하락하며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14]. 이에 반해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폐와 동전이 필요 없는 현금없는경제(Cashless Economy)로 진입하고 있다.

<그림2> 중국 3자 지급결제 방식

자료 : 艾瑞网(2017), 2017年中国互联网金融行业发展报告

"거지도 스마트폰으로 구걸한다".[15] 최신 중국의 모바일 결제[16]의 보급을 알려주는 말이다. 중국의 제3자 지급결제[17] 규모는 2013년 6.9조 위안이며 모바일 결제 비중은 7.2%로 작았으나, 2017(예측치)년에는 154.9

13) 육상실크로드 구간의 고속철도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중국을 연결하는 범아시아노선과, 터키-이란-우즈베키스탄-키르키스스탄-중국으로 이어지는 중앙아시아 노선, 그리고 런던-파리-베를린- 바르샤바-키예프-모스크바-카자흐스탄-중국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노선이 있다.

14) CSF(2018), "현금 없는 시대 맞이한 중 모바일 결제 시장", 이슈&트렌드, 2018.01.29, p.1.

15) 조선닷컴(2017.11.17), "모바일결제 대국 중국 : 거지도 스마트폰 구걸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7/2017111700278.html (검색일: 2018.04.10)

16) 모바일 결제란, 자신의 카드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놓으면, 이후 결제 시에는 카드 정보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휴대폰번호와 SMS 등을 이용한 간단한 인증만으로도 간편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과거 PC나 모바일기기에서 결제를 하려면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가 등장하여 간단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진다. DMC미디어(2015),『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전망 : 국내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DMC REPORT, p.4.

17) 제3자 지급결제(에스크로) 방식은 전자상거래 시 신용을 가진 제3자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를 중개하여 거래를 원활히 하도록 한 지급결제 시스템임. 제3자 지급결제 업체는 대형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과 플랫폼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알리페이(支付宝·즈푸바오)출현 이전에는 낮은 신용카드 보급률과 금융기관

조 위안이며 모바일 결제 비중은 63.7%로 급격히 상승하였다(<그림2> 참고). 이런 모바일 결제의 빠른 성장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바코드, 음성결제, 지문결제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며,[18] 복잡한 결제 단계를 단순하게 바꾸어 줌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은 2004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알리페이(Alipay; 支付宝)를 출시한 이후 독점체제를 구축하였다가, 모바일 메신저 위챗 및 게임 서비스 제공사인 텐센트가 텐페이를 위챗에 연동시키 위챗페이(WeChat Pay ;微信支付)가 모바일 결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표1> 참고).

<표1>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모바일 결제 시장점유율

	2016년 1Q	2016년 4Q	2017년 1Q	2017 4Q
알리페이	63.4%	54.1%	53.7%	54.26%
위챗페이	23%	37%	39.51%	38.15%

자료 : Analysys(易观)

모바일 결제의 빠른 성장은 중국 핀테크[19] 산업 발전의 상징이다. 중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고 ATM의 보급률 역시 낮아 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중국 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였다. 그러나 편리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여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낙후된 금융시스템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내수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금융 취약층까지 신용공급이 확대되어 민간 투자 활성화 및 민간의 금융자산 투자 계층 다양화 및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비금융기관인 핀테크 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여 거래비용 인하 등 소비자 권익 향상과 새로운 상품 개발 등으로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20]

모바일 결제의 발달은 관련 업체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결제의 편리성, 안전성, 보편성에 집중하였지만, 지금부터는 결제수수료 이외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이 필요하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은 단순한 지불결제 수단에서 벗어나 금융 전 분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지급결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가맹점 확대,[21] 자산관리,[22] 보험 및 인터넷 전문은행[23]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간 시스템 비호환성 등의 문제로 온라인 결제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으나, 제3자 지급결제 방식은 거래의 신용도를 높여주고 결제가 간편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확대됨. 전수경(2018),『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현황과 정책 방향』, KIEP 기초자료 18-03, p.8.

18) 전수경(2018),『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현황과 정책 방향』, KIEP 기초자료 18-03, p.8.

19)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CT를 활용하여 금융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산업이다. 핀테크는 모바일 중심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술로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산업과 금융서비스의 융합을촉진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을 총칭한다. 핀테크의 근본적인 의미는 서비스와 금융의 결합을 촉진하는 ICT금융혁명이라고 할 수 있음. 즉, 핀테크는 스마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SNS,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거나 결합하여 결제 및 송금, 대출, 투자,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증권, 보험, 은행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존 금융권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한다. 박재석(2015),『핀테크와 금융혁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2.

20) 한국은행(2016),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6-5호, pp.11-12.

21) 중국의 경우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가맹점의 확대는 중요하다. 텐센트는 스타벅스를 포함해 중국 내 2600여개 미국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을 가맹점으로 확보했다. 텐센트는 올해 1000만개의 오프라인 가맹점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알리바바는 중국 내 200만개 오프라인 가맹점과 타오바오를 통한 1000만개의 온라인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가맹점도 11만개에 달한다. 아주경제(2017.6.13.), “중국간편 결제시장 급성장.. 미국의 50배”, http://www.ajunews.com/view/20170613091339253 (검색일: 2018.0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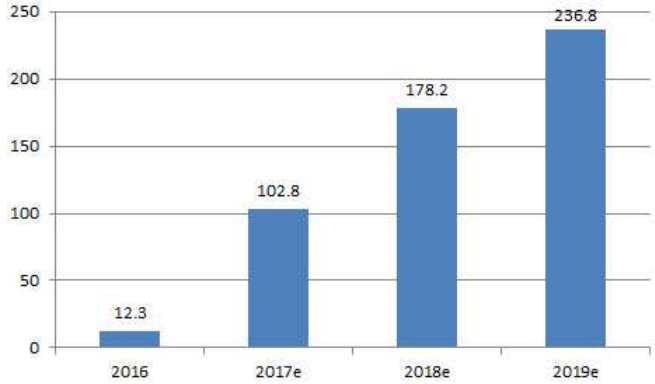
22) 알리바바는 2013.6월 고객들이 알리페이에 예치하고 있는 잔액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MMF인 위어바오(餘額寶)를 출시하였으며, 동 상품은 2015년말 현재 자산규모 6,200억위안(가입자 2.6억명) 규모로 성장하였다. 텐센트도 모바일 메신저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2014.1월 온라인펀드 리차이퉁(理財通)을 판매하였으며, 자산규모 1,040억위안, 가입자 4천만명(2015년말)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은행(2016),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국내에서의 성장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해외로의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역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24]. 이러한 중국 모바일 결제 기업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기업과도 경쟁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Ⅳ. 공유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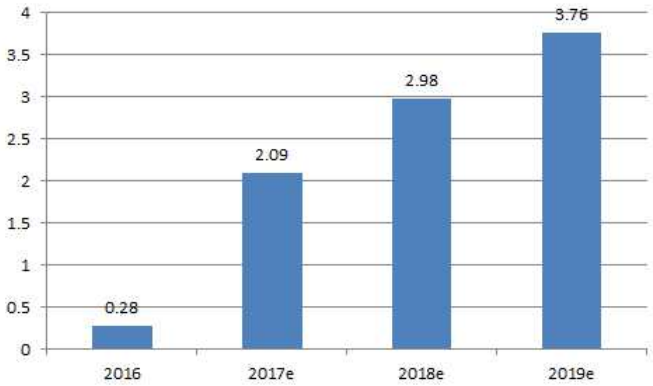
자전거는 중국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교통수단이었다. 최근에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가 '색깔혁명'[25]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에서 자전거는 주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빈번한 도난과 파손 등으로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공유 자전거는 이러한 기존 자전거의 문제점을 인식한 후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여 수 십 억대의 수요가 있는 자전거 시장에 변화를 이끌었다.

<그림3-1> 2016-2019년 중국 공유자전거 시장 규모 및 예측(억 위안)



자료 : IIMedia(2017), 2017Q1 中国共享单车市场研究报告

<그림3-2> 2016-2019년 중국 공유자전거 사용자 규모 및 예측 (억 명)



자료 : IIMedia(2017), 2017Q1 中国共享单车市场研究报告

점", 국제경제리뷰 제2016-5호, p.5.

23) 2014년 중국정부가 설립을 허가한 5개 민영은행중 2개 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이중 'MyBank'는 알리바바, 'We Bank'는 텐센트가 최대 주주이다.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6-5호, p.5.

24) 알리페이는 지난 5월 미국 결제 서비스 회사인 퍼스트데이터와 제휴를 맺었다. 이에 미국의 400만개가 넘는 상점에서 알리페이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위챗페이를 서비스하는 텐센트 역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인 시트콘(Citcon)과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자사의 메시지 앱 위챗 이용자들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텐센트는 글로벌 온라인 결제 서비스사인 페이먼트월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전세계 온라인 결제 시장에 진출할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을 이용해 손쉽게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뿐만 아니라 화장품 및 패션업체들이 앞다퉈 중국 모바일 결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경제(2017.6.19.),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커 업고 글로벌 공략 속도", http://www.ajunews.com/view/20170619100311346?l=N (검색일: 2018.04.12)

25) 중국의 공유자전거는 노란색, 오렌지색, 파란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깔로 구성되어 있어 색깔혁명이라 불린다.

공유자전거는 2016년 최초로 거리에 출시된 이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공유자전거 시장 규모는 2016년 12.3억 위안이였으나 2019년에는 236.8억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그림3-1> 참고). 공유자전거 서비스 이용자는 2016년 2천 8만명에서 2019년에는 3억 7천만명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3-2> 참고)

중국의 공유자전거 시장은 2014년 설립된 오포(OFO)와 2016년 설립된 모바이크(MOBIKE)가 양분하고 있다. 먼저 설립된 오포가 시장점유율 51.2%로 선두이며, 귀 뒤를 모바이크가 시장점유율 40.1%로 공유자전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오포에 7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텐센트는 모바이크에 8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중국 공유자전거 시장의 경쟁은 뜨거워지고 있으며, 공유자전거 시장에서의 두 기업의 경쟁은 중국의 거대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대리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2> 중국 공유자전거 업체 오포와 모바이크

	모바이크	오포
설립일	2016년 4월	2014년 6월
보증금	299위안	99위안
요금	도시 : 0.5위안/30분 협력학교 : 0.1위안/10분	도시 : 1위안 / 30분 교내 : 0.5위안 / 30분
시장점유율	40.1%	51.2%
투입량	365만대	350만대
잠금잠치	GPS스마트키	비밀번로 잠금
바퀴	방폭타이어	보통타이어
사용방식	구역 내 자유 주정차	구역 내 자유 주정차
결제방식	자동결제	앱을 통한 수동결제
국내진출도시	33개	46개
해외진출	미국 실리콘밸리, 스탠포드대 영국 런던, 캠브리지, 싱가포르	싱가포르

자료 : 艾瑞咨询(2017:16) 및 언론보도 참고하여 정리
주 : 김수한 외(2017),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과 특징 (2) - 주요비즈니스 모델", p.16.에서 재인용

중국에서의 공유자전거 혁명은 중국의 공유경제(Share Economy)[26]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중국에서의 공유경제의 개념은 인터넷 등 현대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사용권을 공유함으로서 분산된 자원을 총합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7] 중국정부는 소비시장활성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유경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공유경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공유자전거를 양분하고 있는 모바이크와 오포는 전 세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공유자전거 사업은 단순한 자전거 대여 사업이 아니다. 정보기술을 자전거에 접목해 대기·교통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라스트 마일[28]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는 미래산업이다.[29]

26)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가장 단순하게는 개인의 유휴화된 자산을 타인과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공유경제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공유 활동의 주체나 대상 자원의 유형 등에 따라 각각의 분야가 다양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공유경제' 외에도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긱 경제(gig economy)',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접근기반 경제(access economy)' 와 같이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다수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용어에 대해서도 아직 공통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나승권 외(2017),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7-10. p.21.

27) 김수한 외(2017), "중국 공유경제의 발전과 특징 (1) - 기본 현황 및 정책 환경", 인천발전연구원, 『INChina Brief』, vol.343, p.3.

28) 라스트 마일이란 사람이 버스, 지하철, 자동차 등으로 이동한 다음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29) 중앙일보(2018.4.14.), 후웨이웨이 모바이크 창업자 인터뷰, "중국 공유자전거 회원 2억명, 하루 데이터만 30TB", http:/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하루에만 30테라바이트(TB)이며, 전 세계 2억 명의 교통 데이터를 연결하면 세계 최대 교통관련 빅데이터가 만들어진다.[30] 이런 방식으로 공유자전거를 통하여 얻어지는 데이터는 중국의 빅데이터(Big Data)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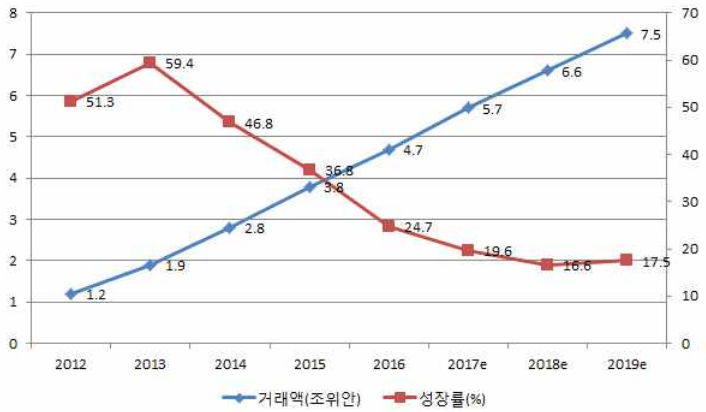
끝으로 공유경제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공급자의 후생은 (변동하지 않거나) 감소하지만, 다른 모든 구성원(기존 소비자, 신규 소비자, 신규공급자, 공유 플랫폼)의 후생은 (변동하지 않거나)증가한다.[32]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공유경제의 확산은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가지고 올 것이며,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Ⅴ. 인터넷쇼핑

개혁·개방 이후 40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은 중국의 소비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투자와 수출 위주의 성장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중국의 소비시장은 13억의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소득수준의 꾸준한 향상, 도시화의 진전, 소비확대 정책 추진 등으로 소비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33]

중국 소비시장 확대의 중심에는 인터넷쇼핑이 있다. 지속적인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및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중국의 인터넷 쇼핑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2012년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 거래액은 1.2조 위안에서 2016년 4.7조 위안으로 성장하였으며, 2019년에는 7.5조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4> 참고). 온라인 쇼핑의 성장률을 보면 2013년 59.4%로 고점을 찍고 이후 성장률은 점점 낮아지면서 폭발적인 상승추세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림4> 2012-2019년 중국 온라인쇼핑 시장 거래 규모



자료 : iResearch, <2017年中國網絡經濟年度監測報告>

/news.joins.com/article/22535797 (검색일: 2018.04.16)

30) 중앙일보(2018.4.14.), 후웨이웨이 모바이크 창업자 인터뷰, "중국 공유자전거 회원 2억명, 하루 데이터만 30TB", http:/ /news.joins.com/article/22535797 (검색일: 2018.04.16)

31) 중국은 2015년부터 빅데이터를 국가 신흥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2016년 중국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168억 달러로 전년대비 45%증가하였으며 세계 시장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유다형(2018), "중국 빅데이터 산업 현황", 한중 Zine 최신중국동향 Vol 224, pp.2-3.

32) 공유경제 도입의 사회후생 효과 분석 시, 기존거래 구축효과와 신규거래 창출효과의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 기존 산업 내부의 경쟁 정도는 구축효과와 창출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존 산업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기존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아서 신규거래 창출효과가 크며, 기존 공급자와 신규 공급자 간 경쟁이 적으므로 기존거래 구축효과가 작다. 결론적으로, 기존 산업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공유경제가 사회후생에 기여하는 폭이 크다. 김민정 외(2016),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기대효과아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11. p.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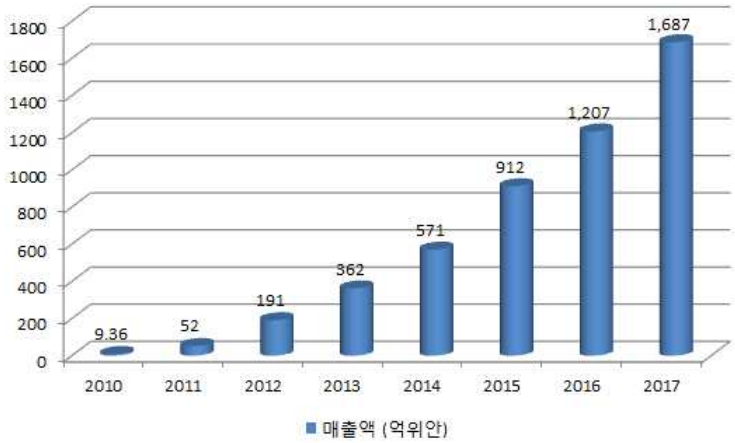
33) 고양중 외(2015), "중국 소비구조 변화와 시사점",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제2015-51호, p.28.

주 : KOTRA(2017),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 진출방식 제언", p.3.에서 재인용

중국의 인터넷 쇼핑시장은 티몰(Tmall)과 징둥(京东)이 양분하고 있다. 티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52.1%에서 2016년 57.5%로 상승하였으며, 징둥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22.3%에서 2016년 25.4%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인터넷 쇼핑의 위상을 알려주는 것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34]이다. 광군제의 당일 매출액은 2010년에는 9억 3600만 위안이었으나, 2017년에는 1,689억 위안(약 28조원)으로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시장 2위 업체인 징둥과 광군제 하루 동안 매출을 합치면 2,953억 위안(약 50조원)에 육박한다(<그림5> 참고).

<그림5> 중국 광군제 매출액 추이 (단위 : 억 위안)



자료 : 티몰 매출액 기준으로 저자 작성

광군제는 중국의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보여준다. 첫째, 중국에서는 새로운 소비 주도층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중국의 소비시장은 70년대 이전 출생자들이 주도하였으나 최근의 소비는 빠링허우(80后))와 지우링허우(90后)가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는 이전의 전통적인 소비에 비교해서 개인선호 및 취향을 중심으로 소비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력이 상승함에 따라 여성의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1선 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소비가 주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이전의 소비 중심지역이였던 동부 연해지역의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와 물류 인프라의 구축으로 2,3선 도시와 중·서부 지역으로 소비시장의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광군제로 대표되는 인터넷쇼핑의 발달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35]을 이용한 신유통(新零售; New Retail) 비즈니스 모델의 발달을 촉진할 것이다. 신유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고 디지털한 물류시스템을 통합한 유통혁신이다. 최근 중국의 인터넷쇼핑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시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티몰과 징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즉 오프라인의 장점인 보고, 듣고, 만지고, 사용해 볼 수 있는 장점과 온라인의 장

34)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행사로 2009년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11월 11일을 '구매를 즐기는 날(狂欢购物节)'로 기획하면서 시작되었다. 광군제(光棍節)인 11월 11일은 혼자임을 상징하는 '1'이라는 숫자가 4개나 겹쳐 있는 날이기 때문에 '싱글데이(솔로데이)' 또는 '쌍십일(双十一節)절'이라고도 한다. 김건우 외(2016), "광군제, 우리 기업의 활요이 가능한가?", 한국무역협회 IIT 2016년 39호, p.1.

35) 2017년 광군제에서는 알리페이를 이용한 모바일 구매 비율은 90%를 차지했고, 주문량은 14억8000만건, 배송 물량은 8억1200만건에 달했다. 초당 32만5000건의 주문과 25만6000건의 지불 결제가 시스템 정지나 오류 없이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거래에서 생성된 데이터 처리를 위해 시간당 10만대의 서버가 가동됐다고 하니 알리바바의 엄청난 정보처리 기술과 데이터 관리 능력을 짐작할 만하다. 몰려드는 주문량과 배송량을 감당하기 위해 AI와 로봇을 활용했다. AI 시스템 '루반'이 고객 쇼핑 히스토리를 분석해 56억여 개의 개인 맞춤형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챗봇이 고객과 상담을 하고, 200여 대의 로봇이 포장과 운송에 투입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매일경제(2017.11.14.),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승리 '광군제 대박' 한국은 왜 못하나?",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7&no=752738 (검색일: 2018.04.16)

점인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점과 정확한 재고와 효율적인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물류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는 중국 최초 온·오프라인 통합형 마트로,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스마트 물류를 모두 결합한 혁신 실험장인 허마셴성(盒马鲜生)[36]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무인 편의점 타오카페(Tao Cafe)[37] 등이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고대 중국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 이었으며, 인류 사회의 발전에 공헌을 한 과학발명품을 가지고 있다. 고대 중국의 4대 발명 즉, 기록할 수 있는 종이, 이 기록을 전파할 수 있는 인쇄술, 항해술의 발전 및 문명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 나침반 그리고 군사적으로 응용되어지기도 하였지만 생산 및 건설 등에 큰 도움을 준 화약의 발명은 중국과 세계의 발전 및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중국에는 신4대 발명이라는 단어가 나타났다. 신4대발명은 중국의 고대 4대 발명에서 기인하고 있다. 신4대발명은 중국에서 발명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큰 시장을 대상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신4대 발명은 현재 중국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향후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신4대발명의 경제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고속철도건설은 도시간의 교통이 편리해지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거리를 축소시켜 중심도시의 기능이 점점주변도시로 복사·확산되는 동성화를 강화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도시군들은 중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의 발전은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전환을 촉진시킨다.

둘째, 모바일 결제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며,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킬 것이다.

셋째, 공유자전거는 중국의 공유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며 국민들의 후생 수준을 향상시켜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가지고 올 것이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촉진시켜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또한 공유자전거를 통하여 얻어지는 데이터는 중국의 빅데이터(Big Data)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넷째, 인터넷쇼핑은 새로운 소비층의 출현과 소비지역의 확대라는 소비트렌드의 새로운 추세를 보여 준다. 또한 인터넷쇼핑의 발달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이용한 신유통(新零售; New Retail) 비즈니스 모델의 발달을 촉진할 것이다.

---

36) 허마셴성의 상품은 수산물과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매장에서 반경 3㎞까지 최장 30분 이내에 무료로 배송해준다. 30분 배송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자동화 시설 덕분이다. 직원이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은 뒤 레일에 올려놓으면 배송기사에게 전달되고, 다시 고객의 집까지 배달되는 시스템이다. 집이 너무 먼 고객은 3㎞ 지점에서 배송기사와 만나 물건을 건네받을 수 있다. 허마셴성이 물류창고 역할까지 하는 셈이다. 허마셴성은 단순히 마트라기보다는 '체험공간'에 가깝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는 이유는 제품 신선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 고를 수 있어서다. 미국 일본 러시아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한국 태국 칠레 아르헨티나 등 해외에서 공수해온 신선식품이 가득 진열돼 있다. 중간 유통상을 거치지 않아 가격이 싸다. 고객이 고른 식재료를 조리해 완제품으로 파는 식사코너도 따로 마련돼 있다. 점심이나 저녁 시간엔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로 식탁이 모자랄 정도다. 중국의 일반 슈퍼마켓이나 할인점에선 보기 힘든 풍경이다. 허마셴성은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 허마셴성 앱(응용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깔면 된다. 회비는 없다. 알리바바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로만 결제가 이뤄진다. 현금이나 카드는 받지 않는다. 알리페이에 사진을 등록하면 얼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할 수도 있다.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 한국경제(2017.11.12.), "아마존도 추격자로 전락시킨 알리바바의 신유통혁명",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1225801 (검색일: 2018.04.17)

37) 고객은 매장 입구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받은 QR코드를 찍고 들어간다. 쇼핑한 뒤 나가기 전 두 개의 검색대를 통과한다. 하나는 고객의 퇴장을 인식하고, 다른 하나는 상품을 스캔한 뒤 자동결제하는 검색대다. 두 개의 검색대를 통과하면 스마트폰에 '알리페이로 OO위안이 결제됐습니다'란 메시지가 뜬다. 타오카페는 직원 없이 알리바바의 셀프 감지 센서, 머신러닝(기계학습), 위치 추적, 이미지·음성 인식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기반해 운영된다. 매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는 고객이 어떤 상품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 몇 시에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등을 파악해 고객의 소비 취향을 분석한다. 한국경제(2017.11.12.), "아마존도 추격자로 전락시킨 알리바바의 신유통혁명",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1225801 (검색일: 2018.04.17)

【사회과학 분과】 발표 ⑨

한중금융산업의 파급효과 비교연구
— 2014년 한국투입산출표와 2012년 중국투입산출표를 중심으로

최정석*

1. 서론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40년 가까이 연평균 8%이상의 고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 동력 중 하나는 중국 금융산업으로, 선진국에 비하면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자금중개 기능 등을 통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 유발 및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여, 중국이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GDP대비 은행 자산은 200%를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금융자산의 80%이상이 은행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체 은행 총자산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국유상업은행의 경우, 중국 재정부 등 정부지분이 50-80%를 차지하는 등 금융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Bank around the World 자료기준, 시가총액 세계 10대 은행 중 4개가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공상은행(세계1위, 4조 50억 달러), 중국 건설은행(세계2위, 3조 3970억 달러), 중국 농업은행(세계3위, 3조 2320억 달러), 중국은행(세계4위, 2조 9890억 달러)순이다[1].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 4위까지 모두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이 차지하고 있고 이들 모두 자산총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중국 금융시장의 빠른 성장은 2007년 이후 현지화 영업을 통해 중국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금융기업들에도 새로운 수익창출 시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표1> 세계 주요은행 시가총액 순위

순위	은행명	국가	시가총액 (단위: 십억 달러)
1	ICBC	China	3,616(2015.6)→4,005(2017.12)
2	China Construction	China	2,939(2015.6)→3,397(2017.12)
3	Agricultural Bank	China	2,816(2015.6)→3,232(2017.12)
4	Bank of China	China	2,629(2015.6)→2,989(2017.12)
5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Japan	2,323(2015.6)→2,773(2017.12)
6	JPMorgan Chase & Co	USA	2,449(2015.6)→2,533(2017.12)
7	HSBC Holdings	UK	2,571(2015.6)→2,521(2017.12)
8	BNP Paribas	France	2,400(2015.6)→2,348(2017.12)
9	Bank of America	US	2,149(2015.6)→2,281(2017.12)
10	Credit Agricole Group	France	1,911(2015.6)→2,112(2017.12)

자료출처: Bank around the World(2018)

* 선문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조교수

1) Bank around the World Statistics, http://www.relbanks.com/worlds-top-banks/assets

이러한 변화는 2001년 WTO가입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는데, 중국의 경제대국화에 따른 금융대국화가 가시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위안화의 무역결제가 급속히 확대되며 중국의 금융시장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결제통화로서 위안화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대상 지역 및 기업 등을 2009년 이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시계열 순으로 살펴보면, 2009년 4월 5개 시범도시(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하이, 둥관)소재 홍콩 및 마카오 기업을 대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를 시범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7월에는 이들 시범도시와 광시, 윈난지역 중국기업의 아세안 10개국과의 무역거래 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였다. 2010년 6월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도시를 20개 성시로 확대하고 허용대상지역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위안화 무역결제를 허용하였으며, 2011년 3월 위안화 무역결제 가능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 12월 수출 분야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기업을 대폭확대(365개→67,359개)하였으며, 2012년 3월에는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를 허용하는 등 꾸준히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개방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분석이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 서비스산업의 주축인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2014년 한국투입산출표와 2012년 중국투입산출표를 통해, 후방연관효과는 영향력계수(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를, 전방연관효과는 감응도계수(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를 이용하여 금융산업과 관련 산업과의 각종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독창성

중국 금융산업의 투입산출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한국과 중국의 선행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구기보(2012)는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제도적 장벽이 무엇인지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이 WTO양허에 따라 금융시장을 개방한 내용과 양허와 무관하게 개방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하였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서 금융시장에 남아있는 제도적 장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2].

최정석 외(2011)은 중국 금융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금융산업과 기타 다른 산업과의 연관관계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금융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하여 2007년 중국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영향력계수(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와 감응도계수(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를 추산하여 금융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연관관계 및 각종파급효과 결과를 도출하였다[3].

유승훈 외(2008)는 수요유도형 모형, 공급 유도형 모형,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광고 산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 및 해석하는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광고 산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광고 산업은 높은 생산유발효과, 공급지장효과, 낮은 물가파급효과, 낮은 전방연쇄효과, 높은 후방연쇄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

유승훈 외(2008)는 수요 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방송 산업의 타 산업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다음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방송 산업의 공급지장효과 및 물가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방송 산업의 1원 생산은 타 산업 생산의 0.7059원, 타 산업 부가가치의 0.3970원 만큼 유발하였고, 방송 산업의 10억원 생산은 타 산업에서 7.919명의 취업을 창출하였다.

2) 구기보(2012) “중국 금융시장의 제도적 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동북아경제연구』, 24권 제1호.
3) 최정석·최준환, 2011. “중국 금융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2007년 중국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4) 유승훈·임응순·구세주. 2008. “광고산업의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 분석”, 『광고연구』

한편 방송 산업에서 1원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타 산업에서는 1.3083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하여 공급 지장효과가 제법 큰 편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방송 산업 산출물의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물가파급효과는 0.2926%로 분석되었다[5].

김용규 외(2002)는 전파 관련 제반 서비스 및 기기 산업을 '전파 산업'으로 정의하고 동산업의 경제적 비중과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내 전파 산업은 '2001년 GDP에서의 비중이 3.7%에 이르며,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12%에 이르고, 2002년 수출액이 약 100억불에 달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95년부터 '98년까지는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연구개발투자, 높은 수입유발효과 등으로 생산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6].

다음으로 중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伍健波(2009)은 1997년, 2000년, 2002년, 2005년의 중국통계연감의 투입산출표 자료를 이용하여 각 산업 부문간의 영향력 계수와 감응도 계수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 중국의 각 산업별간의 관련도의 변화를 예측하여 거시경제 조절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7].

郝晓燕 외(2011)는 2007년 중국투입산출표의 기초 자료를 근거로 하여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관련 산업의 거시적 효과, 관련 산업 부문의 구조적효과,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 등 3방면의 정량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유제품산업과 기타산업 부문과의 상호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135개 분류부문과 유제품 산업의 전방 관련도와 후방 관련도를 계산하여 중국 유제품산업의 관련 산업과의 특징을 밝혀냈다. 그들의 분석 결과 중국 유제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제품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기타 부문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8].

李慧 외(2011)는 2002년과 2007년 중국 투입산출표의 135개 분류부문을 정리하여 관광업과 기타 관련 산업과의 관련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관광업의 기본 투입과 수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언은 후, 직접소비계수와 완전소비계수의 분석을 통하여 관광업과 관련 산업 간의 소비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관광산업의 파급효과의 특징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9].

代雷娜(2011)은 2007년 신강(新疆)의 투입산출표를 기초로 하여 신강 지역의 각 산업 간의 관련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는 폐품폐기물, 설비제조업, 교통운송설비제조업,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전자설비제조업 등이 신강 경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초 위에 신강 지역의 중요 발전 산업들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부문 간의 발전현황을 대조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10].

金真(2011)은 2007년 하남성(河南省)의 144개 분류된 투입산출표를 기초로 하여 계산과 분류 작업을 하여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들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리고 물류업으로 분류하여 하남성의 물류업이 기타 다른 산업과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관련 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11].

耿献辉(2010)은 2007년 중국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중국 금융산업의 전체생산량을 계산하였으며, 중국 금융산업의 투입산출구조를 분해하였고 또한 금융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관련정도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중국 금융산업의 산업 특징과 발전규칙과 추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점은 금융산업과 관련된 기타 관련부문의 분석에 있어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는 것이다[12].

중국 금융산업의 투입산출과 관련된 국내문헌과 중국문헌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선행연구는 최정석, 최준환의 연구를 제외하면 중국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연관 자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미비하였고, 금융산업군과 비슷한 서비스산업인 전파 산업, 광고 산업, 방송 산업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반해 중국의 선행연구는 거시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지역 투입산출표를 활용한 미시적인 분석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5) 유승훈·임응순·구세주. 2008.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방송 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송과 커뮤니케이션』
6) 김용규·김택식. 2002. "전파 산업의 경제적 비중과 산업연관효과",『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 伍健波, 2009. "基于投入产出表的产业关联度分析",『中国集体经济』, 第33期.
8) 郝晓燕·巩芳, 2011. "我国乳业产业关联分析－基于2007年中国投入产出表",『内蒙古财经学院学报』, 第2期.
9) 李慧·王辉·石伟, 2011. "我国旅游业与其相关产业的关联分析－基于投入产出表的分析,『现代商贸工业』, 第1期.
10) 代雷娜. 2011. "基于投入产出表的新疆产业关联度分析",『山东纺织经济』, 第5期.
11) 金真. 2011. "能源业与物流业的协同发展： 基于河南省投入产出标的实证",『统计与决策』, 第4期.
12) 耿献辉. 2010. "基于投入产出表的中国金融业分析: 结构与关联",『上海金融』, 第7期.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선행연구 한계점을 보완 개선하여 2014년 한국투입산출표와 2012년 중국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금융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연구를 토대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거시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금융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를 한눈에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점은 독창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발간되는 산업연관표와는 달리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가 도출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에 각각 대입하여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차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2014년 한국 투입산출표와 2012년 중국 투입산출표를 통해 영향력, 감응도계수를 분석하여, 한중 금융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중국 투입산출표는 5년에 한 번 출간되고 있고, 전국 단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지역별로 모든 도시를 연구하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본 연구는 2014년 한국 투입산출표와 2012년 중국 투입산출표를 기준으로 한중 금융산업의 발전이 국가경제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였는지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해보고 보다 세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인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향력계수(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에 대하여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때,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곧 어떤 산업이 다른 산업 생산물을 자본재로 구입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 또는 imfact factor라 하며, 간략히 IF라고도 한다. 영향력계수(F_j

1이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j = 1, 2, 3, \cdots\cdots)$$

그이면, j번째 부문의 생산이 기타 부문에서 생산된 최급영향정도에 대해 사회평균영향수치보다 같은 것을 뜻하고,

그이면, j번째 부문의 생산이 기타 부문에서 생산된 최급영향정도에 대해 사회평균영향수치와 같은 것을 뜻하며,

(1이면, j번째 부문의 생산이 기타 부문에서 생산된 최급영향정도에 대해 사회평균영향수치보다 적은 것을 뜻한다. 곧은적으로 영향력계수가 평수록 해당부문이 기타산업에 대해 촉진적함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감응도계수(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등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 합계를 전 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일반적으로 적유제품과 같이 그 제품이 각 산업 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크다. 감응도계수(

E_i

E_i

1이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i = 1, 2, 3, \cdots\cdots)$$

면, i번째 부문이 받은 감응정도가 사회평균 감응도 수준과 같은 것을 뜻하며, E_i 〈 1이면, i번째 부문이 받은 감응정도가 사회평균 감응도 수준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감응도계수가 클수록 다른 산업의 자본재로 많이 사용됨을 뜻하므로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4. 실증분석

1) 영향력계수의 분석

본 논문에 사용된 연구도구로는 중국에서 발표된 2012년 투입산출표 중에서 42개 부문의 생산유발계수표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금융산업과 관련이 깊은 (생산유발계수가 높음)19개 부문[13]을 재분류하여 영향력 계수를 측정하였다. 이상 금융산업과 관련 깊은 12개 부문을 가지고, 영향력계수를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표2> 2012년 중국 금융산업의 영향력 계수

	영향력계수
17 전문설비제조업	3.780887
27 물 생산 및 공급	2.623895
21 계량/계측기 제조업	1.340107
20 통신설비 및 기타전자설비 제조업	1.293867
19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1.252527
16 일반제조업	1.236126
24 금속제품, 기계설비 수리서비스	1.235980
15 금속제품업	1.221107
14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1.176323
28 건축업	1.123992
26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	1.072297
25 전력, 난방생산 및 공급	1.049326
35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1.006274
36 연구/실험개발업	0.985279
02 석탄채굴업	0.950153
30 교통운수 및 창고업/우편업	0.924829
37 수력/환경/공공설비 관리업	0.882115
33 금융업	0.670877
34 부동산업	0.535869

자료출처 : 중국 2012년 투입산출표의 42개 부문 완전소비계수 중, 0.1이상의 19개 부문을 에 대입하여 본인재작성. 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2016), 「2012年中国投入产出表」, 北京:中国统计出版社, 0.1이상의 기준은 총 42개 부문 완전소비계수 중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본인이 임의대로 기준을 정해 상위계수 19개 부문을 선택한 것임.

13) 생산유발계수 중, 금융산업과 관련계수가 0.1기준으로 그 이상인 19개 부문을 선정하였다. 02 석탄채굴업、14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15 금속제품업、16 일반제조업、17 전문설비제조업、19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20 통신설비 및 기타전자설비 제조업、21 계량/계측기 제조업、24 금속제품, 기계설비 수리서비스、25 전력, 난방생산 및 공급、26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27 물 생산 및 공급、28 건축업、30 교통운수 및 창고업/우편업、33 금융업、34 부동산업、35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36 연구/실험개발업、37 수력/환경/공공설비 관리업 자료출처 : 중국 2012년 투입산출표의 42 부문 생산유발계수 중, 본인 재작성. 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 2016. "2012年投入产出表", 中国统计出版社.

<표2>를 보면, 전문설비제조업이 3.780887, 물 생산 및 공급업이 2.623895, 계량/계측기 제조업이 1.340107로 1.340107-3.780887에 분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영향력계수의 변화 폭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 금융산업이 1단위를 추가 투입함에 따라 이들 부문이 1.340107-3.780887단위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중국의 금융산업은 과거에 비해 중국경제 각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국 정부가 200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등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도시화를 포함한 내수확대정책에 힘입어 점차 중국 금융산업이 기존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제조업금융으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연계하여 영향력이 배가 되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감응도계수의 분석

이번 분석 역시 중국에서 최근 발표된 2012년 투입산출표 중에서 42개 부문의 생산유발계수표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금융산업과 관련이 깊은 (생산유발계수가 높음)14개 부문[14]을 가지고, 다시 감응도 계수 공식에 대입하여 수치를 계산하였다. 이상 금융산업과 관련 깊은 14개 부문을 가지고, 감응도계수를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표3> 2012년 중국 금융산업의 감응도 계수

	감응도계수
12 화학공업	3.451570
14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2.891365
25 전력, 난방생산 및 공급	1.932049
01 농림목어업	1.816505
29 도소매업	1.613322
33 금융업	1.596233
30 교통운수 및 창고업/우편업	1.529516
11 석유가공, 정제/핵연료 가공업	1.458722
06 비금속 광물 및 기타채굴업	1.334023
35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1.099991
10 제지, 인쇄 및 문화체육용품 제조업	0.973310
31 숙박 및 요식업	0.638243
34 부동산업	0.604929
32 정보전달, 컴퓨터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0.567153
02 석탄채굴업	0.950153
30 교통운수 및 창고업/우편업	0.924829
37 수력/환경/공공설비 관리업	0.882115
33 금융업	0.670877
34 부동산업	0.535869

자료출처 : 중국 2012년 투입산출표의 42개 부문 완전소비계수 중, 0.03이상의 14개 부문을 $(I-A)^{-1}$

<표3>의 결과를 보면, 화학공업이 3.451570,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이 2.891365, 전력/난방생산 및 공급이 1.932049로, 1.932049-3.451570에 분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감응도계수 역시 변화 폭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 금융산업이 1단위를 추가 투입함에 따라 이들 부문이 1.932049-3.451570단위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중국의 금융산업은 과거에 비해 중국경제 각 산업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국 정부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도시화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 각종 인프라 및 고정설비작업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각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이며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여, 중국 서비스산업의 주축인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2012년 중국 투입산출표를 통해 영향력계수(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와 감응도계수(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를 이용하여 금융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연관관계 및 각종파급효과를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금융산업의 영향력 계수를 살펴보면, 2012년은 전문설비제조업이 3.780887, 물 생산 및 공급업이 2.623895, 계량/계측기 제조업이 1.340107로 1.340107-3.780887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 금융산업이 1단위를 추가 투입함에 따라 이들 부문이 2012년 1.340107-3.780887단위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중국의 금융산업은 과거에 비해 중국경제 각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 금융산업의 감응도 계수를 살펴보면, 2012년은 화학공업이 3.451570,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이 2.891365, 전력/난방생산 및 공급이 1.932049로, 1.932049-3.451570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 금융산업이 1단위를 추가 투입함에 따라 이들 부문이 2012년 1.932049-3.451570단위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중국의 금융산업은 과거에 비해 중국경제 각 산업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국 정부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도시화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위해 각종 인프라 및 고정설비작업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분석의 시기가 2012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최근 급변하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고려하지 못한 중국정부의 중요한 금융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안화의 국제화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주변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중국정부는 2001년 WTO가입을 통해 2006년까지 5년 간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했으며, 2009년부터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자국통화의 지역 및 기축통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2016년 8월 16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선강통(深港通)실시방안이 비준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2014년 11월 상하이와 홍콩 시장 교차 거래를 허용한 후강통(沪港通)에 이은 중국의 두 번째 증시 개방 조치로서, 대형주 위주의 후강통에 비해 개인투자자가 선호하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금융산업은 2012년 산업연관표에 분석된 계수와는 달리 최근 발표된 정책 내용들이 향후 발간될 2017년 산업연관표에 포함이 된다면, 2007년에 비해 2012년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중국 금융산업의 파급효과가 증가되었다면, 2017년에는 2012년에 비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본 연구와 더불어 향후 발표될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과거 선행연구를 초석으로 삼아 중국 금융산업을 비교분석한다면, 학문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중국정부의 금융정책에 발맞추어 중국에 이미 진출한 금융기업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구기보. 2012. “중국 금융시장의 제도적 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동북아경제연구』, 24권 제1호.
김용규·김택식. 2002. “전파 산업의 경제적 비중과 산업연관효과”,『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용준·최정석. 2011, “중국 유통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박상호·백승혜·임병오, 2016. “2016년 하반기 중국증시 투자전략”, 하나금융투자
유승훈·임응순·구세주. 2008. “광고산업의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 분석”,『광고연구』
유승훈·임응순·구세주. 2008.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방송 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지만수. 2014. “2014년 중국금융개혁의 방향”,『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브리프』.
최정석, 최준환. 2011. “중국 금융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2007년 중국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한재진, 천용찬. 2014. “위안화 국제화평가와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伍健波. 2009. “基于投入产出表的产业关联度分析”,『中国集体经济』, 第33期.
郝晓燕·巩芳. 2011. “我国乳业产业关联分析－基于2007年中国投入产出表”,『内蒙古财经学院学报』, 第2期.
李慧·王辉・石伟. 2011. “我国旅游业与其相关产业的关联分析－基于投入产出表的分析”,『现代商贸工业』, 第1期.
代雷娜. 2011. “基于投入产出表的新疆产业关联度分析”,『山东纺织经济』, 第5期.
金真. 2011. “能源业与物流业的协同发展： 基于河南省投入产出标的实证,『统计与决策』, 第4期.
耿献辉. 2010. “基于投入产出表的中国金融业分析: 结构与关联,『上海金融』, 第7期.
蒋昭侠. 2005.『产业结构问题研究』, 北京:中国经济出版社.
刘起运·陈璋. 2006.『投入产出分析』, 第6页.
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 2016.「2012年投入产出表」, 北京: 中国统计出版社。
国务院. 2016. “深港通实施方案”, 中国政府网.
中国证监会与香港证监会联合. 2016. “证监会 ： 深港通将不再设总额度限制”.
Bank around the World Statistics.

【메 모】

【메 모】